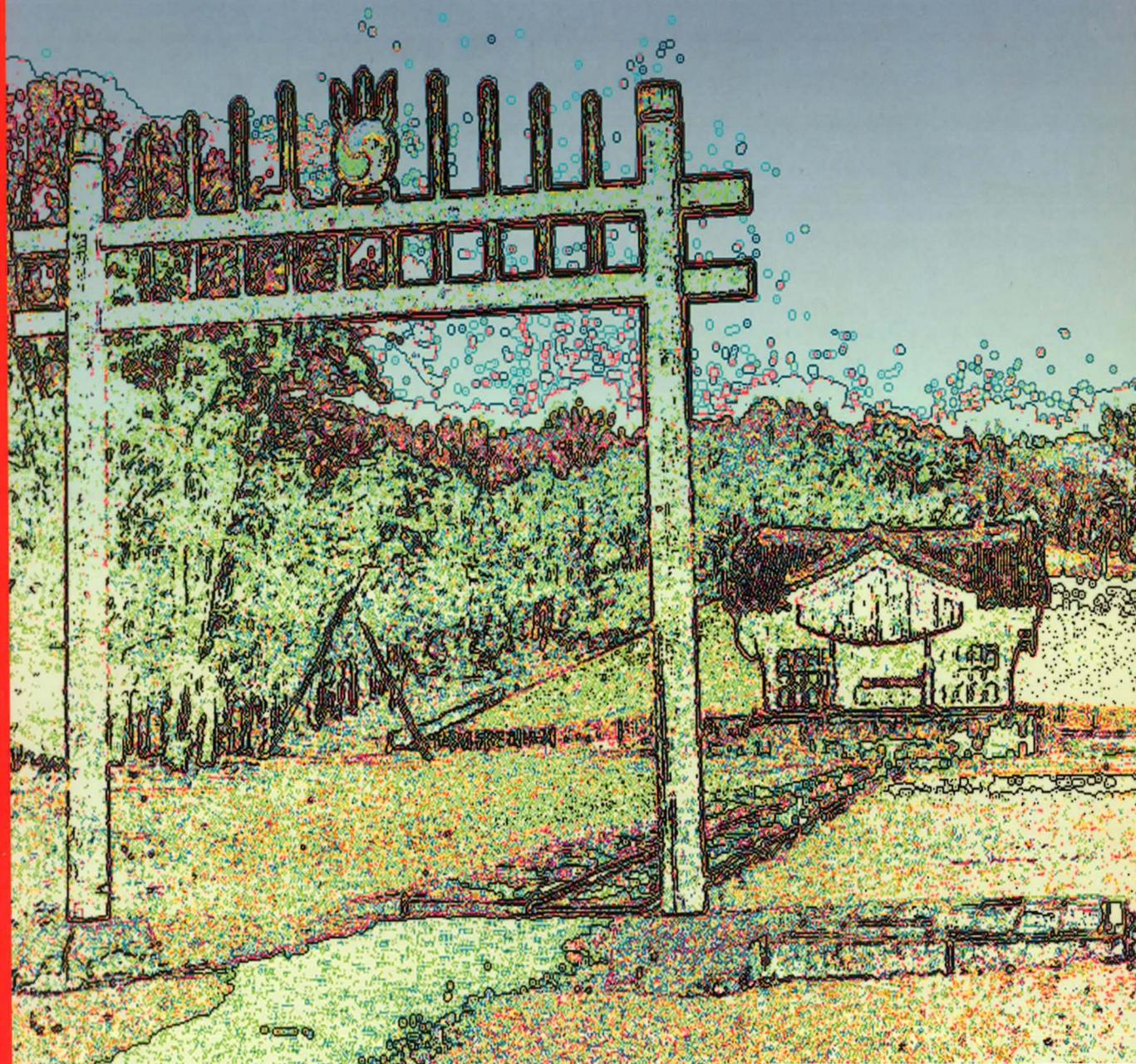


구리의 역사와 문화

구리시



구리의 역사와 문화



고장의 역사를 일깨워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구리시는 한반도 역사의 중심무대였던 한강 유역에 속해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역대 왕릉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동구릉과 고대 3국 고구려·백제·신라의 각축장으로서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아차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앞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구리시는 앞으로도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경기 동북부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리시는 1986년 시로 승격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 창달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구리시지』가 발간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리의 전통과 문화를 집대성한 『구리시지』는 한정본으로 발간되어 매우 안타깝게도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리시지편찬위원회에서는 『구리시지』 내용의 정수만을 축약, 재집필한 『구리의 역사와 문화』를 간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권의 책자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와 빛나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6년 4월

구리시장 이꾸성



구리~양평 간 도로



아차산에서 바라본 구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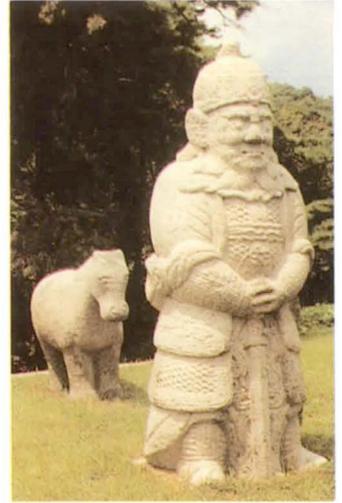




건원릉 전경



건원릉 문인석



건원릉 무인석



송릉 정자각



현릉(문종릉)의 호석과 석난간



선조릉에서 바라본 목릉 전경



건원릉 제례



아차산 전경



우미내 석곽분



아차산 고구려 유적 채집토기 장동호



아차산 고구려 유적 채집토기 광구호



나만갑 신도비



명빈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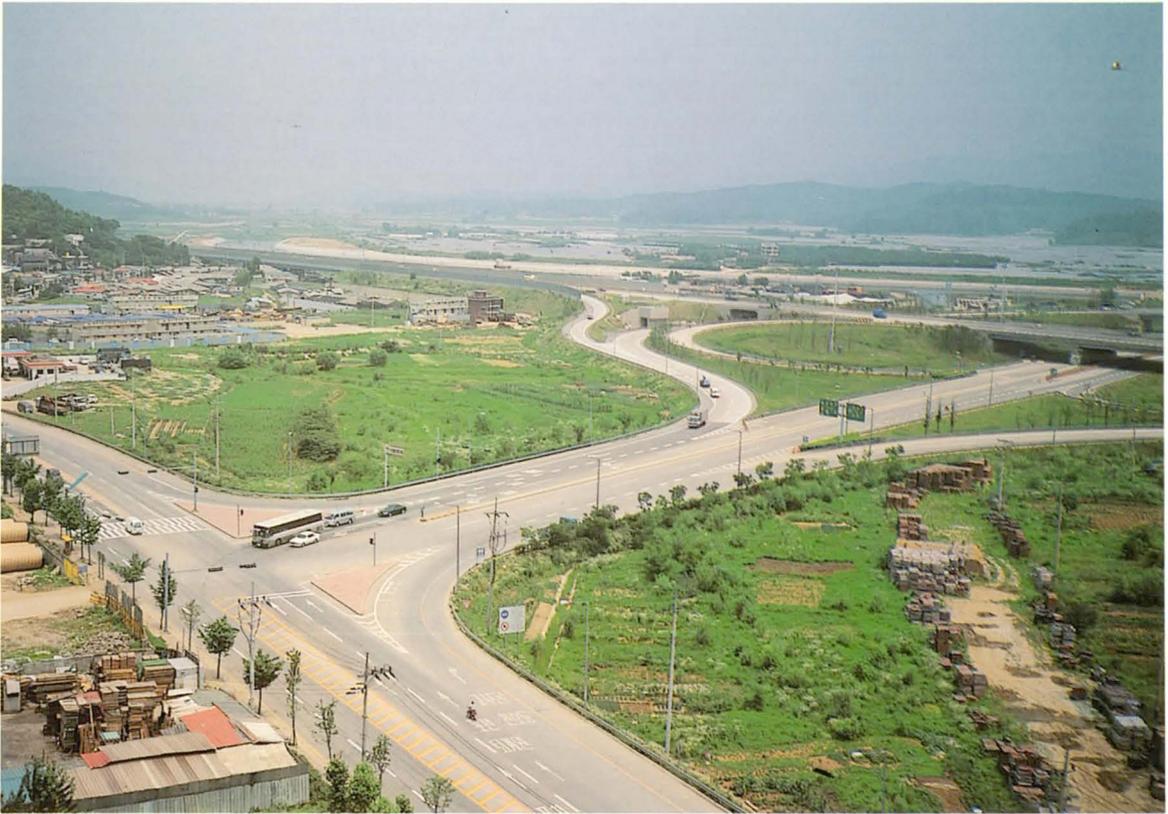
남양 홍씨 묘역



장지못



아천동 은행나무



구리인터체인지입구



교문사거리



교문2동 아파트단지



인창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아치울



갈매동



토평동 비닐하우스단지



배꽃



시청사



시의회 의사당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체육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공식



먹골배 직판장



구리시장



동현종합상가



갈매동 도당굿(대감놀이)



갈매동 도당굿(유가)



북메우기(단청)



별말다리밟기



시민의 날 입장식



사생대회



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구리시 여성합창단



경기도체육대회 입장식



시민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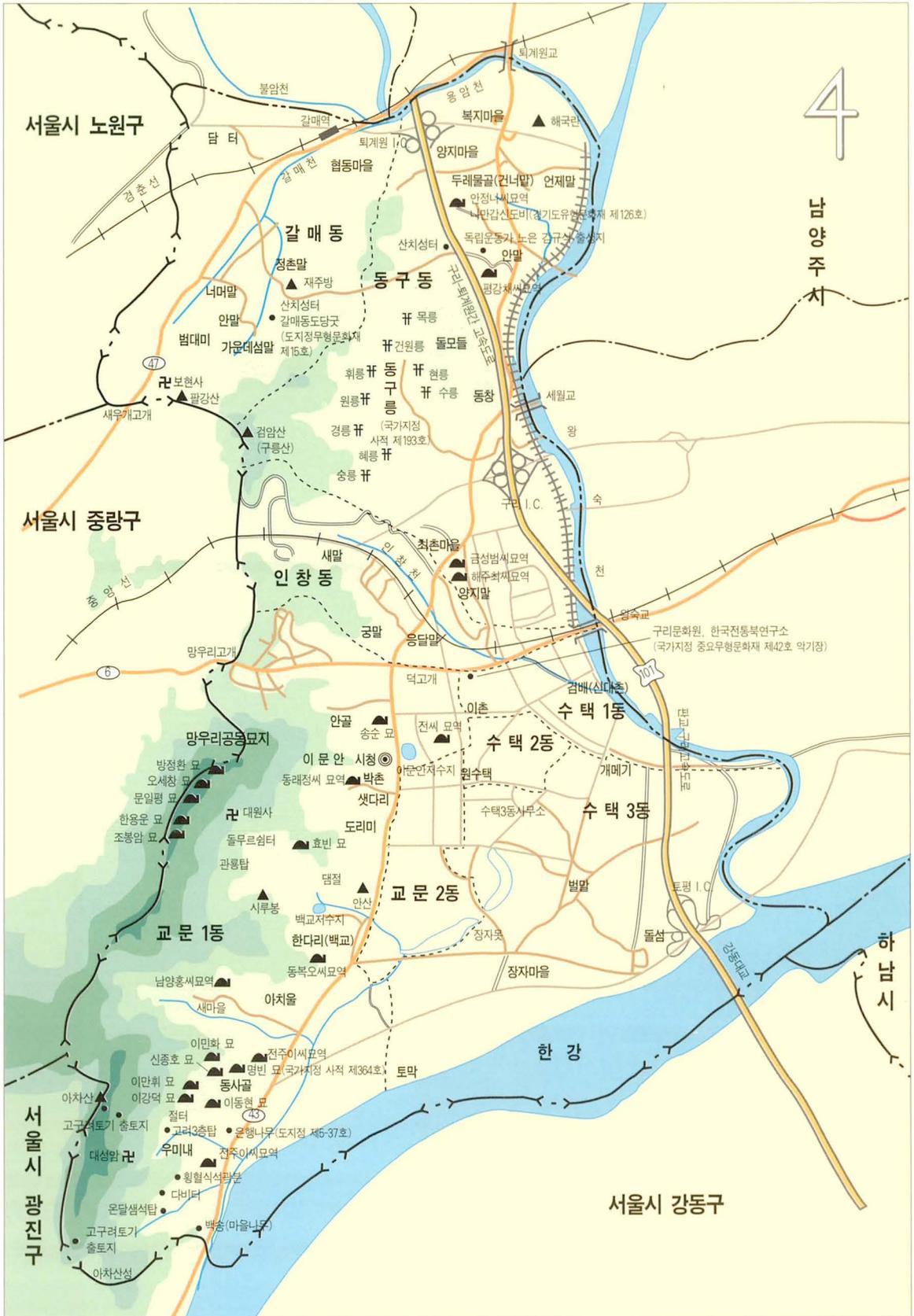


광복50주년 건강달리기



- ① 구리파출소
- ② 교문사거리
- ③ 구리농협
- ④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⑤ 교문리병원
- ⑥ 구리우체국
- ⑦ 한국통신 구리전화국
- ⑧ 구리병원
- ⑨ 구리문화원
- ⑩ 석교파출소
- ⑪ 구리종합시장
- ⑫ 구리기독병원
- ⑬ 구리백병원
- ⑭ 구리농협 새터지소
- ⑮ 수택배수펌프장
- ⑯ 수택파출소
- ⑰ 구리보건소
- ⑱ 교문국교
- ⑲ 신구전력 구리지점
- ⑳ 교문1동우체국
- ㉑ 남양주세무서
- ㉒ 시립도서관
- ㉓ 실내체육관

구리시 행정지도



구리시 문화유적도

일러두기

1. 본책 『구리의 역사와 문화』는 구리의 역사를 집대성한 『구리시지』 상·하권의 축소 별책이다. 본책의 내용은 『구리시지』 상·하권을 기본으로 목차를 축약, 재구성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재집필하였다.
2. 본책은 7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 자연환경, 역사, 현대사회, 문화유산, 지명유래, 인물을 각각 7개 장에 담았으며 부록에는 연표와 색인을 실었다.
3. 서술대상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구리시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제3장 역사에서는 인근 지역의 관련 역사와 조선시대의 구지면 및 일제시대의 구리면을 포함하였다. 제5장 문화유산에서도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속해있는 아차산 전 지역의 문화유산을 서술대상으로 하였다.
4. 인물은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로 구리시에서 태어났거나 살았던 사람 그리고 묘가 있는 사람들을 수록하였고, 생존인물은 제외시켰다.
5. 인물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였다.
6. 제4장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의 경우 최근 행정기구 개편과 1995년, 1996년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다. 나머지는 해당 내용 서술시점의 행정명칭을 사용하였다.
7. 본책의 서술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같이 써야 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하였다.
8.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조년을 부기하였으며, 태양력이 채용된 1896년 이전의 연대는 음력을, 그 이후는 양력을 사용하였다.
9. 본책은 각주를 부기하지 않고 해당 항목에서 괄호를 달아 바로 설명하였다. 보다 자세한 자료나 참고문헌은 『구리시지』 상·하권을 참고할 수 있다.

- 발간사
- 화 보
- 일러두기

제1장 연혁

제1절 시 연혁	3
1. 삼한시대	3
2.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3
3. 고려시대	5
4. 조선시대	6
5. 일제시대	6
6. 대한민국	8

제2절 동 연혁	11
1. 갈매동	11
2. 사노동	11
3. 인창동	12
4. 교문동	12
5. 수택동	12
6. 아천동	13
7. 토평동	13
8. 동구동	14
9. 교문1·2동	14
10. 수택1·2·3동	14



제2장 자연환경

제1절 위치와 면적	17
제2절 지 형	18
1. 지 세	18
2. 산 지	18
3. 구릉지 및 곡저 축적평야	21
4. 하 천	23
5. 저수지	24
제3절 지질과 토양	26
1. 지 질	26
2. 토양분포	28
제4절 기 후	30
1. 기 온	30
2. 강수량	30
3. 연중날씨	31
4. 자연재해	32
제5절 생태계	34
1. 산 림	34
2. 녹지자연도	35
3. 식물분포	37
4. 조 류	40
1) 여름철새	41
2) 겨울철새	42
3) 텃 새	42



4) 나그네새	44
---------	----

제3장 역 사

제1절 선사시대	47
1. 구석기시대	47
2. 신석기시대	48
3. 청동기시대	50
제2절 고 대	54
1. 삼한시대	54
2. 백제와 아차산	54
3. 고구려의 아차산 점령과 개로왕의 죽음	57
4. 신라의 진출과 삼국통일	59
제3절 고려시대	60
1. 후삼국시대와 고려 건국	60
2. 양주, 남경, 한양부에 속한 구리	60
3. 이민족의 침입과 구리	61
제4절 조선시대	63
1. 조선의 건국과 구지면	63
2. 임진왜란과 후기의 사회변동	64
제5절 한 말	67
1. 제도개혁과 사회구조의 변동	67
2. 토지소유제도의 변동	68
1) 역둔토 정리사업	69

2) 구리지역의 역둔토	70
3. 의병활동	71

제6절 일제시대	73
1. 식민지 체제와 구리면의 성립	73
1) 식민지 지배의 확립	73
2) 행정구역 개편	73
2. 토지조사사업	74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74
2) 구리에서의 토지조사사업	75
3. 3·1운동과 무장 독립운동	77
4. 수탈정책	79
5. 전시억압체제와 주권회복운동	80

제7절 현 대	82
1. 8·15해방과 분단	82
2.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86
3. 한국전쟁	88
4. 농지개혁	91

제4장 현대사회

제1절 도시화	99
1. 인구의 변화	99
2. 토지이용의 변화	101
3. 도시기능	102
4. 도시계획	104
5. 건 설	107



1) 주택	107
2) 도로	108
3) 기타 시설	110
제2절 정치와 행정	112
1. 지방자치제도	112
1) 지방자치의 역사	112
2) 시의회	114
(1) 기능과 권한	114
(2) 시의원의 의무	116
(3) 의정활동	117
2.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118
1) 대통령선거	118
2) 국회의원선거	119
3. 시 행정	125
1) 총무국	126
2) 개발국	127
3) 의회사무과	128
4) 기획감사실	128
5) 경영정책실	129
6) 문화공보실	129
7) 보건소	129
8) 환경사업소	129
4. 동 행정	130
1) 갈매동	131
2) 동구동	131
3) 인창동	131
4) 교문1동	131
5) 교문2동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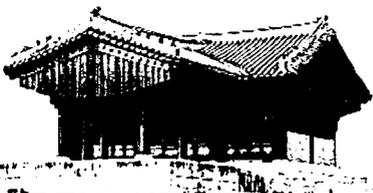
6) 수택1등	132
7) 수택2등	132
8) 수택3등	133
5. 재 정	133

제3절 산 업 141

1. 농 업 141	141
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141	141
2) 농업생산조건 142	142
3) 농업생산물 144	144
4) 농업협동조합 147	147
2. 상업 및 서비스업 147	147
1) 상 업 147	147
2) 서비스업 151	151
3. 제조업 152	152
1) 개 황 152	152
2) 업종별 제조업현황 153	153
4. 축산업 154	154

제4절 시민생활 156

1. 사회복지 156	156
1) 의료복지 156	156
2) 장애인 및 영세민복지 158	158
3) 노인복지 159	159
4) 국가보훈 160	160
5) 범 죄 160	160
6) 사회복지시설 160	160
2. 교육여건 161	161
1) 유아교육 161	161



2) 학교교육	163
3) 사회교육	166
3. 문화적 환경	166
1) 종교	166
2) 예술	169
3) 체육	170
4) 언론	172
5) 문화기관·단체 및 문화행사	173
4. 환경오염	174
1) 대기오염	175
2) 수질오염	176
3) 기타 환경오염	177
4) 환경 관련 시설	178
5. 시민운동	178

제5장 문화유산

제1절 문화재의 개념과 보존	185
1. 문화재의 정의	185
2. 문화재의 지정과 분류	186
3. 구리시의 문화재 조사	188
제2절 아차산의 유적·유물	191
1. 아차산성	191
2. 고구려 유적·유물	192
3. 고분	194
4. 불교유적	195
1) 절터	195

2) 탑	196
------	-----

제3절 동구릉 198

1. 건원릉	200
2. 현릉	203
3. 목릉	206
4. 휘릉	209
5. 송릉	211
6. 해릉	213
7. 원릉	215
8. 수릉	218
9. 경릉	220

제4절 선현 묘역 223

1. 명빈 김씨 묘	223
2. 나만갑 묘 및 신도비	224
3. 나성두 묘	225
4. 홍응 묘	226
5. 홍상 묘	226
6. 범경문 묘	227
7. 신중호 묘	228
8. 이민수 묘	228
9. 이정빈 묘	229
10. 채유후 묘	230
11. 송순 묘	230
12. 효빈 김씨 묘	231

제5절 북메우기 232

1. 북의 연원과 우리나라의 북 역사	232
----------------------	-----



2. 전통복의 종류	232
3. 전통복의 재료와 제작공구	235
4. 전통복 제작순서	236
1) 가족다루기	238
2) 북통짜기	238
3) 북통씩우기	238
4) 북메우기	238
5) 소리고르기	239
6) 단 칭	239
5. 전통복의 전승현황	239

제6절 갈매동 도당굿	241
1. 개요	241
2. 절차와 내용	242

제7절 설 화	249
----------------	-----

제6장 지명유래

제1절 '구리'의 유래	255
---------------------	-----

제2절 주요 산·천·고개의 유래	257
--------------------------	-----

제3절 각 동 지역의 유래	259
1. 갈매동	259
2. 동구동	260
3. 인창동	261
4. 교문1·2동	262

제7장 인물

제1절 고려·조선시대 인물

고언백	오정위
나만갑	이역기
나성두	이 척
나양좌	이 충
범경문	정기원
송 순	조운출
신 잠	채유후
신종호	홍 상
오억령	홍 응
오 익	

제2절 근현대 인물

김규식	이강덕
문일평	조봉암
방정환	지석영
심점봉	한용운
오세창	

부 록

연 표
색 인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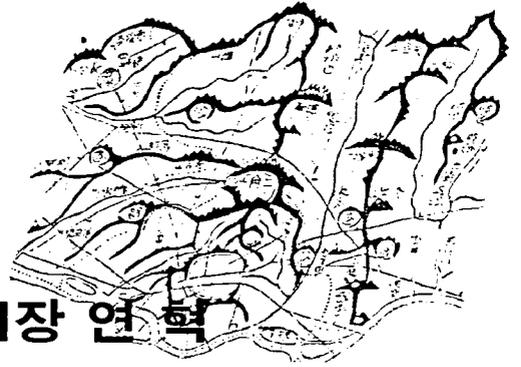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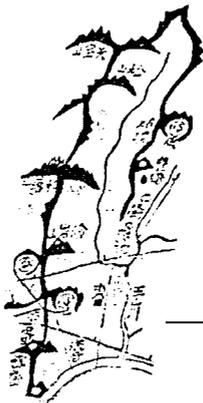


제1장 연혁

제1절 시 연혁

제2절 동 연혁

구리의 역사와 문화



제1절 시 연혁

구리시는 서쪽에 아차산이 솟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왕숙천이 감싸 흐르는 곳이다. '아차산 일대의 한강 유역'은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로 선사시대 이래 우리 역사의 중심지역 중의 하나였다. 삼국시대에는 백제·고구려·신라 간의 각축장으로서 삼국은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려고 도모하였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정치·경제·문화·군사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도성(都城)의 인근인 이른바 '경기지역(京畿地域)'에 속해 있었다.

아차산 일대, 즉 지금의 구리지역이 특히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고대이다. 우선 아차산에서 바로 마주보이는 강 건너에 수도가 있었던 백제와 이를 차지하려고 남하한 고구려 간에 벌어진 치열한 접전 그리고 후발국인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이 고대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와 지금의 서울과 그 인근 지역은 양주(楊州)라는 명칭과 함께 남경(南京)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현 구리지역은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과 궤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지역에 도움이 들어서고 '양주'라는 명칭이 점차 주변으로 밀려났다. 조선시대에 비로소 구리지역은 양주의 일원으로서 '구지면'이라는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명칭을 갖게 되었다.

1. 삼한(三韓)시대

삼한사회는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삼한사회는 마한·진한·변한을 지칭하는데 지금의 구리지역은 그 중에서 마한에 속하였다. 마한의 영역은 지금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마한은 54개의 국(國)을 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고리국(古離國)을 양주·풍양 일대로 비정하는 학설이 있다. 이러한 위치비정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아직 단정할 수 없다.

2.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구려와 백제는 국경을 마주하게 된 이후 끊임없이 서로간의 침입전쟁을 벌였다. 고대 역사는 사료가 부족하여 한강 유역의 판도가 언제부터 어디에 속했는

지역과 한강 유역은 이때 고구려에 속하여 국경의 남단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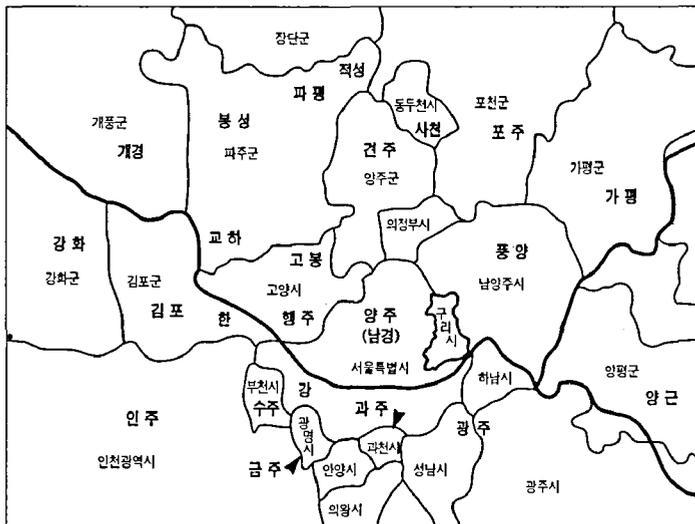
475년(장수왕 63) 9월 고구려 장수왕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 번 백제를 공격하였다. 장수왕은 이때 백제의 도읍지였던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아차산에서 죽이는 한편 계속 남진하여 한강 이남의 넓은 지역을 고구려 판도에 넣었다. 이때 구리지역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한 북한산군(北漢山郡: 지금의 서울지역) 관내인 골의노현(骨衣奴縣)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한동안 한강 하류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는데, 551년(성왕 29)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이를 차지함으로써 한강 하류지역은 다시 백제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553년(진흥왕 14)에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공격하여 이 지역은 또다시 신라 영역으로 바뀌었다.

신라는 757년(경덕왕 16) 북한산군 지역에 한양군을 설치하고 현 남양주시 진접·진건지역을 골의노현에서 황양(荒壤)으로 개칭하였다. 황양은 한양군에 속하였는데, 지금의 구리지역도 이곳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 현 구리지역은 양주 또는 남경 관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양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 한양군이었던 지금의 서울지역은 고려 초기 양주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그 뒤 983년(성종 2) 12목 지방제도를 만들 때 양주목(牧)이 되었다. 995년(성종 14)에는 10도제와 12개 주(州)에 절도사를 두었는데, 이때 양주는 관내도(경기·황해도지역)에 속했다. 이때 고려 조정은 양주를 좌신책군(左神策軍), 해주를 우신책군(右神策軍)이라



<지도 3> 현 구리지역 주변의 고려시대 지명

하여 좌우 2보(輔)로 삼았다.

1012년(현종 3)에는 2보와 12절도사를 폐지하고 안무사(安撫使)를 두었으나 1018년(현종 9) 양주는 다시 지주사(知州事)로 강등된다. 그 후 1067년(문종 21)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되었다가 곧이어 격하되고 숙종 때 다시 남경으로 승격된다. 이때 구리지역도 남경의 직할지가 되었다. 이후 1308년(충선 왕 즉위) 남경은 한양부(漢陽府)로 격하되었다. 고려시대 현 구리지역의 보다 자세한 연혁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4. 조선시대

1394년(태조 3) 지금의 서울이 조선의 도읍으로 자리잡으면서 한양부는 한성 부라 개칭되고 양주의 치소는 아차산 남쪽 대동리로 옮겨졌다. 이 대동리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지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의 구리지역과 당시 양주의 치소는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던 셈이다. 이후부터 현 구리지역의 연혁은 '양주'의 한 부분이 되어 변화한다.

이때 양주는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되었다. 1395년(태조 4) 양주부로 다시 승격되었고, 2년 뒤인 1397년(태조 6) 양주의 치소가 고주내(현 양주군 고읍리)로 옮겨졌다. 1410년(태종 10) 양주목으로 승격되었다가 1413년(태종 13)에는 양주도호부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에 다시 양주목으로 승격되고 풍양현을 속현으로 두었다. 1504년(연산군 10)에 양주목을 폐지하고 왕의 사냥터로 만들었으나, 1506년(중종 1) 다시 양주목으로 복구되고 치소를 불곡산 남쪽(지금의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유양리는 양주의 관아가 있는 중심지로 자리잡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유양리에서 지금의 구리지역까지는 약 40~60리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현재에도 익숙한 구지(龜旨·九旨)라는 명칭은 1530년(중종 25)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나온다. 이후에도 구지면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912년에 발간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일제에 강제 합병되기 전 양주군에 편제되어 있던 32개 면이 나와 있다. 그리고 각 면에 속한 마을도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구지면은 사노리(四老里), 인장리(仁章里), 수택리(水澤里), 백교리(白橋里), 토막리(土幕里), 동창리(東倉里), 이문리(里門里), 평촌리(坪村里), 아차동(峨嵯洞), 우미천리(牛尾川里) 등 10개 마을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10개 마을은 조선 중기 이래 구지면을 구성하고 있던 기본적인 마을이었다.

5. 일제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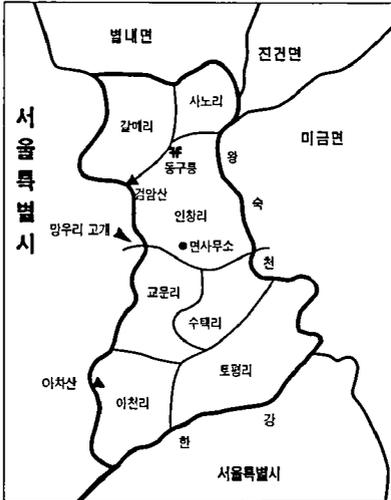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후 1914년에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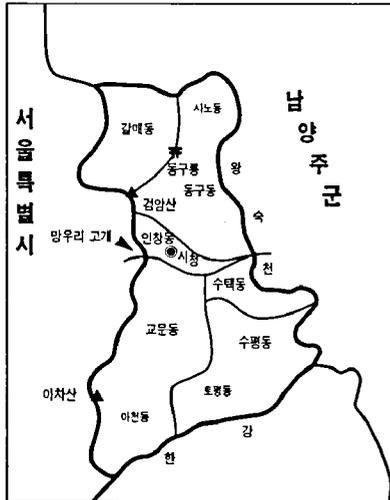
<지도 4> 조선시대 구지면



<지도 5> 1914년의 구리면



<지도 6> 1963년의 구리면



<지도 7> 1986년의 구리시

다. 현 명칭인 '구리'는 이때 생겨났다. 즉, 이때의 행정구역 통·폐합시 구지면의 사노리, 인장리, 수택리, 백교리, 토막리, 동창리, 이문리, 평촌리, 아차동, 우미천리 등 10개 리와 망우리면(忘憂里面)의 묵동리(墨洞里), 신현리(新峴里), 능후동(陵後洞), 방축리(防築里), 직곡리(稷谷里), 봉황동(鳳凰洞), 내동리(內洞里), 능내동(陵內洞), 양원리(養源里), 입암리(笠岩里), 봉현리(烽峴里), 상리(上里), 중리(中里), 하리(下里), 능곡리(陵谷里) 등 15개 리 그리고 노원면(蘆原面)의 장기리(牆基里)와 갈매동(葛梅洞), 미음면(溟陰面) 수변리(水邊里)와 석도리(石島里) 각 일부, 진관면(眞官面) 배양동(培養洞) 일부, 별비면(別非面) 퇴계원리(退溪院里) 일부를 병합하여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따서 구리면이라 하였다. 개편된 구리면에는 묵동리, 중하리(中下里), 상봉리(上鳳里), 신내리(新內里), 망우리(忘憂里), 인창리(仁倉里), 사노리, 교문리(橋門

리), 수택리, 토평리(土坪里), 아천리(峨川里), 갈매리(葛梅里) 등 12개 마을이 편제되었으며, 면사무소는 교문리에 두었다.

당시 행정구역 개편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14년 행정구역 개편내용

개편된 리명	개 편 내 용
목동리	망우리면 목동리·내동리·하리 각 일부
중하리	망우리면 중리·하리 각 일부
상봉리	망우리면 상리·봉현리·봉황동 전부, 중리 각 일부
신내리	망우리면 신현리·능후동·능내동 전부, 내동리·능곡리 각 일부, 노원면 묘동리 일부
망우리	망우리면 양원리·방축리·입암리 전부, 능곡리 일부
인창리	구지면 동창리·인장리 각 일부
사노리	구지면 사노리·동창리 각 일부, 진관면 배양동 일부, 별비면 퇴계원리 일부
교문리	구지면 이문동·백교리 전부, 인장리 일부
수택리	구지면 수택리·인장리·평촌리 각 일부, 미음면 수변리 일부
토평리	구지면 평촌리·토막리·수택리 각 일부, 미음면 수변리·석도리 각 일부
아천리	구지면 아차동·우미천리 전부, 토막리 일부
갈매리	구지면 사노리 일부, 노원면 장기리와 갈매동 전부

6. 대한민국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구리면은 해방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행정편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면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어 1952년 4월 이후부터는 망우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55년 8월 10일에 구리면사무소가 인창동의 옛 구리시청 자리에 신축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하여 구리면의 목동, 중하, 상봉, 신내, 망우 등 5개 리가 분리되어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구리면에는 인창리·사노리·교문리·수택리·토평리·아천리·갈매리 등 7개 리만 남았는데, 이로써 구리면은 그 지역적 범위가 일제시대 이전의 '구지면'과 거의 같게 되었다.

구리면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다. 군 편제에서는 그대로 양주군에 속해 있다가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되었다. 구리읍은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을 거듭하여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해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구리시 연혁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 연혁

시대	연 도	내 용
삼한시대	기원전 3세기경	마한에 속하였다.
백제	기원전 18년경	지리적으로 백제의 서울 하북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구려	306년(광개토왕 6)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감행하였는데 이 정벌에서 아차산이 함락되었다.
	475년(장수왕 63)	장수왕의 남진으로 고구려 영토로 확정되었다. 당시 북한산군(지금의 서울지역) 관내인 골의노현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	551년(성왕 29)	나·제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하류지역은 다시 백제의 땅이 되었다.
신라	553년(진흥왕 14)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공격하여 신라의 땅이 되었다.
통일신라	757년(경덕왕 16)	지금의 서울지역은 한양군이었고 남양주시 진접·진건 일대는 황양으로 개칭되었다.
후삼국	898년	양주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난다.
고려	983년(성종 2)	양주목이 되었다.
	985년(성종 14)	양주는 관내도(경기·황해도지역)에 속하였으며 양주를 좌신책군, 해주를 우신책군이라 칭하고 좌우 2보로 삼았다.
	1012년(현종 3)	안무사를 두었다.
	1018년(현종 9)	지주사로 강등되었다.
	1067년(문종 21)	남경유수관으로 승격되었다가 곧이어 격하되고 속종 때 남경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	남경은 한양부로 격하되었다.
조선	1394년(태조 3)	지금의 서울지역인 한양부에 도읍이 들어서면서 한성부라 개칭하고 양주의 치소를 아차산 남쪽 대동리로 옮겼다. 지양주사로 강등되었다.
	1395년(태조 4)	양주부로 승격되었다.
	1397년(태조 6)	양주의 치소를 고주내(지금의 양주군 교읍리)로 옮겼다.
	1410년(태종 10)	양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시대	연 도	내 용
조선	1413년(태종 13)	양주도호부로 강등되었다.
	1466년(세조 12)	양주목으로 승격되었다.
	1504년(연산군 10)	양주목을 폐지하고 왕의 사냥터 만들었다.
	1506년(중종 1)	양주목으로 복구되고 치소를 불곡산 남쪽(지금의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으로 옮겼다.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구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구지면에 속한 리로는 사노리·인장리·수택리·백교리·토막리·동창리·이문리·평촌리·아차동·우미천리 등 10개 리가 있었다.
일제시대	1914년	구지면의 사노리·인장리·수택리·백교리·토막리·동창리·이문리·평촌리·아차동·우미천리 등 10개 리와 망우리면의 목동리·신현리·능후동·방축리·직곡리·봉황동·내동리·능내동·양원리·입암리·봉현리·상리·중리·하리·능곡리 등 15개 리 그리고 노원면의 장기리와 갈매동, 미음면 수변리와 석도리 각 일부, 진관면 배양동 일부, 별비면 퇴계원리 일부는 병합하여 구지의 '구(九)자'와 망우리의 '리(里)자'를 따서 구리면이라 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리로는 목동리·중하리·상봉리·신내리·망우리·인창리·사노리·교문리·수택리·토평리·아천리·갈매리 등이다.
대한민국	1963년 1월 1일	목동·중하·상봉·신내·망우 등 5개 리가 분리되어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양주군 구리면은 인창리·사노리·교문리·수택리·토평리·아천리·갈매리 등 7개 리로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1일	구리읍으로 승격되어 양주군에 그대로 편제되었다.
	1980년 4월 1일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에 소속되었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었다.

제2절 동 연혁

행정구역상의 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행정동은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 구획하여 정한 동을 말한다. 구리시의 행정동은 법정동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각 법정동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편입하여 새로 구획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 승격 당시 갈매동(葛梅洞)·사노동(四老洞)·인창동(仁倉洞)·교문동(橋門洞)·수택동(水澤洞)·아천동(峨川洞)·토평동(土坪洞) 등 7개의 법정동과 갈매동·동구동(東九洞)·인창동·교문동·수택동·수평동(水坪洞) 등 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분동과 폐지 등을 통해 행정동이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현재 구리시는 7개 법정동과 갈매동·동구동·인창동·교문1동·교문2동·수택1동·수택2동·수택3동 등 8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행정구역 명칭과 지역범위를 계승한 것이 법정동이므로 여기에서는 법정동의 연혁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추가로 행정동 연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갈매동

본래 양주군 노원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원면의 담터 전부와 구지면의 사노리 일부 지역을 병합, 갈매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정착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일제의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 공포)로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자 갈매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 1979년 4월 30일 군조례 제629호(1979. 4. 30. 공포)에 의해 갈매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1979. 12. 28. 공포)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갈매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갈매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같다.

2. 사노동

본래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 사노리·동창리 각 일부, 진관면 배양동 일부, 별비면 퇴계원리 일부를 병합, 사노리라 하고 구리면

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당시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1973년 7월 1일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사노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가, 1980년 4월 1일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사노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사노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행정동 구역으로는 동구동에 속해 있다.

3. 인창동

본래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의 동창리와 인창리의 각 일부를 합쳐 인창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된 직후인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인창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해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인창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인창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행정동 구역으로는 인창동과 동구동·교문동에 걸쳐 있는데 주로 인창동에 속해 있으며, 행정동 명칭도 인창동이다.

4. 교문동

본래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의 이문동과 백교리 전부, 인창리 일부를 병합, 교문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교문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가,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교문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교문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행정동 구역은 아천동과 합하여 명칭을 교문동으로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5년 3월 13일 아천동지역과 교문동지역 일부가 교문1동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대부분의 교문동지역이 교문2동으로 분동되었다.

5. 수택동

본래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 수택리·인장

리·평촌리 각 일부, 미음면 수변리 일부를 병합, 수택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수택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 1979년 4월 30일 군 조례 제629호로 수택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수택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수택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시 승격 당시 동 지역 대부분이 행정동 수택동에 속해 있었다. 1996년 1월 8일 수평동이 수택2·3동으로 개칭·분동됨에 따라 수택동은 수택1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아천동

본래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 아차동과 우미천리 전부, 토막리 일부 지역을 병합, 아천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총독부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아천리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아천리로 편제되었고,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아천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행정동으로는 처음에 교문동에 속하다가 1995년부터 교문1동에 편제되었다.

7. 토평동

본래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 평촌리·토막리·수택리 각 일부와 미음면 수변리·석도리 각 일부를 병합, 토평리라 하여 구리면에 편제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2일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총독부 지방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구리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토평리라는 명칭 그대로 구리읍에 소속되었다.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로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 토평리로 편제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자 토평동이 되었다.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행정동으로는 대부분 수평동에 속해 있었으나, 1996년 수평동이 없어지고 그 지역이 수택2·3동으로 되면서 동 영역이 행정동 수택3동에 속하게 되었다.

8. 동구동

행정동이다. 19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사노리와 인창리 일부를 합쳐 동구동이라 하였다.

9. 교문1·2동

행정동이다. 1986년 1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아천리와 교문리가 합쳐져 행정동 교문동이 되었으나, 1995년 3월 13일 교문동 일부와 아천동 전 지역이 교문1동으로, 그 외의 지역은 교문2동으로 개편되었다.

10. 수택1·2·3동

행정동이다. 1986년 1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토평리 전부와 수택리·교문리 일부 지역을 합쳐 수평동이라 하였으나, 1996년 1월 8일 수택1·2·3동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기존의 수택동지역이 수택1동으로 명칭이 바뀌고, 수평동지역은 수택동·교문동 일부가 수택2동, 그 외의 수택동 전 지역과 토평동이 수택3동으로 되었다.



제2장 자연환경

제1절 위치와 면적

제2절 지 형

제3절 지질과 토양

제4절 기 후

제5절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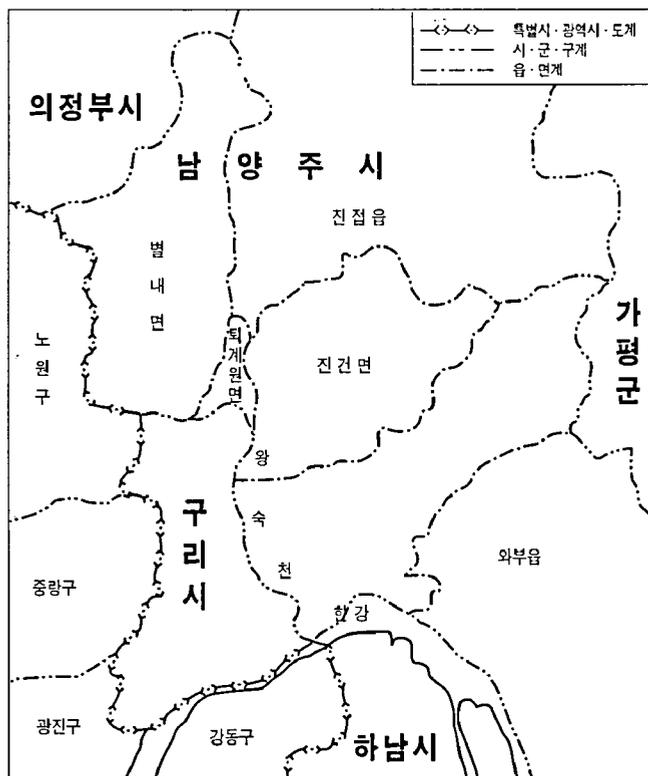


제1절 위치와 면적

구리시는 우리나라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아차산을 경계로 서울시 노원·중랑·광진구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왕숙천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마주보고 있고, 북쪽 역시 남양주시와 접해 있다.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너머에 서울시 강동구가 있고 양옆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가 있다.

경·위도상의 위치를 보면 우선 남북으로는 북위 37° 33' 10"에서 37° 39' 50"에 걸쳐 있고, 동서로는 동경 127° 06' 05"에서 127° 10' 25"에 이르고 있다.

총면적은 33.29km²이다. 이 같은 면적을 갖게 된 것은 1995년 12월 이후의 일이다. 이전의 면적추이를 보면, 구지면에서 구리면으로 되면서 현 서울지역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포함된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다시 서울지역이 분리된 1963년의 개편이 면적에서 큰 변화를 보인 시기였다.



<지도 1> 구리시 위치도

제2절 지형

1. 지세

구리시는 산지 및 한강과 합류하는 왕숙천의 최하류 하곡(河谷)에 펼쳐진 구릉지(丘陵地)와 충적지(沖積地)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의 산지는 북부로부터 수락산(637.7m)·불암산(420.3m)·검암산(177.8m)·아차산(286.8m)으로 이어져 있다. 동북쪽의 왕숙천 너머에는 수리봉(536.8m)·천건산(393.1m)·퇴피산(363.7m)·철마산(711m)·천마산(812.4m) 등이 남북으로 연이어 있다. 따라서 구리시와 주변 지역은 주로 산지 사이의 하곡에 형성된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단, 구리시만을 놓고 보면 서쪽 아차산 지대와 동쪽 왕숙천 일대의 평지로 인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세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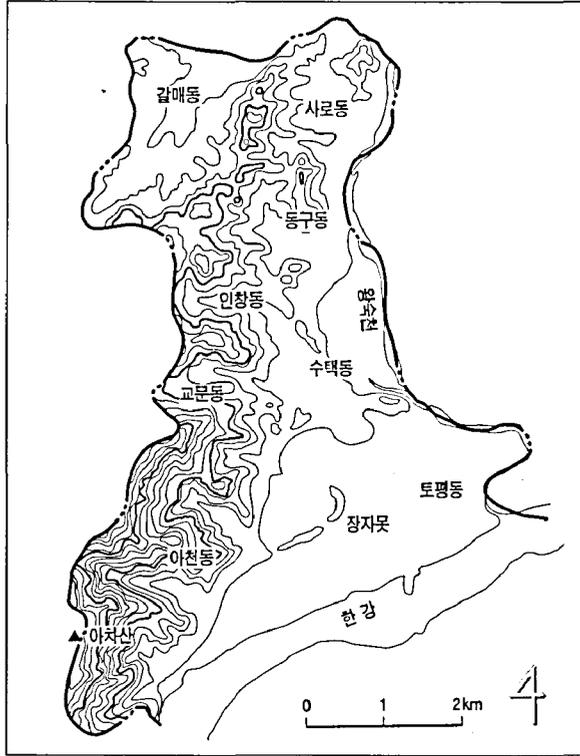
2. 산지

구리시 서북부의 산지는 광주산맥(廣州山脈)의 줄기에 속해 있다. 광주산맥은 태백산맥의 금강산 부근에서 시작하여 서울까지 이어지는 산맥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다. 광주산맥은 북동부에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솟아 있으나, 서쪽으로 갈수록 북한산(836m)·도봉산(710m)·관악산(629m) 등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강을 넘어가면 산세는 더욱 낮아진다. 즉, 서울과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차산 및 동구릉이 있는 구릉산 등 구리시의 산지는 광주산맥 서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산지에 속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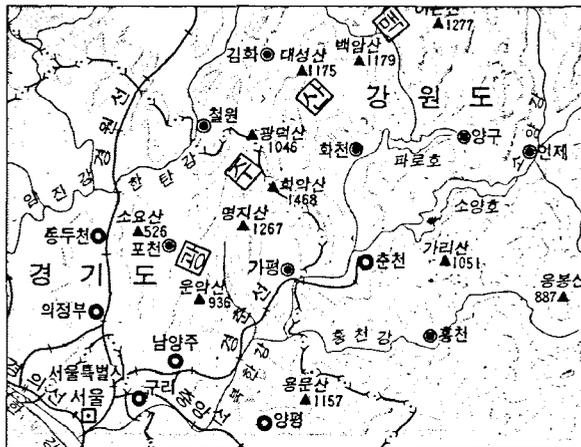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산맥구분은 우리나라의 옛 지리책에 나타난 전통적인 산맥구분과 차이가 있다. 진자가 지질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반면 후자의 경우 한반도 각지를 흐르는 강의 줄기가 산맥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각 산맥에 대해 대간(大幹), 정간(正幹) 그리고 정맥(正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기존의 지도들을 총합, 부족한 부분을 대거보충하여 만든 지도로 한반도의 산맥을 하나의 대간과 정간 그리고 13개의 정맥으로 나누고 있다. 대간은 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을 가리키며 이를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 하여 백두대간이라 하였고, 정간은 역시 백두산에서 내려와 북쪽으로 뻗은 것으로 장백정간이라 하였다.

이러한 전래의 산맥구분은 지질학적인 측면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권역이라는 인문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정밀한 지도상에 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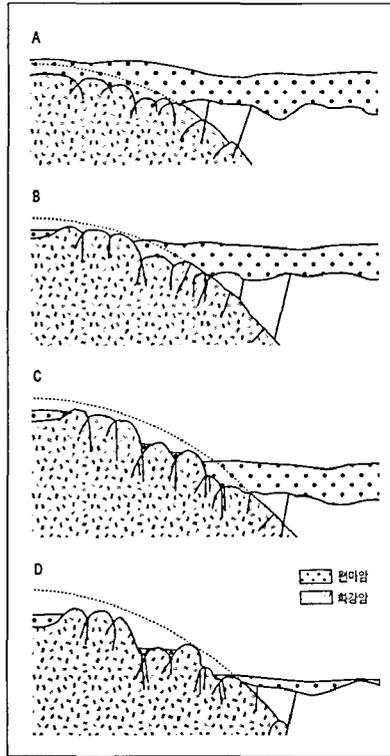
<지도 2> 구리시 지세도



<지도 3> 광주산맥도

은 높은 산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인문지리적인 측면에서의 각 지역의 특성은 자연지리적인 구분보다 잘 나타난다. 즉, 언어·습관·풍속을 비롯한 의식주의 다양함이 산줄기와 물줄기를 가름으로써 분화된다는 지리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각 산줄기는 지역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었고, 이것이 부족국가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운 행정 경계가 되기도 하였다.

아차산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구분에서는 백두대간의 금강산 부근에서 뺀어 내려와 북한산을 거쳐 임진강 입구에 이르는 한북정맥(漢北正脈)에 속해 있다.



<그림 1> 인젤베르그와 구릉지의 형성과정 모형도

광주산맥이 한강 너머까지 연결되는 반면 한북정맥은 한강을 경계로 맥이 갈려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뻗어 내려온 한강 이남의 한남정맥과 구분된다.

아차산은 높이 286.8m로 서울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체와 호상편마암의 완만한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볼 때 아차산은 목덕(木德)에 해당되어 토덕(土德)인 북악산, 화덕(火德)인 관악산, 금덕(金德)인 계양산, 수덕(水德)인 감악산과 더불어 서울의 북악 산록을 명당길지로 만드는 오덕(五德)의 언덕(丘) 중 하나로서 남행산(南行山)이라고도 불렸다. 아차산은 한강 유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고대시대의 성곽유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주요한 격전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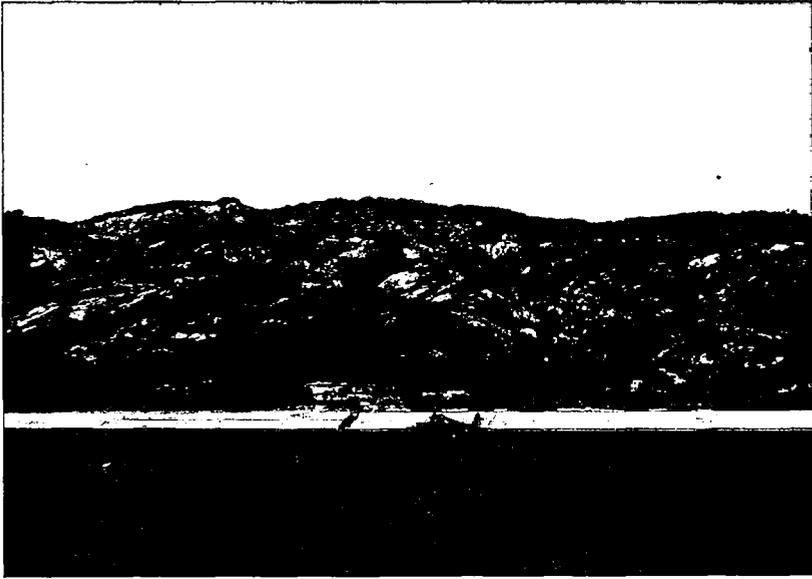
아차산은 서울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고도 300m 내외의 인젤베르그(insel-

berg)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중생대 쥐라기에 땅속에서 너른 넓이의 서울화강암반이 형성된 후 중생대와 신생대 제3기의 온난습윤한 기후를 거치는 오랜 기간에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층풍화작용을 받았다. 이때 형성된 대부분의 풍화물질이 제거되었는데, 이로 인해 암반이 노출되어 일종의 둥형 인젤베르그 보른하르트(bornhardt)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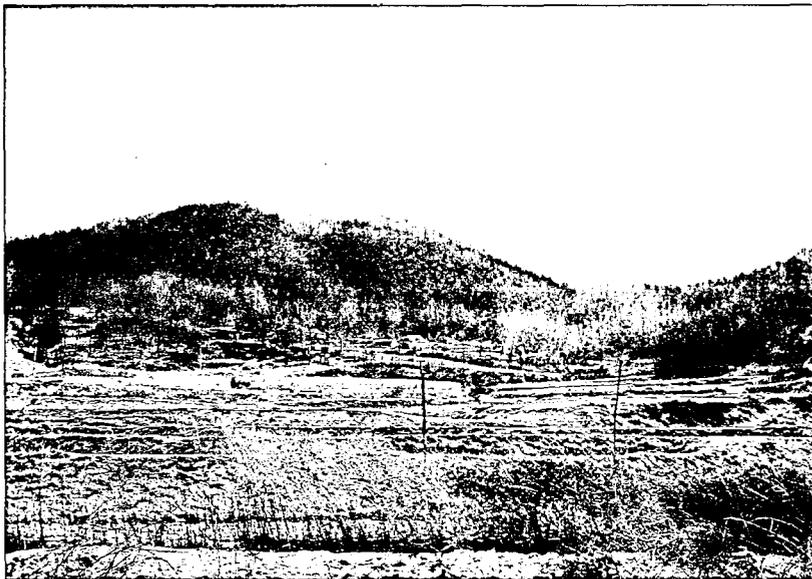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형성되는데, 땅 밑 하강 암반을 누르는 지층들이 제거되면 압력이 없어진 방향으로 팽창한다. 따라서 땅 표면에 드러난 화강암에는 땅 표면과 평행한 절리체계가 발달한다. 절리면을 따라 암괴(돌덩어리)들이 기계적으로 붕괴·제거됨으로써 화강암 암반 위에 이러한 암괴들이 많이 산재한다. 아차산의 성곽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암괴들을 이용하여 쌓은 것이다.

아차산 용마봉의 능선에는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이 일부 나타난다. 비가 오면 암반의 완만한 곳에 물이 고이고 빗물 속에 녹아 있는 이온들이 암반과 화학반응을 하여 광물 속의 금속이온들을 용해시킨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암반의 윗부분에 가마솥 모양의 풍화혈(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구멍)이 만들어진다.

검암산은 인창동과 서울시 중랑구에 걸쳐 있는 산으로 177.8m의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다. 아차산에서 수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산 동쪽에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비롯, 9개의 조선시대 능을 품고 있는 동구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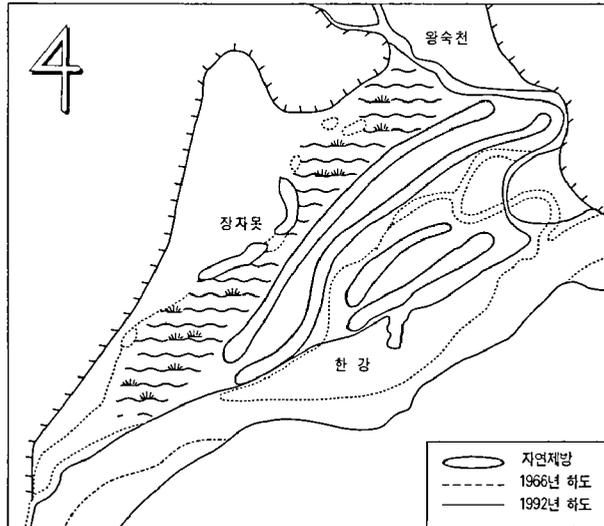
아차산 전경



검암산 전경

3. 구릉지 및 곡저 충적평야

구릉지란 언덕 땅이라는 뜻이다. 구릉지는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층이 두꺼워 과수원 등 밭으로 이용되고 저지대는 논으로 개간된다. 갈매동·사노동 그리고 인창동에는 40~100m에 달하는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사노동·인창동지역은 지질상 그 기반암이 배후의 산지와 동일한 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갈매동의 경우는 지형을 볼 때 소규모의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화강암이 기반



<지도 4> 왕숙천 하류의 '자연제방~하적호~배후습지'

을 이루는 불암산 완사면의 일부이다.

한편 구릉성 산지를 감싸고 한강으로 흘러드는 왕숙천의 하류에는 곡저(谷低)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곡저 충적평야는 강폭이 갑자기 넓어지고 유속 감소에 의한 퇴적작용을 통해서 하류 연안 곳곳에 만들어진다. 이러한 퇴적지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제방과 강물이 넘쳐서 생긴 범람원과 배후습지로 되어 있다.

왕숙천 하류의 경우 홍수시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왕숙천과 한강의 합류 부근에서 왕숙천의 유속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이때 왕숙천이 운반해 온 많은 토사가 그 합류점 부근에 퇴적되어 자연제방이 만들어지고 그 뒷면에 배후습지가 형성된다.

자연제방은 왕숙천의 한강유입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달하며, 왕숙천은 자연제방에 가로막혀 한강과 나란히 흐르다가 한강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형성된 왕숙천 하류지역의 '자연제방~하적호(河跡湖 : 하천이 흐르던 흔적으로 인해 생긴 호수)~배후습지'의 지형체제는 <지도 4>와 같다.

이렇듯 왕숙천~한강 접점지역, 장자못 주변의 자연제방은 이러한 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 왕숙천 하류지역이 개발되기 이전 돌섬과 토평동 일대에는 높이 5~10m, 길이 약 4km의 자연제방이 있었다. 한편 왕숙천이 자연제방과 나란히 흐르다가 흔적으로 남아 생긴 것이 바로 장자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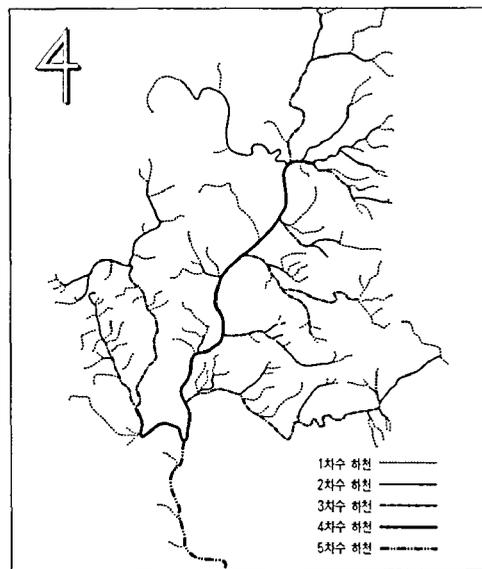
배후습지는 하천유역 정비 결과 거의 없어졌다. 현재 배후습지에는 아파트 등 주택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그 밖에도 비닐하우스 영농방식을 도입한 원예농업 용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제방 위로는 흙을 쌓아 인공제방을 만들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4. 하천

구리시를 통과하거나 시에 접해 흐르는 주요 하천은 한강과 왕숙천이다. 한강을 제외하고 구리지역을 통해 흐르는 하천은 왕숙천·교문천 등 중천(中川) 2개, 백교천·우미천 등 소천(小川) 2개 그리고 13개의 세천(細川)을 포함하여 모두 17개로 총연장은 23km이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하천인 왕숙천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입리에서 발원하여 광주산맥 서측에 있는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남류하다가 토평동에서 한강과 합류한다. 왕숙천은 풍양천·왕숙·왕탄·왕산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왕숙천의 전체 길이는 37km이며 유역면적은 276.7km²이다. 왕숙천은 지류 및 지류보다는 규모가 작은 세류(細流)를 포함하여 13개의 줄기를 갖고 있다. 왕숙



<지도 5> 왕숙천과 지류들의 하천차수 분포



왕숙천

천의 치수분포는 1차수 하천이 51%, 2차수 하천이 35%, 3차수 하천이 14%를 이루고 있다.

5. 저수지

구리시에는 1개의 자연호수와 3개의 인공저수지가 있었으나, 이 중 인공저수지는 이문안(안골)저수지, 백교저수지만이 남아 있다.

자연호수인 장자못은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들다가 자연제방에 막혀 유로가 바뀌어 한강과 나란히 흐른 흔적이 남아 생긴 것이다. 현재 장자못 주변에는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원예농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장자못은 각종 폐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유서 깊은 설화가 깃들어 있는 장자못을 장기적 차원에서 되살려 그 주변을 시민들의 정서적 휴식처로 꾸밀 수 있다면 여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장자못



이문안저수지

교문2동에 있는 이문안저수지는 높이 4m, 길이 54m의 인공저수지이다. 1945년에 건설되어 10ha의 경지에 물을 공급하며 유역면적은 38ha, 유효저수량은 1만 4,900t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지역이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주택지가 들어서 주택가와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백교저수지는 교문1동 한다리 북쪽 아차산 방향에 있다. 역시 1945년에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4m, 길이는 41m이다. 12ha의 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유역면적은 140ha, 유효저수량은 5,900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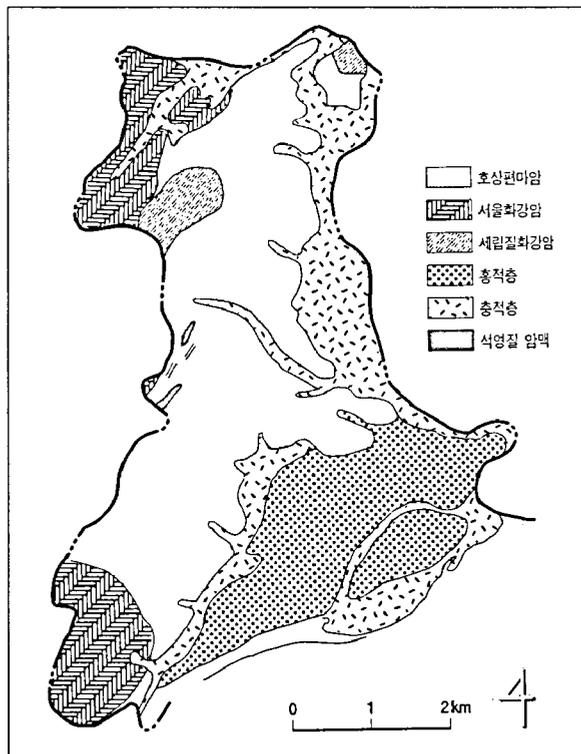
셋다리저수지는 교문1동에 있는 높이 5.5m, 길이 48m의 인공저수지이다. 1945년에 건설되어 10ha의 경지에 물을 공급하였으며 유역면적 43ha, 유효저수량은 5,800t이었으나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3절 지질과 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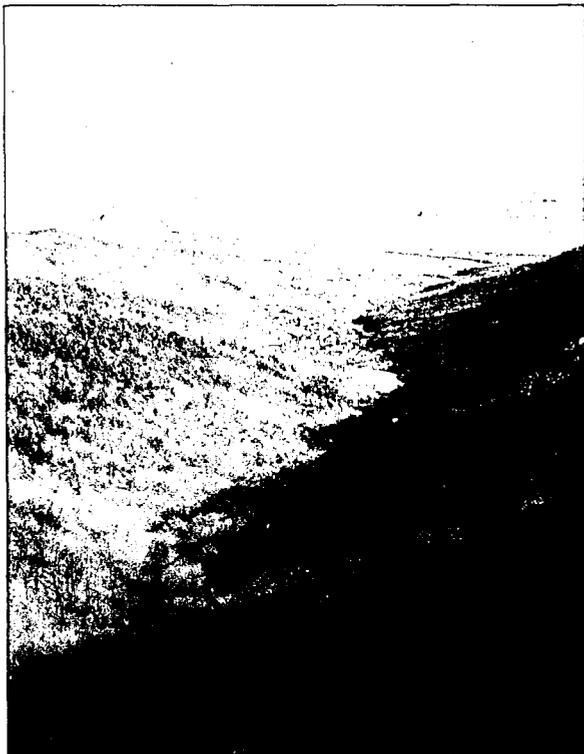
1. 지 질

구리시 전 지역은 지체구조상 경기육괴(京畿陸塊)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6억 2,000만 년 이전의 지질시대)의 변성암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육괴란 사방이 지층으로 나뉘는 땅덩어리를 말한다. 경기지괴라고도 불리는 경기육괴는 함경남도 원산과 황해도 황주 그리고 강원도 강릉과 전라북도 장항을 잇는 선 사이, 한반도의 중간부분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육괴에 분포된 변성암을 ‘경기변성암복합체’라 한다. 경기변성암복합체는 여러 번의 변성작용, 화강암의 관입 및 화강암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편암·결정질석회암·규암과 준편마암인 호상편마암·반상변성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성암류는 바위 모양의 변화가 심한데, 화강암화작용 및 변성작용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줄무늬 결정이 있는 편마암(片麻岩 : 변썩바위)류와 차돌, 돌비늘 등의 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편암(片岩 : 짜개바위)류로 구분된다.



<지도 6> 구리시의 지질분포



아천단층곡의 전경

시의 일부 지역은 화강암반이 노출되어 산지를 이루고 있다. 아차산·용봉산 일대의 높은 산지와 갈매동의 구릉지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시기를 알 수 없는 반상화강암과 중생대 쥐라기 말엽에 형성된 서울화강암으로 구분된다.

또한 산지에 널리 나타나는 것이 활처럼 굽은 모양의 호상편마암(弧相片麻岩)인데, 아차산 동남부의 산록과 아천단층곡(峨川斷層谷) 북쪽의 산지부분에 폭 넓게 분포하고 있다. 호상편마암은 흑운모의 유색광물부분(paleosome)과 석영·장석의 집합체인 우백질부분(neosome)이 번갈아 나타난다. 인창동 덕고개 부근에서는 얇은 석영규산염암층이 호상편마암과 나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아천단층곡지의 호상편마암

아천동에서 서울시 면목동을 잇는 아천단층은 N80°W 방향의 수직단층으로 아차산의 서울화강암지역과 호상편마암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된 아천단층 북쪽의 산지와 아차산 동남부는 오랜 풍화작용을 받아 고도 20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산지를 이루고 있다. 화강암지역이

돌산을 이루고 있는 반면 호상편마암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약 5m 정도의 두꺼운 적갈색 토양층이 형성되어 흙산을 이루고 있다.

한강변과 왕숙천변에는 홍수 때의 범람과 물길의 변화에 의해 퇴적된 신생대 제4기의 홍적층과 충적층이 널리 분포한다. 충적지는 자연제방~범람원~배후습지 등의 지형적 특성을 보이며 자갈·모래·점토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2. 토양분포

구리시의 토양분포는 지질분포와 지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크게 충적지 및 범람지 토양, 산악지 및 구릉지 토양, 낮은 구릉지 및 산록지 토양, 암석노출지의 토양으로 나눌 수 있다.

충적지 및 범람지 토양은 주로 왕숙천변과 한강변에 분포한다. 충적지 토양은 배수가 양호한 반면 범람지 토양은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 두 토양 모두 주로 사양질(모래진흙)과 사질(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아차산·용마봉·봉화산 등 비교적 높은 산지의 토양은 각력질 자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암쇄토(岩碎土)이다. 이곳의 토양은 그것을 형성하는 풍화물질이 암석의 급경사로 인해 사방으로 흘러내려 유실되기 때문에 그 두께가 얇다. 표면의 흙은 썩은 나무잎과 풀기 등을 많이 함유하여 검은 빛을 띠지만, 그 밑 기반암 위의 풍화층은 붉은 색 또는 적황토색으로 나타난다.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아차산 동남부의 호상편마암지역과 수택동 일대에는 도산통(陶山統)·삼각통(三角統)·사촌통(沙村統)에 속하는 토양이 분포한다. 도산통은 많은 자갈을 함유하여 배수가 양호하고 유기물함량이 낮으며, 매우 약한 산성을 띠고 있다. 삼각통 역시 배수가 양호하지만 비교적 강한 산성을 띤다. 사촌통은 산기슭의 배수가 불량한 곳에 형성되며, 유기물함량이 비교적 높고 강산성이다. 이들 토양은 주로 식양질(가늘고 고운 흙과 질찰흙의 함량이 37.5~50%인 흙)과 사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차산 남서부와 수택동의 비교적 낮은 구릉지에는 식질·식양질·사양질로

<표 1> 토양조성 분석

(단위: %)

종류 \ 구분	모래	실트(점토와 모래의 중간)	점토
아차동 편마암 풍화토	57	34	9
왕숙천 범람원 퇴적토	38	47	15
저위구릉지 화강암 풍화토	35	50	15
아차산 고지대 풍화토	27	53	20
아차산 저위침식면 풍화토	25	45	30

구성된 대구통(大邱統)과 상주통(尙州統)의 토양이 분포한다. 풍화층을 주요 성분으로 하여 발달한 대구통의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강산성이다. 토양 내에는 자갈이 많고 암반이 노출된 경우도 있다. 상주통은 충적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발달하였는데 유기물함량이 낮고 비옥도는 보통이다. 이러한 낮은 구릉지는 주택지와 취락, 농경지로 개발되어 남아 있는 식생은 거의 없다. 배수가 불량한 암석노출지의 토양은 주로 아차산 남서부에 분포한다.

<표 1>은 구리지역의 토양을 표본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제4절 기 후

1. 기 온

최근 1984년에서 1992년까지 약 10여 년간의 구리시의 연평균기온은 11.7℃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2.6℃이며, 경기도 평균은 10.5℃로 전국보다는 약간 낮고 경기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다. 연중 제일 추운 달은 1월로서 평균 -4.1℃이며, 제일 더운 달은 8월로 25.9℃이다. 즉 연교차가 30℃로 심한 편이다. 다음은 1984년에서 1992년까지 연도별·월별 평균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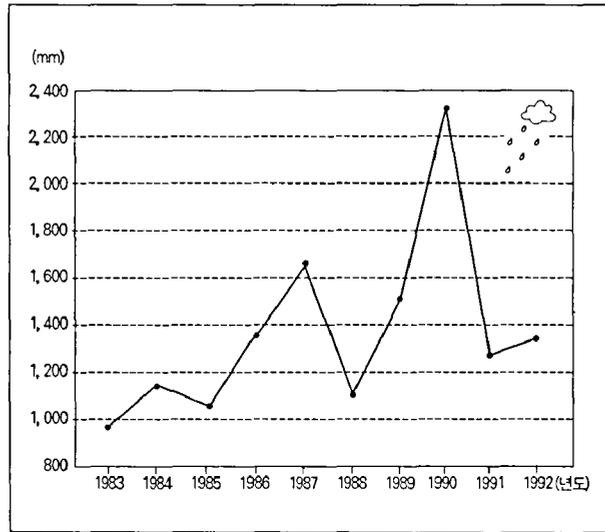
<표 2> 1984~1992년 연도별·월별 평균기온

(단위: ℃)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1984	-7	-4	1	10	17	22	25	26	19	12	5	-1	10.6
1985	-4	-2	-5	11	17	23	25	27	21	13	6	-1	11.6
1986	-9	-4	4	11	16	22	24	24	19	12	4	1	10.5
1987	-3	0	4	10	17	22	24	25	19	14	6	-1	11.6
1988	-3	-2	3	10	17	22	24	26	20	12	2	-3	11.0
1989	0	1	5	11	16	20	24	25	27	13	7	0	12.9
1990	-4	2	7	11	17	22	26	27	21	14	8	-1	12.8
1991	-5	-2	3	12	17	23	24	25	20	13	5	1	11.6
1992	-1	0	7	11	17	21	26	25	20	14	6	1	12.4
평균	-4.1	-1.3	4.7	11.1	17.1	22.1	25.0	25.9	21.1	13.3	5.7	-0.3	11.7

2. 강수량

경기도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구리지역은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하는데다가 한강 중상류지역의 지형성 강우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평균강수량보다 높은 다우지역이다.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도 전국 평균인 1,180mm와 경기도 평균 1,250mm보다 높은



<그림 2> 연도별 강수량

1,381mm이다.

강수량의 계절적인 분포는 최근 10년간 장마철을 포함하여 6·7·8월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전체의 약 60%로 나타나서 비가 오는 집중도의 차이가 월별로 상당히 큰 편이다. 특히 7월의 강수량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12월에서 2월 사이의 강수량은 약 7%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기와 우기 사이 즉 5월과 6월 사이 그리고 9월과 10월 사이의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연도별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1983년이 987.1mm로 가장 적게 왔고 1990년이 2,261.4mm로 가장 많이 왔다. 이 두 해의 차이는 1,274.3mm로 큰 편이다.

3. 연중날씨

구리시에서 한 달 중 맑은 날을 볼 수 있는 날은 평균 약 20여 일 정도이다. 물론 이는 평균치로서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달은 이 평균 일수에 미치지 못한다. <표 3>은 1983년에서 1992년까지 날씨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6, 7, 8월은 비와 눈으로 인해 맑은 날이 적다. 흙속의 수분양에 있어서도 맑은 날이 많은 4, 5월 그리고 10월에 증발량이 많아 수분결핍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구리지역 전체가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상대적인 월별 토양 수분함유도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3> 1983~1992년 월별 날씨

(단위: 일)

월 \ 구분	맑음	흐림	비	서리	안개	눈
1	20	5	2	-	-	4
2	19	5	2	-	03	2
3	19	8	3	-	01	1
4	24	2	4	-	-	-
5	22	4	5	-	-	-
6	18	5	7	-	-	-
7	12	9	10	-	-	-
8	17	6	8	-	-	-
9	20	7	3	-	-	-
10	23	5	3	-	-	-
11	18	4	8	-	-	05
12	16	8	3	-	-	4

4.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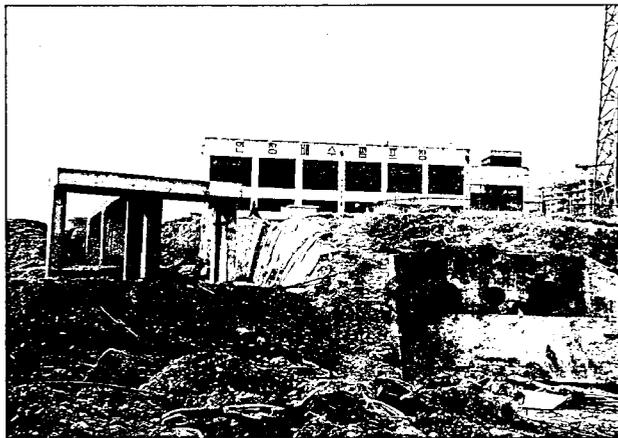
자연재해란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홍수·가뭄 및 기상이변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중 사계절이 분명하여 좋은 점도 있지만 예로부터 철따라 가뭄·홍수·태풍·폭설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를 겪어 왔다.

구리시는 전체적으로 서고동저의 지형에 동쪽은 왕숙천, 남쪽은 한강에 접해 있다. 여기에 지형성 강우 등 상대적인 다우지역으로 장마나 그 밖의 폭우로 인하여 홍수피해를 자주 입어 왔다. 특히 수해를 자주 겪는 지역은 수택동 일대이다. 특히 수택2·3동 지역은 불과 해발 11m의 저지대로서 하루 100mm의 비만 내려도 배수가 잘안되며, 만약 수위상승으로 인해 팔당댐의 수문을 열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의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1989년 8월 장마 때 3일간 약 3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이 비로 수택동 일대 1,500여 동의 건물이 침수되고 2,000여 세대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 경작피해로는 농경지 348ha가 물에 잠겨 16억 6,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장마에 또다시 358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역시 건물 1,600여 동의 물에 잠기기도 하였다. 제방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배수가 잘안돼 아주 적은 비에도, 심지어는 맑은 날에도 배수불량으로 물이 고이는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수해장면



인창배수펌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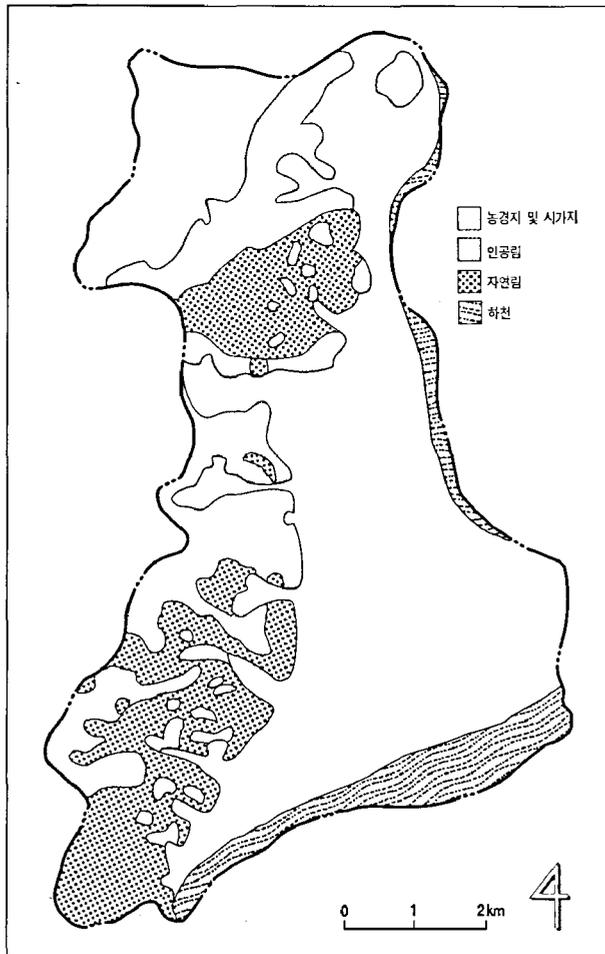
이러한 수재에 대비하기 위해 시 당국은 1989년 인창동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었고, 이천동에도 배수펌프 5대와 6개의 수문을 갖춘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였다. 이 밖에도 하수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여, 폭우가 올 때 빗물을 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5절 생태계

1. 산림

구리시는 구룡산(검암산)에서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경계로 서울과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림은 여기에 분포해 있다. 구룡산에는 왕릉이 조성되어 있어 산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아차산 중간 이남지역에도 발달한 자연숲이 남아 있다. 그러나 양 지역의 생태계는 망우리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다.

<지도 7> 토지구성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의 절반 정도가 농경지와 시가지로 되어 있으며, 시 서쪽의 산지에 대부분의 숲이 있다. 숲이 차지하는 비중



<지도 7> 구리시 토지구성도

은 인공림과 자연림을 합쳐 농경지와 시가지를 합친 비중과 거의 같다. 산림 중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연림의 경우는 전체 산림 비율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리시가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산림 비중이 다른 시에 비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 아차산·구룡산 등에는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도상으로는 이것이 숲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제외하면 순수한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정도 줄어든다.

구리지역의 토지구성현황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토지구성현황

(단위: ha·%)

종류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농경지 및 시가지		1,369.47	45.5	농경지(밭: 560.08+논: 332.88+과수원: 48.89) 시가지(427.62)
인공림		672.63	22.4	묘지(92.56) 포함
자연림		680.90	22.6	
하천		287.00	9.5	
계		3,010.00	100.0	

구리시는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지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숲의 존립자체가 각종 개발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다.

2.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는 자연생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보존지역의 기준을 잡고자 고안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표 5>와 같은 내용으로 녹지자연도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표 5>에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지역은 각종 개발 때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7등급 이하에서만 개발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자연도의 등급사정은 대상지역을 사방 100m의 격자로 나누고 이를 기본단위로 하여 각 등급의 분포를 나타낸다.

구리시의 경우 수역에 해당하는 0등급이 9.4%, 시가지인 1등급이 23.2%, 농경지인 2등급이 31.4%, 인공초지인 4등급이 2.3%, 인공림인 6등급이 15.3%, 20~50년 된 숲으로 이루어진 8등급 지역이 18.4%로 나타난다. <지도 8>은 구리시의 녹지자연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 국토의 약 7할이 산악지대인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해도 산림이 울창하였다. 그러나 일제침탈기의 산림수탈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소중한 숲이 초

<표 5>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기준

등급	명 칭	등급 별 내 용
1	시가지 및 조성지	녹지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녹지면적이 전체의 30% 이하인 지역(시가지, 암석노출지, 해안 모래사장, 공단 등)
2	농경지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
3	과수원	과수원, 묘포장
4	이차초원①	인공적으로 조성된 잔디밭, 목장 등의 초지
5	이차초원②	갈대, 조릿대군락 등과 같이 키가 큰 수풀이 있는 초지
6	조림지	각종 침엽수 또는 활엽수 등의 인공숲
7	이차림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다층의 식생으로 변화되는 과정 초기의 이차림
8	이차림②	변화과정 중반에 이른 상태로 자연림에 가까운 수령 20~50년생의 이차림
9	자연림	다층의 식생구조를 형성하는 극상림
10	자연초원	고산지역에 분포하는 자연초원지역
0	수역	저수지, 하천유역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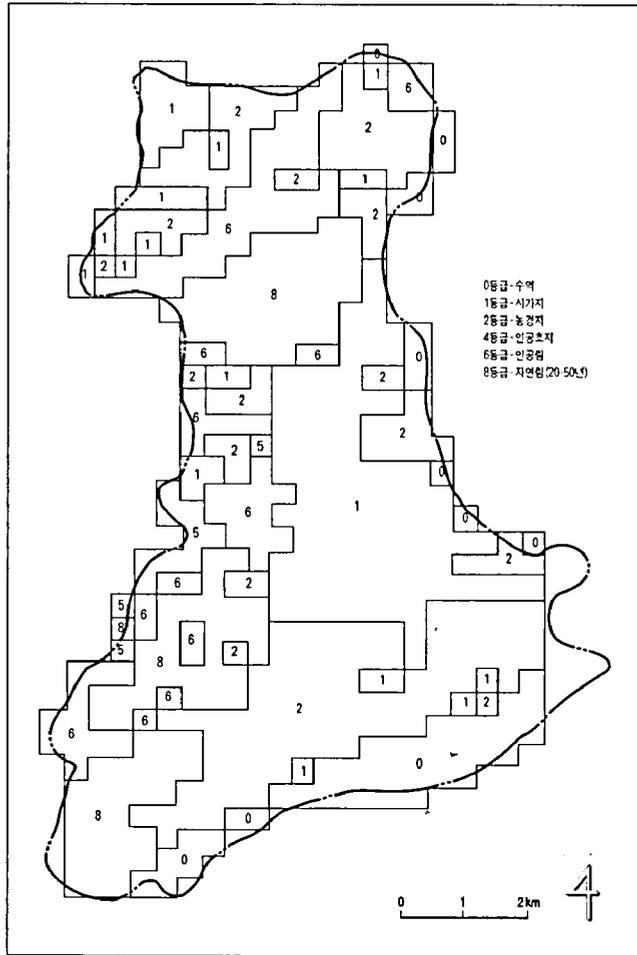
토화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아차산은 한국전쟁 때에 격전지였다. 그러다가 전후 가정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하고 녹화사업에 힘을 기울인 결과 자연생태계가 서서히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남벌되고 있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소중한 삼림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구리시의 8등급 비율 18.4%는 전국 12.9%보다 높은 수치이다. 구리의 8등급 지역 삼림의 평균수령은 20~30년으로 생태적인 층위구조를 갖추어 안정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한편으로 8등급 삼림의 주변 6등급 지역 즉, 인공림지역을 자연림으로 바꾸는 노력을 진행하여 8등급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연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장소의 생태계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풍요해진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8등급의 삼림이 있는 구릉산지역과 아차산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연림이 분포해 있는 아차산 남부지역에는 현재 이곳에 위치한 위커힐 그리고 계속되는 각종 개발로 인해 자연림의 존립이 지속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발표한 중랑구 면목동과 도평동 간의 도로건설계획은 아차산 생태계에 대한 큰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전체 길이 3.5km인 이 도로는 아차산을 관통하는 1.2km의 터널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터널이 해발 150m에서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아차산의 생태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아차산과 구릉산 생태계의 연결은 고사하고, 아차산 생태계마저 면목동과 아치울을 잇는 획선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생태계 권역을 확대시키기



<지도 8> 구리시 녹지자연도

는커녕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쾌적한 환경을 가진 생태도시로서의 구리시 발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발전과 생태계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식물분포

구리시의 삼림은 인공림이 49.7%, 자연림이 50.3%로 되어 있다. 삼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들의 각 면적과 그 비율은 <표 6>과 같다.

인공림은 주로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현사시나무로 되어 있다. 이 중 아까시나무가 전체 숲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달하고 있다. 수종분포에서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류군집의 존재는 인공림 내의 주목되는 현상이다. 원래 리기다소나무는 인공적으로 심은 수종인데, 이러한 리기다소나무 사이로 자생종인 참나무류가 자라나서 리기다소나무와 경쟁을 벌여 오히려 이를 압도하였다. 따라서 리기다소나무 참나무류군집은 인공림이 자연림의 생태로 진전되는 과정



교문동의 자연림

<표 6> 삼림의 현존식생 군집별 면적 및 비율

(단위 : ha · %)

군 집 명	면 적	비 율
소나무군집	26.46	1.95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집	151.33	11.18
소나무-참나무류군집	5.89	0.44
리기다소나무군집	25.66	1.90
리기다소나무-참나무류군집	140.24	10.36
잣나무군집	0.63	0.05
아까시나무군집	321.49	23.75
아까시나무-리기다소나무군집	22.13	1.63
현사시나무군집	45.27	3.34
밤나무군집	22.35	1.65
참나무류군집	458.10	33.84
오리나무군집	39.09	2.89
물오리나무-참나무류군집	2.33	0.17
잔디	92.56	6.84
계	1,353.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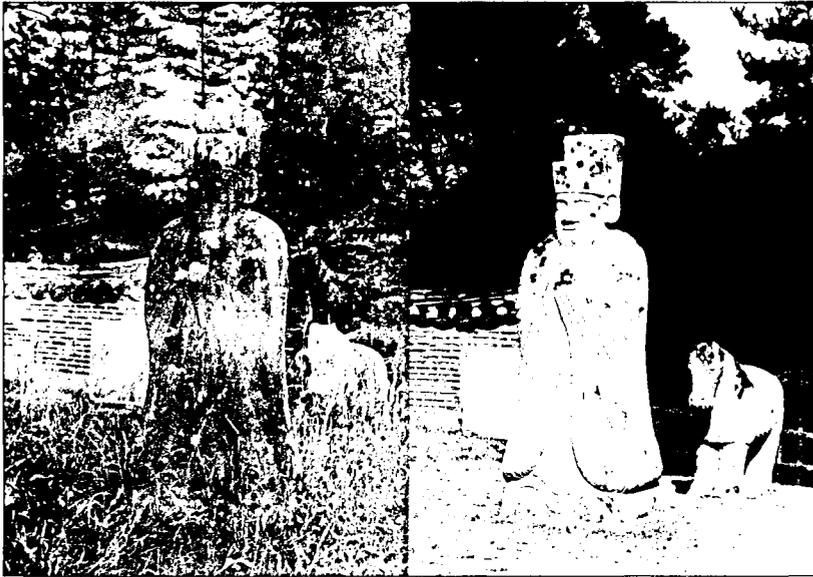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차산의 경우 남쪽에 상대적으로 광범한 자연림이 형성되어 있는데, 녹지자연도 6등급의 인공림이 이러한 자연림 주변에 분포해 있다. 인공적인 노력을 통해 서라도 숲의 생태가 자연림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차산의 군락변화는 자연림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리기다소나무의 이점이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도



교문동의 상수리나무숲



건원릉 문인석 주변의 식생경관(좌: 1920년대, 우: 1994년)

시지역에서 숲 관리의 일반적인 목적은 목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생태적인 안정을 조성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토착수종인 참나무류의 확대가 리기다소나무의 확대보다는 생태 안정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참나무류의 군집면적 비율은 시 전체 산림면적 비율의 약 34%에 이르는데, 상수리나무·갈참나무·졸참나무가 주요한 수종이다. 대개 수령은 20~30년생으로서 이를 잘 보호한다면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숲이 형성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에 하나이자 왕릉지인 동구릉의 숲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선시대의 왕릉은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약 40km 이내에 풍수지리에 따라 위치를 정했다. 대개는 남쪽에 안산(案山)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주변에 울창한 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능이 자리잡은 지역은 자연적으로도 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인공으로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능 조성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능의 좌우 및 후면에는 소나무를 심고 앞쪽의 낮은 지역에는 오리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소나무는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명당에 심어지는 중요한 수종의 나무이다. 또 오리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군락을 형성한 곳이 없기 때문에 능 조성 당시 인공적으로 심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왕릉의 숲은 조선시대 당대에는 당연히 잘 보존되었다. 특히 조선 태조의 능인 건원릉이 있는 동구릉의 경우 왕릉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릉의 숲은 왕조의 몰락과 그에 이은 우리 근·현대사의 수난과 함께 재난을 당했다. 특히 일제 말기 가정에서 쓰던 노트까지 건어가는 극단적인 수탈을 자행했던 일제는 왕릉의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 군수물자로 공출해 갔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때에도 동구릉 주변은 주요 전선으로 공방이 치열했던 곳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동구릉의 식생은 일제 초기와 비교하더라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능 주변의 소나무가 대량으로 제거되자, 현재 동구릉의 식생은 소나무 군락 밑에서 자생한 참나무류가 두드러진다. 현재 동구릉의 숲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수종의 면적 비율을 보면, 우선 능을 대표했던 수종인 소나무의 경우 약 12%이며 오리나무는 약 29%에 이른다. 또한 참나무류의 경우 약 19%이다. 이 밖에 무시하지 못할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이 아카시나무로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참나무류와 아카시나무 등 능 고유식생 변화에 따라 성장한 수종의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만약 현재 능 주변의 식생을 그대로 둔다면 갈참나무·서어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요 수종으로 부각될 것이며, 생존력이 강한 아카시나무도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 밖에도 능 고유의 소나무 중심의 숲 경관은 여러 활엽수종과 관목의 증가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동구릉의 삼림이 상대적으로 울창하면서도 다양한 수종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능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을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아카시나무군락의 확대를 막는 문제 등 능지 고유의 숲 경관으로 보존하는 방법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구릉은 역사의 현장이자 자연생태 교육현장으로서, 또 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서 시의 자량이 될 것이다.

4. 조 류

구리시는 아차산 등 많은 산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거의 볼 수 없다. 단, 조류의 경우 텃새와 철새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새들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아차산과 동구릉의 산림 그리고 왕숙천변이다. 이들 세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32종의 새가 발견되었다. 32종이라는 수는 지역적으로 볼 때 매우 많은 것으로 지리산, 속리산 등 우리나라 주요 산지에서 발견된 종류보다 많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새가 발견되는 이유는 구리 특유의 자연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구리는 서고동저 지형으로 서쪽에 산지가 있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왕숙천이 흐르고 있다. 즉, 산지와 강가의 자연조건이 모두 나타나 이 두 가지 환경에서 사는 새가 모두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새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새가 발견되지만, 그 수는 일부 텃새를 제외하고 매우 적다. 그 이유는 구리가 대도시 인근 지역인데다가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새가 서식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데 있다.

구리시에서 볼 수 있는 32종의 새 중에 텃새는 18종이고, 철새는 12종 그리고 나그네새는 2종이다. 다음에서 종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여름철새

검은맹기해오라기 먹이로는 하천가에서 소형 담수어류나 개구리를 즐겨 먹는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쇠백로 백로과 종류 중 크기가 가장 작으며, 황색 발가락으로 쉽게 구별된다.



쇠백로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중백로 백조과 종류 중 중형 종으로 서식지와 습성이 중대백로, 쇠백로와 유사하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중대백로 왜가리 등과 함께 집단을 이루며 번식하는 백로과의 중대형 종으로, 집단번식처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눈 앞의 녹색피부가 특징이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왜가리 백로 종류와 습성이 유사하나 등이 잿빛이고 날개 끝이 검은 깃으로 덮여 있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제비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새로 인가 주변의 경작지에 서식하고 곤충을 주로 먹는다. 왕숙천에서 확인되었다.

귀제비 제비와 습성이 비슷하나 사발 모양의 제비등지와는 다르게 호리병 모양의 등우리를 만든다. 엷은 갈색 가슴에 점무늬가 세로 방향으로 이어진 모습이 흰 가슴의 제비와 구별된다. 왕숙천에서 확인되었다.

일락할미새 하천이나 냇가 주변에 서식하며 곤충류를 즐겨 먹는 여름철새로, 파도치는 듯 날아다니는 모습이 특이하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피꼬리 침엽수림, 혼효림의 중간 높이에 서식하며 대형 곤충, 나무열매 등을 즐겨 먹는다. 눈 언저리와 날개 끝의 검은 색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노란 색이며 부리는 빨강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2) 겨울철새

재갈매기 서해안의 하구, 해안가에서 주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나 먹이를 찾으러 한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오기도 한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속새 참새목 소형 조류 중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무리를 지어 월동한다. 농경지 주변의 낙엽활엽수 주변의 양지바른 곳에 집단을 이룬다. 아차산과 동구릉에서 발견되었다.

큰밀회부리 저산대의 낙엽활엽수에 서식하는데, 최근 그 수가 급격히 줄어 보기 드문 종류가 되었다. 날개 밑의 옆구리가 분홍색인 밀회부리와는 달리 잿빛을 띤 노란 색으로 구별된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3) 텃새

흰뺨검둥오리 소택지나 흐름이 느린 하천에서 풀치나 나무열매, 무척추동물 등을 먹는 비교적 흔한 오리과 텃새로 갈대나 창포가 많은 곳에 숨어 지낸다. 왕숙천에서 확인되었다.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맹금조류로서 매과 조류 중 중형이다. 왕숙천 주위에서 확인되었다.

꿩 구릉·산간 초지 등에 살며, 곡식이나 작은 곤충을 먹는다. 큰 소리로 꿩꿩



황조롱이

울고 후드득 날개짓을 하여 자기과시를 하는 습성이 있다. 아차산에서 확인되었다.

멧비둘기 도시, 농촌, 산림 등에 넓게 분포하는 텃새이다. 왕숙천변에서 확인되었다.

오색딱다구리 울창한 산림에 주로 분포한다. 동구릉에서 확인되었는데 동구릉의 숲을 보존하고 외부와의 녹지연결이 원활하다면 집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쇠딱다구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딱다구리 무리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안정된 숲에서 나무 줄기의 곤충유생을 잡아먹고 산다. 동구릉의 송릉 근처 숲에서 한 쌍이 확인되었다.

때까치 농경지 주변의 관목림 등지에서 주로 관찰되는 친근한 텃새이다. 곤충류, 개구리 종류를 즐겨 먹는다. 남은 먹이는 나뭇가지에 찢어 보관하는 습성이 있다. 왕숙천변에서 확인되었다.

붉은머리오목눈이 일반적으로 뱀새라고도 부르는 소형 조류로 아산의 관목림과 덩굴에 주로 서식한다. 매우 흔한 텃새로 알려졌으나, 최근 아산의 개발로 급격히 줄었다. 왕숙천, 아차산, 동구릉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오목눈이 낙엽활엽수와 침엽수 혼효림에서 번식기 이외의 시기에 무리 지어 생활하며, 곤충과 식물종자를 주로 먹는다. 검은 머리 가운데 흰 띠가 세로 방향으로 있는 소형 조류이다. 아차산과 동구릉에서 확인되었다.

진박새 고산의 침엽수림을 선호하는 소형 조류로 박새와 달리 배가 흰 것이며, 뺨과 뒷머리가 흰 색으로 쇠박새와 구별된다. 아차산과 동구릉 내 송릉 근처에서 확인되었다.

곤줄박이 낙엽활엽수림을 좋아하며 곤충류, 거미류, 식물종자를 즐겨 먹는다. 박새류와는 달리 붉은 가슴과 노란 뺨이 특징이다. 동구릉의 송릉 근처에서 확인되었다.

박새 번식기 이외에는 무리 생활을 하며 낙엽활엽수를 좋아하는 대표적 산새



깜작도요

로, 곤충을 주로 먹으나 식물종자도 먹는다. 흰 가슴에 턱에서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검은 띠가 특색이다. 아차산과 동구릉에서 확인되었다.

멧새 낮은 산지의 가장자리, 계류 주변의 관목숲에 서식하며 곤충과 식물종자를 좋아한다. 동구릉의 승릉 근처에서 확인되었다.

노랑턱멧새 관목림을 좋아하며 곤충의 유충, 식물종자를 주로 먹는다. 턱 밑과 눈 위쪽의 깃이 밝은 노랑빛을 띠어 특징적이며, 5월경 울음소리가 매우 아름답다. 동구릉의 승릉 근처에서 확인되었다.

참새 우리나라 대표적 텃새로 번식기 이 외에는 무리 지어 생활한다. 왕숙천과 아차산, 동구릉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어치 일명 산까치라고 불리는 종으로 낙엽활엽수, 침엽수 및 그 혼효림 등지에 서식한다. 설치류, 뱀, 양서류, 조류의 알을 좋아하며 농작물, 참나무열매 등을 먹는다. 아차산과 동구릉에서 확인되었다.

까치 우리나라 대표적인 텃새로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나무에 등우리를 짓고 일년 내내 한 지역에서 생활한다. 아차산, 동구릉, 왕숙천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까마귀 도시 근교·농가·고산 침엽수림 등 각지에 분포하며 온몸의 깃털이 검은 중대형 조류로서, 설치류·뱀·조류의 알·농작물·과일 등을 먹이로 한다. 아차산에서 확인되었다.

4) 나그네새

새호리기 봄, 가을에 관찰되는 나그네새로 여름에 드물게 번식하기도 하는 비교적 소형 맹금류이다. 새호리기는 새를 홀릴 정도로 재빠르게 작은 조류를 잡아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깜작도요 봄, 가을철이면 쉽게 볼 수 있는 나그네새이다. 도요새 무리 중 소형 종으로 곤충, 갑각류 등을 즐긴다. 왕숙천에서 발견되었다.



제3장 역사

구리의 역사와 문화

제1절 선사시대

제2절 고대

제3절 고려시대

제4절 조선시대

제5절 한말

제6절 일제시대

제7절 현대



제1절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최초로 고인류가 나타난 시기부터 약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는 시생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구분된다. 우리는 현재 신생대 제4기 충적세에 살고 있다. 지구 역사에서 구석기시대는 신생대 제3기에서부터 홍적세와 충적세가 나뉘는 시기까지 해당된다.

구석기시대는 수백만 년에 걸쳐 있는, 문화적 진전이 매우 더딘 시기였다. 구석기시대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비롯한 각종 고인류가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제작된 도구가 사용된 이래 약 1만 년 전까지 계속된 수백만 년 동안의 구석기시대에는 도구에 있어 그 이후 불과 1만 년 사이에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구석기시대의 시기구분은 구석기문화가 세계 각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석기제작기술의 발달 정도에 의해 전기·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눈다. 우리나라에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석기의 재료나 제작기술의 차이가 있어 유럽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구석기의 유적·유물은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구석기문화의 발굴이 거의 대부분 8·15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즉 일제는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한반도 선사시대의 상한 연대를 끌어내림으로써 우리 역사를 얼마되지 않는 일천한 역사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시기에서 구석기 유적의 발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두만강의 동관진(潼關鎭) 유적이다. 동관진 유적은 1933년에서 1935년까지 일본인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일제는 이를 구석기 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 유적지는 거의 망각되었다가, 해방 후 1962년 비슷한 지역인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에서 신석기 문화층 아래에 묻혀 있던 구석기 문화층이 발견, 발굴되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다. 그 뒤 1964년에는 충청남도 공주의 석장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계속해서 1970년대까지 평양 상원 검은모루동굴, 제주 빌레못 동굴, 제천 점말동굴, 연천 전곡리에서 또 최근에는 명주 심곡리, 양양 도화리 등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남북을 통틀어 구석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은 약 50여 곳을 헤아린다.

구석기 유적은 주로 동굴과 강변의 구릉지에 분포해 있다. 한강변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은 전형적으로 강을 낀 구릉지에서 나타난다. 현재까지 한강 유역에는 약 30여 곳의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었다.

구리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으나 인근 지역에서는 많이 발견되었다. 구리에서 가장 가까운 구석기 유적은 아차산 너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유적이다. 면목동은 아차산의 서쪽에 위치하여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선사시대 주거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 1967년 조사된 면목동 유적에서는 300여 점의 석기파편이 나왔다. 그러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공사가 진행되어 유적은 파괴되었다. 면목동에서 나온 유물의 연대는 대략 3만여 년 전으로 후기구석기시대 것이다.

구리에서는 비록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것이 없지만 한강을 사이로 마주 보이는 암사동에 선사시대 집터 유적이 있고, 왕숙천을 끼고 구릉이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이 면목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리시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각종 토목공사로 인해 파괴된 구석기 유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2. 신석기시대

기원전 8,000년경 홍적세가 끝나고 충적세가 시작된 무렵부터 구석기시대가 막을 내리고 과도기를 거쳐 신석기시대가 열린다. 빙하기가 끝난 신석기시대에는 날씨가 따뜻해져 한반도에는 기존의 침엽수 사이로 활엽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서해안의 바다 수위는 지금보다 7m 정도 낮았기 때문에 한반도 서해안에 살았던 신석기시대인들은 현재 바다로 변한 곳에서 생활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석기시대가 구석기시대와 구별되는 것은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양상 때문이다. 우선 신석기시대에는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던 방식에서 발전하여 돌을 갈아서 만드는 보다 정교한 석기 제작방식이 발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간단한 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인류로서는 오랜 시일이 걸린 획기적인 것이었다.

신석기시대인들은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팔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썼는데, 이는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사냥으로 식량을 구하던 단계에서 발전하여,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 정착 생활과 농경으로 인해 생산량과 인구가 늘어나고 집약적인 노동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흙을 빚어 불에 구운 토기가 신석기시대에 발명되었다. 토기의 발명으로 음식이나 그 밖의 것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생활모습이 크게 변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 신석기시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도시문명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변화를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18세기 영국에서



읍집

시작된 산업혁명에 비교하면서 ‘신석기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신석기시대는 수천 년에 걸친 긴 기간이었으며,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중동의 신석기시대에는 토기가 없었고 시베리아지역의 신석기문화에는 농경 없이 사냥문화만 존재하였다. 한반도의 신석기문화는 처음에 시베리아의 신석기문화와 연관이 있었다. 주로 화살촉·돌도끼·뼈로 만든 낚시도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굴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보다는 채집이 생산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후기에 오면서 중국 화북지방의 농경법이 전해져 조·피·수수 등의 식량작물이 재배되었다. 농경 도구로는 돌보습·돌괭이·돌낫·반달칼·시슴뿔괭이 등이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인들은 주로 강가에 읍집을 짓고 살면서 낚시와 사냥을 하고 한편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집단생활을 하였다.

집단적인 정착생활에서는 자연히 생산의 증대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예술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사에 영향을 주는 자연물, 예를 들면 해나 강등을 숭배하는 자연숭배가 보편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약한 단계였지만 일에 따른 집단 내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화가 나타난다. 특히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무당의 경우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종교는 물론 정치에서도 지배자의 위치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지배자의 권력은 산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결국 인구의 증가와 생산력의 발전은 원시적인 평등관계에서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발생시켰다. 집단의 성격과 규모도 점차 변하여 뗏줄을 매개로 한 씨족공동체에서 지역적인 자연공동체사회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자의 권위가 중시되는 가부장제가 확립되었다.

이 같은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은 발견된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8·15해방 이전부터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보존과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60년대에 본격적인 발굴과 조사가 실행되었다. 이제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추정 유적은 약 150여 곳이고 이 중 지표조사나 발굴을 통해 신석기 유적으로 확인된 유적은 50여 곳이다.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는 토기의 표면에 기하학적인 문양을 새긴 빗살무늬토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제까지 발견된 것을 토대로 빗살무늬토기는 기원전 4,000년 전 이래 약 3,000년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북쪽에서는 바다가 평평한 토기가, 남쪽에서는 바다가 뾰족한 토기가 사용되었다. 토기는 시대가 지날수록 무늬가 없어져 청동기시대에 오면 완전히 무늬가 없는 무문토기가 일반적이었다.

구리지역에서는 일제시대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의 파편이 아차산 동쪽 기슭의 인창동과 사노동 등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현재 이 유적은 모두 파괴되었다. 구리지역의 신석기 유적은 인근 지역인 미사리 등 한강 건너의 신석기 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강변의 비옥한 충적지대나 구릉지 말단 부에 신석기인들이 거주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구리 역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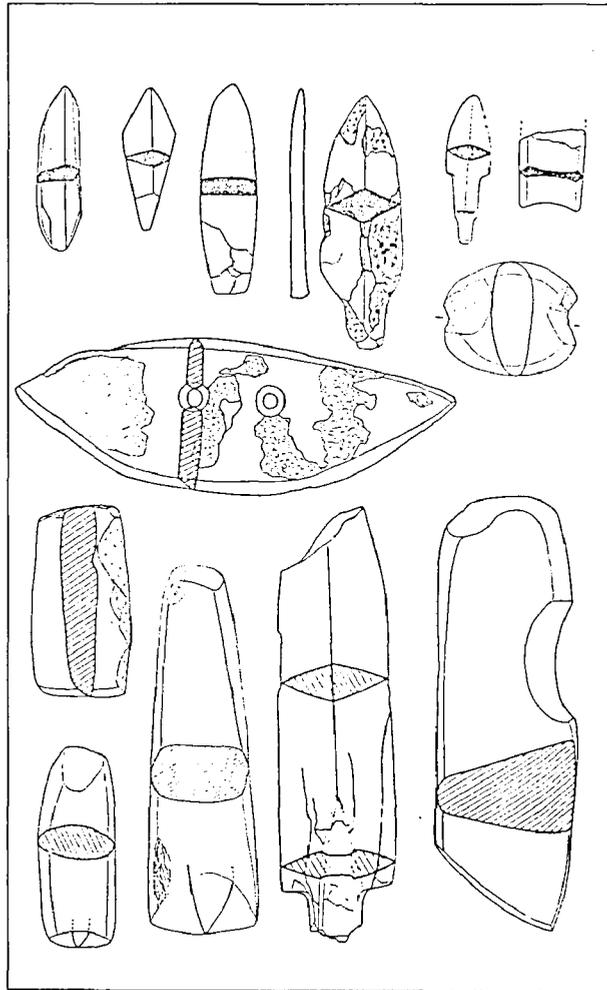
3. 청동기시대

기원전 1,000년경 북방으로부터 한반도에 청동기가 전래되었다. 이때 청동기를 사용했던 종족은 예맥·통구스족으로 이들은 한반도에 들어와 신석기인들을 흡수·동화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 이때부터 선사, 즉 기록 이전의 역사가 끝나고 기록의 역사시대가 도래하였다. 신석기시대 말기의 한반도는 혈연공동체인 씨족집단에서 지연공동체로의 이행이 이루어졌고, 새로 유입되어 형성된 청동기시대에는 이보다 한층 더 진진된 부족연맹체가 나타났다.

청동기문화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청동기가 등장했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무늬 없는 토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토기의 특성을 보면 재질에 있어 빗살무늬토기의 주성분이 모래였던 반면 청동기시대의 무늬 없는 토기는 진흙이었다.

일반적으로 청동기는 구리에 주석이 10% 이상 섞인 금속을 말한다. 청동기는 인간이 최초로 제작한 금속도구이다. 그러나 철기와는 달리 그 사용자는 상류층으로 제한되었고 일반 도구인 석기도 여전히 함께 쓰여졌다. 이는 발견된 청동기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대개 청동기로 제작된 것은 검, 거울, 제사에 쓰이는 방울, 장식물, 무기 등 주로 당시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만큼 국가와 그 지배 실체로서 상층계급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청동기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기원전 2,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한반도의 청동기 역사는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계통적으로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원류는 중국 쪽이라기보다는 만주·시베리아 등 북방 쪽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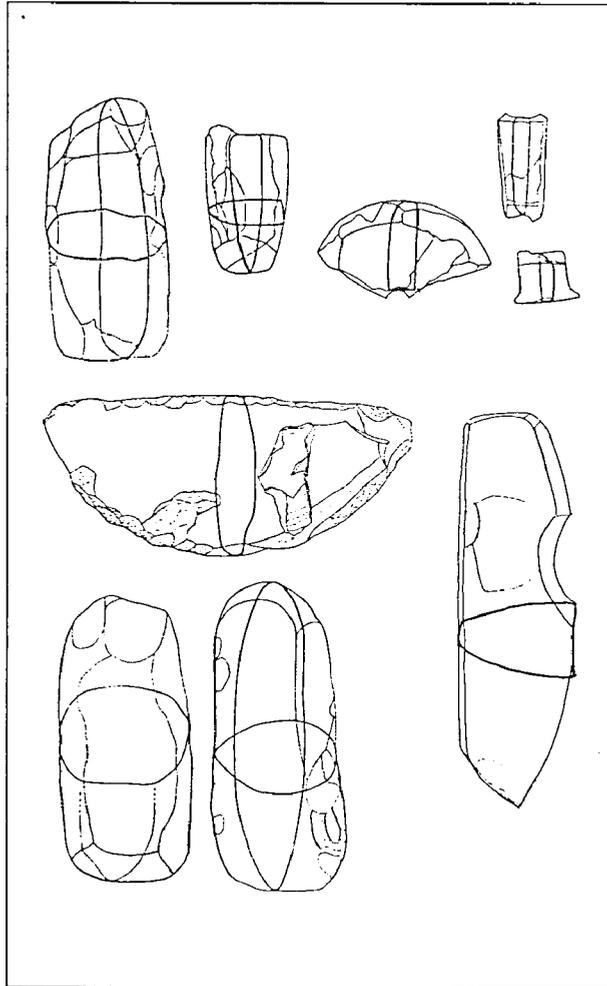
<그림 1> 인천동 청동기 유적지 채집유물

그래서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시베리아 미누신스크지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중국과 스키타이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적으로 요녕지방과 연결된다.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제작된 것은 대략 기원전 600년경이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요녕 등지에서 들여온 청동기를 사용하였다. 당시 요녕과 한반도는 같은 문화권역에 속해 있었다. 요녕식 청동기는 중국식 청동기와 그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유물인 동검의 경우, 중국식은 기는 반면 예맥문화권에 속한 요녕식은 굴곡이 있는 비파형이다.

청동기시대인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신석기시대와 크게 차이가 없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하천이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얇은 구릉지대의 경사면에 10채 내외의 작은 반움집으로 구성된 취락을 형성하여 살았다. 그들 역시 농경을 주로 하면서 사냥과 낚시를 하였으며, 한편으로 가축도 사육하였다. 그래서 돼지의 사육이 성행했고, 벼를 비롯한 각종 곡식이 재배되었다. 경남 울주의 바위에 새겨진 그림에 잘 나타나 있듯이 수렵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구리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적·유물은 신석기시대의 것과 마찬가지로 아차산



<그림 2> 교문동 청동기 유적지 채집유물

동쪽 기슭을 중심으로 구릉의 말단부에 분포한다. 구리 인접 지역에서는 남양주의 수석리와 한강 건너 미사리 등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발견되었다.

구리의 청동기 유적의 발굴은 일제시대인 1932년과 1934년 2차에 걸쳐 일본인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때 발굴된 인창동·교문동·사노동·갈매동의 유적에서는 동검·동침기·무문토기·간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유물이 출토된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외에도 해방 이후 1965년에 발굴된 아차산의 청동기 유적에서는 간석기·반월형돌칼·토기파편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문화의 또다른 특징은 무덤 양식인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흩어져 있다. 구조상 고인돌은 지상에 탁자처럼 세운 북방식과 작은 받침돌이나 판석만을 놓은 남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북방식이 시신을 지상에 노출시키는 반면 남방식은 땅을 파서 석곽과 또는 석관을 매장하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 놓는다. 청동기시대의 각종 출토 유물

은 많은 경우가 이러한 고인돌 속에 함께 묻은 것들이다. 한강변의 주변에는 많은 고인돌이 분포한다.

구리시의 경우 인창동에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남양주시 가운동 등 인근 지역에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이 남아 있다.

제2절 고대

1. 삼한시대

청동기의 생산이 본격화된 기원전 300년경, 한반도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다. 중국 연나라의 화폐인 명도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철제품이 전래된 것이다. 철은 일반적으로 청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많은 도구가 청동기와 석기에서 철기로 대체되었다. 청동기는 철기의 등장 이후에 한동안 의식을 치르는 신성한 기구로 제작되다가, 기원을 전후하여 제작이 중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전래된 것인데 주목할 것은 무기보다 농기구와 관련된 철기가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는 철기의 보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을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 당시 주요한 철의 생산지로서 여기서 생산된 철이 일본과 낙랑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철제 도구는 이제까지의 도구에 비해 월등히 단단했기 때문에 철제농기구의 보급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또 철기의 전래와 함께 중국의 발달된 농법이 전해져 이때부터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등 농경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의 한반도 남단은 삼한시대에 해당한다. 삼한은 마한·진한·변한을 말하는데, 그 영토 범위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 대체적으로 마한은 지금의 경기도·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를, 진한은 낙동강 동쪽을, 변한은 낙동강 서쪽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한은 각 소국가의 합작으로 이루진 연맹체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구리지역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 마한연맹은 제사를 공동으로 지내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54개 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한연맹은 목지국(目支國)의 진왕이 연맹의 맹주자리에 있었는데, 목지국은 마한뿐 아니라 변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구리지역에는 마한연맹에 속한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국가가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2. 백제와 아차산

구리지역은 3세기에 들면서 한강 유역을 근거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한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백제는 부여족 계통의 고구려 유민이 남하하여 세운 나라이다. 처음 백제는 강 북쪽이라는 뜻인 하북(河北)의 위례성(慰禮城)을 도읍으로 정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이후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도 백제로 바꾸었다. 백제라는 국호는 십제를 세운 세력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제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여 247년 고이왕 때 마한연맹의 맹주인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강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고이왕은 목지국의 병합 후 관료제도를 개혁하여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백제는 마한의 잔여세력을 병합하여 남으로 지금의 전라도지역을 복속하고 동쪽으로 가야세력을 영향권하에 넣었다. 그리고 북으로는 고구려와 대치하면서 전쟁을 벌여 지금의 황해도지역까지 진출하였다. 371년 근초고왕 때 약 3만여 명의 백제군은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고구려의 국왕인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국력은 중국 요서지방에 백제군(百濟郡)을 설치하는 등 해상무역을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였다. 백제의 성장으로 인해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백제를 견제하였다. 이 시기 백제는 백제역사에서 최고의 국력을 과시했으며, 당연하게 당시 백제의 도읍지가 있던 한강유역은 백제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 중 한강 유역에 대한 패권을 가장 먼저 획득한 나라는 백제였다. 현 구리지역은 삼한시대 마한의 영역으로서 백제가 마한을 병합할 때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구리지역은 백제의 중심지인 한강 하류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아차산의 정상부에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한강 이남 백제의 핵심지역을 비롯하여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백제로서는 아차산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차산에 군사시설을 건설하였다.

현재 아차산에는 고대의 군사적 요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 흔적이 남아 있다. 아차산의 남쪽에 있는 테피형 산성과 보루성(堡壘城) 그리고 정상부 능선에 이어져 있는 장성유적이 그것이다. 현재 이러한 유적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또 용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단 보루성 유적은 지표면에서 발견된 유물을 볼 때 일단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차산은 고대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하려고 한 삼국이 모두 중시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느 한 나라에 계속 속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백제 그 다음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각각 점령하였고, 삼국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지속된 곳이었다. 따라서 아차산에 있는 유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보다 많은 유물의 발굴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차산의 남쪽에는 원형으로 쌓은 테피형의 옛성 유적이 있는데 보통 아차산성이라고 부른다. 이 성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백제의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성을 백제의 것으로 볼 때, 이 성은 강 건너에 위치한 백제의 중요한 성인 몽촌토성·풍납토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간이 성곽(城郭)을 건설하게 된 것은 정착생활 및 국가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인간은 자신의 집단과 생산물을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주거지를 둘러싼 방어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것이 흙이나 돌로 높은 담을 두르고 그 앞에 함정이나 물을 채운 해자를 파는 것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성곽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곽의 건설은 대규모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이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력이 수반되어야 했고, 결국 이는 국가라는 통치기구의 성립을 필요로 했다.

성은 방어를 위해 평야지대보다는 관측이 용이한 구릉이나 산지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구릉이나 산지는 평지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대 이래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 평지에 건설한 도성(都城)과 군사적인 용도의 산성(山城)이 상호 연관을 가지고 함께 건축되었다.

보통 옛 성곽유적의 형태를 면밀히 보면 어디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을 통해 건축한 주체를 알 수 있다. 아차산에 있는 성 유적의 경우도 출토 유물과 함께 그 위치에 의해 유적의 주인이 파악될 수 있다.

아차산의 정상부에 이어져 있는 장성은 분명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 존재는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성은 현재 아차산의 주요 산책로로 이용되면서 계속 훼손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아차산 서쪽으로 펼쳐진 뚝섬벌판, 지금의 광진구와 성동구 지역에 있었던 살곶이 목장의 동쪽 담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장성에 대해서는 원래 말목장의 담장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고대의 성이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고대의 장성이었다는 주장은 이 돌담이 말목장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었으며, 백제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세운 이후 후대에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즉 백제가 외침을 막기 위해 축조하였는데, 3세기의 백제 전성기를 거쳐 고구려의 남하 팽창기였던 4세기에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번 수리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 장성이 아차산뿐 아니라 강남에서 시작하여 아차산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장성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이 장성유적이 고대의 성곽유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장성의 축조상태가 조잡하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둔다. 고대 성곽유적은 중국과 한반도 곳곳에 남아 있다. 만주 집안에 남아 있는 성 유적이나 충청북도 단양에 온달산성이라고 알려진 성 등 고구려 성곽의 축조기술은 매우 정교하다. 백제의 성 유적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백제의 성곽 건설기술이 삼국 중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차산은 삼국이 모두 점령한 곳으로서 삼국 성곽 건설기술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때 보통의 돌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아차산 정상부의 장성을 고대 군사유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고대사는 그 윤곽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아차산 장성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유물의 발굴과 합리적인 상상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밖에 아차산에는 여러 개의 보루성이 있다. 보루성은 일종의 소규모의 요새

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발견된 아차산 보루성은 대부분 남쪽 능선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로 한강 이남이나 서쪽 뚝섬벌판을 관측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로 남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 보루성이 일단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추정은 아차산에 대한 실제 조사에서 물증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루성 유적의 땅 속에서 고구려의 토기가 발견된 것이다. 이 고구려 토기는 중국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토기와 아차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 성수동에서 발견된 토기와 모양이 같다. 이로써 아차산의 보루성이 고구려인들이 머문 유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유적은 파면 팔수록 더 오래된 시기의 유물이 발견된다. 흔히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처음에 신석기 유물이 나오지만 파면 팔수록 오래된 시기 즉 구석기 유물이 나오기도 한다. 고구려 토기는 거의 지표면에 가깝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었다. 좀더 깊이 파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백제 유물을 비롯한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것이다. 그만큼 아차산은 한반도의 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3. 고구려의 아차산 점령과 개로왕의 죽음

백제는 3세기 전성기를 거치면서 고구려의 남진에 위협받기 시작했다. 고구려는 391년 광개토왕 즉위 후 대대적인 대외정복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광개토왕은 백제에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광개토왕이 즉위하기 20년 전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평양성까지 침입한 백제군에 의해 죽었기 때문이다. 백제는 고국원왕의 전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침입해 와 고구려의 국경을 위협하였다. 고국원왕이 죽고 광개토왕이 즉위하기까지의 20년간 고구려와 백제는 약 10여 차례 서로 물고 물리는 도발을 계속하였다. 광개토왕은 보다 적극적으로 백제를 제압하고 나아가 백제가 패권을 가졌던 한강 상류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광개토왕은 즉위 이듬해부터 시작하여 재위기간에 여러 차례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백제로 쳐들어갔다. 그 중 396년에는 광개토왕이 이끈 고구려군에 의해 백제의 58개 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왕이 항복하였다. 「광개토왕비문」에는 광개토왕이 함락한 58개의 성 중에 아차산성이라고 추정되는 아차성(阿且城)이 나타나 있다. 당시 고구려는 육로와 수로 두 방면군을 편성하여 육군은 경기 북부지방으로 진출하여 아차성을 점령하였고 수군은 예성강을 출발, 한강을 타고 들어 한성을 위협하는 한편 주변의 성을 제압하였다. 이때 아차산은 고구려의 영향권하에 들어갔다. 광개토왕은 아차산 함락 후 백제로부터 항복과 복종의 서약을 받고 물러갔다.

그러나 이후 백제는 계속 고구려와 대립하였고 국경에 대한 침입도 여전하였다. 또한 북위를 끌어들이고 고구려를 견제하도록 외교공작도 펼쳤다. 그러나 백제

와 고구려 간의 싸움은 대세적으로 고구려에게 기울었다.

광개토왕의 대를 이어받은 장수왕은 475년 가을 3만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갔다. 『삼국사기』에 나온 당시의 정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고구려군은 수로를 통해 왕성을 공격했다. 백제의 왕성은 남성(南城)과 북성(北城) 두 개가 있었다. 고구려 수군은 북성을 먼저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그 다음 남성으로 향했다. 고구려군은 북성을 포위공격하였는데 백제의 군과 민은 일주일간을 항전하였으나, 결국 함락당하였다. 고구려군은 여세를 몰아 남성으로 진군하여 성문을 불태우며 화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성안의 백제인들은 싸움의 결의를 잃고 매우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성을 빠져나가 고구려군에 항복하는 일도 있었다. 궁성에 있던 백제의 개로왕은 싸움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수십의 기병만 거느리고 왕성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죄를 짓고 고구려로 망명 후 고구려군의 백제침략 선두에 섰던 백제인 재증결루와 고이만년이 도주하는 개로왕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재증결루는 개로왕을 말에서 끌어내리고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다. 개로왕은 고구려군에 의해 생포, 강 건너 아차산으로 압송되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군이 백제 왕성을 공격하기 앞서 아차산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즉 지형적으로 아차산은 백제의 왕성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관측권 제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점령했던 것이다. 아차산에서 보이는 한강 건너에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백제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를 각각 백제의 남과 북성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차산에서 전세를 보고 있던 장수왕은 끌려온 개로왕을 문초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하였다. 장수왕은 백제가 선왕 광개토왕에게 항복한 후 복종의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구려의 국경을 위협하며 중국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공작한다든지 또 중국에 보낸 외교조서에 자신을 ‘조그만 아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해 있었다.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는 왕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처형한 후 계속 남진하여 아산만 지역까지 내려갔다.

고구려는 한강 하류를 영토로 편입하고 북한산군(北漢山郡)을 설치하였다. 이때 현 구리시지역은 행정적으로 당시 새로 설치된 고구려의 골의노현(骨衣奴縣)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강 하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금의 서울 북부지역에 남평양성을 설치하였다. 구리지역의 경우 전투에서 드러났듯이 아차산의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시되었다. 현재 발견된 보루성 유적 등의 고구려 유적은 이때 만들어졌거나 보다 견고하게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아차산 일대를 포함한 한강 하류지역은 이때부터 신라·백제 연합군에 의하여 한강 유역이 탈환되는 551년까지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결국 백제는 왕이 살해당하는 국가존립의 위기를 맞아 한강 하류에서의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고구려의 진출로 인해 삼국의 동맹 관계는 고구려-신라연합에서 백제-신라연합으로 변해갔다.

4. 신라의 진출과 삼국통일

한강 하류지역은 475년 장수왕의 침공 후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다. 아차산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은 일단 이 시기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의 점령 후 551년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76년 만에 한강 하류지역을 상실하였다. 이때 한강 하류지역은 백제가 공격하였고 그 동쪽을 신라가 협공하였다. 이 공격으로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을 되찾았다. 그러나 2년 뒤 백제는 동맹관계에 있던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다시 밀려났다.

삼국 중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이용하는 한편 꾸준히 힘을 길렀다. 그리하여 영토확장을 도모하였으며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강 하류지역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신라는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일원에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여기에 신주정(新州停)이라는 정예부대를 주둔시켰다. 이는 현 구리시 인근 한강 하류의 전략적 비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후 신라는 계속된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604년 기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이 지역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660년에 백제를 그리고 668년에는 중국의 침략과 내분으로 약해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영토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통일이 아니었다. 신라는 백제의 영토와 고구려의 일부 영토를 병합했을 뿐이다. 또한 신라는 자력에 의해 통일을 이룬 것도 아니었다. 비록 신라가 강병정책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성장했음지는 몰라도 당나라군대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고구려, 백제 양국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넓은 영토가 당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에 의해 발해가 건국되었다. 결국 삼국은 진정한 의미로 통일이 되었다기보다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신라는 757년(경덕왕 16)에 한강 하류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단행하여 한양군(漢陽郡)을 설치하였고, 현 구리시지역이 속했던 골의노현을 황양현(荒壤縣)으로 바꿔 불렀다.

제3절 고려시대

1. 후삼국시대와 고려 건국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멸망시킨 후 신라의 영토는 이전에 비해 몇 배로 넓어졌으며, 귀족들은 많은 전리품과 노비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내내 한 해 도 조용한 적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기간의 평화가 계속되었다. 자연히 중앙의 상류층은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였고, 왕위계승을 둘러싼 권력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귀족들의 싸움으로 인해 지방통치는 해이해졌고 이를 기회로 각 지방에서 지방세력이 성장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세력의 사이에서 이중 착취를 당했던 하층민에 의한 반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반란세력이 규합하여 군벌을 형성하고 성을 쌓는 등 세력이 강화되면서 신라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지역군벌의 형성은 후삼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후삼국시대는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과 함께 성장한 지방군벌세력이 반란세력을 흡수,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통일 이전의 형국으로 돌아간 시기였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다시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이미 쇠잔해진 신라의 영역으로 나뉘었다.

후삼국시대 현 구리시가 속한 양주지역은 고려를 세운 왕건의 영향권하에 있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대한 고려의 세력확장이 저지되었으나, 10세기 초 포천 지역의 호족인 성달과 양주지역의 호족인 능현이 자발적으로 왕건에 귀부하여 고려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다. 이후 이곳은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한 후백제 견훤의 식읍(食邑)이 되기도 하였다.

2. 양주, 남경, 한양부에 속한 구리

고려시대까지는 아직 구리 또는 구지 같은 오늘날의 지명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경기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고려시대 당시 이곳의 행정구역이 양주목, 양주, 남경, 한양부로 변천됨에 따라 현 구리지역도 여기에 속하여 함께 변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우리 역사에서는 한강을 끼고 있는 구리 주변 지역이 군사적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대외관계적 측면에서 중시되었으나, 고려왕조가 들어선 후 이 지역의 위상은 새롭게 변하여 수도 개경과 가까운 경기지역(京畿地域)으로서 부각되었다.

구리지역이 속한 경기 동북부지역이 양주목으로 포함된 것은 983년(고려 성

종 2)의 일이다. 당시 고려 조정은 전국의 중요한 12개 지역에 ‘목(牧)’을 설치하였다. 설치된 목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였다. 당시 각 지방에는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방세력 즉, 향호가 존재하고 있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는 이러한 지방세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제어하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확대시켜야 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지방세력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그 영향력이 점차로 감소되었다.

양주목은 1018년(고려 현종 9) 4도호부 8목 56지주사 및 지군사, 28진장 20현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양주(知州事)로 바뀐다. ‘목’에서 ‘주’로의 변동은 행정구역상 격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격하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양주지역에 대한 통치를 중앙정부가 직접 간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얼마 뒤 1067년(고려 문종 21)에 양주는 다시 지주사에서 동경(지금의 경주), 서경(지금의 평양)과 함께 남경으로 승격되어 고려 3경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양주가 남경으로 부상한 이유는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이 관련되어 있다. 즉, 양주지역이 풍수지리학상 명당길지이므로 이미 땅의 운세가 쇠락해진 개경을 대신할 도성터로 부각된 것이다. 이후 고려는 여러 번 남경에 도읍을 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남경은 1308년(충선왕 즉위) 한양부로 격하된다. 남경뿐 아니라 서경과 동경이 모두 격하되었다. 당시 고려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 수십 년간의 결사적인 대몽항쟁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몽고의 부마국으로 전락하였다. 남경이 한양부로 된 것은 지방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앙에서 보다 많은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중앙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실행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리지역 역시 한양부의 편제로 들어갔을 것이다.

3. 이민족의 침입과 구리

고려는 그 나라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구려의 계승을 표명하였으며 적극적인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가 북쪽의 서경을 중시한 것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북진정책은 한편으로 북방민과의 마찰을 동반하였다. 이에 만주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거란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다. 거란은 고려건국 후 여러 차례 고려를 침입하였다.

구리 역시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구리 주변 지역은 1216년에서 1218년까지 3차례에 걸친 주요 침입경로였다. 침입해 온 거란군사는 각각 사지암, 풍양현, 효성현, 노원역 선의장 등에서 고려 관군과 이 지역 백성들에 의해 격파되었다. 그러나 거란에 이은 몽고의 침입에 의해 고려는 전 국토가 황폐화해졌고, 결사적인 대몽항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몽고는 1255년(고종 42)까지 25여 년에 걸쳐 6차례나 고려침략을 감행하여 고려의 전 국토

를 초토화시켰다.

구리가 속한 양주는 몽고군이 남쪽을 공략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당시 구리지역의 백성들은 일부는 강화도로 피신하는 한편 몽고의 침략에 직접적으로 맞서 인근의 성으로 들어가 항전하거나 산악지대를 근거로 대몽 유격전을 벌였다.

제4절 조선시대

1. 조선의 건국과 구지면

고려 말 현 구리지역이 속한 양주는 풍수지리학상 길지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양주는 지세가 쇠퇴했다고 생각한 개경을 대체할 도성지로 부각되었고 실제로 몇 차례 천도가 계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고 조선건국과 함께 새로운 도읍지로 선정되었다. 조선왕조를 세운 주도세력들은 양주 이 외에도 계룡산 등을 새로운 도읍지로 고려하였으나, 한양에는 고려 말 여러 번 천도를 실행하려 하면서 이미 궁성이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인 면이 고려되어 한양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양주에는 왕도가 속하게 되었고 자연히 양주에 속한 구리지역은 중앙정부의 보다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의 지방통치제도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8도 아래에 부·대도호부·목·군·현이라는 행정구역을 두었다. 그리고 현 단위까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고려시대에 비해 중앙집권이 강화되었다. 경기도는 4개 목, 7개 도호부, 7개 군, 19개 현으로 구성되었다.

구리가 속한 양주는 시기에 따라 행정구역 등급이 계속 변하였다. 건국 직후에는 한양이 생김에 따라 지양주사로 그 격이 떨어졌다가, 곧 양주군으로 개정(1394년)되고, 부(1397년), 도호부(1413년)를 거쳐 양주목(1466년)이 되었다.

구지면의 구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비롯되었다.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시대 양주에는 구지면을 포함 32개의 면과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는 현까지만 파견되고 그 밑의 면과 리에서는 그 지역의 유력자를 면임(面任 : 면장)과 이장(里長)으로 임명하였다. 구지면 역시 지역의 유력자가 면임이 되어 이 면임이 지역 면민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동원하는 등의 공무를 담당하는 한편 크고 작은 면의 행사를 주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부과하기 위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1404년 세종대의 호구조사 결과 전국의 호(집)는 약 22만, 구(인구)는 약 80만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조사는 16세 이상 60세 이하 부역 부과대상 남녀를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 중 양주에는 1,481호와 2,726구가 있었다. 한편 약 300년 뒤인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도 양주와 거기에 속한 읍·면의 호구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의하면 호구조사 방법이 달랐을 것이

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인구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양주와 구지 그리고 그 주변의 호구수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 후기 구지와 그 주변 지역의 호구현황

	호(戶)	구(口)	남	여
양주의 총계	11,254	53,497	23,775	29,722
구 지 면	488	1,558	672	886
진 관 면	274	1,426	672	754
별비곡면	490	1,885	857	1,028
망우리면	233	888	359	529
노 원 면	311	1,387	683	704
해등촌면	379	1,552	742	810

<표 1>을 보면 현재의 구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지면이 별비곡면과 함께 조선 후기 당시 주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 구리지역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한양의 흥인문(동대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강원도지방으로 가던 길목이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은 구지면에서 인창리를 지나 왕숙천과 도농리로 연결되는 길과 수택리~수석리~평구역으로 연결되는 두 길로 갈라졌다.

또한 아차산에는 조선시대 주요한 통신수단이었던 봉수가 있었다. 봉수에서는 국가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불을 이용하여 전국을 연결, 그 사실을 전했다. 전국적으로 봉수는 5개의 계선으로 되어 있는데 남산이 그 중앙에 있었다. 아차산의 봉수는 남산의 봉수와 양주의 동남쪽에 있었던 대이산(大伊山) 봉수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구지는 조선시대 동쪽으로 가는 교통·통신상의 연결지였다.

2. 임진왜란과 후기의 사회변동

조선시대 구지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곳이 조선 태조의 능인 건원릉이 자리잡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건원릉 조성은 전국에서 6,000여 명을 불러들여 부역을 시킨 큰 공사였다. 조성 후에는 능지기를 두고 주변의 100여 호에 각각 농지를 내려 능의 수호군으로 삼았다. 그 밖에 개경사라는 절을 지었고, 양주에 있었던 6개의 창고 중 동창(東倉)에 건원릉과 관련된 일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는 창고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건원릉이 있던 구지면은 조선 초기부터 신성시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발발, 한양이 함락되었을 때에도 구리면에서는 건원릉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났다.

오늘날 동구릉의 아홉 개 능은 조선 초기에서 말기 고종대에 이르는 긴 시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건원릉과 현릉 두 개밖에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빠른 속도로 북진, 마침내 한양이 함락되자 건원릉이 있던 구지면 역시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국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왜군에 맞서 싸웠다. 구지에서도 고언백이 사람을 모아 왜군에 대항하였다. 고언백의 근거지는 건원릉이 자리잡은 검암산이었다. 고언백은 검암산을 근거지로 하기 이전에 이미 도원수 김명원의 밑에서 공을 세웠다. 이후 독자적으로 양주에서 병사를 모아 왜군을 공격하였는데, 그는 이 공으로 양주목사에 임명되었다. 그가 근거지를 양주로 옮기고 양주 수호를 자청한 주요 이유는 태조의 건원릉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건원릉이 있는 검암산에 요새를 짓고 약 2,000여 명의 군사를 통솔하면서 왜병과 전투를 벌였다. 이 요새는 남아 있지 않아 오늘날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김정호가 편집한 『대동지지』에는 검암산의 서쪽 봉우리에 고언백이 지은 ‘고루(古壘)’ 2곳이 있다고 쓰여 있다. 또 검암산 고루와 함께 고언백의 활약에 대해 “산의 정상부 험준한 곳에 자리잡고 기회를 엿보아 밀려드는 왜적을 격멸하였으며, 능에 숨어 있다가 역시 능을 약탈하러 들어온 왜병을 죽였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고언백은 검암산의 정상에 요새를 세워 동태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의 백성과 연계하여 건원릉을 중심으로 양주지역에 침입한 왜병들과 유격전을 벌였던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싸움이 전개됨에 따라 불리하던 임진왜란 초기의 전세는 역전되어 결국 일본은 7년 만에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갔다. 그러나 그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여기에 왜란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병자호란을 겪게 됨으로써 조선정부와 백성들은 다시 한 번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두 차례의 외침 결과 조선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불가피하였다. 우선 최고의 정부기관이던 의정부의 기능을 비변사가 대신하였고, 중앙 군사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훈련도감과 함께 5군영 체제로 개편되었다. 지방에서의 군제는 양인과 천민이 함께 소속된 속오군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신분제가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 밖의 행정이 문란해져 급료를 주는 모병제가 운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세제도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현물로 징수하는 공물, 부역 등을 통합하여 쌀이나 포 또는 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대동법이 왜란 직후부터 시행되었다. 또 군역 부과에 대한 폐해가 심해지자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었고 또다른 폐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17세기에 여러 농사법의 개선으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였다. 농업부인과 함께 상업·수공업·광업분야도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사

회계층의 분화를 초래하였다. 즉 농업경영의 변동으로 인한 지주제의 확대 및 부농층의 성장, 어물을 독점하던 양주의 누원점상인(樓院店商人) 등 독점상인의 등장, 용점·유기점촌 등의 수공업의 발달로 일부 부를 축적한 농민, 상민이 등장하면서 하층민의 신분이 상승하고 양반이 몰락하는 상황이 지주 일어남에 따라 신분제는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점차 없어졌다. 19세기 중엽 양반층이 크게 증가한 반면 평민, 노비층은 이에 비해 감소한 것이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제상의 변화는 중세사회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5절 한 말

1. 제도개혁과 사회구조의 변동

조선사회는 개항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은 조선을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켰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상품의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선에 구축하려 하였고, 그것은 이전의 생산관계에 대신하는 새로운 생산관계의 출현을 의미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조선에서의 이권을 둘러싸고 열강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조선정부는 그들의 이해에 따라 열강 사이를 오가며 줄타기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조선 내에서 자라고 있던 새로운 요소가 맹아상태에서 깨지고 오히려 밖으로부터의 힘에 의해 낡은 것이 유지되고 그것에 의한 식민지화로의 과정이 추진되어 갔다.

한말은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시기를 통칭하는 말로서, 여러 개혁과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격동의 시기이다. 한말은 크게 세 시기로 갑오개혁시기, 광무시기, 통감부시기로 나눌 수 있다.

1894년의 갑오개혁은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라는 내외의 도전 그리고 개화파의 개혁의지가 어우러져 진행된 것이었다. 즉, 농민항쟁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개혁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부로부터의 압력과, 식민지화를 염두에 두고 조선의 제도를 근대적인 것으로 개편하려는 외부의 압력에 대응한 것이었다.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의 주도하에 실시된 제1차 개혁,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시주로 만들어진 박영효·김홍집 내각에 의해 추진된 제2차 개혁 그리고 박영효의 망명 이후 김홍집에 의해 추진된 제3차 개혁으로 전개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궁내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내각 중심의 정치체제를 추진한 것과 경제적으로는 화폐제도의 수립 및 회계·예산제도의 시행, 재정의 충실성 기도, 결가제라는 지세제도의 개혁 등이었다.

개혁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것이었지만, 내외의 모순을 헤쳐나가기에는 개화파의 역량이 너무 미약했다. 결국 정권의 주도권은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넘어갔으며, 그들에 의해 추진된 정책들은 갑오개혁의 근대적인 성격을 희석시키거나 오히려 역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힘을 내부 역량에서 구하지 않고 외세의 군사력에 의존한 것은 개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등장한 광무정권은 열강의 세력균형이라는 정세

속에서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기초를 내세워 독자적인 정책을 펴나갔다. 정치적으로는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여 국왕이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한과 군대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무한한 군주권’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황제권의 강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복고적 경향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갑오개혁 이후 제도적으로 폐지되었던 각종 잡세를 궁내부 소관으로 이속하여 왕실 재정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광무정권의 개혁은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국제적 세력균형 속에서 권력을 강화하던 조선 왕실의 노력을 제지하였다.

1905년 2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의 체결은 한국이 본격적인 식민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한국의 외교를 감독하며, 조선의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각종 법령을 통해 교통·통신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보호국화한 일제는 한국경제를 식민지 경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켰다. 한편, 일제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당시 반일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해산과 사법권의 장악을 위해 협약체결을 강요하였다.

당시 구리는 행정구역상 양주군의 한 면인 구지면에 해당하였다. 구지면 내에는 큰 시장이나 조선시대 교통의 핵심인 역참도 없었지만, 새로 유입된 자본주의의 강력한 파급력과 일제에 의해 강제된 제반 조치로 조그만 농촌지역인 구지면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다.

2. 토지소유제도의 변동

토지소유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한말은 조선 후기 이래 밑으로부터 발전해 온 농민들의 사실상의 토지소유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토지소유관념이 충돌하던 시기였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국가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수조권적 토지 지배에 기초하였다. 이러한 소유관계를 기반으로 수조권의 일부를 국가가 전·현직 관료에게 분배하는 제도가 조선 전기의 과전법이었다. 그러나 수조권 분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직관료에게만 수조권을 분여하는 직전법으로 바뀌었으나, 이 제도도 중종대에 오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수조권 분여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라졌지만 대신 절수(折受)라고 하는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적 토지소유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절수에 의한 수조권의 지급이 소유권의 지급인지, 단순한 지세수취권의 지급인지가 모호한 상태였다.

대한제국 광무연간의 양전·지계사업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토지제도와 농촌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폐단을 제거하고 농민경제 및 국가재정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의 것을 근대적인 법제로서 개정하는 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소유권 제도로서 지주소유권을 그대로 추인해 주는 데 그쳤고, 봉건제적인 지주층의 토지소유 및 지주·전호 관계도 그대로 존속되었다.

1) 역둔토 정리사업

갑오년의 여러 개혁 가운데 재정제도와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던 것이 역토(驛土)·관둔토(官屯土)·궁장토(宮庄土) 등으로 불리는 이른바 역둔토 정리사업이었다. 역둔토는 전국의 국유·관유 및 왕실소유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갑오년 이전에는 여러 관청과 궁방에 소속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한말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갑오승총(甲午陞總)’으로 불리는 면세지 철폐조치이다. 1894년 군국기무처 의안(議案) 「궁토·역토·둔토의 출세(出稅)에 관한 건」이 발표되면서, 궁장토 등의 수입은 계속 각 궁의 소관으로 두었지만, 지세는 신식으로 거두고 역둔토의 경우도 은토(隱土)와 결세가 싼 토지 등을 조사하여 신식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신식이란 1894년 7월에 공포한 ‘조세금납화(租稅金納化)’를 의미한다. 종래 궁장토·아문둔토에 대해서는 결세가 면제되었으나, 이 조치후 탁지부(度支部)에서 일괄하여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갑오개혁의 면세지 승총은 재정기구를 탁지부로 단일화하여 국고수입을 총괄함으로써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역둔토 관리는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토지로부터 도지(賭地)를 징수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면적과 소유권을 조사하는 사판사업(事辦事業) 및 사검사업(查檢事業)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처음 역둔토가 내장원(內藏院) 소관이 되었을 때 실시되었으며, 그 소관이 탁지부로 이관된 뒤에는 일제의 본격적인 토지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1895년에 실시한 농상공부의 을미사판(乙未事辦)은 역둔토의 실결(實結)을 파악하고, 진폐지(陳廢地)·신간지(新墾地)·기경지(起耕地) 경작자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내장원은 1899년 9월부터 둔토·목장토에 대하여 그리고 1900년 9월부터는 역토에 대하여 전국 각 도에 사검위원을 파견하여 사검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도지와 토지에 관한 문제가 정리되었다. 도지에 대한 문제는 역둔토가 본래 여러 지방, 여러 종류의 토지로 구성된 만큼 그 관리기구를 일원화한 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균등한 도지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 토지파악은 역둔토에 속하게 된 종래의 각종 토지를 점점·확인하여 도지 징수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으로, 토지의 면적을 조사하는 일과 소유권을 확인하는 일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역둔토 정리사업에는 국유지창출을 통한 토지침탈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역둔토의 소작료 수입은 1910년대 총독부의 예산에서 3~4%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또 역둔토는 일본인 농업이민을 유치하기 위한 불하지 혹은 대부지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결국 역둔토 정리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 지주제가 국가의 재정기반으로서 재확인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일제의 토지침탈 과정이었다.

2) 구리지역의 역둔토

당시 구리지역에 소재했던 역둔토의 현황을 살펴보면 평구역토(平丘驛土), 양향둔(糧餉屯)·충훈둔(忠勳屯)이 있었다. 그 외에 아차산 동산세(峨嵯山 東山稅)가 부과되었다. 궁장토로는 수진궁(壽進宮)의 장토가 소재하였으며, 그 외에 동구릉과 홍릉(洪陵) 등 각 능의 위토가 산재하였다. 특히 능이 많았던 구리지역의 경우에는 능위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구지면의 역둔토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은 대체로 도조액 책정에 관련된 것과 결세납부에 관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도조액 책정을 둘러싼 분쟁은 군에서 징수한 도조액과 내장원이 지정한 도조액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발생하였다. 평구역 등 양주군 내 4개 역토의 1900년분 도조액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역토의 관리가 내장원으로 옮겨지면서 도조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세납부의 문제는 정액의 도조제와 정물의 타조제의 혼재에 의하여 발생한다. 역둔토에서의 소작료 수취는 을미사관 이래 도조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평구역토의 경우 내장원에 납부할 때는 정해진 도조액수를 납부하면서도 농민에게 거둘 때는 타조로 거두고 있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작인이 결세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경기도에서는 도조제인 경우 작인이, 타조제의 경우 답주가 결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역토에서 타조제가 실시된다면 결세는 답주인 내장원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군에서는 역토의 결세를 내장원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마름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였다. 반면 도조제가 실시될 경우는 작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했다.

갑오승총 이후 이 역토는 마름이 타조제로 운영해 왔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었지만, 타조제로 운영할 경우 평년작 이상의 소출이 나올 때 결세를 부담하고서도 도조제보다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마름의 입장에서는 사복을 채울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작인의 입장에서도 일반 지주의 토지는 타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었다. 이러한 관행은 역토의 관리권이 내장원으로 귀속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문제는 흉년이 들어서 타조제로 소작료를 거둘 경우 정해진 도조액조차 채울 수 없을 때 발생하였다. 즉, 흉년이 들면 마름이 일방적으로 수취방식을 도조제로 바꾸어 농민들에게 결세 부담을 전가하려 하였는데, 이때 마름과 작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1901년 평구역토의 사례는 마름의 횡포가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자, 역토의 경영이 법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도조제가 아닌 타조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역토가 도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작료가 낮아 농민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평구역토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3. 의병활동

청일전쟁 후 일제가 보다 노골적인 간섭과 침략을 자행하자 이에 반대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함께 식민지화 과정이 본격화됨으로써 의병운동은 민족적·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해산 후에는 많은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의병부대의 무장력이 보다 향상되었다. 이렇게 전국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된 의병운동은 강압적인 국권 침탈을 저지하는 반침략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구리지역이 위치한 경기도 동북부 일대는 서울과 인접한 주요지역으로서 활발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구리 출신으로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는 노은(蘆隱) 김규식(金奎植)을 들 수 있다. 구지면 사노리(현 사노동) 출신인 김규식은 경기도 동북부와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으로 이름높았다. 그는 대한제국 군대의 참위로 재직하다가 군대해산 후 본격적으로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

김규식 의병부대는 1908년 1월, 13도연합 의병부대가 서울진공작전을 벌일 당시 허위·연기우 등의 의병부대와 함께 서울 진격의 선봉대로서 실질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규식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중 탄환을 맞아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13도연합 의병부대가 감행한 서울진공작전은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는 의병운동이 각지의 투쟁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서울진공작전에 앞서 의병 사령부는 일본에 선진포고를 하는 한편 서울에 소재한 각 국 공관에 전쟁 상태를 통고하였는데, 이는 의병항쟁의 주체들이 반일 의병항쟁을 단순한 반란이 아닌 국가로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규식은 이후에도 1908년 3~4월 동안 장계원·김춘수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김규식 부대는 낮에는 흩어져서 무기를 숨긴 뒤 지계를 짚어지고 촌민으로 가장, 척후 활동을 하는 한편 밤에는 집합장소에 모여 행동을 감행하였다. 다른 의병들 역시 양민으로 변장하여 토벌군의 눈을 속이면서 토벌을 피한 뒤 다시 집결하여 항쟁을 이어 나갔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김규식 의병부대는 연기우·권중설·김수민·김진목 부대 등과 함께 마전·장단 등 임진강 유역과 양주를 중심으로 가평·

적성·포천·연천 등지에서 독자적인 항일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렇듯 김규식은 1908년 일본군에 체포될 때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동북부 일대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의병운동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당시 구리와 인근에서는 김규식을 ‘호랑이 장군’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신출귀몰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는 한일합방 이후 국외로 망명하여 만주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다.

제6절 일제시대

1. 식민지 체제와 구리면의 성립

1) 식민지 지배의 확립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발표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동시에 폭압적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관료 행정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고, 조선총독을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서 선발하였다. 총독은 입법·사법·행정 등 조선 통치의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무단통치를 위해 전국에 배치한 헌병과 조선 주둔 일본군을 통솔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기구·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식민지 동화교육 방침을 수립하였다. 1911년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립학교의 경영일체를 통제하는 한편 반일 성향의 조선인 사립학교를 대거 폐쇄하고 공립학교 등 식민지 교육기관을 확충하였다. 이는 조선인을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만을 갖춘 하등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무단통치를 배경으로 경제구조를 식민지 수탈에 적합하도록 재편하는 데 집중되었다.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를 근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1911~1918년)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일본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광대한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일본인 개인과 회사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한편 조선을 일본을 위한 농산물 공급지로 전화시키면서 농업생산구조도 이에 맞게 재편성시켰다. 즉, 값싼 조선 쌀과 공업원료를 수탈하는 데 농업정책의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의 상공업을 억제하기 위해 1910년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또한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운수망도 확충하였다. 주요 간선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고 주요 항만도 정비·수축하였다. 이 시설들은 일본과 조선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여 일본 상품의 시장을 늘리고 조선의 식량·원료를 효과적으로 반출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

2) 행정구역 개편

일제는 1910년 「조선총독부지방관제」를 발표한 후 일련의 법령을 통해 강점

직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지방통치기구를 확립하였다. 지방통치기구 개편의 핵심적인 조치로서 「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면을 통치기구의 말단으로서 확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로써 종전까지는 면·사(社)·방(坊)·부(部)·단(端) 등으로 지방마다 달리 부르던 것을 ‘면’으로 통일하였다. 면에는 도장관(道長官)이 임명하는 면장과 면사무소를 두었으며 면사무소의 위치, 면의 사무규정, 면 사무의 지도 감독, 면유(面有)·동유(洞有) 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였다.

1914년 3월 일제는 조선의 지방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317개의 군이 220개로, 4,351개의 면이 2,517개로, 6만 1,473개의 동·리가 5만 8,467개로 통·폐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차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마무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수탈과 함께 지방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서 확실하게 장악하려 한 것이었다.

구리주변 지역은 일제 초기에 경성부 두모면과 경기도 양주군 구지면·망우리면·고양주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개편으로 양주군 구지면과 망우리면이 통합되고 여기에 양주군 진관면·별비면·미음면·노원면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구리면’이 되었다. 그리고 편입된 동·리도 서로 통·폐합되어 묵동리·중하리·상봉리·신내리·망우리·인창리·사노리·교문리·수택리·토평리·아천리·갈매리 등 12개 리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방통치기구 정비는 1917년 10월 「조선면제」의 시행으로 일 단락되었다. 면은 재산소유와 사업능력의 주체로서 지방공공단체로 인정되었으나, 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은 없어졌다. 대체로 1910년대의 촌락재편정책으로 동·리가 약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2.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일제의 초기 식민정책의 중추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토지조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1911년 3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실시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지세부과의 정리’를 명목으로 실시된 식민지배의 기초작업이었다. 즉, 조선농촌의 낡은 반(半)봉건적인 지주-소작인 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지주를 식민지 지배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의 농업을 일본경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강제병합 전인 러·일전쟁 후 준비작업이 착수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 3월 사업의 집행기관으로 토지조사국이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합병과 함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편되었다. 그 뒤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이 발표되어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일본에 의한 토지축량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신고제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경작 하던 땅에 대한 농민의 실질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제 지배에 민감하게 맞추어가고 있던 지주층을 중심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당시 농민의 경작 권은 오늘날의 소작권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당시에 농민의 경작권은 세속과 상속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의 절반 소유권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경작권이 근대적인 소유권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은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를 빼앗겨야 했다.

또한 일제는 이 사업을 통해 막대한 국유지를 창출했다. 200여 년 전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후 민유지로 된 토지를 국유지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역둔토로서 국유지에 편입된 경지면적은 1912년에 약 13만 4,000정보에 달했다. 종래 민유지였던 토지 역시 수속위반 및 증거불충분으로 몰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국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와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많은 조선의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잃고 가혹한 소작조건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고향을 버리고 국외를 비롯한 다른 지방으로 유랑을 떠나야 했다.

2) 구리에서의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소유권 조사는 준비조사,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 분쟁지조사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소유권 조사는 필지별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새롭게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필지별 지위등급을 조사하여 지가(地價)를 산정하는 지위등급조사가 진행되었다.

준비조사에서는 면·동·리의 명칭 및 경계를 조사하고 토지신고서를 거둬들

이며, 동시에 지방경제 및 관습을 조사하였다. 구리지역 토지신고서는 1913년 2월부터 1915년 2월에 걸쳐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1913년에 제출되었다. 동척 소유지는 1913년 10월과 11월에 신고되었다. 일필지조사에서는 지주·지목·지번을 조사하였는데, 구지면이 속한 양주에서는 1910년 10월에 일필지 측량을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양주의 총조사필수는 9만 6,857필이었으며, 이 중 구지면의 필지수가 4,652필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분쟁지조사에서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였다. 구지면의 분쟁지는 총 5건 12필이었는데, 이는 1913년 10월과 12월에 신고된 것이었다. 이 분쟁지 중 국가 명의로 사정된 것이 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동척 명의로 3필지 그리고 조선인 명의로 사정된 것이 1필지였다.

지가조사는 ① 지위등급 구분, ② 표준지 선정 및 지위등급 조사, ③ 각 필지에 대한 지위등급 부여, ④ 지위등급 결정, ⑤ 지가 산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필지별 소유자·면적·지목·등급이 확정되었는데,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며, 처분·수익·용익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다.

조사에 의해 확정된 구지면의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논이 1,399필지 147만 1,470평, 밭이 2,562필지 228만 1,670평, 대지가 532필지 15만 1,676평, 임야가 110필지 27만 7,055평이다. 구리에 사정명의인으로 나타난 사람·단체는 모두 983명이었으며, 국가는 107필지, 동척은 446필지를 차지했다. 토지조사사업 후 구리의 토지소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토지소유자 소유 규모별 인원 및 면적 (단위: 명·평·%)

소유 규모(정보)	인 원		면 적	
	인 원 수	비 율	면 적	비 율
0.2 미만	260	26.6	75,868	24
0.2~0.5	253	25.9	252,114	79
0.5~1	200	20.5	432,457	136
1~2	145	14.8	594,202	186
2~3	50	5.1	381,956	120
3 이상	69	7.1	1,450,444	455
계	977	100.0	3,187,041	100.0

출전 : 구리시, 『토지조사부』.

구리 토지소유자 중에서 국가와 동척 및 면·리 유토지를 제외하면 토지소유자는 977명이다. 이 중 자작의 하한으로 간주되는 1정보 미만의 소유자는 7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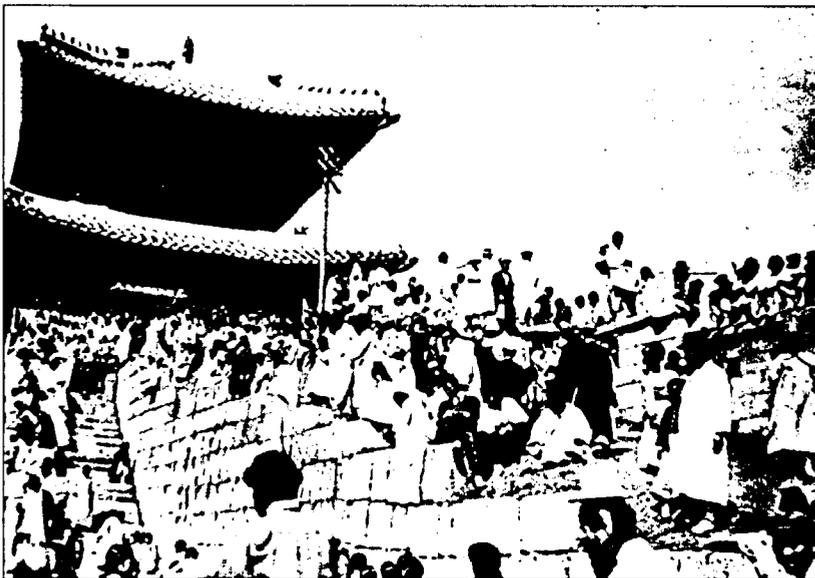
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한 전체의 면적은 23.9%에 불과하다. 이는 10명 중 7명이 1/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토지 소유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3·1운동과 무장 독립운동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한 이전의 모든 항일 운동이 이어져 거족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 대표, 종교 대표, 학생 등이 앞장섰던 초기 만세운동을 계기로 하여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이 참여하였으며, 대도시에서 시골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구리를 포함한 양주군 내에서는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만세시위로 117명이 피검되었다. 당시 경기도 전체의 피검자수가 3,349명으로, 이것은 안성군(429명), 고양군(267명), 개성군(189명), 수원군(182명)에 이어 도내에서 5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의 시위가 상당히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리의 3·1운동은 아천리에 거주하는 이강덕(李康惠)이 심점봉(沈點奉) 등과 3월 28일 아천리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시위행렬은 이웃마을 토평리·교문리까지 진출하였으며, 시위군중은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구리면민들은 다음날 29일에도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날의 시위군중들은 아차산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산 위에 꽂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일제는 만세시위에 대한 탄압을 구리에서도 자행하였다.



3·1운동 당시 동대문을 메운 시위군중

이 과정에서 구리지역 만세시위운동의 주동자인 이강덕과 심점봉이 일제에 검거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고, 재판에서 각각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구리지역도 대체로 전국의 운동양상과 다를 바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구리지역 3·1운동의 특징은 중앙 민족대표와의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 내에 특별한 비밀결사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상당수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다.

3·1운동의 결과, 일제는 폭압적 무단통치로는 더 이상 조선민족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1운동의 정신은 이후 임시정부수립운동 그리고 만주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민족독립운동의 거대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식민지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반제민족운동으로서 중국 등 아시아 피압박 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밖에서 독립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만주와 연해주에는 살 길을 위해 국경을 넘은 많은 조선인과 일제의 강점을 전후로 하여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사노리 출신인 김규식도 합병과 함께 만주로 건너간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한말 군인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항쟁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북만주의 독립무장조직인 북로군정서에서 사단장으로 활약하였다. 만주지역에는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 등 유력한 무장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다. 북로군정서는 대중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 만든 무장단체로 중심 인물은 김좌진·서일·현천목 등이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여 다른 부대보다 월등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총병력이 1,100명에 이르렀다. 김규식은 왕청현의 사관연성소 교관으로 청년교육에 힘쓰는 한편 1920년 청산리전투에 보병대대장으로 참가하여 광복군이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청산리전투는 북로군정서군이 1920년 10월 21일 새벽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로군정서군은 일본군 200~300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고 퇴각하였다. 퇴각한 북로군정서군은 10월 22일 오전 9시 홍범도부대와 함께 어랑촌전투에서 다시 일본군 3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청산리전투 중에서도 어랑촌전투가 가장 큰 전투였는데 이후에도 부대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연이어 일어났다.

청산리전투 후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등 독립군 단체들은 소련과 만주의 국경지대인 밀산으로 집결하였다. 여기서 독립군들은 통합운동을 펼쳐 3,500여 명의 병력이 포괄된 대한독립군을 조직하였으며, 김규식은 대한독립군단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또한 1923년 그는 연길현에서 이범석 등과 고려혁명군을 조직하여 총사령으로 활약하였다. 이후에도 만주지역은 광복 때까지 일제에 반대하는 무장운동이 계속되었다.

4. 수탈정책

3·1운동 이후 폭압적인 무단통치만으로는 조선인의 독립열망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일제는 기본적인 식민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무단 통치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소위 '문화통치'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독을 무관에서 임명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포정치의 대명사인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 보통경찰제를 실시했으며 일반 관리·교원의 제복착용과 대검을 중지했다. 그 밖에도 일부 관제를 개편하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민족의 저항에 의해 강압적인 방식을 약간 수정한 표면적인 유희조치일 뿐 본질은 식민지 지배를 보다 내화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통해 조선인 상층부에 자치의 환상을 심어 이들을 식민지 배의 조력자로 육성하는 한편 여러 가지 수탈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총독부는 늘어난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조세를 신설하고 관영사업 부문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소비세 등 각종 잡세가 신설되었고, 전매·철도·체신 등 관영사업 수입도 늘어났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 진행되면서 소작농민 수탈도 한층 강화되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쌀의 증산을 명목으로 각종 수리사업과 농사개량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증산계획의 기본 목적은 일본에 값싼 쌀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 농민들은 수리개발비 및 농사개량비 부담을 지게 되어 일제 농업금융기관과 고리대금업자의 채무노예상태로 전락했다. 또 소작인들은 수리조합비를 비롯 각종 잡세를 소작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부양은 꿈에도 못 꾸고 그야말로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증산의 성과는 일반 조선민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한편 일제는 일본의 산업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자 조선에서의 상공업 억제정책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에 노동자층을 형성시켰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공장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노동자들 역시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차별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새로 성립한 노동자층의 성장은 농민과 함께 반일운동의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한편 이무렵 주로 유학생들을 통해 서구의 사회주의사상이 도입되었다. 이 당시 들어온 사회주의사상은 기존의 민족운동의 이념에 계층·계급적인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이후 노동·농민·청년·형평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5. 전시억압체제와 주권회복운동

일제는 1920년대 말 세계공황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의 돌파구로 대륙침략을 강행하여 1931년 만주침략을 개시하면서 조선을 침략전쟁의 전진기지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은 조선산업의 군사적 재편성과 견고한 대륙병참기지 건설을 위한 전시수탈체제로 전환되었다.

일제는 우선 물리적 탄압기구인 군대와 경찰을 확대·증강하였으며,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등 각종 악법을 조선민족을 옥아 매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파쇼적인 침략사상을 주입시키면서 국민생활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1938년부터는 중일전쟁을 도발한 뒤에 만든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 같은 해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획일적인 일본인화 노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에서도 황민화교육을 위해 소위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는 3대 강령을 강제로 내걸도록 하였다.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강요 등 민족말살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조선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강제연행, 공사장·군수공장·전정터 등지로 내몰았다.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근로보국대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많은 조선인을 납치·연행하였다. 1939년 이후 일제가 강제연행해 간 인원은 한반도 내에서만 480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체적으로는 총 700여 만 명에 달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일제의 막바지 발악으로 인해 국내의 민족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은 끊임 없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구리지역에서는 1933년 이후 소작인들의 저항이 발생하였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에서는 소작쟁의가 1933년 5건, 1934년 71건, 1935년 198건, 1936년 99건 등 193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일제 전시수탈의 최대 피해자가 하층 농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의 반일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외에서도 활발한 반일투쟁이 전개되었다.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관내에서는 민족주의진영을 중심으로 주권회복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30년대 들어 임시정부는 ‘한민애국단’,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몇 개 단체를 규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그 후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주류세력은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편 김원봉 등 의열단 계열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했다. 이후 이들은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였으며,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이렇게 크게 두 계열로 나뉘었던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세력들은 반제민족통일전선이 강조되면서 통일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전국연합전선협회’가 결성되었고

조선의용대가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참가·편입하였다. 이리하여 중국 관내에 있던 상당수의 단체와 무장조직은 임정과 광복군에 집결하여 활동하다 8·15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외에도 연안지방과 민주지역에서 임시정부와는 별도로 무장독립운동세력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국외 독립운동세력들은 임박한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적극적인 반일무장투쟁을 통해 패망을 앞당기고 다가올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제7절 현대

1. 8·15해방과 분단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민족은 일제의 사슬로부터 벗어났다. 이로써 우리민족에게는 굴곡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운명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앞날을 열어나가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해방은 일본과 단독으로 싸워 얻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패망은 연합국진영과 주축국진영 간의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였고, 해방은 그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해방은 강대국간의 싸움 속에서 온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일본이 침략을 도발하면서부터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우리 민족 역시 일본이 침략을 노골화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국권수호와 조국광복을 위한 항전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일제의 침략은 지속적인 반대와 저항에 부딪쳤으며, 이 때문에 야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스스로 수렁에 빠졌다. 결국 일제는 전쟁을 확대하였고 이것으로 패배를 자초했던 것이다.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인해 우리민족은 미처 해방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없었다. 더욱이 한반도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소가 분할점령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점령은 한반도의 운명이 점령당사자들의 손에 놓이게 된다는 것



8·15해방 후 감옥에서 풀려난 독립투사들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진영은 종전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대한 대략적인 처리방안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탁통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국가 사이의 원료 및 시장을 위한 식민지 쟁탈과정에서 모순이 격화됨으로써 발생한 전쟁이다. 결국 후반 자본주의국가였던 일본은 강대국 미국에 패함으로써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에 자신의 식민지 지배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해방 직후 한반도의 상황을 '불만 불이면 터져버릴 화약고'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미군으로서는 군정의 행정권 수립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은 민족에게 그러한 열기는 당연한 것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기까지의 진통과도 같은 것이었다.

군정 당국자들은 일본이 효과적으로 조선을 통치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인의 조언을 남한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한 치안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과거 일제경찰에 있던 한국인들을 그대로 유입시켰다. 반면에 국외의 임시정부나 국내의 인민위원회 등 정부의 역할을 하거나 그것을 지향한 단체는 모두 부인하거나 해체하였다.

인민위원회는 해방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일종의 자치조직이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지방의 유지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동·리와 지방 단위로 총독부가 무력해진 공백상태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민위원회는 내부에 점차로 급진세력의 힘이 커지면서 미군정의 순조로운 정책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직전인 1944년 여운형의 영도로 조직된 건국동맹(建國同盟)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건국동맹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한 여운형이 건국이라는 다가올 민족적 대과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이었다. 건국동맹은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과 함께 계층별 조직도 시도하였으며, 해외 독립운동단체들과도 연락을 도모하였다. 건국동맹 산하 농민동맹은 1944년 10월 경기도 용문산에서 만들어졌다. 농민동맹의 활동은 구리가 포함된 양주와 양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우선 건국동맹의 중추였던 여운형의 고향이 양평이었으며, 이 지역이 1930년대 농민조합운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운형의 추종자였던 김용기의 '이상촌운동(理想村運動)'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도 관련이 있었다.

여운형은 서울과 양평을 오가면서 건국동맹원과 회합을 가지며 건국 구상에 몰두하였다. 당시 구리면 출신으로 농민동맹에 참가한 인물은 밝혀진 것이 없으나, 농민동맹은 양주·양평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이천·광주·홍천·고양·서울 등지로 확대되었다. 당시 전면적인 반일투쟁을 벌일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농민동맹은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반일의식고취, 비밀군사훈련, 무장은닉, 징병·징용 기피자들의 조직적 피신원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방을 준비하였다.

해방과 함께 건국동맹은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미군이 진주하

기 전인 9월 6일 여운형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소집된 인민대표자대회에서 국호를 인민공화국으로 정부수립이 결정되었으며, 이승만과 김구 등 주요 민족주의인사가 포함된 정부 구성인원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에는 양주군 대표로 이성호·이경규·이덕창이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동맹 등 전국적인 대중조직이 빠른 속도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에 의해 부정되었다. 미군정은 영어에 능통하여 미국이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지형을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미군정이 선호한 인물들 중에는 일제시기 친일경력이 있는 인물들이 많았다. 이렇게 완전하게 민족의 힘으로 맞지 못한 해방은 앞으로의 민족의 진로가 순탄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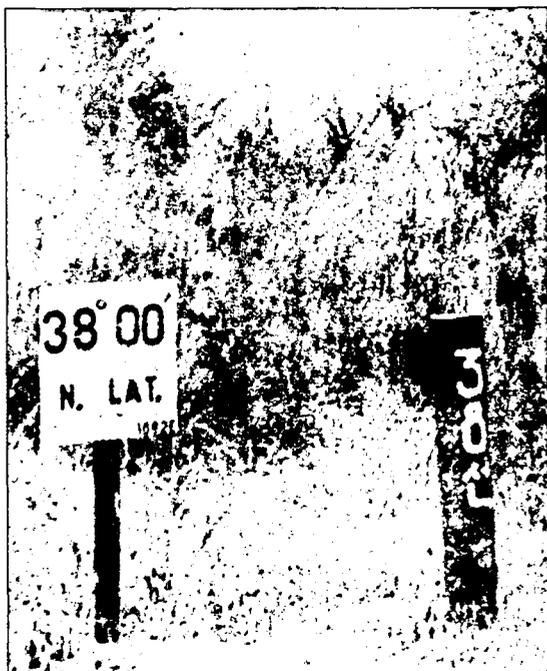
1945년 10월 이후 김구, 김규식의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국외 독립운동세력들이 속속 귀국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상해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지만, 귀국 직후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바탕으로 국내의 다양한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활동은 여의치 않았다.

1945년 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졌다. 종전 후 미국, 소련, 영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한국문제에 대하여 협상하였다. 여기에서 3국, 특히 미국과 소련 양국이 중심이 된 한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신탁통치를 골자로 하는 결정안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신탁 자체는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미소간에 합의된 신탁통치, 정확하게 말하면 3국 외상이 합의한 ‘한국문제에 대한 결정’은 국내의 대표적인 정치·사회단체를 망라하여 통일적인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에 참가하는 강대국들이 이 정부를 일정 기간 원조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렇게 볼 때 신탁통치 자체는 즉각독립에는 배치되는 것이었으나, 한국문제에 대한 3상결정은 분할점령이라는 조건을 염두에 둘 때 민족역량의 결집 여하에 따라 그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제의 지배를 겪은 민족의 정서는 신탁이란 말 자체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본능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운형·김규식을 비롯한 중도적 민족지도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서 모스크바 결정의 올바른 이해와 민족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김구 등 민족주의세력들은 신탁의 반민족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반탁투쟁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과거의 부일세력들이 친일로 얼룩진 자신의 경력을 숨기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기회로 반탁운동을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민족의 분열이 확산되었다.

당시의 정치세력 중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과거 적극적인 친일경력을 가진자들이 있었다. 당연히 이들은 해방 후 식민잔재 청산의 대상이었으며,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인물들은 해방 직후 숨어 지내야 했다. 유명한 친일파인 최린의 경우 해방 후 사노리에 은거해 있었다.



38선 말뚝

반탁운동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이 표현된 것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친일세력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자신이 제의하고 합의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의 반대운동을 사실상 묵인하였다. 그러나 소련 역시 자신이 점령한 38선 이북을 친소지역으로 고착시키는 한편, 남한의 반소세력을 배제하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의 실현을 어렵게 하였다. 이렇듯 미소 양국은 각각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최소한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모스크바 결정의 실현에 앞서 남한의 급진세력을 제거하려 하였고, 소련은 남한의 반소세력을 정부 구성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결국 1946년 3월부터 시작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에 따른 1차 미소공동위원회(공위)는 성과 없이 중단되었고, 이듬해 1947년 2차 공위 역시 결렬되었다.

당사자인 한국인을 배제시킨 채 미소 양국이 명분찾기에 골몰해 있는 동안 민족세력들은 1946년 중반부터 협작을 통한 민족단결을 모색하였다. 반탁을 주장한 세력들은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것을 매국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 인사들 중에는 무조건 반탁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족의 단결을 통해서 외국의 간섭을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우익세력 중 많은 사람들이 통일임시정부 구성에 참가한 후 신탁을 거부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들은 임시정부 구성까지는 각 정치세력의 연합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민족단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6년 1차 미소공위가 휴회된 시기를 전후하여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협작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끝내 연합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남북분열 또한 더욱 심해졌다. 1946년 초 북한은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다. 이에 많은 반대세력이 38선을 넘어 남하하였으며, 이들은 남하한 후 철저한 반복세력이 되었다.

1946년 말에는 공산·인민·신민당 등 좌익 3당이 합당하여 남로당을 창당하였다. 남로당은 소위 '신전술'을 채택하여 우호적이었던 종래의 미군정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였다. 남로당의 신전술이 구체화되면서 1946년 9월 노동자들의 전국 총파업이 일어나고, 10월에는 대구를 시발로 하여 삼남지방에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파업과 폭동의 배후에는 남로당이 있었으나 친일파와 일제잔재 청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불만 및 쌀 부족 등의 민생고, 특히 일제 때부터 계속된 미곡공출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농민폭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47년 초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함께 미소의 합의에 의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그 가능성이 상실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소련과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였으며, 소련의 남한 점령을 막으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는 구상을 구체화시켰다. 이는 곧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분단정부 수립은 이미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에 의해 언급된 바 있었다. 1947년 들어 분단정부 수립은 보다 현실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합작을 주도해 온 여운형이 1947년 7월 암살되었다.

1948년 1월 유엔한국위원회가 입국하는 등 유엔에 의한 정부수립이 본격화되었다. 1948년 초부터 시작하여 2월 7일 전국적인 규모로 이른바 '2·7구국투쟁'이라는 반단정투쟁이 남로당의 주도로 벌어졌다. 또한 1948년 4월 평양에서 김구·김규식의 제안에 의해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분단정부 수립저지를 천명하였다. 이 회의에는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많은 정치세력이 참가하였다.

2.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앞서 5월 10일 제헌의회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선거에서 구리가 속했던 양주지역에서는 이진수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은 성립 직후부터 내부의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은 대중시위·무장폭동 등을 통하여 격렬하게 정부수립에 반대하였다. 또한 김구·김규식 등 과거 국외에서 임시정부를 이끌었거나 그 밖의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민족인사들도 다수가 정부수립에 동참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세력들이 향후 일차적인 정치적 과제를 민족통일정부 수립에 두었다.

대한민국은 좌익은 물론, 많은 우익 민족주의세력조차도 동참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일부 친소국가를 제외하고 유엔을 통해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유엔은 1947년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의해 유엔에 상정된 이후 감시단을 파견하여 선거의 실행과정을 참관하는 등 대한민국의 탄생을 지원하였다. 원래 38선 이북지역까지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유엔을 신뢰하지 않았던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남한에 정부가 들어서자 한 달 뒤인 9월 9일 북한에도 정부가 세워졌다.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적인 결의와 지원에 의해 수립된 반면 북한은 형식적으로 국제적 지원보다는 남한 내부의 각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기정사실화되자 북한은 제2차 남북연석회의를 열었으며, 또 정권수립 과정에서는 남로당과 그 외의 조직을 통해 연판장이라는 것을 돌려 남한에서 비밀리에 의회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대한민국정부세력을 제외한 나머지와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소위 '평화통일전략'을 내세웠다.

한편 남한에서는 남로당에 의한 무력투쟁이 계속되었다. 1948년 4월 3일 시작된 제주도 4·3사태는 선거조차 실시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전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 준비중에 있던 여수의 제14연대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1949년에 들어서도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계렬라가 활동하였다. 신생 대한민국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었으며 자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아직 그 힘이 미약했다.

원래 미군은 1948년 말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는 것과 동시에 철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세 불안으로 미국은 미군의 철수를 연기하였다. 약 1년 뒤인 1949년 철군한 뒤에도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두었다. 미군은 군의 조직 및 작전수립, 훈련에서부터 4·3사건 진압작전, 군 반란 진압작전, 군 내부의 좌익 색출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서 국군을 지휘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지원하였다. 결국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지원을 통해 내부의 폭력적 전복시도를 물리치게 되었다.

물리적인 전복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대한민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역시 안정되지 못했다. 많은 정치세력이 정부수립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미군철수안을 가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난 국회프락치사건에서처럼 위기는 체제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대처해야 했다. 북과 연계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949년 6월 분단정부 수립 후 계속 민족통일을 호소하던 김구가 암살되었다. 암살 배후세력은 김구를 '불순세력이라는 해충 모여드는 거목'으로 비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는 이 거목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인식했다. 김구의 그늘에 모여든 이른바 '불순세력'은 일부 좌익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민족주의세력이었다. 대부분 평생을 독립운동으로 보냈으며, '38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온몸을 던져 분단을 막고자 3,000만 동포에게 울며 호소했던 민족지도자 김구의 비극적 죽음은 민족의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었다. 또 한편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는 정부수반이었던 이승만의 위기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표면화되었다. 즉, 선거 결과 무소속의원이 126명이나 당선되어 이들이 이승만의 무력복진통일에 반대,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휩쓸려버렸다.

3. 한국전쟁

1949년 6월 미군은 일부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남겨둔 채 대한민국에서 철수하였다. 소련군은 이보다 한 해 앞서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1949년 말 미국은 미군 철수를 기해 대한민국정부가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도록 미국의 원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후 계속해서 무력에 의한 복진통일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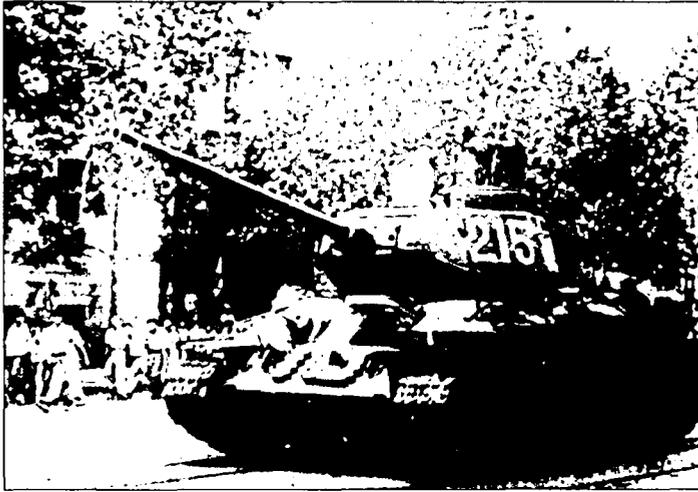
북한은 평화통일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이 통일노선은 실제로 이승만 정부와의 평화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북한의 평화통일이란 북한이 '민족반역자'라고 규정한 일부 대한민국 수뇌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과의 평화적 통일이었다. 따라서 남한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축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평화통일전략의 이면에 깔려 있었다.

따라서 남북간에는 항상 긴장이 고조되었고 한반도에는 전쟁발발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이전에도 38선상에서는 남북한의 무력충돌이 잦았다. 특히 38선으로 인해 고립되어 섬처럼 된 웅진반도와 개성·춘천 부근에서는 대대(大隊) 단위의 전투가 발생하여 남북의 군대가 서로 상대지역으로 4km에서 11km까지 쳐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확대될 경우 그대로 전쟁으로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상호 무력 대립이었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북진을 통해 김일성피뢰정권을 타도하자', '본인은 우리가 평양을 단지 3일 이내에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는 등의 공식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의 위기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공격으로 발발하였다. 북한군은 이전의 공격양상과는 달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남진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북한군의 격퇴를 장담하는 방송을 하면서도 뒤로는 피난을 서둘렀다. 결과적으로 국군은 북한군의 전면공격에 대처할 수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군은 전쟁발발 두 달이 채 안 된 8월 중순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도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장악하였다.

북한은 점령지역에서 과거 해체된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아



서울에 진입한 T-34 탱크

직 실행하고 있지 않았던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시 구리면 역시 이러한 북한의 점령정책이 실행되어 인민위원회가 재조직되고 젊은 사람들은 의용군으로 징집되었다. 이 외에 구리에서는 전쟁중에 파괴된 남양주와 양평을 이어주는 양수리다리와 퇴계원 방면의 다리 복구공사에 남자들이 동원되었으며, 여자들은 이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미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전쟁발발 직후 북한군의 배후와 공격선에 대한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미군의 폭격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많은 북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폭격이 적은 남쪽으로 내려왔다.

한편, 전쟁발발 직후 맺어진 대전협정에 의해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넘어감에 따라 국군은 미군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다.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 그리고 유엔군의 추가 참전으로 인해 북한군은 점차 열세에 놓였다. 마침내 미군과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북한군에 의한 구리 점령은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따라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 미군은 9월 20일 고양의 행주산성을, 25일에는 마포에 이어 현 한남동, 한양대학교 부근의 살곶이 다리, 화양동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26일에는 국군 제17연대의 2개 대대가 아차산 줄기를 따라 북진하여 같은 날 용마봉을 점령하였다. 이어 이 부대는 같은 날 망우리고개를 장악, 경춘가도를 차단하였다. 국군 제17연대의 진격 과정에서 북한군과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구리지역에 대한 탈환전은 이후 약 3일 동안 전개되었다. 최대의 격전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에 걸쳐 전개된 교전인데,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500여 명의 병력을 잃었고 국군 역시 큰 병력손실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고통을 받은 것은 구리지역민으로 전투를 피해 아차산으로 숨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구리에는 해병대가 투입되어 북한군을 팔당리와 마석우리까지 밀어냈다.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여 삼시간에 북한지역을 점

령하고 압록강에 이르렀으며, 북한정권과 군은 중국으로 밀려났다. 일부 철수하지 못한 북한군 병력은 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펼쳤으나 전세는 국군과 유엔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말 전쟁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북한)을 원조한다는 소위 ‘항미원조’를 내세운 중국군은 승승장구하던 국군과 유엔군 특히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전세를 다시 역전시켰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북한군과 중국군은 서울을 다시 점령하였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과 미국,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참전한 국제전의 양상으로 변하였다.

1951년 1·4후퇴시 서울 인근의 많은 주민들은 남쪽으로 피했다. 구리주민 역시 대부분 피난을 갔다. 후퇴하던 미군들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한강변의 토평리에서 동구릉까지 지뢰를 설치하였다. 이 지뢰들은 휴전 직후에 제거되었는데, 이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농민이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지뢰를 밟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미국은 두 가지 기로에 있었다. 하나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즉, 전쟁발발 이전의 상태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미국은 후자를 택하였다. 따라서 1951년 6월 중국의 참전으로 변화된 전세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양 진영은 휴전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쟁은 1953년까지 이어졌지만 전선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루한 소모전이 전개되었다.

결국 1953년 7월 23일 무려 158회의 회의를 거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군 통제권이 미국에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정부는 전쟁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정전협정서에는 북한군사령관, 중국군사령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의 서명만 있을 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바라지 않았다.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승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 설득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지원약속을 받고 휴전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전쟁에서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휴전을 바라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폭격은 태평양전쟁 때를 능가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된 상태였으며 북한 전 지역이 황폐해 있었다. 물론 정전협정의 체결은 전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구적인 평화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체결 뒤에도 항상 전쟁 재발의 위협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전쟁으로 인해 남북 모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그리고 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500여 만 명이 희생당했으며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또한 전쟁 전까지만 해도 심하지 않았던 남북의 대립감정이 전쟁을 통해서 개개인의 마음속에 뿌리깊게 남게 되었다. 결국 3년간의 전쟁은 남북의 재통일이 무력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게 해주었다.

4. 농지개혁

농지개혁의 목적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사짓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일제하 전체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러한 농민 중에 약 절반 정도는 땅을 전혀 갖지 못한 순수한 소작농이었으며, 경작하는 땅의 절반 이상을 소작 부치는 반소작농이 전체 농민의 7할이 넘었다. 대부분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은 농산물의 절반을 소작료로 주고 거기에 잡세와 농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주·소작 관계는 일제 식민지경제의 기초였다. 따라서 식민지 지주제도를 철폐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토지개혁은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해방이 되자 농민들은 즉각적으로 토지재분배를 요구하였고, 대부분의 정당들은 토지재분배를 강령으로 내걸었다. 토지재분배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변혁은 아니었다. 그것은 농민들을 전근대적인 수탈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의 토지에 자립시키는 민주주의 개혁이었다.

해방 후 토지재분배는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으로, 남한에서는 ‘농지개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1946년 초 무상으로 몰수하여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하에 신속하게 토지개혁이 진행된 반면 남한에서는 최종적으로 1950년대를 거치면서 완료되었다. 남한에서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것은 해방된 지 4년 후인 1949년이었고, 농지개혁은 1961년에 가서야 완료되었다. 농지개혁은 애초부터 유상몰수·유상분배라는 방식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

처음으로 농지가 분배된 것은 미군정 시기였다. 미군정이 대한민국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직전인 1948년 3월 신한공사는 그 전신이었던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해 온 이른바 ‘귀속토지’를 매각하였다. 방식은 평년 소출의 300%를 2할씩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 40% 정도가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이승만정부는 농림부장관 조봉암의 주도로 농지개혁 입법에 착수하였다. 최초의 농림부안은 지주에 대해서는 분배농지의 평년 소출 150%를 3년 거치하고 10년 동안 균등하게 보상하는 한편, 농민들에게는 소출의 120%를 6년 동안 연 2할씩 상환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작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금지하고 소유한도도 2정보로 제한하였다. 농림부의 법률안은 어느 정도 농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농림부안은 국회로 보내기 전 기획처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결국 「농지개혁법」은 우여곡절 끝에 소유한도 3정보, 지주에게 평년 소출의 150%를 5년 동안 보상하고 농민에게도 역시 150%를 5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결정되었다. 처음 안과 비교한다면 최종안은 상대적으로 농민에게 불리했던 것

이 사실이다.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으나 바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농지개혁은 그 실시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에 임시수도를 정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정부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농지개혁을 강행한 것은 당시 북한이 점령지역에서 1946년 실시한 토지개혁 방식에 따라 토지재분배를 실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점령지역은 몇 개월 뒤 바로 수복되어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무효화되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시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경험한 이상 농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개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1950년대를 거친 후였지만 대부분 전쟁중과 1950년대 초반에 실시되었다.

농지개혁을 하는 데에는 농지재분배의 기본 원칙도 정해져야 했지만 그것과 함께 개혁의 준비절차도 필요했다. 준비절차에는 우선 재분배 대상농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그 다음에는 개혁의 진행을 담당할 기구가 구성되어야 했다.

농림부는 1948년 12월 농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경지면적은 약 207만 정보였고, 이 중 재분배 대상이 된 농지는 37%인 약 60여 만 정보였다. 또 농민 중 자작농은 약 37%였으며, 나머지가 완전소작농 또는 자소작농이었다.

한편 농지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농지위원회이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 3월 「농지위원회 규정」에 의거, 동·리를 포함한 각급 행정단위에 조직되었다. 농지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단, 동·리 단위위원회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구·읍·면 농지위원회의 민간인 구성원에는 매수대상의 지주 측과 분배받는 농민 측이 각각 절반씩 들어갔다. 농지위원장은 읍·면 이상은 행정기관장이, 동·리는 구장이 맡았다. 당시 구리면에서는 위원장을 전준섭이 맡았고 위원은 안순봉·현천업·이명덕·신환식·김용배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3>은 1954년 현재 구리면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분배된 농지를 각 리별로 본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지개혁 당시 구리면에서 분배된 총면적은 약 170만 평이다. 상대적으로 귀속농지의 면적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구리면에 국유지와 일본인 소유토지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유지가 많았다는 것은 구리면에 왕릉의 위토와 역둔토가 많았고, 이러한 땅의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 때 동척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 구리면에서 농토를 분배받은 농가의 수를 보면, 우선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논과 밭을 합쳐 439호였고 일반 매수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629호였다. 이렇게 보면 귀속농지는 호당 평균 약 2,000평, 일반 매수농지는 약 1,300평이 분배된 셈이다.

<표 3> 분배 초기 구리 농지분배면적

(단위: 평)

구분	리명(里名)	면적		
		전	답	계
매수	갈매	12,990	62,258	75,248
	사노	22,891	79,132	102,023
	인창	46,908	59,551	106,459
	수택	83,402	47,830	131,232
	교문	71,216	85,416	156,632
	아천	27,650	25,196	52,846
	토평	178,700	11,589	190,289
	소계	443,757	370,972	814,729
귀속	갈매	93,776	110,629	204,405
	사노	21,441	65,537	86,978
	인창	99,091	193,227	292,318
	수택	20,758	19,832	40,590
	교문	48,146	38,743	86,889
	아천	99,666	17,971	117,637
	토평	39,191	8,820	48,011
	소계	422,059	454,759	876,828
계	865,826	825,731	1,691,557	

출전: 구리시 산업과, 『分配農地受配者別調査集計簿』, 『분배농지 수배자조사 작성에 관한 건』, 1954. 2.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모든 농민이 농지를 분배받은 것은 아니었다. 일부 농민들은 분배농지를 포기하였다. 땅을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농민들이 농지를 포기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물론 땅이 좋지 않은 경우도 포기 사유가 되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상으로 농지를 분배했기 때문에 상환 즉, 분배의 대가를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1958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의 농민이 약 4만 정보의 땅을 포기하였다. 구리면에서도 역시 농지분배를 포기한 농민이 발생하였다. 아천리의 예를 들면 약 7만 5,000 평의 농지, 비율로는 아천리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되었다. 농민이 농지를 포기하는 경우 농지위원회는 포기신청서를 받고 분배받을 농민을 다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로 농지개혁이 완료된 1958년에는 앞의 분배농가수에 있어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총분배면적의 경우는 1958년에 약간 늘어나는데, 이는 1954년과 1958년 사이에 잡종지가 농지로 전환되어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지재분배는 식민지적인 농업구조를 개혁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과정과 그 결과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농지에 대한 개혁이 해방과 함께 조속히 실시되지 않고 지연됨에 따라 막상 농지개혁이 실시될 때는 해방 직후의 농지소유 상황과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농지개혁이 압박한 상황에서 지주들이 농민에게 토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농민들로서는 자신이 계속 소작을 부치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지주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농지개혁은 지주가 편법으로 농지재분배를 피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즉 「농지개혁법」에는 미완성 간척지, 과수원, 종교단체, 학교 등 법인 소유의 토지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지주들은 이를 악용, 이미 농사짓고 있는 간척농지에 바닷물을 대서 간척중인 땅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많은 농지를 분배대상에서 편법으로 제외시켰다. 이 경우 간척 당시 농사짓도록 해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간척공사에 노역을 제공한 농민들이 당연히 분배를 기대했다가 하루아침에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편 농지개혁은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많은 농토를 소유한 지주들을 지가보상을 통해 새롭게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중의 하나였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분배대상 지주는 1949년 약 7만 8,000여 명이었으나 결과는 약 17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소지주가 대규모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중 약 15만 명은 지가로 보상받는 양이 50석이 채 안 되는 소지주였다. 많은 대지주들이 여러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피해간 반면 이들 중소지주들은 농지개혁 대상이 되어 애초에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불가능한 적은 액수를 보상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받은 지가증권은 전쟁중 인플레이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액면가치가 떨어졌다. 정부에서는 지주를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지가증권을 소유한 지주를 귀속사업체 불하에서 우선권을 주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실제 불하과정에서 대부분 지주보다는 기존의 관리자에게 불하되었다.

그렇지만 일단 농지개혁이 식민지 반봉건적인 농업구조를 개혁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농지개혁의 직접적인 성과는 개혁 전 절반을 넘던 순수 소작농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자작농의 증가가 곧바로 농업생산력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농민 개개인의 농업경영에서 보았을 때 그 영세성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개인경작지 규모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비해 늘지 않았다.

따라서 농지개혁은 그 자체로는 식민지적인 농업구조 개혁을 생산력의 측면에 까지 완성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농지개혁은 새로 성립한 자작농민과 농업생산

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대한민국의 농업 현실은 밀려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생산 기반조차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정책 또한 부재했다. 결국 위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은 국내 자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외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제4장 현대사회

구리의 역사와 문화

제1절 도시화

제2절 정치와 행정

제3절 산업

제4절 시민생활



제1절 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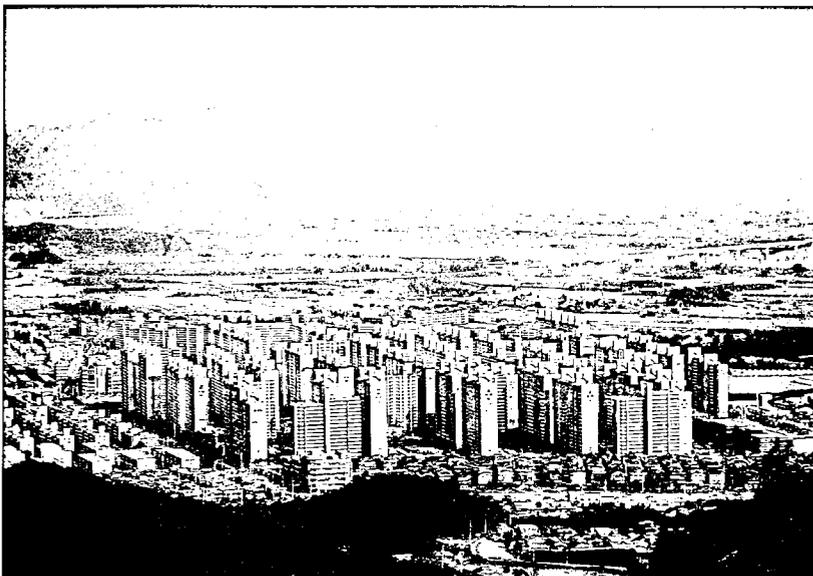
1. 인구의 변화

한 도시의 도시화 과정은 인구현황과 그 변화양상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구리는 1960년대 이래 면에서 읍, 다시 시로 승격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크게 증가한 시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인데, 이는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시 서울은 팽창일로에 있었으며, 서울과 인접한 구리지역은 서울로 편입되지 못한 인구가 계속 유입되었다. 그 뒤 구리지역의 인구증가폭이 커진 시기는 택지개발이 시작된 1991년 이후이다. 인구를 격증시킨 이러한 아파트 건설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구리의 인구는 1963년에 불과 1만여 명이던 것이 시로 승격된 1986년에는 무려 9만 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1993년에 오면 10만을 넘어 12만 7,000명이 되었다. 1980년, 1985년, 1990년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경기도의 평균증가율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로 승격된 1986년을 기준으로 1993년 말까지의 동별로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교문동과 수평동(현 수택2·3동)이 각각 76.9%, 42.7%로 매우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축



교문2동 아파트단지

이 진행되어 유입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교문동의 경우 워커힐 방향의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해졌다는 점이 인구증가의 주요인이 되었다.

한편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수택동(현 수택1동)이다. 수택동의 인구밀도는 1993년 현재 1만 8,130명/km이다.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은 이유는 다른 동과 달리 동 지역 거의 전체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매동의 경우, 검암산을 사이에 두고 시내와 떨어진 변두리 지역으로서 1990년대에 들어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인구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령별 인구구성에는 단순한 인구의 수적 증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인구변동의 원인과 그 성격이 나타난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10세 미만과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의 연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리시의 인구피라미드의 유형은 '인구전입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별형으로 도시적 특성이 뚜렷하며, 중·장년층보다 25~34세의 젊은 층이 많은 위성도시로서의 성격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동별로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교문동·수택동·수평동이 0~9세, 30~3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으며 갈매동과 동구동은 40~5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교문동과 수평동이 시 승격 이후 주택지역으로 집중 개발됨에 따라 이사를 자주 다니는 청년층이 많이 유입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갈매동과 동구동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으로서 전국의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산업별 인구구성의 추이를 살펴보자. 산업별 인구구성으로는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특성과 발전과정 및 단계를 알 수 있다. 1972년 말 구리의 농가 비율은 18.2%로 이때부터 이미 전형적인 농촌의 양상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러한 비중은 1986년에 총가구의 5.0%, 1993년에는 1.6%로 계속 감소하였다.

제조업 종사인구 역시 시 승격을 전후하여 증가하다가 1989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구리시의 대부분이 공장이전축진지역으로 묶여 있어 제조업의 성장이 여의치 않은 반면,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로 인해 건설업 종사자와 3차산업 종사자는 증가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와 그 주변 도시 사이에 인구가동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리시의 경우 교문동과 수평동의 택지개발은 서울인구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구리시는 매년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다. 인구전입률은 시 승격 첫해에 32.1%로 나타났으며, 1991년에는 3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2년부터는 인구전입률이 하강곡선을 나타내지만 1993년에도 전입률은 22.2%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전입인구는 주로 경기도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울에서 이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1992년에는 도외 전입자 가운데 1만여 명이 서울로부터 이주한 인구였다.

동별로 인구 전·출입현황을 보면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교문동이고 그

다음으로 수평동, 인창동순이다.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갈매동이다. 수택동은 상대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가 모두 많아 인구가동이 가장 빈번한 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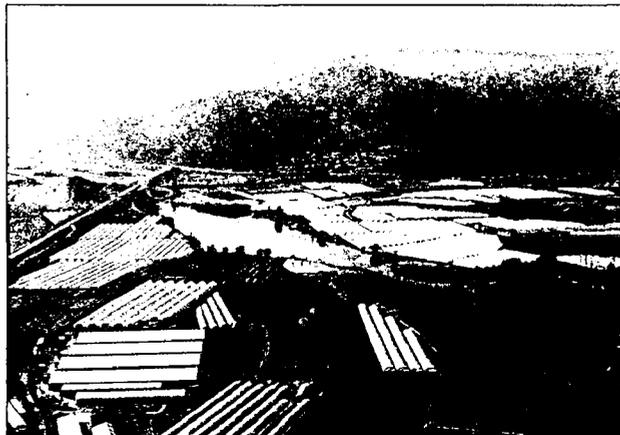
2. 토지이용의 변화

도시화는 한편으로 토지이용에도 변화를 준다. 구리의 경우 시 승격 이후 토지이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두드러진 것은 주거용지와 도로의 증가이다. 시 승격 직후인 1986년 당시 주거지 1.33km², 농지 10.21km²였던 것이 1993년에는 주거지 2.51km², 농지가 8.93km²로 변하여 주거용지면적은 증가한 반면 농지면적은 감소하였다. 또한 도로는 0.79km²에서 1.39km²로, 임야는 13.20km²에서 12.95km²로 각각 변화하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용지와 도로는 증가하고 농지 및 임야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 승격 이전 5년간과 이후 5년간의 변화를 보면 이후의 변화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1년부터 시 승격 직후인 1986년까지 주거지와 도로는 각각 0.1km², 0.09km²가 증가하였고, 농지와 임야는 각각 0.15km², 0.14km²씩 감소하였다. 반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주거지와 도로는 각각 0.67km², 0.51km²가 증가하였고, 농지와 임야는 각각 0.91km², 0.30km²씩 감소하여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주거지와 도로면적은 시 승격 이후부터 1993년까지 각각 88.7%와 75.9%의 성장률을 보여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리시의 면모는 농업경영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논과 밭의 토지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농경지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논이 감소율이 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밭이 논보다 더 적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구리시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채소, 꽃, 과일 등을 재배하는 근교농업지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장지못 주변의 비닐하우스단지

있기 때문이다. 교문동과 토평동의 범람지에는 한강변에 인공제방이 건설된 후 큰 규모의 비닐하우스단지가 들어서기도 했다.

각 동별 토지이용 양상을 보면 1993년 현재 주거지면적이 가장 넓은 동은 수택동으로 0.91km²이다.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토평동으로 2.01km²이며, 임야면적이 가장 넓은 동은 아차산이 있는 교문동이다.

다음 도시계획상의 각 용도별 면적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용도면적은 1986년에 4.29km²에서 1993년 7.34km²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업용도면적은 같은 기간에 0.21km²에서 0.57km²로 약간 증가했다. 반면에 공업용도면적은 1986년의 0.39km²에서 1993년 0.38km²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 주거지역으로서 구리시의 면모는 이상의 용도별 면적추이 비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3. 도시기능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주거·공업·상업기능이다. 이 중 공업기능과 상업기능은 한 도시의 산업구조와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구리시의 제조업은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공업단지 조성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신규공장의 등록이 제한되어 발달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제조업은 1980년대 말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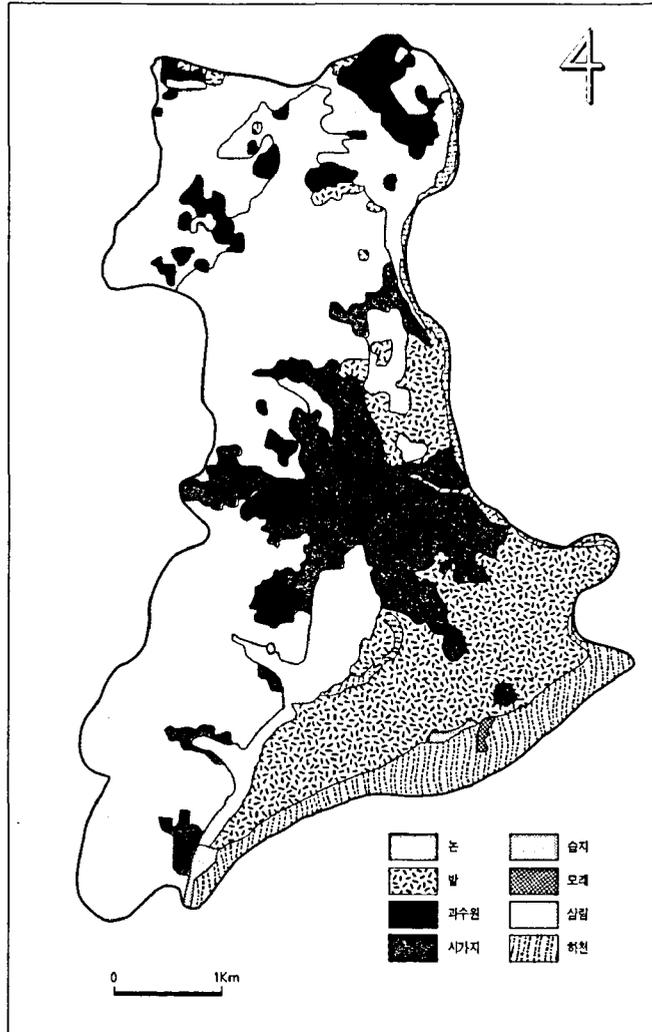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주거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주거기능의 내용은 주택보급률과 주택수의 증가로 파악된다. 구리시의 1985년도 주택보급률이 40.77%에서 1993년에는 63.98%로 증가하였다. 이는 교문1·2지구와 인창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새로 보급된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단거주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주거기능의 확대에 따라 상업기능도 함께 강화되었다. 상업기능은 구리시로 유입된 사람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 도심에 존재하고 있으나, 슈퍼마켓을 비롯한 현대적인 유통시설이 늘어나면서 점차 전통적인 유통형태는 그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승격 이후 교문사거리에서부터 둘다리까지의 지역이 갈수록 상업활동 중심지로 변화해지고 있다. 수택동의 경우 중심상가지역에 은행·사무실·증권회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대도시의 변화가 못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하수도 등 도시 하부구조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의 생활시설이 확충되었다. 상·하수도보급률과 급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도보급률은 시 승격 이전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와 함께 자동차수도 급증하여 1985년 말 1,400여 대에 불과하던 것이



<지도 1> 용도별 토지이용도

1992년 말에 가면 무려 1만 4,000여 대로 늘어난다. 이는 인구 100명당 11.37대로서 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 14.30대, 수원 13.66대, 과천 16.80대보다는 적지만 부산 10.46대, 광명 10.46대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다

생활시설이나 자동차보급률은 계속 증가해 온 반면에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인구증가에 따른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4년 4월 현재 교육의 경우 2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총 37개의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74개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연장·전시장·체육시설·도서관 등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제반 문화시설은 건설되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 증가인구와 비교한다면 부족한 편이다.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잘못하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다. 도시기능을 완비한다는 점 그리고 윤택한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들

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문화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녹지공간 역시 삭막하기 쉬운 도시생활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만큼 중요하다. 구리시는 대부분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녹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원시설도 미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자연녹지마저 개발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아차산, 검암산 등의 자연녹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 내부와 주변에 소규모의 시민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장자못이나 농업용도로는 부적합한 이문안저수지 주변 등도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구리시는 전반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공시설물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다. 자연녹지의 파괴 외에도 수질오염도와 대기오염도에서 전국 74개 도시 중 각각 44위, 51위를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공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와 물이 좋지 않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위의 제반 문제들이 점차로 해결된다면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또 한편으로는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계획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한편으로 특정한 용도에 따라 그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공간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로 용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나 르네상스시대 도시에서 이미 계급·계층 그리고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이 구분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풍수지리적인 관념과 사회계층 또는 생산 및 상업활동에 따라 사람들의 주거 및 활동지역이 구분되었다. 오늘날의 지역공간의 이용은 보다 기능적이고 거시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개발계획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는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건설종합계획은 일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며, 나머지는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지역계획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국토이용계획'이 있다. 국토이용계획은 법률체계상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한 지역계획보다 하위에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전국을 용도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장래의 목표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안전·건강하고 쾌적하며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기 요구되는 공간을 평면적·입체적으로 조정하여 토지이용과 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결정하고, 이들을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조직화하며 그 실현을 도모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시계획이 제도화되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③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

또 도시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으로 불리는 법정도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작성되는 도시계획시행계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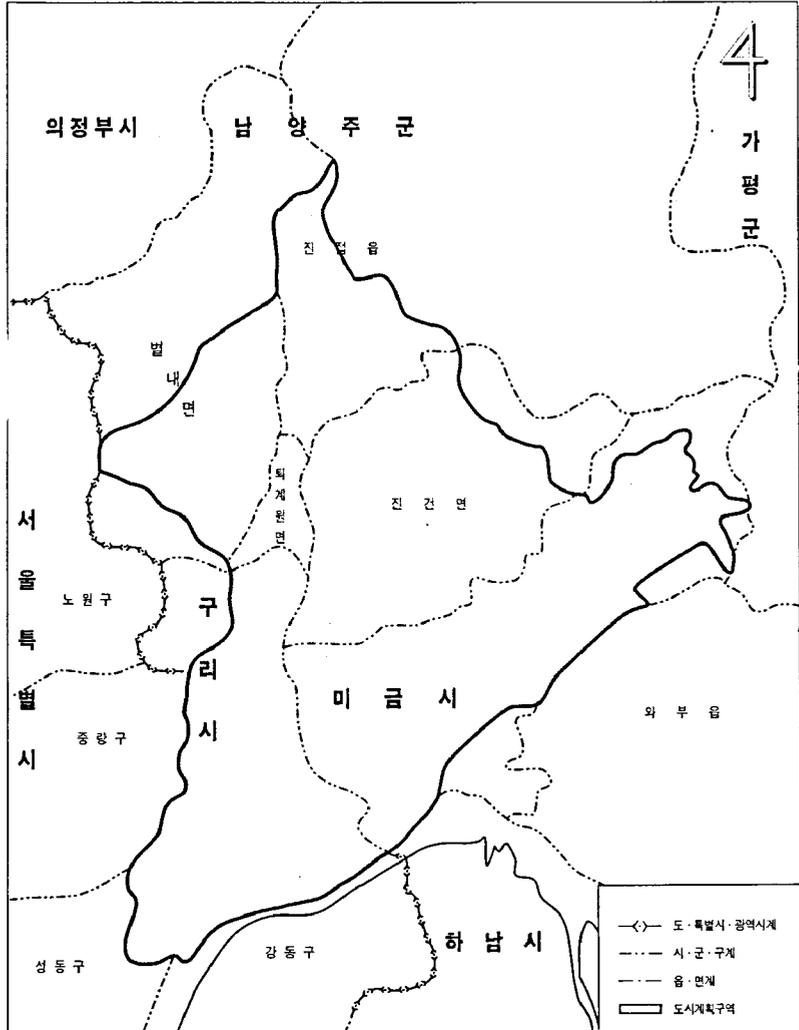
구리시의 도시계획은 1971년 당시 구리면에 대한 건설부 고시 제644호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 시 승격 이후인 1987년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1988년 도시재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다가 1993년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었다. 구리시의 도시계획 권역은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 당시 행정구역으로 인근 남양주·미금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3년 확정된 계획에서는 도시계획 권역의 내부생활권을 인창중생활권, 수택중생활권, 도농·금곡중생활권, 평내중생활권, 퇴계원·진접중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 인창중생활권에는 인창동과 동구동이 포함되며 수택중생활권에는 수택동과 교문동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구리시에서도 도시계획상 갈매동은 서울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구리시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다.

1993년에 수립된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그 범주상 도시성격·토지이용·교통·공원·녹지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성격

- ① 수도권 동부지역 유통공급 및 '서비스기능'도시
- ②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자원도시



<지도 2> 1993년 구리시 도시기본계획도

③ 서울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 근교 전원자족도시

토지이용

- 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군사시설의 외곽 이전
- ② 활용 가능한 토지는 최대한 시가지화
- ③ 생활권 계획에 따라 중심 업무지 및 근린 생활권 상업지로 구분, 조정

교통

- ① 인구증가 및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도로체계의 조정 및 정비
- ② 수도권 교통망체계와 합리적 연계기능 강화
- ③ 수도권 동부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여객터미널 신설
- ④ 기존 철도의 전철화 및 역유치거리를 고려하여 주차장 신설

공원·녹지

- ① 수평동의 3호 공원을 폐지하여 주거용지로 개발
- ②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아차산 및 천마산 줄기 일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 ③ 동구릉·홍유릉 일대를 역사적 공간으로 조성
- ④ 시가화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간의 경계에 완충녹지 계획

이와 같이 구리시의 도시계획은 시의 성격을 위성도시, 근교 농업유통 중심도시, 관광휴양도시, 전원도시, 수도권 동부지역의 중추관리 중심도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5. 건설

1986년 시 승격 이후 진행된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크게 주택, 도로, 상·하수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건설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의 위상에 따라 공용청사, 공원·녹지시설, 교육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도매시장을 비롯한 대규모 상업시설도 건설되었다.

1) 주택

우선 주택건설은 구리시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의 주요 내용은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예정지구선정', '국민주택건설'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로축조, 도로포장, 택지조성배수공사, 가로등설치 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로 승격되기 이전 인구가 집중될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1980년부터 교문리·수택리 일원을 대상으로 구리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어 1985년 시 승격 직전까지 83% 정도가 달성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 승격 이후에 사업비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연된 적도 있었으나 매년 꾸준히 전개되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선정은 시 승격 이후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계획의 사전작업이다. 구리시의 택지조성계획은 주로 인창동과 교문동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86년 7월 인창지구를, 12월에 교문1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인창지구의 총면적은 약 14만 8,000평이었고 교문1지구는 약 33만 7,000㎡였다. 그 후 1990년에는 약 44만 8,306㎡의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4년에는 6만 5,015㎡에 인창 제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상황을 살펴보자. 구리는 시 승격 전인 1984년부터 서민들



인창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을 위한 국민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은 영세건설업체의 부실시공, 주택조합의 부실로 인한 운영부조리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시 승격 이후인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1만 호 건설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총 9,827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가 1991년에 목표를 1만 27호로 수정하였다. 실적을 보면 1991년까지 약 7,700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사업 외에도 주로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그리고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2) 도로

시 승격 이후 완공됐거나 공사중인 도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89년 : 수택동 281번지 신흥로(길이 318m, 너비 25m)
- 1989~1990년 : 택지개발사업 연결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 1990~1993년 : 교문사거리 우회도로(중앙예식장~남양냉장, 길이 563m, 폭 15m 철도횡단시설 길이 12m, 폭 15m)
- 1990~1991년 : 국도 43호선의 교문동 삼육중고 입구변 도로(길이 80m, 폭 8.5m)
- 1990~1991년 : 인창동 288-1번지선 간선도로(길이 44m, 폭 6m)
- 1990~1991년 : 수택동 594-2번지선 도시계획도로(길이 44m, 폭 6m)
- 1992~1995년 : 교문사거리 신흥로 연결도로(길이 490m, 폭 20m)
- 1992~1993년 : 교문1지구 연결도로(길이 450m, 폭 20m)
- 1992년~ : 서울시~구리 인터체인지 간 도로(길이 2.5km, 폭 25m)
- 1992년~ : 서울시 신내동~구리 인터체인지 교차지점 간 도로(길이 2km, 폭 25m)
- 1993년~ : 농수산물 도매시장~43번 국도 간 시장 반출로(길이 444m, 폭 40m)



워커힐~구리 간 국도 43호선



구리인터체인지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 1993~1994년 : 교문동 상업은행~한성아파트 간 연결도로(길이 240m, 폭 15m)
- 1993~1995년 : 서울시 신내동~갈매역 연결도로(길이 1,400m, 폭 35m)
- 1993~1995년 : 서울시 태릉~갈매동 연결도로(길이 1.86km, 폭 18.5m)
- 1993~1995년 : 43번 국도(시청~진성레미콘) 확장(길이 700m, 폭 30m)
- 1993년~ : 43번 국도(동구동 건영아파트 앞) 확장 및 입체화시설(길이 962m, 폭 25~46m)
- 1993년 : 한양대병원 진입로(길이 80m, 폭 6m, 하천복개 길이 141m, 폭 5m)
- 1994년~ : 인창동 중앙예식장~남양냉동 간 인창저하차도(길이 230m, 폭 14m)

이 외에도 1988년부터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구리~퇴계원 간 고속도로공사(1공구)를 추진하고 있다.

3) 기타 시설

구리시는 시 승격 이후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종합체육관 등의 문화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각종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리시는 왕숙천과 한강이 동남으로 접하고 있어 여름철 장마 때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시에 비해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그리고 제방 등 수해예방공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이 완성되면 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유통중심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시청사가 198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5년 완공되었다. 이로써 시 승격 10년이 되도록 읍사무소의 면모를 면치 못했던 청사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밖에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공용청사 역시 계속 건설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구리시를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춘 도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건설상황은 시로서의 역사가 짧은 구리시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2절 정치와 행정

‘정치’란 한 지역의 집권자가 해당 영토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이전까지의 정치는 집권자의 통치이념과 통치행위에 중점이 주어졌고 피통치자는 다만 다스려지는 대상,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서만 의미가 주어질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로 오면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통치자의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치이념이 실질적으로 정립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정치행위는 집권자의 자의적인 통치행위보다는 밑으로부터의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 중점이 두어진다. 또한 권력이 중앙집중에서 점차 분산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행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정치행위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행정이란 일정한 대중적인 합의에 의해 정해진 국가 및 지방정부의 법률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의 역사

우리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8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도·시·읍·면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49년 12월 정부가 지방의회선거를 연기하는 권한을 지닌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1차 개정을 실시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연기하였다.

그러다가 전쟁중인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를 갑자기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 이승만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전시중이었기 때문에 지리산 일부와 한강 이북 지역은 선거 실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구리면은 한강 이북지역이었기 때문에 1952년 지방의회선거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역시 실시되지 못했다.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1956년 시, 읍, 면장의 직선제를 골자로 하여 「지방자

치법」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 8월 8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및 시·읍·면장선거를, 이어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구리면에서도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어 면장과 12명의 면의원 그리고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구리면장에는 안순봉이 당선되었으며 구리면의회 의원으로는 김용배, 정수천, 최홍수, 박홍진, 임희창, 안장명, 윤태봉, 임범식, 최홍식, 김덕진, 이강호, 이사범이 선출되었다.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에서 박인조, 전홍린, 조병봉, 신흥균 4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1958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번째이지만 구리면에서는 두번째인 지방자치선거는 1960년 4·19혁명 후 민주당 정부하에서 실시되었다. 민주당 정부는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 5차 개정을 통해 각급 단체장 선임방식을 임명제에서 다시 직선제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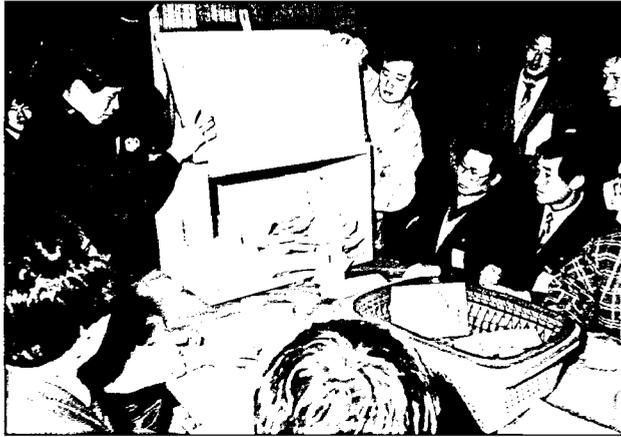
이에 따라 1960년 12월 도의회 의원과 면의회, 면장·도지사선거가 차례로 실시되었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에서는 목태신·고태현·김문환·김종호가 도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구리면의회 의원으로는 김천수·최태식·박용준·정운복·이강익·안장명·최홍식·현인근·박경순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구리면장에는 박장서가 당선되었고, 경기도지사에 신헌순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반 년도 못 가서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전면 중단되었다. 도지사, 군수 등 중요한 지방의 행정단체장에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이 임명되는 일이 군사정부의 통치기간에 계속되었다. 1963년 군정이 중단된 후에도 군부세력의 공화당이 집권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것은 1991년 3월이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1988년 3월에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1991년 3월 실시된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에서 구리시의회의 의원으로 강자현, 이석기, 지홍우, 이장국, 이석용, 이상운, 김문식, 양태홍이 각각 당선되었다. 그리고 6월 실시된 광역자치단체 의회선거에서 이동식, 윤인식, 김학운 3명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92년 1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제6공화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발표하여 단체장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995년 6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초대 구리 민선시장에는 무소속의 이무성이 당선되었다. 또한 구리시의회의 의원에는 손명렬, 이상운, 고준선, 김용호, 안영기, 최만수, 김경선, 김종수, 양태홍, 김영현이 선출되었고 경기도의회 의원에는 최덕구,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개표모습

박효녕, 김문식이 당선되었다. 경기도지사에는 민자당의 이인제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지 34년 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이기주의라는 문제로 인한 많은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제까지의 정치와 행정이 지방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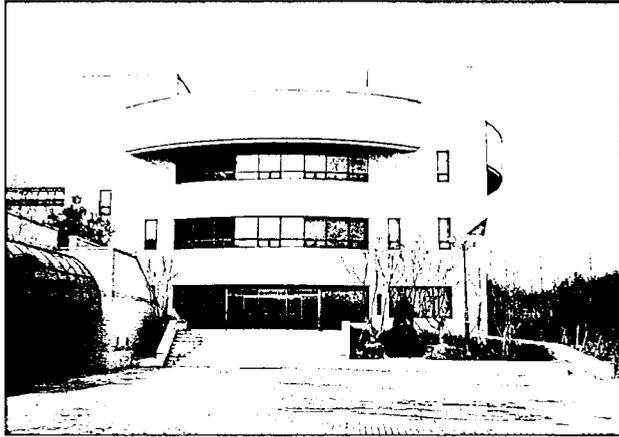
따라서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지역민의 양보미덕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중앙집중적인 정치 양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혐오시설 기피와 개발의욕은 쾌적한 환경과 부,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치단체 사이 그리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어느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될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절 없이 현재까지 계속되었다면 현단계의 지방자치제도는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정착된 단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해를 떠난 지원과 성숙한 지역주민의식을 유도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복구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2) 시의회

(1) 기능과 권한

구리시의회는 1991년 4월에 구성되었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폐하는 입법기능과 시정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심의기능을 가진다. 시의회의 구체적인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리시의회 의사당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의결권은 시정 전반에 관한 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폐, 시에서 책정한 예산의 심의·확정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감사 및 조사권 감사 및 조사권은 시의회가 해당 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의견진술 그리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매년 정기회기중 3일 이내로 행할 수 있다.

선거권 선거권은 시의회가 특정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를 비롯하여 임시의장 및 상임위원장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의회가 선거하도록 규정된 경우의 선거(교육위원의 선거) 등을 행한다.

자율권 자율권은 시의회가 국가기관이나 집행기관인 시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는 권한이다. 여기에는 임시회의 소집·개회·휴회·폐회 및 회기결정,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질서의 유지, 위원회의 구성 및 의안발의권, 의장·부의장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의원의 자격·정계 결정권 등이 있다.

동의권 동의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의 전제 절차로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승인권 승인권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대한 사무적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청원수리권 청원수리권은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걸려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하는 절차는 청원이 들어오면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거친 후 청원건을 의장이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고, 그 의결안의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시의원의 의무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부여되는 동시에 공법상 일반국민이 갖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해지고 심지어는 의원의 신분을 잃는 경우도 있다. 시의원의 의무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의원은 의회 출석과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의원은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한다.
- ③ 의원은 의결 등을 포함하는 의정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청원의 소개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의원은 청렴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 ⑥ 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회의에서도 합리적·능률적인 심의에 협력하고 질서유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 ⑦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⑧ 의원은 다른 공공직이나 농·수·축협외 상근의원 등 금하는 직을 겸직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 등을 겸업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구리시 시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채택한 의원윤리강령이다.

의원윤리강령

구리시 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①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구리시의회 회의모습

- ② 우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구리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④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다.
- ⑤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3) 의정활동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는 시의회의 회의는 회기 30일의 정기회 1회와 회기 10일 이내의 임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 정기회는 정례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에 집회되고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소집된다. 정기회의 소집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다.

임시회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자치단체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집된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사항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의장·부의장 불신임 결의 같은 특별사안의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안건과 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사일정 변경안 등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격심사와 의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징계요구는 의장이나 위원장 및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는 의사록 등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언제나 시의회의 의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2.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서양에서도 신분과 계층,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는 보통선거가 실시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래서 낮은 신분과 계층 그리고 여성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참정권 획득운동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8·15해방 후 아무런 과정 없이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참정권운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비밀·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1)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정치제도의 핵은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선출은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집권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수평적인 여야의 정권교체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집권당의 정책이 지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그만큼 정치적인 폐쇄성과 후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45년 건국된 이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가 유지되었으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역대 대통령은 시기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출되었다. 초대 대통령의 경우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1960년 4·19혁명 이후 구성된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으로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또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8·9·10·1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후 마지막으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에서 12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간접선거로 선출된 경우는 초대 이승만과 4·19혁명 이후 윤보선을 제외하고 8·9대 박정희 그리고 10대의 최규하, 11·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선출 등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1972년 유신헌법은 공포분위기 속에서 당시까지의 헌정을 전면 중단하고 발포되었다.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의 대통령 직접선출권을 박탈, 간접선거로 바꾸고 그 선거도 국회에서가 아니라 따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유신체제는 전 국민적인 반대 속에서 대통령의 암살과 함께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몰락 후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기도 전에 전두환·노태우 등을 비롯한 일부 정치군인의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에 의해 유신체제는 이름만 제5공화국으로 바뀌어 연장되었다. 대통령도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와 함께 다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되었다.

물론 간접선거라고 하여 무조건 비민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간접선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는 정권의 향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선거비용과 집권당의 부정선거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출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의회정치를 축소하여 독재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 정치사의 커다란 오점이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선거는 정권교체의 잠재적인 가능성이었던 동시에 국민의 요구가 집중적으로 표출된 정치적 주요 계기였다.

1987년 6·10민주항쟁에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계층의 국민들이 제5공화국 헌법의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15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역대 대통령선거는 대부분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누적되어 온 지역 불평등문제가 선거를 통해 지역감정으로 표출되면서 많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통령선거는 과거의 부정선거 같은 악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2) 국회의원선거

제헌국회의원선거 해방 직후 미국·영국·소련이 합의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결정은 미·소의 대립과 국내 각 정치세력의 분열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1947년 중반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국제연합의 결의를 통해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명목적으로는 남북한 공동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1947년 9월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 국제연합 임시한국

위원단이 입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임시한국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 해 2월 국제연합 소총회에서는 남한지역만의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단독선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의안에 의거하여 1948년 5월 이른바 5·1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총선은 많은 반대세력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감독, 경찰의 철저한 경비 그리고 향보단 등 민간경비인력의 삼엄한 경비하에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4·3사건의 여파가 남아 있던 북제주군 2개 구를 제외한 총 198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져 20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선자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대한노동총연맹 1명,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2명, 기타 10명이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의원정수의 42.5%에 달하는 85명의 무소속의원이 당선된 사실이다. 이는 남북협상과 중립계 등이 선거에 불참함에 따라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이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한 것에 그 주요한 이유가 있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 을구에서는 총 7명이 출마하여, 이진수가 7,80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은 출범 직후부터 내외적인 전복위기에 봉착했다. 무력적인 전복위기는 극복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총선의 결과로 표출되었다.

선거 결과 의원정수 210명의 60%에 해당하는 126석을 무소속이 차지하였고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과거 단선단정을 주장한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고, 민족주의계열 중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인사와 진보적인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였다. 제헌국회에서 55명이 당선되어 원내 제1세력을 이룬 이승만계는 24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 을구에서는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수가 5,097표를 얻어 재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2대 총선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간선으로는 대통령의 재선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과거 이승만을 지지하던 한민당세력들 역시 이승만에게 등을 돌렸다. 이에 이승만 측은 정·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1952년 '부산정치파동'이라는 파란을 거쳐 무리하게 처리되었다. 그리하여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양원제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한 채 1954년 5월 제3대 국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당선자는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무소속과 민주국민당은 각각 67명과 15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득표수에서는 무소속이 359만 1,617표를 얻어 자유당의 275만 6,061표를 상회했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강승구가 1만 5,897표를 얻어 초대·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진수(자유당)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1958년 5월에 실시되었다. 선거인수는 1,016만 4,428명이었으며 84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3.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4.1%에 해당하는 126명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민주당이 33.9%에 해당하는 79명, 무소속이 11.6%로 27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 을구에서는 자유당의 강성태가 1만 2,88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선거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른바 ‘7·29선거’로,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과도내각이 수립된 상태에서 같은 해 7월 민의원(기존의 국회의원을 말함)과 초대 참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6월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는데,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이 개헌에 의거 실시된 것이다.

제5대 민의원선거 결과 민주당에서는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된 반면, 자유당은 2명이 당선되었고 그 밖에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및 통일당이 각각 1명, 기타 단체 1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도 49명이나 당선되었다. 즉, 민주당은 압승하였으며 자유당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 을구에서는 3대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의 강승구가 1만 6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참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로 하고, 한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 또는 8명으로 하는 대선거구제였다. 선거 결과 민주당 31명, 자유당 4명, 사회대중당 1명, 한국사회당 1명, 기타 단체 1명 그리고 무소속이 20명을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제1·2부를 합하여 정원이 6명에 최종적으로 20명이 출마하였다. 제1부에서는 여운홍·정락필·신의식이 당선되었고, 제2부에서는 김용성·이교선·하상훈이 당선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7·29선거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의 통치는 1년이 채 못 돼 1961년 5·16쿠데타로 중단되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세력들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곧바로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또한 군사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단원제를 바탕으로 개정된 「국회의

원선거법」의 골자는 소선거구제 실시, 전국구제도 도입, 부재자투표제 실시,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이었다.

군사정부의 통치가 2년 넘게 계속된 가운데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63년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군사정부를 통해 이미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민주공화당이 110명을 당선시켜 의원정수의 62.8%에 해당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민정당은 41명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의 특징은 민주공화당이 총유효투표수의 32.4%를 차지하였으나 의석수에서는 전체 175개의 의석 중 110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점이다.

선거구의 개편에 따라 구리면이 속한 양주군은 의정부시와 함께 경기도 제4지역구에 속했다. 선거 결과 3·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민정당의 강승구가 2만 4,17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1967년 6월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에서는 129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의원정수의 73.7%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개헌선인 3분의 2를 상회하는 것이다. 신민당은 45명이 당선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 직후부터 부정선거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구리가 속한 의정부·양주 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이진용이 5만 4,11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1971년 5월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에서는 의원정수의 55.4%에 해당하는 113명이 당선되었고, 신민당은 43.6%에 해당하는 89명이 당선되었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1명씩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정당별 득표율은 공화당이 48.8%, 신민당이 44.4%였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심이 공화당을 이반하고 있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 반면 야당인 신민당은 놀랍게 신장하여 종전의 2배가 넘는 89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과반수에서 단지 13석이 부족한 의석수였다.

구리면이 속한 의정부·양주 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이윤학이 4만 4,27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선거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1973년 2월에 실시되었다. 선거에 앞서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특별선언으로 헌정이 중단되었고, 이른바 ‘유신체제’가 시작되었다. 이 조치로 국회는 해산되었고 정당활동은 중지되었으며,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기능을 대신하였다. 정부는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 헌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골자는 73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채택, 전국구제도 폐지, 국회의원 임기 6년으로 연장, 선거운동의 제한 등이다. 또한 의원정수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박정희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갈수록 민심이 이반하는 위기가 가중되자 단행된 친위쿠데타였다.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공화당은 73명, 신민당 52명, 민주통일당 2명, 무소속이 19명 당선되었다. 그리고 헌정까지 중단시킨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득표율을 보면 공화당이 38.7%, 신민당이 32.5%, 민주통일당이 10.2%, 무소속이 18.6%를 각각 차지하여 공화당은 절반의 표도 얻지 못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이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유정희 국회의원 73명을 합해 과반수의 의석을 맞출 수 있었다.

또한 선거구가 개편되어 읍으로 승격된 구리는 양주군에 포함되어 의정부·과주와 같은 선거구였다. 선거 결과 공화당의 박명근과 무소속의 이진용이 각각 8만 9,465표, 3만 5,76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1978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68명, 신민당이 61명, 민주통일당이 3명의 당선자를 각각 배출하였으며 무소속은 22명이었다. 이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에 비하여 당선자수는 7명이 많았지만, 득표율에서는 31.7%를 얻는 데 그침으로써 32.8%를 얻은 신민당에 1.1%를 뒤졌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유신 말기의 강압적인 정치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구리읍이 소속된 양주·의정부·과주 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박명근과 신민당의 김형광이 각각 10만 1,757표, 9만 4,44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1년 3월에 실시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됨에 따라 7년간의 유신체제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12·12군사반란과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체제의 골자를 토대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하였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많은 중진 정치인들이 신군부의 규제에 의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정당 90명, 민한당 57명, 국민당 18명, 신정당 2명, 민사당 2명, 민권당 2명, 안민당 1명, 민주농민당 1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 11명이었다. 제1야당이 된 민한당은 독재에 반대한 기존의 야당과는 다른 형식적인 야당이였다.

1980년 4월 1일 양주군의 8개 읍·면이 분리, 남양주군이 신설되면서 구리읍은 남양주군에 속하게 되었고 양평군과 함께 같은 선거구로 재편되었다. 구리읍이 속한 남양주·양평 선거구에서는 민정당의 김영선과 한국국민당의 조병봉이 각각 7만 2,463표, 1만 9,78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이른바 ‘2·12총선’으로 불리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치규제를 받고 있던 정치인들이 일부 해제되어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리하여 선거 직전인 1월

규제에서 풀려난 해금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신민당이 만들어졌고 선거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영향력에 의해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다.

84.6%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2·12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87석과 전국구 61석 등 총 148석을 차지하고, 신당 돌풍을 일으킨 신한민주당은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을 확보하여 일약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지역구 26석과 전국구 9석을 얻었고, 한국국민당도 지역구 15석과 전국구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정당별 득표율은 민정당이 35.25%, 신한민주당이 29.26%, 민한당이 19.68%였다.

구리읍이 속한 남양주·양평 선거구에서는 민정당의 김영선과 한국국민당의 조병봉이 각각 7만 6,646표, 3만 1,99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실현된 개헌에 의거하여 1988년 4월에 실시되었다. 이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으며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소선거구제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졌다.

선거 결과 민정당이 의원정수의 41.8%인 125명, 평화민주당이 23.4%로 70명, 통일민주당이 19.8%로 59명, 신민주공화당이 11.7%로 35명, 한겨레민주당이 0.3%로 1명, 무소속이 3.0%로 9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 득표율은 민주정의당 33.96%, 통일민주당 23.83%, 평화민주당 19.26%, 신민주공화당 15.59% 등이었다.

13대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정당이 지역구 87석과 전국구 38석을 얻어 과반수에 미달하는 125석을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 선거에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지방색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양상으로, 각 당이 당수 출신지역에서 압승하였다는 사실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국회의원선거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구리읍이 1986년 시로 승격되면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구리시가 단일선거구가 되었다. 구리시에서는 민정당의 전용원이 1만 4,73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 3월에 실시되었다. 14대 선거에서의 중요한 정국변화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민주당의 잔류의원들과 평화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통합했고, 재벌그룹을 기반으로 성립한 통일국민당이 창당되었다. 14대 총선은 71.9%라는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민자당 116명, 민주당 75명, 국민당 2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당선되었다. 득표율은 민주자유당 38.5%, 민주당 29.2%, 통일국민당 17.3%, 신정치개혁당 1.8%, 민중당 1.5%, 무소속 11.5% 등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

전국구는 지역구의 의석비율에 따라 민자당에 33명, 민주당에 22명, 통일국민당에 7명이 배분되었다. 이로써 국회의원수는 민자당이 의원정수 49.8%인 149명, 즉 과반수에서 1석이 모자라는 의석을 얻었다.

14대 총선의 특징으로는 국민당의 돌풍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어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당의 정주일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3. 시 행정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바탕을 둔 지방행정의 기능은 점차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중앙정부나 중앙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두는 경우도 있다.

구리시의 역대 시장은 1996년 3월 현재 9대에 이르고 있다. 그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대 장의진 (1986. 1. 1~1986. 12. 24.)
- 제2대 전영국 (1986. 12. 24~1988. 6. 3.)
- 제3대 한세권 (1988. 6. 4~1991. 1. 9.)
- 제4대 홍성원 (1991. 1. 10~1991. 12. 29.)
- 제5대 류재천 (1991. 12. 30~1993. 1. 25.)

제6대 이수영 (1993. 1. 26~1994. 1. 2.)
 제7대 박영순 (1994. 1. 3~1995. 3. 28.)
 제8대 이석우 (1995. 4. 12~1995. 6. 30.)
 제9대 이무성 (1995. 7. 1~현재)

이 중 특히 제9대 시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리시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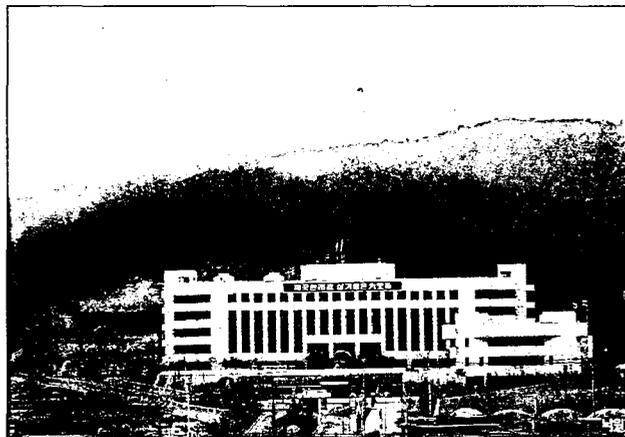
다음은 구리시의 행정기구 및 업무분장 체계를 통해 주요 행정업무를 알아보겠다. 구리시에는 다양한 행정부서가 있다. 1986년 구리가 읍에서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2개의 실(室)과 11개의 과(課) 그리고 40개의 계(係)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시 승격 이후 시의 행정범위가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행정기구가 늘어났다. 1995년 12월 17일 현재 구리시의 행정조직에는 2개의 국, 3개의 실, 16개의 과, 4개의 소(所) 그리고 75개의 계가 있다. 각 행정기구가 하는 일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총무국은 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 총무국에는 총무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민방위과가 있다.

총무과 총무계·시정계·지도계·새마을계·문서통계계 등의 5개 계가 있다. 각 과·소 간 행정 통합조정, 인사관리, 직제의 신설 및 개정·조정·폐지·신청, 행정구역의 명칭과 위치 변경, 각종 통계조사, 행정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세무과 부과1계·부과2계·징수1계·징수2계·재산세계·세외수입계가 있



구리시청

다. 33.29km²의 토지와 1만 6,973대의 자동차, 총 2만 5,202개의 각종 시설, 법인 체 169개를 대상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거두는 과세·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과 경리계·용도계·관재계가 있다. 회계과는 시 전체 예산을 관리·집행·결산하는 일을 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간접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시설 투자에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시민과 민원행정계·호적병무계·정보통신계·전산계 등 4개 계가 있다.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민등록인구 동태조사, 통계업무, 각 가정에 대한 통합공과금 자동납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사회계·가정복지계·여성복지계·위생계·위생지도계가 있다. 주요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영세민 생계구호를 위해 생계비·양곡·장의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기회 확대와 기술훈련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각종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업무와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관내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지원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하수계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환경보존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오염도 측정,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일반폐기물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 등이다.

청소과 청소1계·청소2계·청소시설계가 있다. 각종 폐기물 처리와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업무,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업무,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민방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민방위 운영을 목표로 재난대비 자율운영체제 구축, 지역단위 종합방재계획 수립·운영, 재해취약지구 개선계획 수립,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운영, 화생방장비 확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개발국

개발국에서는 지역경제와 각종 개발계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개발국에는 지역경제과·건설과·교통과·도시과·건축과·수도과·지적과가 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농산계·유통계·공업계 등 4개 계가 있다.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과 관리계·도로시설계·도로보수계·치수계 등 4개 계가 있다. 건설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도로의 신설·보수·관리 및 교량의 설계·보수·관리, 하천개발사업 설계·감독, 왕숙천개발사업, 저수지·양수장·배수펌프장·하천배수문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통과 교통기획계·교통지도계·차량등록계 등 3개 계가 있다.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시과 도시계획계·도시개발계·공원녹지계·녹지관리계 등 4개 계가 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업무, 각종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과 건축계·주택계·건축지도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일괄처리하고 토지대장 변경에 따른 건축부대장 처리 그리고 과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과 산하에 업무계·요금계·수도시설계·누수복구계 등 4개 계가 있다. 상수도에 관한 일반행정, 상수도의 급수장치 및 계량조사, 배수지·취수장시설물의 유지관리,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 그리고 공과금의 수납관리를 하고 있다.

지적과 토지관리계·지적계·지적정보계 등 3개 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과는 지적 토지조사, 지적 측량, 각종 지적에 관한 신고·신청처리,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3)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에는 의사계가 있다. 의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의원등록관리,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 홍보자료 발간, 본회의·임시회의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4)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계·예산계·법무계·감사계 등의 4개 계가 있다. 시정방침 구현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관리, 법제와 소송업무,

예산편성과 운용, 시행정과 공무원 비리감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5) 경영정책실

경영정책실에는 경영기획계·수익사업계·공영개발계 등 3개 계가 있다. 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시의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6)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문화계·체육계 등 3개 계가 있다. 시정소식·반사회 의제·생활정보·주민계도사항 등을 입안·시행하는 일과 시민들의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향토문화제에 대한 발굴·보존사업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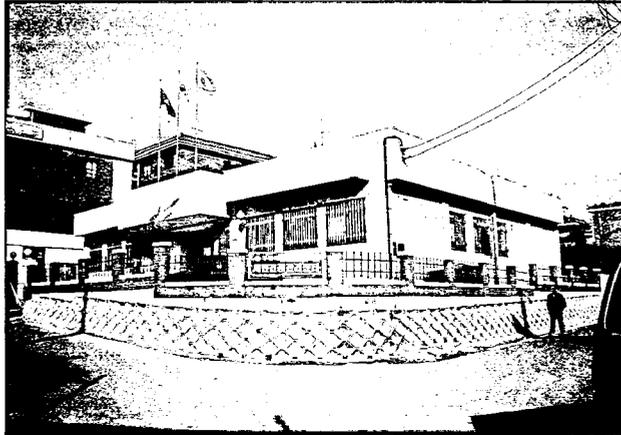
7) 보건소

보건소는 구리시의 보건의료와 관계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계·가족보건계·예방의약계 등 3개 계로 나뉘어져 있다. 보건소에는 응급차 1대, 방역차 1대, 승용차 1대와 소독기·분무기 등 15대의 방역장비차량이 있으며, 의료시설로는 엑스선 촬영기 2대, 초음파 진단기 1대, 분광도계 1대, 무균함 1대, 치과의자 1대가 구비되어 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일반진료, 순회진료, 의료보호환자진료 등의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 모자 보건사업, 전염병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혈압기 8개, 전자체중기 8개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건강상태를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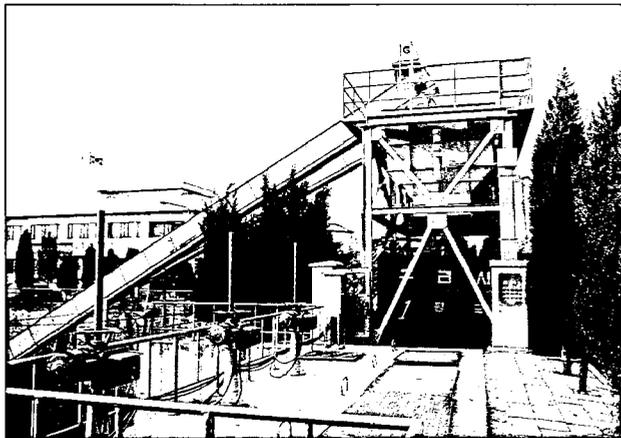
8)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는 1988년 11월에 발족한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1990년 3월 개편된 것으로, 기술계와 관리계 2개 계가 있다. 관련 시설로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하루 처리량이 5만 m^3 이며 분뇨처리장의 하루 처리량은 80 $k\ell$ 이다.

이 밖에 구리시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 및 사법기관으로는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세무서, 구리소방서, 한국석유개발공사 제2비축관리사무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의정부 병무지청,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이 있다.



구리시 보건소



분뇨처리장

한편 행정기구가 확대·개편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직을 포함한 시청·동공무원이 1986년 당시 261명에서 1995년 9월 현재 555명으로 늘어났다.

4. 동 행정

구리시에는 갈매동, 사노동, 인창동, 교문동, 아천동, 수택동, 토평동 등 7개의 법정동과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2동, 수택1·2·3동 등 8개의 행정동이 있다. 법정동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동을 말하며 행정동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구획·설치한 동이다. 따라서 주소는 법정동으로 나타내지만 각 동의 행정은 행정동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각 동의 개황과 행정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매동

갈매동의 총면적은 3.81km로 시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1,396가구, 4,1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9통 3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매동 내에는 초등학교가 1개, 기업체가 54개 있으며 의료시설은 없고 약국이 2개 있다.

동 전체가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 관련 기관으로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1개, 우체국 1개, 농협 1개, 예비군 중대본부 1개가 있다. 동사무소는 갈매동 256-14번지에 위치해 있다.

2) 동구동

동구동은 사노리에 인창리 일부가 통합된 것이며 면적이 7.3km로 시 면적의 21.9%에 해당한다. 18통 90개 반으로 3,666가구, 1만 1,003명이 거주한다. 동에는 초등학교 1개와 87개의 기업체가 있다.

전체 면적 중 60%가 개발제한구역 53%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가 공장이전촉진지역이다. 또한 국가지정 사적인 동구릉의 소재지로서 동 면적의 14%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다. 43번 국도가 관할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시립공설묘지 및 폐기물매립지가 소재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중에 있으며 특산물인 먹골배의 주산지이다. 동사무소는 인창동 산2-123번지에 있다.

3) 인창동

면적 2.02km로 시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5,863가구, 1만 7,71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4통 16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에는 우체국 1개, 파출소 1개, 농협 1개, 초등학교 1개, 시민사회복지관 1개, 약국 7개, 의원 2개, 병원 1개와 73개의 기업체가 있다.

동 전체가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각각 37%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관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월 1회씩 동사무소 앞 광장에서 중고 어린이용품 교환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사무소는 인창동 576-7번지에 있다.

4) 교문1동

교문1·2동으로 분동되기 전의 교문동은 시 승격 당시 교문리 8개 리와 아천리 2개 리가 통합되어 생겼으며, 당시 인구는 1만 2,000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교문1·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행정편의를 위하

여 1995년 3월 13일자로 교문1동과 교문2동으로 분리되었다. 한성아파트·동현아파트·교문동 고층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지역이 교문2동이고, 그 외의 과거 교문동이 교문1동이다.

교문1동의 면적은 6.7km²로 시 전체 면적의 약 20.1%이다. 6,838가구, 1만 9,68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9통 16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3.6km²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7km²로 지정되어 있다.

새로 지은 시청사가 위치해 있으며, 행정 관련 기관으로는 구리소방서·구리시립도서관·남양주세무서·우체국·의료보험조합·한국전력공사·농수산물통계사무소 구리출장소가 있다.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의료시설로는 의원 9개, 약국 8개가 있다. 동사무소는 교문동 262-4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5) 교문2동

교문2동의 면적은 1.1km²로 시 면적의 3.3%이다. 행정구역은 21통 16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7,747가구, 인구 2만 3,885명이 살고 있어 1995년 말 현재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개발제한구역이 0.6km²이며 관공서로는 동사무소가 1개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개 교, 금융기관이 4개 있다. 동사무소는 교문동 799-1번지에 있다.

6) 수택1동

수택1동은 1996년 1월 8일 기존 수택동지역이 개편된 것이다. 면적이 1.58km²로 시 면적의 4.7%를 차지한다. 31통 19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651가구에 인구 2만 5,699명이 살고 있다. 주거지역이 0.66km², 상업지역이 0.6km², 임야가 0.32km²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동에는 파출소 2개, 초등학교 1개, 전화국 1개, 병·의원이 32개, 체육공원 1개가 있다.

지리적으로 왕숙천과 인접해 있으며 상업중심지로서 인구가동이 많은 편이다. 동사무소는 수택동 374-1번지에 소재해 있다.

7) 수택2동

1996년 1월 8일 수평동에서 분동된 수택2동은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다. 면적 0.47km²로 시 면적의 1.4%를 차지한다. 27통 15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998가구에 인구 2만 849명이 살고 있다. 동에는 동사무소 1개, 금융기관 2개, 의료복지시설 15개, 체육공원 2개, 어린이놀이터 3개, 기업체 73개가 있다. 동사무소는 수택동 445-28번지에 있다.

8) 수택3동

1996년 1월 8일 수평동에서 분동된 수택3동은 면적이 7.12km²로 시 면적의 21.4%를 차지한다. 23동 13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346가구에 인구 2만 126명이 거주하고 있다. 동에는 환경사업소와 우체국 1개가 있으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금융기관 2개, 경로당 9개, 의료복지시설은 11개, 기업체 40개가 있다.

수택3동은 도·농복합형 전원도시이며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동사무소는 수택동 851-1번지에 새로 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5. 재 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빈약한 편이다. 구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절반이 채 안 되는 약 40% 수준이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빈약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 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나, 경제적인 부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통해 시 승격 이후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의 세입액은 111억 9,682만 6,000원이었으며 1993년에는 국비 및 도비보조와 지역개발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이 증가하여 1986년에 비해 12.5배가 늘어난 1,395억 8,235만 1,000원이었다. 세출액을 살펴보면 1986년은 88억 8,523만 7,000원이었으며 1993년에는 719억 1,341만 1,000원으로 약 8배가 증가했다.

일반회계의 세입액 항목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지방채 등이 있으며 세출액은 의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문화 및 체육비·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경비가 포함된다.

일반회계의 1986년 세입액은 75억 5,300만 원이었으며 1993년에는 973억 7,700만 원으로 12.9배가 증가했다. 세출액을 살펴보면 1986년에 60억 8,000만 원이었으며 1993년은 395억 2,800만 원으로 6.5배가 늘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세출액의 대부분은 지역개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1993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보험기금·새마을소득 특별지원·영세민 생활안정기금·토지구획정리·하수도사업 등이 있다. 1986년 세출액은 28억여 원이었으며 1993년에는 82억 8,300만 원이었다. 1986년에는 토지구획

정리비가, 1993년은 상수도사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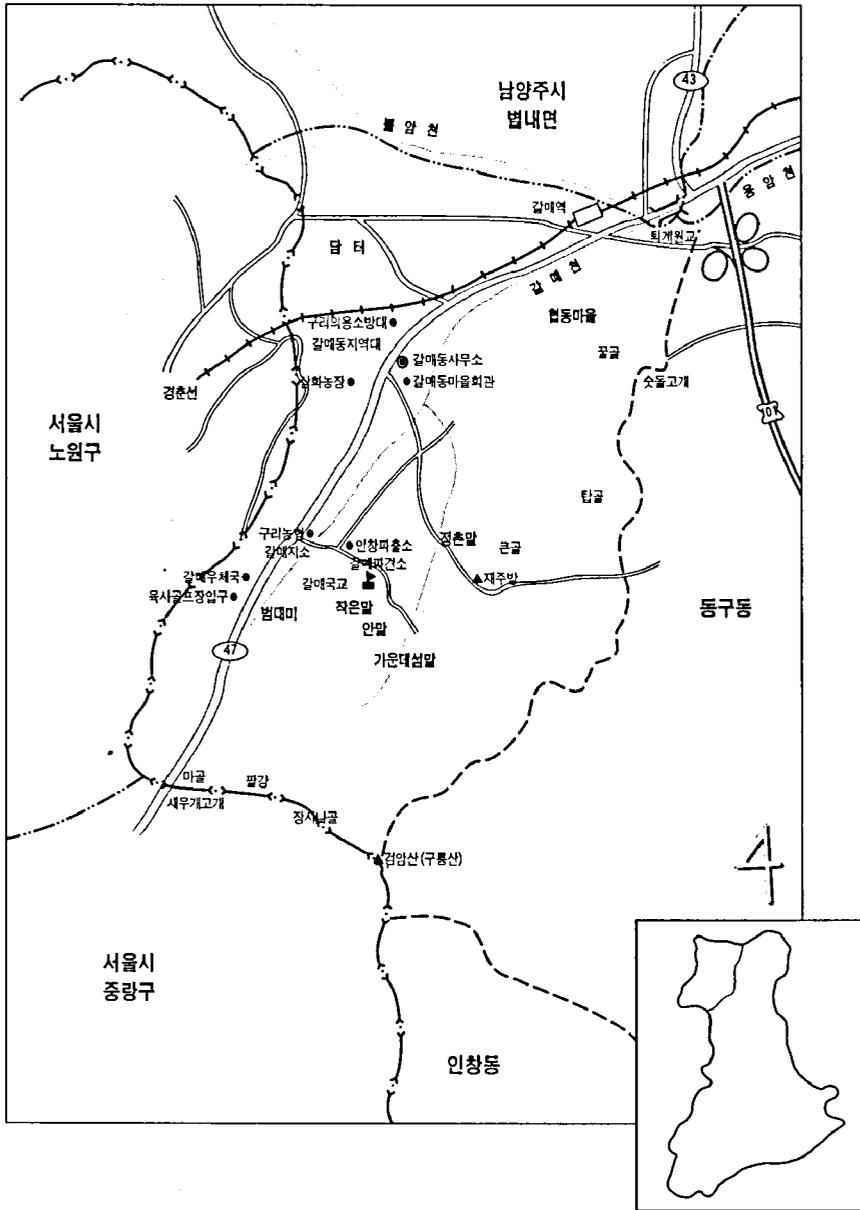
1993년 말 현재 시유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총평가액이 889억 3,300만 원으로 1986년의 8억 5,200만 원에 비해 104배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에 토지가 격 상승 및 토지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국세는 국내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로 나뉘며 국내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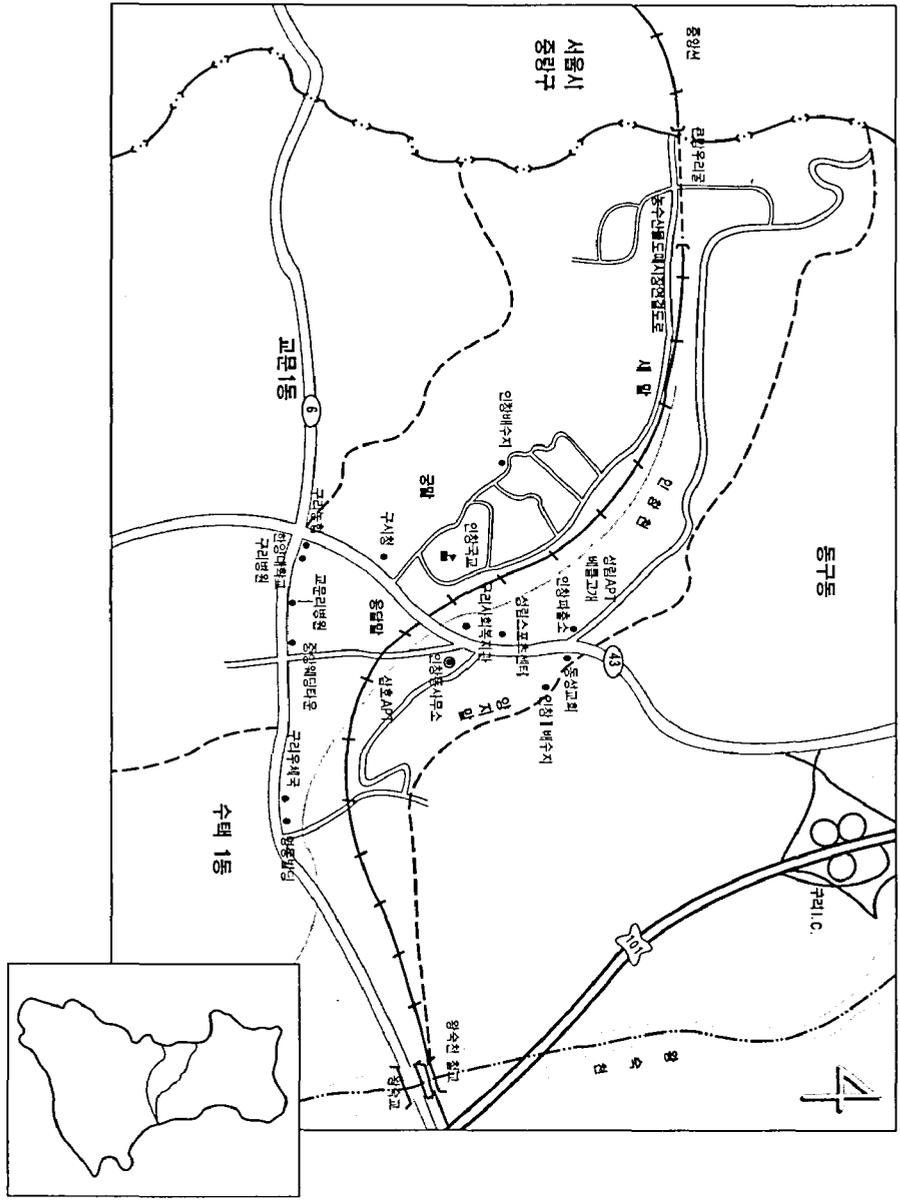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가 된다. 현행 지방세는 보통세·목적세·종합토지세로 구분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판매세가 포함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로 구성된다.

1986년의 지방세 징수액은 30억 9,861만 6,000원이었으며 1993년에는 286억 7,597만 1,000원이었다. 1986년에 비해 1993년에는 담배판매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38배, 15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농지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농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시 승격 이전인 1979년에는 6,450원이던 것이 1986년에는 약 3만 4,000원, 1993년에는 약 2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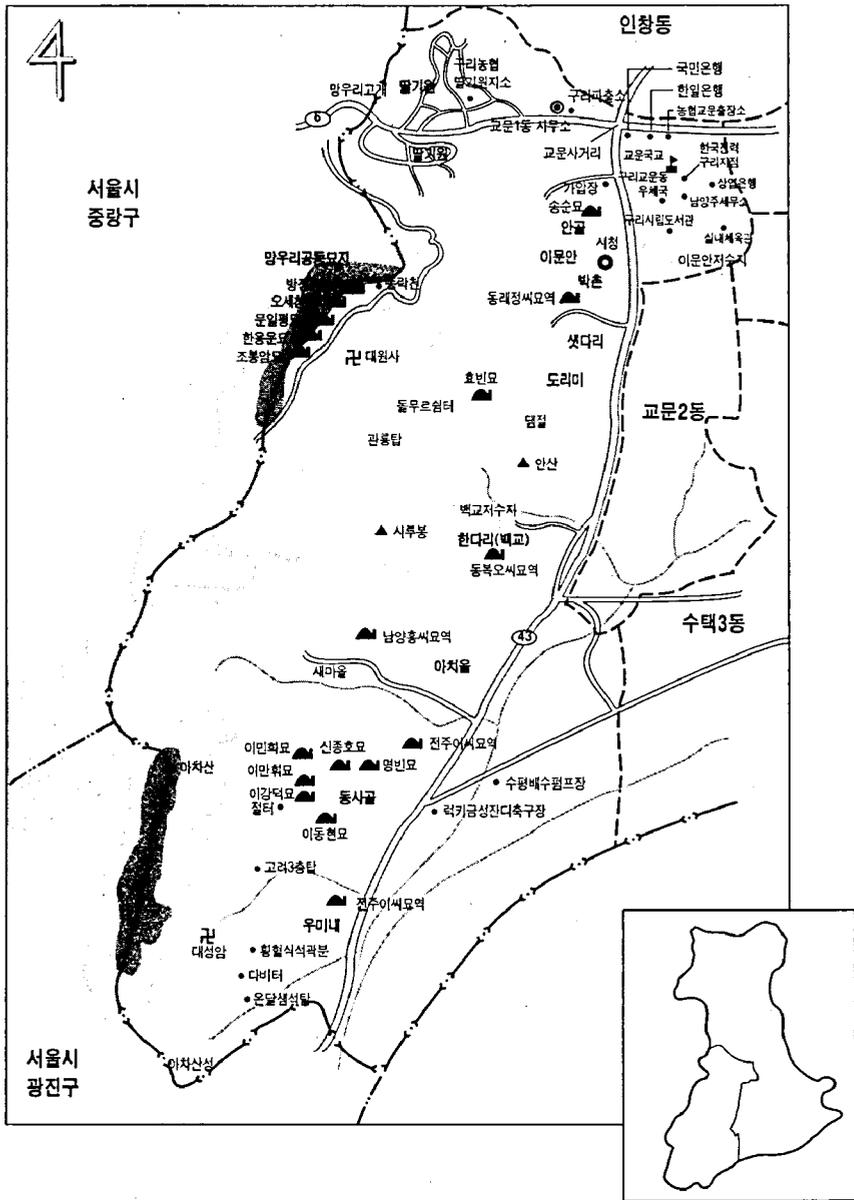
<지도 3> 갈매동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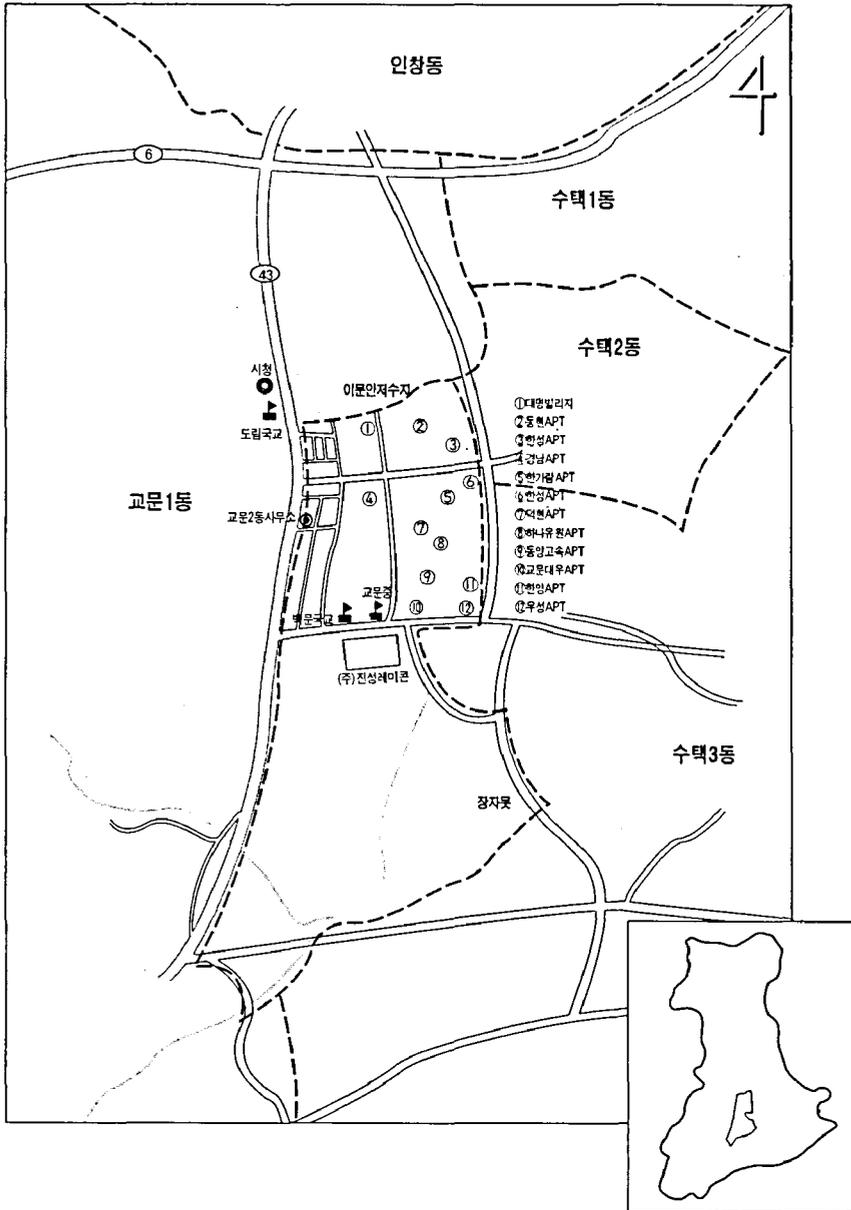
<지도 5> 인창동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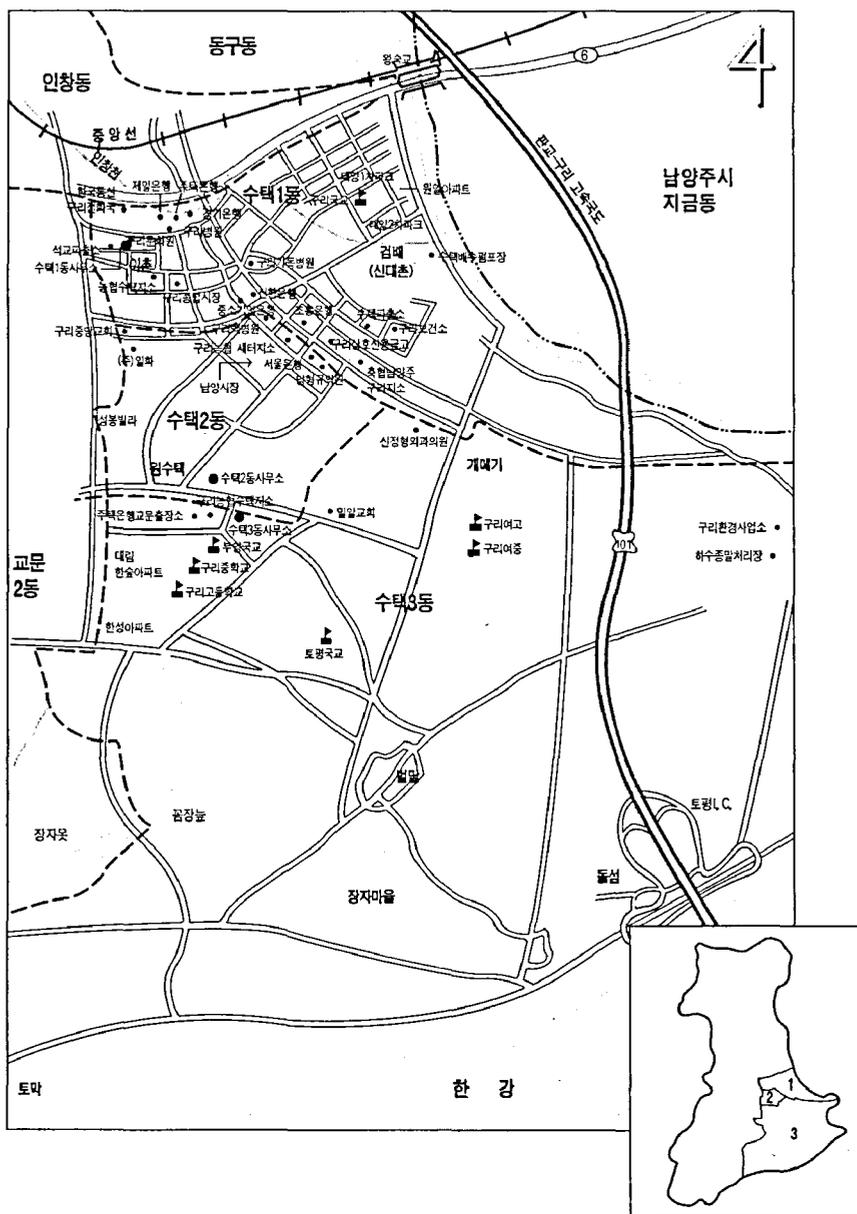
<지도 6> 교문1동 지도



<지도 7> 교문2동 지도



<지도 7> 수택1·2·3동 지도



제3절 산업

1. 농업

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1960년대 이래 그와 같은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까지 생산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부문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구면에서 볼 때 1961년에 총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던 농업인구는 1980년 28%로 떨어졌다.

공업성장 중심의 산업정책은 농·공 간의 불균형성장과 더불어 여러 사회현상을 동반하였다. 공업이 성장해 갈수록 저임금 및 저곡가정책과 맞물려 농업부문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었다. 많은 농촌주민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유입된 인구로 인해 도시가 팽창하였다. 이렇게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는 산업노동자로 흡수되기도 하였으나, 대책 없이 상경한 농촌인구는 도시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농업이 처한 위치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의해 과거 경제개발기와는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이러한 토착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특정한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개방이라는 외풍에 대비하기에는 경쟁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구리의 농업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구리는 서울과 접해 있는 관계로 농업부문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농촌지역과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농업인구면에서 볼 때 구리는 1960~1970년대를 거치는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1965년에서 1975년까지의 농가호수는 대체로 1,100여 호에서 1,400여 호 사이를 유지한다.

물론 이러한 농가호수가 순수한 농업종사 인구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도 구리는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농가가족 중에는 서울로 일을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농가호수와는 달리 경지면적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1,370여ha에서 300여ha가 감소하였으며 시 승격 직후인 1987년에는 830여ha, 1993년에는 500여ha로 격감했다. 이에 따라 호당 경지면적도 감소하였다.

결국 구리는 경지면적의 측면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의 농업이 겪고 있었던 상황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으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별다른 이농현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서울에 편입되지 못한 인구가 구리로 유입되어 인구는 대체로 증가하였다.

2) 농업생산조건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와 토질이다. 구리는 전·남북, 충남 등의 호남 다우지역과 북쪽의 소우지역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분명하다.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은 그만큼 홍수와 가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사에서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조건에서는 저수지 등의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완비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구리의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의 경작지는 주로 갈매동과 시 동쪽의 왕숙천변, 소하천변 등의 평지와 낮은 구릉지에 분포해 있다. 토지는 비옥한 편이며 논보다 밭이 많다. 시 승격 직후인 1986년의 경우 전체 960ha 중에서 논이 323ha인 반면 밭은 637ha였다. 이러한 비중은 1993년 논과 밭이 각각 129ha, 385ha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구리가 서울과 인접한 입지조건으로 근교농업으로서의 위치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호당 경지면적은 농지의 감소폭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시 승격 직후인 1987년의 농가호수당 경지면적은 논과 밭을 합쳐서 0.81ha였는데 이는 1993년에 오면 0.77ha로 줄어든다. 결국 구리시의 농가는 평균적으로 1정보(1ha보다 1a 정도 적은 면적) 즉 3,000평이 안 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이다.

농가별 경지규모를 보면 1993년의 경우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30호였으며 경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농가도 38호나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93년 농가의 경지 소유현황

(단위: 호·ha)

총농가	총면적	경지 없음	0.5 미만	0.5~1	1~2	2~3	3 이상
666	514	38	216	265	99	18	30

출전: 구리시, 『구리시 통계연보』, 1994.

따라서 구리시의 농가는 근본적으로 논농사로는 경영수지를 맞출 수가 없으며, 고소득이 보장되는 과수나 다른 밭작물재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음으로 농지개발사업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농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농업생산물의 증산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농업용수의 개발과 경지정리, 농지의 조성 및 농업시설 보호 등이 포함된다. 구리의 경우 기후조건상



논(갈매동)

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그 현황을 보면 교문동에 우수지 3개, 동구동에 양수장 5개, 보 1개, 동구동·갈매동에 대·소형 관정 9개가 있다. 그렇지만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관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기계는 토지의 비옥도와 함께 농업생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더 나아가 경영방식 전반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는 과학적 영농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었는데, 1978년 「기계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촌에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移秧機), 바인더, 콤파인 등의 경작기계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보급률에서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존재한다.

1993년 현재 구리시의 주요 농기계현황을 보면 우선 경운기가 312대, 트랙터가 49대, 이앙기가 21대, 동력분무기가 253대, 양수기가 508대, 콤파인이 3대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0년대 후반을 분기로 하여 주요 농기계 중에 경운기가 감소하는 반면 트랙터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기계의 증가는 그 자체로 생산력의 증대와 직결되지 않는다. 구리의 경우처럼 농토가 협소한 경우 농가호수마다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가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1989년 ‘농촌농기계 보내기운동’을 통해 동구동과 아천동에 이앙기 2대를 보냈으나, 활용하는 경우가 적다고 농민들이 받기를 거부한 예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공동구입·관리·활용하는 제도가 유효하다.

1989년 동구동 양치마을에 농기계를 공동관리하는 소규모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시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독립경영을 영위하는 농가의 농업경영 속성상 별 실효가 없었다. 이에 대해 1993·1994년에 농기계를 저가로 농민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농기계보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에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농기계와 함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료와 농약이 있다.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금비는 일제시기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구리에서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금비의 절대사용량이 늘고 있다. 물론 농토의 감소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증가량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금비와 농약의 남용(濫用)은 토질산성화, 병충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부 유기농법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비가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료이다.

구리시에서는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산물찌꺼기 등을 발효시켜 비료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농가의 비료가 부담감소, 지력향상, 오·폐수처리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의 경지면적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리의 농지는 경향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농현상을 막고 농지의 용도전환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리시 역시 1991년부터 농지관리업무를 통해 농지의 보전 및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90년 9월 이래로 「농지임대차관리법(農地賃貸借管理法)」에 의거하여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차농의 보호와 농지의 매매·전용에 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토를 보전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농지에 대한 정책 이외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도 각종 농기계 지원, 관개시설 보수·신설,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육성, 모범작목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전반적인 시 발전 기조가 유통·상업 중심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농업생산물

식량작물 농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아직까지 주식인 쌀을 비롯한 곡물의 생산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 구리시의 경우 경지면적상에서도 밭이 논을 초과하고 있으며, 곡식은 생산성면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구리시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은 쌀, 옥수수,

<표 2> 식량작물 종류별 생산현황

(단위 : ha · kg · MT)

연도	합 계			쌀			옥수수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1990	130	414	539	111	342	380	2	200	4
1991	155	473	734	125	424	530	15	680	102
1992	202	218	441	191	184	352	2	300	6
1993	186	442	823	175	420	735	2	300	6

연도	콩 류		감자·고구마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1990	11	127	14	6	2,350	141
1991	10	130	13	5	1,780	89
1992	5	160	8	4	1,875	75
1993	5	160	8	4	1,850	74

출전 : 구리시, 『구리시 통계연보』, 1991~1994.

콩, 고구마, 감자 등이다.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보면 <표 2>와 같다.

채 소 채소류는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시와 가까운 근교지역의 농업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구리시의 경우도 서울과 가까운 입지 때문에 곡물 생산 양상과는 달리 채소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다.

구리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배추, 무우, 시금치, 호박, 오이, 토마토, 상추, 고추, 마늘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배추이며 다음으로 과, 상추, 무우 등이다. 1992년 근교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124ha, 430여 농가가 시설채소를 재배하였다. 시 당국에서는 포장기계를 공급하고 시범협동출하반을 구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 채소재배가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과 일 지역 특산물인 먹골배로 인해 구리의 과일생산은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두드러진다. 배 외에도 사과와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배의 생산량과는 비교가 안 된다. 배는 생산량뿐 아니라 생산성면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먹골배라는 명칭은 현 서울지역인 묵동(墨洞)에서 비롯되었는데, 묵동은 옛날 과거에 낙방한 유생들이 붓·묵 등 필기구를 팔아 농사를 시작하였다 하여 붙은



배 수확하는 모습

이름이고, 이들이 생산한 배에 목동의 순우리말인 먹골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원래 먹골배의 본 생산지는 목동이었지만, 목동이 서울로 편입되어 도시화되는 가운데 인근 지역인 구리시가 먹골배 재배의 주역을 맡게 되었다. 지리적으로도 구리시는 토양과 기후가 배의 재배에 유리하다. 과일 생산량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과일류 생산현황

(단위 : ha · MT)

연도	합 계		배		포 도		사 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139	3,097	135	3,055	3	26	1	16
1991	139	3,097	135	3,055	3	26	1	16
1992	109	2,770	108	2,754	-	-	1	16
1993	110	2,779	108	2,754	1	9	1	16

출전 : 구리시, 『구리시 통계연보』, 1991~1994.

배는 거의 시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특히 아차산 기슭에 배밭이 많은데, 늦봄이 되면 배꽃 핀 산기슭 과수원의 전경이 일품이다. 배 외에 사과를 주로 갈매·수평동지역에서, 포도는 동구·교문동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구리시에서 과일의 생산은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시 경작면적과 생산량 측면에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구리시에서는 앞의 품종 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특용작물, 임산물,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용작물로는 참깨, 들깨, 낙화생(땅콩) 등이 있다. 이 중 들깨는 근래에는 생산이 미흡하고 참깨는 갈매·동구·인창·교문동 등 거의 시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낙화생은 주로 교문·수평동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1993년 참깨는 약 1ha의 면적에서 1M/T가 낙화생은 2ha의 면적에서 3M/T가 생산되었다.

임산물에는 밤, 대추, 도토리, 은행, 버섯, 산나물 등이 있다. 이 중 두드러지는 것은 밤인데, 1993년의 경우 약 2만 4,000여kg이 수확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산나물의 수확량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약용작물의 경우 거의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 승격 이전의 경우 적은 양이나마 인삼이 재배되었으나 현재에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한편, 근교농업 육성방침이 수립되면서 화훼류의 생산이 활기를 보였다. 그러나 경조사 때 화환을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그 판로가 줄어들어 생산증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구리농업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부문의 낙후를 막기 위해 생산·금융·유통 등의 측면에서 농민 상호간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동조직이다.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지개혁이 완료된 시점인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됨으로써 특수 법인체로 발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협은 사실상 농민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준정부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농협이 역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농민은 손해를 보고 조합은 이득을 보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사회의 민주화 움직임에 발맞춰 조합장을 임명이 아닌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농협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구리지역에는 1970년 3월 면조합이 정식 발족하였다. 현재 구리농협은 수택·새터·딸기원·갈매·수평 등 5개의 지소와 판매장 및 창고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구매·판매·공제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2. 상업 및 서비스업

1) 상업

넓은 의미에서 상업활동은 경제의 순환 질서인 생산·유통·소비의 세 과정 중에서 생산을 제외한 유통과 소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상업은 물물교환이라는 원시적인 형태에서 화폐의 사용과 시

장의 발달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업 역사는 화폐가 사용된 고조선시기로까지 올라간다. 또한 이미 삼한시대부터 시장이 발달하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경시와 육의전이라는 대규모의 국설시장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방에는 독자적으로 향시가 발전하였다.

8·15해방 이후 상업의 발전은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실시된 이래 본격화되었다. 이는 생산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소비영역도 함께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화 과정에 있는 지역의 경우 계속되는 인구증가에 의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업이 발전한다. 구리시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구리시의 위치는 서울과 경기 동북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상업권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리시는 동부의 남양주지역과 서부의 서울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시 동부지역의 구매력을 흡수하는 한편 서울 동부의 경동시장, 한강 건너 천호시장 등의 상권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구리시는 도시발전의 중점방향이 '상업도시'로 설정되어 있다. 시 대부분이 '공장이전축전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구리시를 상업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한다. 실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 경기 동북부지역의 유통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는 구리시민의 구매력에 기반한 상업발전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구리는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지 못했다. 1950년대 구리면이 속한 양주에는 15개의 시장이 있었으나 당시 구리에는 종합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 약 50여 개의 점포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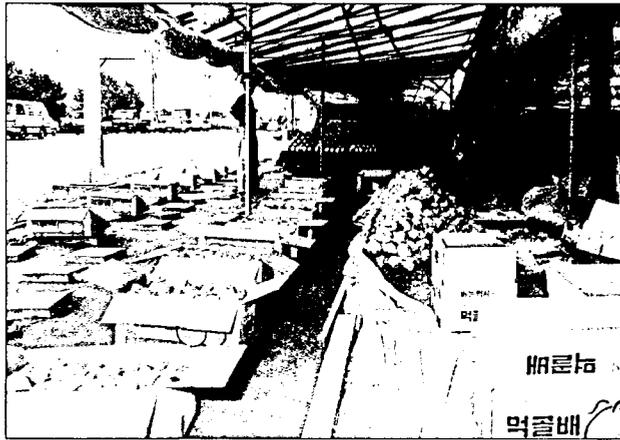
그러던 것이 19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상가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1969년에 160여 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1977년 3월에는 처음으로 종합시장인 구리시장이 법인등록을 하고 수택리에 개설되었다. 개설 당시 규모는 총대지 1,260평에 건평 700여 평이었으며, 구리읍 전 지역과 인근 미금면 도농리, 와부면 덕소리 일대를 포함하는 상권을 형성하였다. 구리종합시장은 현재도 남아 있는, 시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다.

시 승격 이전까지 구리에는 2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였다. 하나는 구리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1982년 11월에 개설된 남양시장이다. 이 두 시장은 재래식 시장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 1994년 현재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은 각각 117개와 109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들어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구리시장의 경우 가장 오랫동안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0여 개의 점포가 폐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양시장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인다.

재래시장이 축소되는 반면에 아파트단지의 상가를 비롯한 현대식 유통형태는 증가일로에 있다. 이들 현대식 종합상가는 아직 개별적 규모로는 재래시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경쟁력에서는 기존 상권을 잠식하면서 재래시장을 능가하고 있다. 구리시에 위치한 시장 및 상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리종합시장



먹골배 노변직판장

<표 4> 1994년 시장 및 상가현황

(단위: m²)

시 장 명	소 재 지	점포수	개설연도	면 적		비 고
				부지	건축	
구리종합시장	수택동 380	117	1977	4,719	3,086	채래시장
남양종합시장	수택동 482	109	1982	5,236	5,647	채래시장
동현종합상가	교문동 766	72	1991	1,124	2,411	아파트단지 상가
미보상가	수택동 418-2	38	1991	1,252	2,790	상업지역 상가
진주유통상가	수택동 382-5	93	1991	1,286	3,433	상업지역 상가
럭키종합상가	수택동 707-1	24	1992	1,717	2,566	아파트단지 상가

자료: 구리시 지역경제과 제공.

농산물 노변직판장 구리시에는 종합적인 상가 외에 근교농업지로서의 특성을 살린 각종 직판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먹골배직판장과 화훼충판

장이다.

구리시는 정책적으로 지역 특산물로서 먹골배의 판매전략을 구상하였다. 이것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 1987년에 시작된 '먹골배 노변직판장'이다. 노변직판장은 갈매동에서 교문동에 이르는 도로변에 개설되었는데, 초기에는 40여 가구가 참여하였으나 계속 그 수가 늘고 있다. 노변직판장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43번 국도 '아천지구'와 '사노지구'에 50개 정도, 퇴계원과 서울 신내동 사이의 도로에 약 20여 개의 직판장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노변직판장은 워낙 품질이 좋아 가짜소동까지 일어나는 먹골배를 직접 생산한 농민으로부터 10%에서 15% 정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체로 생산량의 60~70% 정도가 이러한 노변직판장을 통해서 판매된다.

화훼총판장 역시 구리~위컸힐 간 43번 국도변에 개설되어 있다. 화훼총판장은 구리지역뿐 아니라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일대에서 재배된 화훼를 팔고 있다. 그 품목도 여러 가지 꽃을 비롯 소철, 느릅나무, 난초에서 너티나무, 단풍나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경조사 때 화환의 사용이 금지된 후 화훼단지 농민들은 그 판로개척에 부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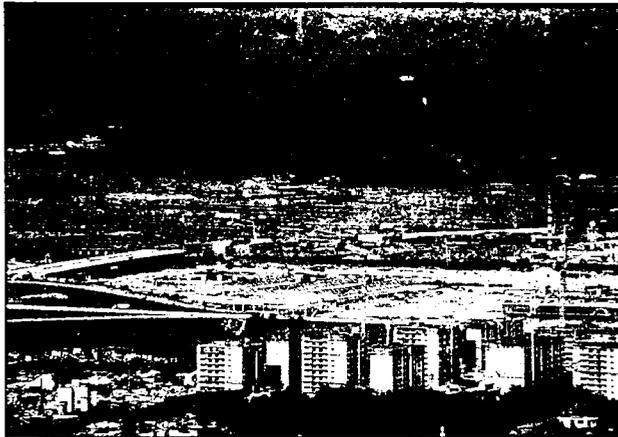
농수산물 도매시장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은 구리를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북부를 연결하는 유통중심지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1990년대 들면서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계획부지 인근 지역의 많은 상가조성계획이 함께 세워질 정도로 구리시의 중심적인 사업이 되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구리시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간에 갈등을 보였다. 그래서 계획한 지 4년이 지난 후에 기공식에 들어가긴 했지만 건설비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선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구리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은 개발포화상태에 있는 서울의 시설을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매시장의 부지가 구리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구리시의 의사결정 참여가 없었다. 물론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상업도시를 모색하고 있던 점이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과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그렇듯이 구리시는 대규모 건설에 소요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애초에 건설비용은 서울시와 구리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적절히 배합하여 지출되어야 했다. 이에 시장 건설비용은 국비에서 50%, 서울시비에서 23%, 도비에서 17%, 구리시비에서 10%를 지출하여 충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건립에 따른 주변 도로건설의 경우 경기도와 구리시의 비용부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장 건설비용을 능가하는 주변 시설 건설 전 비용을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가 떠맡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건설중인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계획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현장

위치 : 인창동 191번지 일원 (구리 인터체인지 동남측)
 부지 : 5만 6,460평
 건물 : 연건평 3만 2,737평(지하1층, 지상3층, 총 12개 동)
 연간 취급물량 및 종류 : 83만 6,000t(청과 680t, 수산 156t)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6년 8월 개장 예정에 있으며, 이 시장이 개장될 경우 가락동 농수산물 취급물량의 1/3 규모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농수산물 직판시장을 건립하고 있다.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위치 : 인창동 430번지 일원(구리 인터체인지 서남측)
 부지 : 1만 4,308평
 건물 : 연건평 8,632평(지하1층, 지상3층, 총 4개 동)

위의 대규모 시장건설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구리시를 비롯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지방 소도시에서의 대규모 시설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그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보다 개선된 대안제시가 요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추진의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2)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넓은 의미에서 상업에 포함된다. 단, 서비스업은 소비자에게 유형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식당,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 및 이발관, 미용실 등의 개인서비스업을 묶어 분류하였다.

서비스업은 구리의 도시화 과정에 맞물려 크게 증가해 왔고 현재도 그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970년 당시에는 73개 업소가 있었으나 1973년 읍으로의 승격 때에는 두 배인 151개소로 늘었으며, 시 승격 직전인 1984년에는 다시 597개소로 늘어나 1970년과 비교하여 약 8배 증가했다.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 역시 1970년에 32개 업소에서 1984년에는 174개 업소로 늘었다.

시 승격 이후에도 이러한 증가는 계속되었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991년에 1,004개 업소로 증가했는데, 많은 수가 수택동에 위치해 있다.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 역시 증가하여 1992년 447개 업소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운수·창고통신 등의 업종도 증가추세에 있어, 1991년 현재 73개 업체에 약 1,1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증가는 구리시의 인구증가 때문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유흥업소와 개인서비스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소비도시로서의 모습이 짙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3. 제조업

1) 개 황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실시 이후의 일이다. 물론 해방 이전 일제의 식민지 산업정책에 의해 한반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공업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실시한 공업화는 식민지 팽창을 위한 병참기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제철, 화학, 발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간공업시설이 북쪽에 편중됨으로써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공업발전이 큰 장애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재산피해가 난 전쟁으로 그나마의 시설도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50년대 한국공업은 미국의 원조물자를 주원료로 하는 소비재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였다. 미국정부는 미국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해 가던 약소우방들을 ‘근대화’시켜 세계 곳곳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사회주의국가에 반대하는 좋은 본보기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정부주도하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5·16쿠데타로 들어선 강력한 군사정권이 외국차관을 기반으로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공업은 중화학공업에도 발전을 보여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물론 외자중심이었다는 것과 수출중심으로 내수기반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구리시는 현재 시 대부분이 공장이전축진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장애를 받고 있다. 시 승격 이전 역시 별다른 제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경제개발의 박차가 가해졌던 1960년대 구리에는 10개 미만의 업체가 해마다 늘었다줄었다 하는 형편이었다. 1960년대 초반기에는 주로 식품생산 특히 주류생산이 주를 이루다가 후반기에 가면서 종류가 다양해졌다. 1969년 당시 섬유·화학·금속·제지 등의 7개 업체에 약 270여 명이 일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구리의 제조업상황은 당시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과 달리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면 제조업체수는 양적으로 증가한다. 시 승격 직후인 1986년 제조업체수는 270여 개로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구리시는 서울과 접한 곳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 추세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증가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1990년과 1992년 사이에는 제조업체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영세 무허가업체가 이 시기 행정적인 규제를 받아 무더기로 폐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업종별 제조업현황

구리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으로는 섬유·피복·피혁·식료품·금속·기계·제지·목재 등을 들 수 있다. 업종별 대강의 추이를 보면 섬유·피혁·피복제조업은 시기에 따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가장 변화의 폭이 큰 것은 금속·기계제조업이다. 금속·기계제조업은 1986년 87개소가 있었으나, 1990년에

<표 5> 업종별 분포상황

(단위 : 개소·명)

연도	합 계		섬유·의복·피혁		음·식료품 및 담배		종이·종이제품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990	476	8,200	65	1,080	21	1,781	7	289
1991	456	9,336	64	1,542	20	2,351	10	165
1992	300	8,634	67	1,188	19	2,109	16	148
1993	265	5,767	48	962	15	2,079	10	82
연도	업종		목재·가구		비금속광물·석제품		기 타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990	143	1,172	74	678	43	1,115	123	2,085
1991	132	1,852	70	660	42	956	118	1,820
1992	60	2,494	24	254	38	890	166	1,551
1993	61	771	9	92	48	974	74	807

출전 : 구리시, 『구리시 통계연보』, 1991~1994.

는 143개소로 늘었다가 1992년 다시 60개소로 격감했다. 1990년대 구리시의 업종별 제조업체의 수와 종업원 추이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리시의 제조업은 업체수와 종업원수에서 모두 줄어들고 있다. 구리시의 전체 인구증가율이 경기도 내에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와 그 종사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이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구리시 인구증가 성격을 나타낸다.

구리시 공업의 정체와 쇠퇴는 구리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지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다. 제조업 발전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무제한적인 개발은 일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발과 규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도 무조건적인 규제와 대폭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구리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축산업

축산업의 역사는 농업만큼 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은 농업의 부수적인 위치의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품종이나 사양(飼養)관리 등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대적인 의미의 '축산업'이 도입된 것은 얼마 안 된 일이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업축산이라고 해도 소규모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래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래에까지 나타나는 고질적인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축산농가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1980년대 이후 외국 축산물의 수입은 축산농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목장(토평동)

1980년대 이전 구리의 축산현황을 보면 한우와 돼지, 닭을 기르는 농가는 줄어들고 젖소를 기르는 농가는 늘어났다. 단, 소와 돼지의 경우 농가는 줄어든 반면 마리수는 늘어나서 사육이 대규모화 되었다. 이는 도 당국의 축산지원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육규모의 증가는 축산농가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동'이라고 불릴 정도의 가격폭락으로 많은 농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시 승격 이후의 축산업 추이를 보면 도시화 과정과 함께 그 규모가 축소하고 있다. 1990년대 사육되는 종류를 보면 고깃소, 젖소, 돼지, 닭, 개, 오리 등과 함께 토끼, 칠면조, 거위, 산양 등 다양하다. 1990년대 이후 가축·가금 사육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가축·가금 사육현황

(단위: 호·마리)

연도	고깃소		젖소		돼지		사슴		개		산양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1990	23	230	93	1,512	14	936	4	65	1,912	2,760	-	-
1991	9	81	96	1,588	23	1,192	1	25	1,954	2,724	-	-
1992	4	37	67	1,303	14	965	2	25	2,125	2,754	4	50
1993	16	145	53	1,080	6	386	2	32	2,047	2,558	4	217

연도	토끼		닭		오리		칠면조		거위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1990	-	-	17	55,368	3	112	1	1	1	3
1991	1	10	5	49,200	1	100	-	-	-	-
1992	2	65	2	18,000	2	2,012	-	-	1	5
1993	2	60	1	6,000	1	2,500	-	-	1	5

출전: 구리시, 『구리시 통계연보』, 1991~1994.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시의 축산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8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고깃소 300여 마리, 젖소 1,600여 마리, 돼지 3,800여 마리, 닭 13만 마리에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리수뿐 아니라 사육호수에서도 고깃소 120여 호, 젖소 180여 호, 돼지 100여 호, 닭 40여 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현재 고깃소와 젖소사육은 주로 갈매동·토평동·아천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돼지·닭·산양·거위·사슴 등은 대부분 갈매동에서 사육된다.

축산업의 사육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축산폐수문제가 발생했다. 1990년대에 들어 구리시에서는 약 80여 개의 축산시설에서 매일 많은 양의 축산폐수가 방출된다. 그런데 영세한 축산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기는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절 시민생활

1.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국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욕구인 빈곤, 실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안전 등 정신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는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으로 부각된다.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산업활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을 조화롭게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으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등이 있다.

1) 의료복지

국가가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의료복지이다. 의료보장에는 전염병관리, 환경위생, 보건통계, 모자보건, 국민의료, 의료보험 등이 포함된다. 구리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1961년에는 한방의원과 의원을 합쳐 7개의 의료기관이 있었고, 1994년 말 현재 병원이 3개소에 병상수가 377개이며, 의원 48개소에 병상수 208개, 한의원 10개소와 보건소 1개가 있다. 1995년 6월에는 한양대 부속 구리병원이 개원하여 의료환경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인력도 크게 증가하여 1994년 말 현재 의료인수는 총 247명으로 의사 67명, 치과의사 25명, 한의사 25명, 조산사 11명, 간호사 54명, 약사 65명이 있다.

공공보건의료는 공적인 책임하에 공중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정비하여 일반사람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의료행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전염병관리,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의료보호 등이 포함된다. 공공보건의료는 주로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전염병관리는 공공보건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은 모두 26종인데,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염병 발생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구리시에서도 1991년에 장티푸스 환자가 1명 발생한 것 외에는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없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도 없다. 3종 전염병인 나병은

1991년 현재 자택에서 요양중인 환자가 2명이 있을 뿐 새로운 환자의 발생이나 사망은 없었다. 반면 결핵환자의 경우 양성 및 음성환자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관찰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예방접종현황을 보면 발병률이 거의 없는 콜레라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치사율이 높고 후유증이 심각한 일본뇌염과 발병률이 높은 D.P.T 및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족계획은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아 건강하게 기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산아제한을 위한 피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구리시의 경우 1980년대 초까지는 주로 먹는 피임약과 루프·콘돔 같은 일시피임기구가 사용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일시피임법보다 난관·정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법이 선호되었다. 최근에는 다시 일시피임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정상임신에 대한 진단, 태아성장 발육정도, 기형 유무, 병적 임신의 조기발견 등 정밀진단을 매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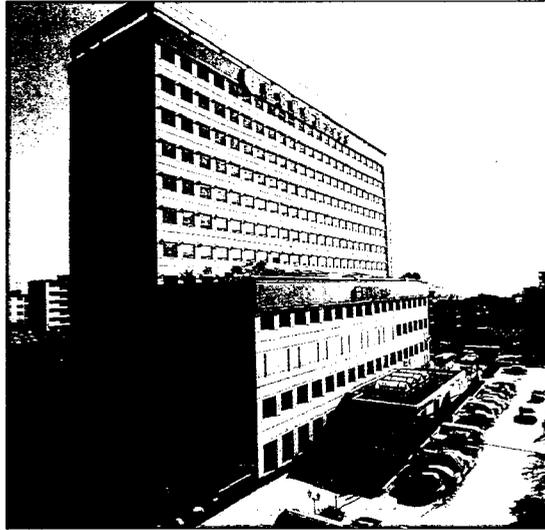
의료보호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이 났을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를 부담하여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의료보호대상자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상자 및 그 가족들이 포함된다. 구리시에서는 시 승격 이후 의료보호 혜택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말 현재 4만 3,120명이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구리시 내에 있는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병원으로는 구리병원, 교문리병원, 한양대 부속 구리병원이 있다. 구리병원은 1987년 9월에 개원했으며 재활센터를 비롯한 68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다. 수택동 383-16번지에 위치해 있고 소아과,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5개 과가 있다.

1988년 3월에 개원한 교문리병원은 교문동 244-1번지에 있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치과의 8개 과와 78개의 병상이 비치되어 있다.

1995년 6월에 개원한 한양대 부속 구리병원은 내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조직병리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총 20개 과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300개의 병상이 있다. 교문동 249-4번지에 소재해 있다.

구리시 보건소는 남양주 보건소에 위탁관리되었던 구리시민들의 보건업무를 시 승격 이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8년 1월 개소하였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의 3개 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 순회진료 등 의료시체를 확대하고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각종 예방접종, 방역소독, 결핵환자 등록관리, 혈액형 찾아주기와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동혈압계와 같은 자가건강 진단용 기구를 비치해 놓아 시민들이 언



한양대 부속 구리병원

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의 질병과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리시 의료보험조합이 교문동 733-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외에 구리시 의사회, 구리시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경기지부 구리시분회 등의 단체가 있다.

2) 장애인 및 영세민복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장애인올림픽은 그 해 11월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사업을 벌이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매우 시급한 형편이다.

1995년 1월 현재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은 약 2,300명 정도이다. 시에서는 이들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민단체로서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가 있다. 이 단체는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에 결성되었는데, 극빈장애인에게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과 장애인 재활교육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신부, 불구폐질자에게 식비와 피복비, 연료비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생계보호이다. 즉, 생계보호 대상자는



구리시 노인아동복지회관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를 의미한다. 자활보호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葬祭)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1994년 말 현재 구리시 내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략 거택보호 583명, 자활보호 66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택보호대상자들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동별로 보면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갈매동과 동구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

3) 노인복지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함에 따라 노령인구에 대한 노인복지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1989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총인구 10만 6,818명 가운데 3,767명이었으며 1993년은 총인구 12만 6,996명 중 노인인구가 5,145명으로 전체 인구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구리시에서는 70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매월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1993년부터 경로당시설 개·보수와 난방시설 교체 등 경로당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994년에는 수택동 537번지에 경로식당을 건립하였다. 관내 각 동의 부녀회에서든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1994년 말 현재 구리시에는 노인회와 노인학교가 각각 한 개씩 있고 67개 노인정에 2,639명을 수용하고 있다. 노인회의 정식명칭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구리시지회로서 노인학교, 자원봉사대, 노인게이트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4) 국가보훈

국가보훈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공을 세웠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살피는 것이다. 구리시에는 별도의 보훈지청이 없고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 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예우법 준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보장, 제대군인지원사업, 보훈단체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구리시의 국가보훈대상자수는 1994년 현재 총 307명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이 8명, 전상군경이 39명, 공상군경이 32명, 군경유족 배우자 56명, 군경유족 자녀 12명, 군경유족 부모 및 조부모 61명, 무공보국 수훈자 76명, 무공보국 수훈자 유족 9명, 공상공무원 3명, 공상공무원 유족 4명, 전역하사관 7명이 있다.

구리시 내 소재한 보훈 관련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마땅인회, 신창용사촌 등이 있다.

5) 범죄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해당한다.

구리시의 경우 도시화가 한창 진행중이던 1980년대에 전체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가 급증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감소하고 있다. 절도범이나 폭력범, 특별법범은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지능범 및 형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20~30대의 연령층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화와 갱생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갈수록 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변화가인 교문동과 수택동의 주민들이 다른 동네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문제에 민감하다.

6) 사회복지시설

구리시 내에는 구리사회복지관, 노인·아동복지회관, 공설공원묘지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1988년 4월에 설립된 구리사회복지관은 인창동 527-3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독서실·상담실·놀이방·컴퓨터실·유치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인들을 위해 한글교실과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으며, 컴퓨터·피부미용·홈패션·조리교실·무료진료와 이·미용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사회조사연구와 재가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리사회복지관 전경

인창동 신2-123번지에 위치한 노인·아동복지회관은 1991년 11월에 개관하였다. 동구어린이집·노인대학·노인건강체조교실·노인공동작업장·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용·도배·꽃꽂이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 1,000여 권의 책을 비치해 놓고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공설공원묘지는 사노동 산175-20번지에 있으며 1974년 10월에 개장하여, 1995년 12월 현재 면적 6만 8,628㎡에 3,620기가 매장되어 있다.

2. 교육여건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교육은 이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1945년 8·15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교육법」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보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에서 구리시의 유아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크게 가정교육·사회교육 등의 비형식적 교육과 유아원·유치원

등의 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다원화되어 있던 종래의 각종 유아교육기관이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정비되었다.

유아원은 1~6세의 유아나 영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며,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유아원과 유치원의 차이 점은 유아원이 보육과 교육을 병행하고 유치원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데 있다. 구리시의 유치원현황을 공립과 사립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유치원현황

(1995. 4. 현재)

구분	유치원수	학급수	수료자수	원아수	교원수
공립	8	11	255	348	9
사립	16	27	880	980	39

<표 7>에서 볼 때 구리시의 유치원수는 많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은 16개 모두 개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다.

원아수로 비교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50여 명 내외의 중소규모이며, 사립유치원은 50여 명에서 100명이 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시설수준과 교육환경 때문이다.

구리시 내 공립유치원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정원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 많은 장점을 지닌 공립유치원에 재정 및 시설보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백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2) 학교교육

구리시에는 1995년 4월 현재 8개 초등학교에 1만 3,195명, 4개 중학교에 5,947명, 3개 고등학교에 3,495명이 재학중이다. 1995년 현재 구리시의 인구가 14만 명을 넘었고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볼 때 학교수가 모자라는 형편이다. 인접 시·군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소 3배 이상의 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학교급식, 각종 시설 등이 경기도 내에서도 뒤처지고 있어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각급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초등학교현황

(1995. 4. 현재)

교 명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갈 매	갈매동 336	6	248	10
교 문	교문동 732	58	2,811	77
구 리	수택동 553	46	2,003	61
내 양	사노동 333-2	6	175	10
백 문	교문동 808-1	44	1,875	56
부 양	수택동 710	50	2,211	66
인 창	인창동 546	56	2,503	75
토 평	토평동 611	36	1,369	49

<표 9> 중학교현황

(1995. 4. 현재)

교 명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 문	교문동 808-2	19	988	37
구리여	토평동 214	39	2,036	72
구 리	수택동 784	36	1,892	66
서울삼육	교문동 신90	18	1,031	32

<표 10> 고등학교현황

(1995. 4. 현재)

교 명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구 리	수택동 785	24	1,148	58
구리여	수택동 211	30	1,465	73
서울삼육	교문동 신90	18	882	42



갈매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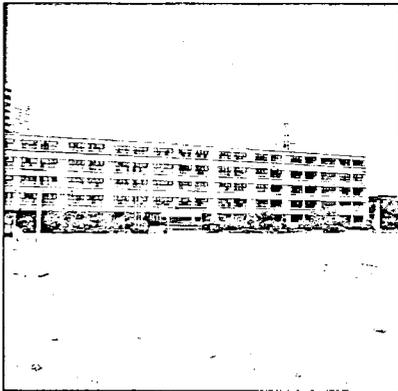
교문초등학교



구리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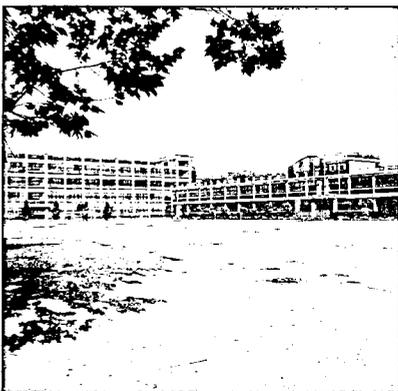
내양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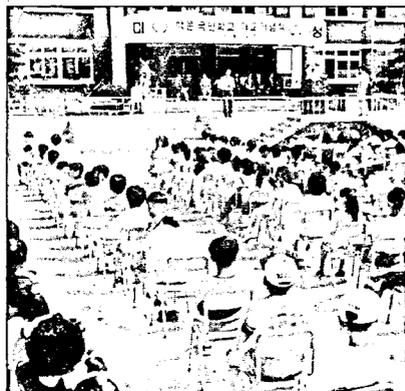
부양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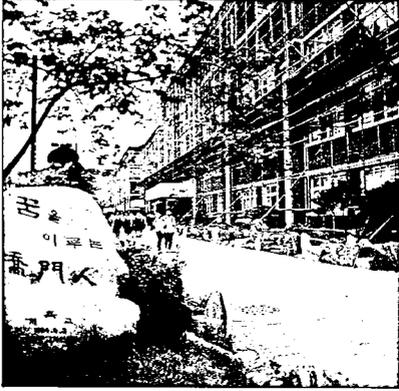
인창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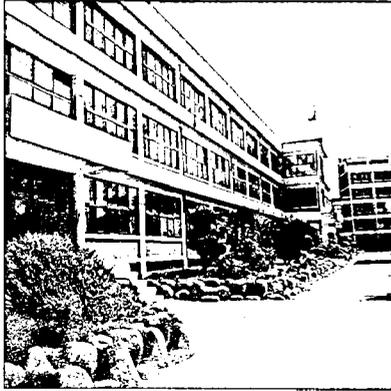
도평초등학교



백문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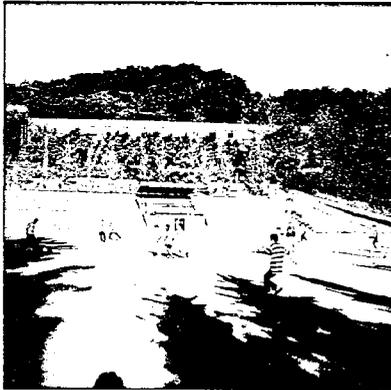
교문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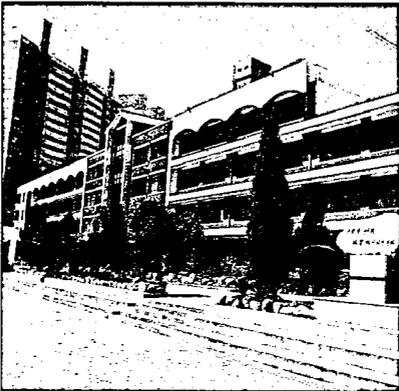
구리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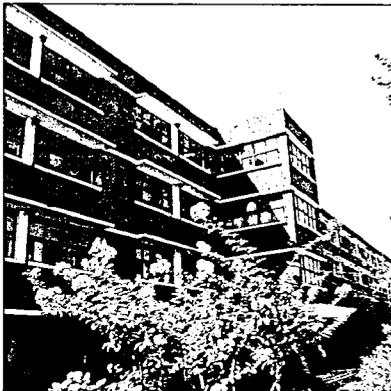
구리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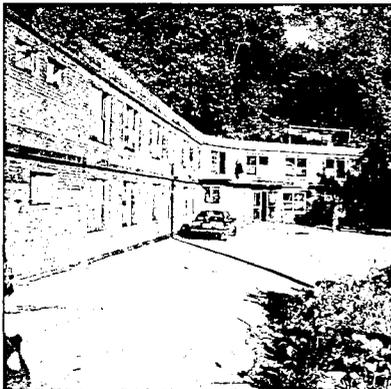
서울삼육학교



구리고등학교



구리어고



서울삼육고등학교

구리시의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여타 도시에 비해 자족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금 구리지역의 열악한 교육문제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출범한 '구리시민장학회'는 이러한 실천의 한 모습으로, 지도층 인사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장학기금을 모으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사회교육

사회교육이란 공공 및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가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실시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구리시의 주요 사회교육시설로는 불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에 개설되는 비정규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사설학원이 있다.

비정규학교로는 글밭고등학교(동구동 신2-123번지)와 청송학교(수택동 86번지)가 있으며, 시가 무료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은 갈매 청소년공부방(갈매동 256-14번지)과 아천 청소년공부방(아천동 387-45번지) 2개소가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설학원은 웅변·속셈·음악·미술·컴퓨터·독서실·외국어학원 등 총 141개소가 있다. 사설학원은 크게 취미생활과 예능 방면, 제반 기술습득 그리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보완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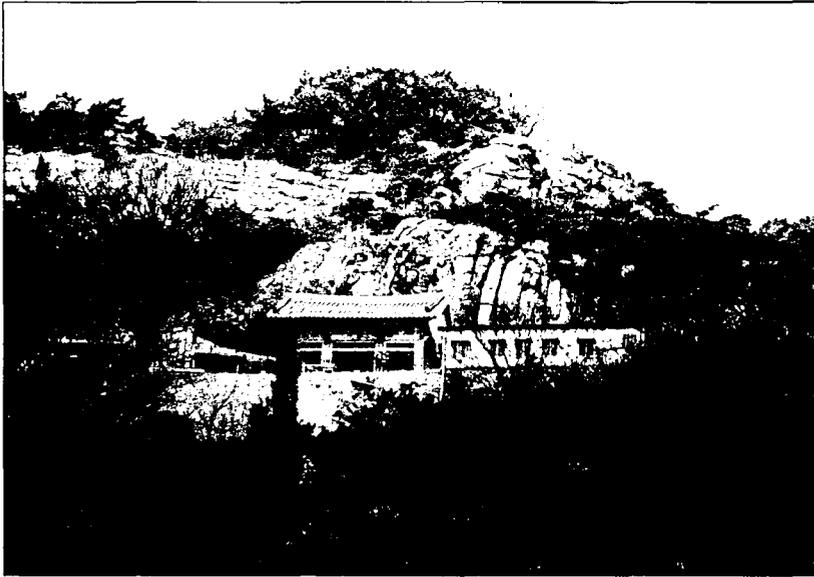
3. 문화적 환경

1) 종교

종교는 원시시대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영속되어 왔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경제·사상·예술·과학 등 세계 모든 민족들의 사회와 문화 전 영역에 관련된 절대적·궁극적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역사의 발전단계나 민족적·문화적 전통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가 사회 전 부문에 영향을 행사했던 봉건시대 이전에 비하여 근대 이후 현대로 올수록 그 활동범위는 축소되어 종교 본연의 영역에 한정되는 추세이다.

불교 불교는 석가모니를 교조(敎祖)로 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종교이다. 우리나라에는 372년 고구려에 처음 전래되었으며, 고려 때 가장 융성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억불정책으로 쇠퇴하기도 하였으나 민중 속에서 면면히 그



대성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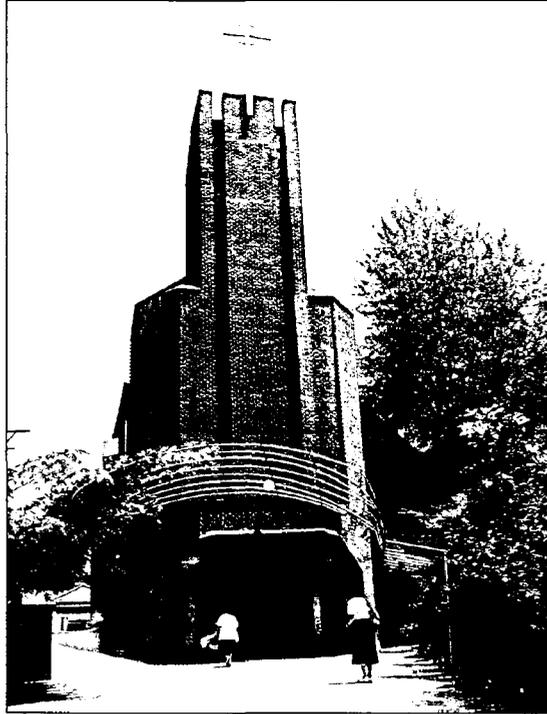
명맥을 유지하였다. 불교는 우리의 지역과 풍토, 민족성 등과 결합되면서 특징 있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조계종 등 18개 종단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구리시에는 모두 19개의 사찰이 있으며 이 중 조계종 보현사(갈매동 산69번지), 원효종 덕암사(교문동 산38-6번지), 조계종 정각사(교문동 산98번지), 총화종 대성암(아천동 산52번지) 등이 많은 신자가 모이는 사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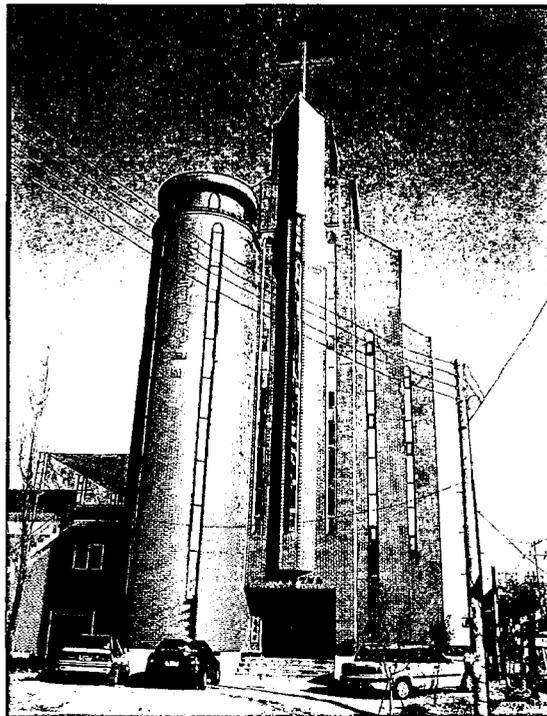
천주교 천주교는 일반적으로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종교이다. 정식명칭은 가톨릭교회이다. 1784년 천주교는 이승훈에 의해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100여 년 동안 조선왕조의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8·15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15개의 교구에 200여 만 명의 신자가 있다.

구리시의 유일한 가톨릭교회는 천주교 구리교회(수평동 434-1번지)이다. 1972년에 상봉동 본당 소속 공소로 발족한 이래 1974년 상봉동 본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으로 설정되었고, 1983년 현 위치에 자리잡았다. 천주교 구리교회의 관할 구역은 구리시 전역으로 신자수는 본당 설정 당시 939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12월 현재 5,500여 명에 달한다.

기독교 기독교는 예수에 의해 1세기경 탄생한 종교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라 하면 『성서』를 따르는 모든 교파를 통칭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로마 가톨릭인 천주교와 구분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독교(개신교)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초에 미국의 북장로교가 들어오면서 전래되었다.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는 박해를 받았으나 일제시대, 8·15해방을 거치면서 서서히 자리잡기 시



구리천주교회



구리중앙교회

작하여 오늘날에는 전 인구의 25%인 900만 명의 신도를 가진 큰 종교로 성장하였다.

구리시에는 150여 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교회로 동창교회(인창동 산2-91번지), 성광교회(수택동 419-19번지), 동부순복음교회(수택동 487-7번지), 교문교회(인창동 산26-4번지), 구리통일교회(수택동 376-16번지), 구리중앙교회(교문동 1-6번지) 등을 들 수 있다.

2) 예 술

예술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과학과는 달리 인간의 주관적 내면의식의 발현이며, 감성으로 표현되는 특수한 의식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은 예술적 경험을 유발하는 매체에 따라서 문학·음악·미술·연극·영화·서예·무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방화 시대에 예술활동을 포함한 지방문화를 발전시키는 작업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자기 고장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다.

구리시에는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5개의 소규모 극장이 전부이며 서울에 크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화원과 시립도서관이 세워졌으며, 문화공간의 확보와 함께 각종 예술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민간단체나 개인별로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학 구리시의 대표적인 문학단체로는 '한국문인협회 구리지부'가 있다. 이 단체는 학생 글쓰기교실과 백일장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구리문화예술제에서 문학의 밤을 맡아 활발한 문학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북한강 문학』이란 문학지를 통해 많은 작품을 게재하였다.

음 악 예술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



구리시 여성합창단

범위도 연주·합창·보컬·국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활동 양상도 활발하고,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리시 여성합창단, 구리 소리샘 합창단, 멜로스 고전기타합주단, 한아울 보컬그룹, 염창순 민속악단 등이 정기공연과 각종 행사에서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용 현재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체로는 윤희준 무용단을 들 수 있다. 이 무용단의 단장인 윤희준은 국내 무용제뿐 아니라 한·중 문화교류 공연, LA 올림픽 기념공연,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공연, 에펠탑건립 100주년 기념공연 등 해외무대에서 공연을 가졌다. 또한 동아연극상 특별상과 백상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미술 현재 구리시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미술단체로는 구남회(九南會)와 구리서예원이 대표적이다. 한편 1994년 5월 구리시립도서관 내에 35평 정도의 상설미술관이 설치되어 지역미술인들의 적극적인 작품활동과 시민들이 향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연극·영화 구리시의 연극부문은 크게 시 주도의 활동과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분류된다. 시 주도의 활동으로는 1991년부터 개최된 ‘소인극 경연대회’를 들 수 있는데 관내의 민간연극단체 및 학교의 연극팀을 초청·공연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극단 ‘이홉마을’과 ‘구리시민극단’이 창단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리시에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모두 5개소이나 시설과 내용면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좌석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주로 성인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영화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일반시민과 학생들은 영화관람을 위해 서울로 나가는 형편이며, 영화와 관련된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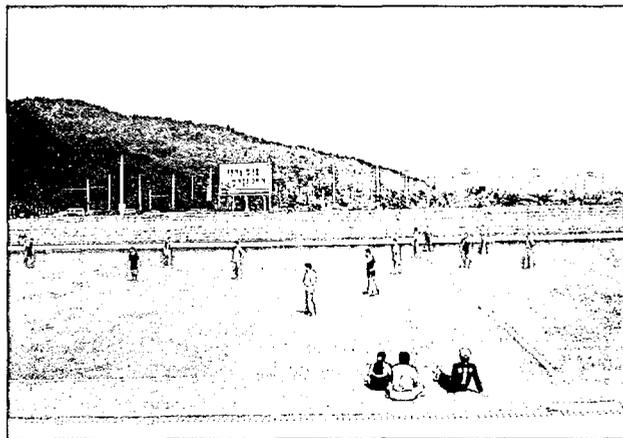
3) 체육

체육은 지적·도덕적·신체적 발달을 통한 인격의 완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글자 그대로 교육의 한 분야이다. 체육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학교체육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주 목적으로 하여 크게 강조되어 왔다. 모든 학교에서는 체육을 교과목의 하나로 채택하여 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며,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종목을 육성하기도 한다. 축구는 부양초등학교·구리중·구리고 등 3개 교, 카누는 구리여중과 구리여고에서 육성되고 있다. 이 밖에 핸드볼(인창초등학교), 탁



광복50주년 기념 건강달리기



엘지축구장

구(토평초등학교) 등의 종목을 들 수 있다.

사회체육은 일반인들이 특별한 제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친목 도모 및 건강유지를 위해 행하는 사회활동의 한 분야이다. 주요 체육행사로는 시민 건강걷기대회·경기도체육대회 시 예선·여성생활체육강좌·씨름왕선발대회 등이 있다. 또한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동호인 모임이 결성되었다.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는 것이 조기축구회이다. '일화조기축구회', '토평조기축구회' 등은 체육활동은 물론 사회봉사와 이웃사랑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구리시의 체육시설은 최근까지 학교시설이 전부였으나 1990년대 들어 엘지축구장과 성림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섰다. 또한 교문동에 각종 경기장시설과 3,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완공되었다. 이 밖에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있다.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는 구리시 체육회(수택동 374-1번지)를 비롯하여 축구·탁구·배드민턴·게이트볼·어머니배구·에어로빅·검도·태권도·사이클 등 총 15개 종목의 협회가 있다.

4) 언 론

언론은 원론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 혹은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공표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뜻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져 개인의 힘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빨리 입수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전문적인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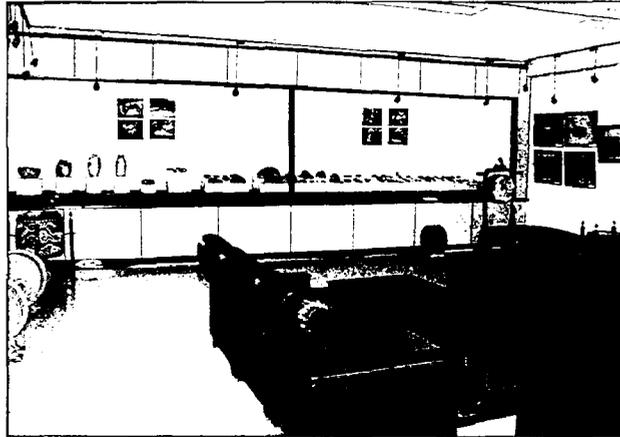
신문 신문이란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인 신문지(新聞紙) 자체를 가리키거나, 또는 신문지를 통한 언론현상 전반을 의미한다. 신문은 접촉이 자유롭고 시의성(時宜性), 기록성(記錄性)의 특성이 있다. 신문은 규모와 배포 범위에 따라 중앙지·지방지·지역지, 발행횟수에 따라 일간지·주간지 등으로 구분된다.

구리시의 유일한 지역지로는 『풍양신문』이 있다. 이 지역지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해당 지역민에게 상세하게 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풍양신문』은 1989년 8월 15일 창간호를 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구석구석의 실정과 지역민들의 동향을 소상히 알리는 한편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수택동 487-7번지 청하빌딩 2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사시는 '힘쓰며, 감사하며, 베풀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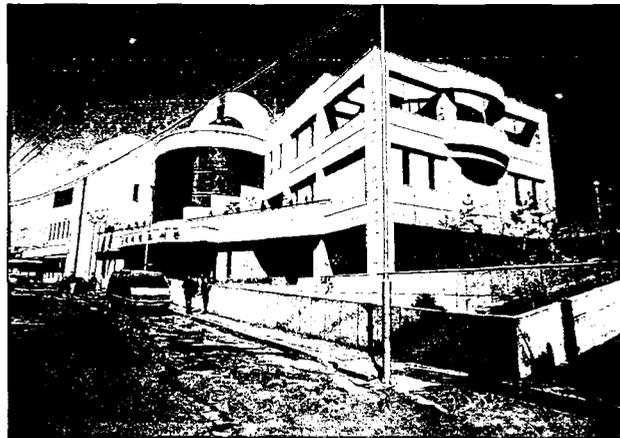
출판·인쇄 관내에는 1994년 3월 현재 모두 12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다. 대우공사출판사·도라지·명성기획·모리아·수학학습사·우리마을·장자못·풍양·화인기획·창조기획·큰빛·해인출판사 등이 출판업체들이다. 인쇄소는 미림·미성·학사·화인기획·동성문화·명문·금강문화사 등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방송 방송이란 전파나 무선통신 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이다. 방송은 매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문자해독력과 상관없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비디오·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구리시의 가구당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모두 1.27대



구리문화원 유물전시관



구리시립도서관

이다. 한편 1993년에 들어서면서 구리중계·구리고문중계·구리음악 등 3개의 유선방송사가 설립되었다.

5) 문화기관·단체 및 문화행사

구리시의 주요한 문화기관과 단체로는 구리문화원, 구리시립도서관 그리고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미술협회·문인협회·음악협회·국악협회의 구리지부를 들 수 있다.

구리문화원 구리문화원은 1991년 10월 개원식을 갖고 지역문화활동의 중심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향토문화와 예술의 진흥과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1991년 이후 매년 구리문화예술제 기간중 많은 행사를 주관하는 등 각종 향토문화행사를 맡고 있다. 1992년 향토문화지 발간의 일환으로 『구리문화』를 발간, 배포하였다. 1993년에는 아차산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에 착

수하여 다음해에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펴냈고, 채집된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도서관은 교문동 747-2번지 일대에 연건평 800평 규모로 1994년 5월 건립되었다. 763석의 열람실을 비롯하여 서가·자료실·시청각실을 갖추고 있다. 구리시립도서관은 독서교실, 각종 행사 및 독서회 운영 등을 통한 독서생활화운동과 함께 글쓰기교실과 컴퓨터교실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립도서관은 개관 이래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독서의 저변확대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문화예술단체들도 훌륭한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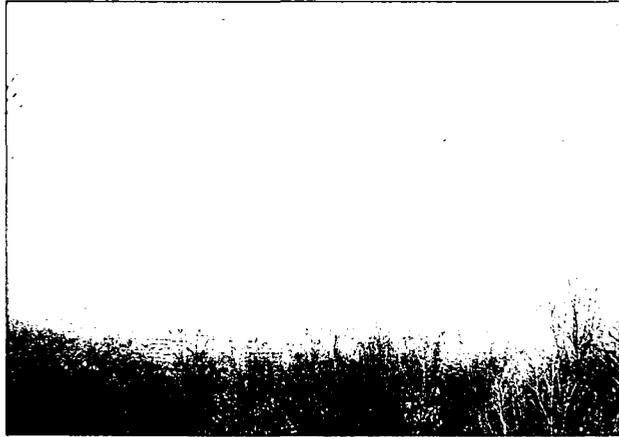
문화예술제 구리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는 구리문화예술제와 동구문화제를 들 수 있다. 구리문화예술제는 구리문화원 창립을 축하하고 시민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991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 10월 현재 5회에 걸쳐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 시민백일장·연극제·무용제·전시회·벽골배 아가씨선발대회·음악제 등이 열렬한 호응 속에 개최되고 있다.

동구문화제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위업과 민족의 얼을 기리는 행사로 1994년 14회에 이르고 있다. 봉행제례와 미술대회·백일장 등이 치러지고 있다. 이 밖에 백중맞이 민요경창대회 등이 1994년 이래로 개최되고 있다.

4. 환경오염

환경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조건들의 모든 것이다. 환경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경제성장, 식량수요의 증가, 삼림벌채,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등에 의한 것이다. 현대의 환경문제는 오염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 피해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역에 그 피해가 확산되어 지구온난화와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 생태계의 와해, 열대우림 파괴, 해양오염, 방사성 폐기물문제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뒤늦은 공업화와 경제개발로 인해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과 경제적 여력을 갖지 못하여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 타 도시에 비해 공장에서 유발하는 환경문제보다는 쓰레기문제, 하수문제, 주거문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왕숙천과 장자못 등의 하천오염과 교통



스모그로 덮인 구리시

적체로 인한 대기오염, 쓰레기문제는 구리시의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1) 대기오염

정상적인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이산화탄소 0.03% 등을 함유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양이 존재하거나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외의 것을 포함하는 상태를 대기오염이라고 한다. 대기오염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현재의 대기오염은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통하여 전 지구적인 문제로 발전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된 발생원은 가정, 공장, 자동차, 발전소 등이며 플라스틱을 비롯한 유독물질들을 태울 때에도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이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야기하기도 하고, 공장가스 유출사고 등에 의한 급성질환, 지구온난화와 산성비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동반하기도 한다.

구리시에는 수택동사무소 옥상에 1994년부터 안산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대기측정망 측정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이산화황(SO₂), 오존(O₃), 일산화탄소(CO), 분진(TSP), 이산화질소(NO₂) 등 모든 조사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1994년도의 환경부 자료 가운데 수도권 및 경기도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를 보면 구리시의 대기오염도는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여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의 경우 105 $\mu\text{g}/\text{m}^3$ 로 안양과 더불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존 역시 0.014ppm으로 낮은 편이 아니었다. 반면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구리시의 경우 겨울철에는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 등 난방연료에 의해 대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겨울이 지나면서 분진이나 오존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다른 위성도시에 비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주 오염

원이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연료를 화석연료에서 도시가스와 같은 청정연료로 대체해야 하며, 자동차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산업혁명 이후 각종 산업시설이 한곳에 집중되고 그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하천이 가지는 자정능력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왕숙천과 장자못 그리고 구리시 부근의 한강물은 강원도의 상류보다 10배 이상 오염되어 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리되지 않은 가정하수와 공장폐수가 다량 유입되기 때문이다.

팔당댐의 원수는 BOD 1.2ppm에 불과해 하천의 환경기준 가운데 상수원수 1급에 가깝다. 그러나 왕숙천·장자못 등에서 하수가 거의 걸리지 않은 상태의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잠실취수장에 이르면 한강의 수질은 1.9ppm으로 나빠진다.

장자못의 수질은 BOD 76.1ppm으로 최악의 상태이며, 왕숙천도 BOD 28.5ppm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숙천은 방류량이 하루에 13만 9,000t에 이르고 있어 한강오염도를 0.21ppm 가량 악화시켜 부근 지천 가운데 한강오염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나마 구리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하수처리장을 거친 하수는 BOD가 16.8ppm으로 정화되어 방류된다. 그러나 왕숙천에 흘러드는 폐수의 상당량은 남양주시의 하수가 걸리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된 것이다.

하천의 환경기준치에 비추어 보면 구리시의 주요 하천과 왕숙천 그리고 장자못의 수질은 공업용수 3급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장자못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크롬(Cr)과 납(Pb)이 각각 0.05ppm과 0.2636ppm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장자못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왕숙천의 죽은 물고기

왕숙천의 수질악화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어 상류지역에는 물고기와 야생조류가 나타나는 데 반해, 중류지역에서는 오염에 의해 야생조류가 사라지고 하류에서 다시 물고기와 야생생물이 나타나고 있다. 하류에서 물고기와 야생조류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한강과의 합류에 따른 수질향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천에 자라고 있는 수생식물들의 역할 때문이다. 따라서 왕숙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하수의 정화

도 필요하지만, 하수의 자체정화를 위한 하천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왕숙천에는 상류에서부터 생활하수와 각종 축산폐수가 무방비상태로 흘러들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오염상태는 극도로 심해진다.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 의한 하천오염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의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왕숙천과 장자못 등 오염된 구리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근 시의 협조와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장자못의 경우, 공장의 폐수방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3) 기타 환경오염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칠십평생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무려 55t에 이른다.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각종 악취와 해충에 의한 전염병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

구리시의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시로 승격된 198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3년 들어 현저히 감소하였다.

1994년 구리시민 한 사람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78kg이다. 구리시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시와 청소 용역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와 청소 용역회사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적환장으로 운반하고 일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만을 분리한 후 쓰레기 전량을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 재활용되는 종류로는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고철류 등이며 종이류의 재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구리시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22.7%로 나타나 전국의 재활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둘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에 국물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퇴비화·사료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의 환경문제로는 토양오염·악취·소음·진동 등이 있다. 토양오염은 농약의 사용과 공장의 중금속 폐기물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불법 매립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산성비와 같은 대기오염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 산업체, 쓰레기 매립장, 축산농가 등을 들 수 있다. 소음과 진동도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인데 인간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자료가 없을 뿐더러 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는 일부 공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4) 환경 관련 시설

구리시 내에 있는 환경 관련 시설 및 단체로는 구리시 환경사업소와 폐기물적환장이 있다. 환경사업소는 수택동 89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 3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 설립되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하수 5만m³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분뇨 80kℓ를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 적환장은 수택동 155-7번지에 있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재활용품을 선별한다.

5. 시민운동

사회는 다양한 계층·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차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 사회운동은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해결하는 과정이다. 사회의 모순은 일시에 폭발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또 이것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혁명이 억제되며 사회운동이 점진적인 사회발전에서 필수적인 것이 된다. 즉, 각기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지위의 향상을 위해 활동을 벌임으로써, 갈등으로 야기되는 모순이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다수의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 질서가 정착되는 것이다.

구리는 해방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서울과 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양주군의 1개 면에서 불과 몇 십년 사이 도시로 변모되었다. 소위 ‘베드타운(bed town)’이라는 위상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소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리는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한 교문·인창동의 택지 개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경향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증가 인구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로 1986년 시 승격 당시 인구 중 약 76%가 외지인이었다. 또한 증가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구리시민으로서의 응집력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통해 시민적 동질의식의 가능성도 나타났다. 즉, 인구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켰으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동의 요구가 부각되어 시민운동의 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이다. 6·10민주항쟁과 같은 해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운동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이후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새로 조직되거나 강화되었다. 구리시의 경우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구리시의 주요한 시민운동단체로는 우선 1990년 5월 조직된 ‘경기동북부시민



버스 규정요금 내기운동 관련 시위

운동실천협의회(이하 민실협)를 들 수 있다. 민실협은 구리·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 3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실협의 문제의식은 '생활에 쫓기는 도시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시민운동이 절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실협은 폭 넓은 차원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해결을 시도해 왔다. 현재까지 민실협의 주요 활동은 시민의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주로 교통문제·주택문제 등 도시생활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는 그러한 것을 말해준다.

민실협은 1991년 5월부터 서울시와 이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교통부의 시계 외 버스요금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버스회사들을 고발하고 '규정요금 내기운동'을 벌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같은 해에 수택동 돌다리~도평동 구간에서 버스회사간의 알력으로 독점운행이 이루어지는 등 이 일대 주민과 학생 5만여 명이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자, 시 당국과 버스회사들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문사거리에서 동서울 버스터미널 간의 시내버스 노선신설을 추진한 끝에 1991년 10월부터 버스운행이 시작되었다. 이 밖에도 민실협은 행정민원문제에서 관계당국에 건의, 타협적인 해결을 유도하였다. 그렇지만 백반병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던 특고압선철탑 이전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시위를 단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청회·법정공방 그리고 언론을 통한 활동도 벌이는 등 사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 밖에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방적 인상에 반발하는 교문동 동현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에 제소하여 건설회사 쪽에 유리한 약관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아냈으며, 교문동 럭키아파트 상가 사기분양사건에 휘말린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구리에 조직된 또 하나의 시민단체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공개법·금융실명제 등을 통한 경제적 부조리를 개혁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1989년 결성되었다. 구리지역에는 1992년 당시 행정구역명칭으로 '구리·미금·남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직되었고 후에 '구리지역 경실련'이 만들어졌다.

현재 경실련의 주요 활동은 주로 법률·세무상담 등 법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민들의 민원상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구리 경실련은 점차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불평등과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문제, 통일문제, 사회복지나 지역개발 외에도 교육홍보, 노동, 인권문제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야기된 것이 환경문제이다. 환경문제는 최근에 국가적으로 나아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이다. 공해업체와 폭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서울과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문제가 이미 시민운동 차원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구리시 역시 다양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의 해결이 시민의 생존권수호운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리 경실련은 서울 경실련의 「전국 5대강 오염지도」 작성에 부응하여 '왕숙천 오염 실태과약, 왕숙천오염원의 근절 대책마련, 왕숙천 줄기와 연결된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의 셋강살리기운동, 왕숙천지킴이 범시민감시단 출범' 등 왕숙천을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에 힘쓰고 있다.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청년운동이다. 청년운동은 그 동기가 스스로의 처지보다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헌신성에서 나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청년운동은 사회의 양심으로서 시민운동을 비롯한 다른 사회운동의 활력제요, 기폭제가 된다.

구리의 청년운동단체로는 '해누리민주청년회'가 있다. 해누리민주청년회는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정선거감시단활동을 통해 조직된 청년·학생단체이다. 해누리민주청년회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구리와 남양주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었다.

청년회의 활동은 지역의 청년·학생들을 상호연결하는 조직화사업과 함께 청년교실 좌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교실에서는 노래문화 등 문화분야와 함께 통일운동, 우루과이라운드·시장개방, 서민경제, 역사의식, 민주노총문제 등 폭 넓은 주제를 통하여 지역 청년들과 결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4년 12월에는 '12·12군사반란 주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리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범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토론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해누리민주청년회의 이러한 활동은 청년운동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즉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새로운 것에 민감하며 진취적으로 민족과 공동체의 이해를 고민하고 부정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서 자신의 이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구리시의 청년운동 역시 지역적 이해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정치·경제·사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의식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구리의 시민운동은 주민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환경, 사회 등 보다 포괄적인 문제에도 접근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다른 부문 운동에 비해 운동주체의 입장과 사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축적되기 힘들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묶인 일상적인 시민연대와 운동단체에 대한 신뢰축적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저변확대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장차 지방자치의 긍정적 자산이 될 것이다.



제5장 문화유산

제1절 문화재의 개념과 보존

제2절 아차산의 유적·유물

제3절 동구릉

제4절 선현 묘역

제5절 북메우기

제6절 갈매동 도당굿

제7절 설화



제1절 문화재의 개념과 보존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는 인간 역사 속에서 국가나 민족, 종족 등 각각의 집단이 영위한 문화의 산물로 남겨진 유산이다. 문화재에는 단지 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전래되어 온 음악 그리고 민속, 생활양식 등 무형적인 문화의 산물도 포함된다. 나아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문화재에 관한 협약에서 인간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함께 자연환경까지 문화재에 포함한 것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 역시 문화재 범주에 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괄한 문화재 개념을 명시하였다.

문화재의 가치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정된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대성과 희소성(稀少性)이다. 시대성은 문화재가 나온 시기의 면모와 특성이 드러난 정도에 따른 것으로, 한마디로 시대의 단편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래된 시기의 것일수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한편, 아무리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흔한 경우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 역시 문화재 가치설정의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한 가치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예술적 가치, 소재(素材)의 가치, 학술적 가치가 함께 적용된다. 문화재의 가치평가는 시대적인 특성과 제한성이 반영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 관련 법규는 1916년의 「고적급 유물 규칙」, 1933년 공포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등 일제가 만든 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일제의 문화재 법규 제정의 우선적 동기는 문화재 보존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일제는 우리 문화재의 수준을 하락시켜 일본 문화재에는 있는 국보의 지위를 우리의 문화재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많은 문화재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방치되거나 밀반출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문화재법은 해방 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까지 10년이 넘도록 실질적으로 효력을 유지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어 제2항에 이렇게 지정된 보물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의 많은 수가 일제의 시각에서 지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연유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2. 문화재의 지정과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하여 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며,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각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문화체육부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역시 조례에 의거, 시·도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지사가 지명한 문화재이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재의 유형별 종류에 따라 지정된다. 단, 문화재자료는 유형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는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1호) 즉, 유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형태를 가진 문화적 유산 중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문화재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와 보물이 있고 시·도에서 지정하는 유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2호)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무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는 구체적인 유형의 대상이 아닌 무형의 예술이나 기술이기 때문에 기능보유자와 인간문화재를 더불어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기념물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의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3호) 기념물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기념물이 있다.

민속자료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구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4호) 민속자료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민속자료’가 있다.

문화재의 가치는 지정여부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천동 은행나무



이천동 백송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국가나 시·도에서 지정받지 않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비지정이라고 해도 문화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예술·공예품인 경우 아무리 예술성이 높아도 생존인의 것은 문화재가 될 수 없다.

구리시의 지정문화재와 보호수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구리시의 지정문화재

구분	문화재	지정 내용	소재지	지정일	비고
국가지정	동구릉	사적 제193호	사노동 산2-1	1970. 5. 26.	
국가지정	명빈 묘	사적 제364호	아천동 산4	1991. 10. 25.	
국가지정	약기장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1995. 3.	보유자 윤덕진
경기도지정	나만갑 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26호	사노동 산170	1985. 6. 28.	
경기도지정	갈매동 도당굿	무형문화재 제15호		1995. 8. 14.	

<표 2> 구리시의 보호수

(단위 : m)

수종	지정 내용	수령	높이	둘레	소재지	지정일
은행나무	도지정 제5-37호	1200	50	62	아천동 242	1982. 10. 15.
소나무	마을나무 제5-12-8-1-4호	120	15	0.48	아천동 산49-2	1982. 10. 15.

3. 구리시의 문화재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조사·발굴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구리의 인창동처럼 대규모의 토목사업이 진행될 예정지의 경우 공사에 앞서 해당 지역에 묻혀 있거나 남아 있는 민속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이 완전히 변모되기 때문에 유물과 기록상의 유적만 남는다는 점에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리지역에 대한 최초의 매장문화재 조사는 일제시기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1930년대 전반기에 실시되었는데 현 인창동, 사노동, 교문동, 갈매동 그리고 구릉산 등지에서 토기, 석촉, 동검 등의 선사유적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사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고 유물만 있어 유물이 나온 곳과 수집장소 인근에 있었다고 하는 지식묘와 석관묘 등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해방 후 많은 문화재가 정치적 격동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하였지만 소중한 문화재를 잃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리시는 시 승격 이후 서울과 접한 지역으로서 도로·주택건설 등 계속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역사학·고고학적인 발굴과 함께 개발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1993년 한국도로공사와 단국대학교박물관이 공동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구간에 대한 문화유적과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구리시에 해당되는 구리~퇴계원 구간의 선사고고·역사고고 분야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단국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3.)

그 이듬해인 1994년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인창동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있었다. 약 15만 평에 달하는 인창동의 개발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한신대학교박물관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한신대학교박물관·대한주택공사, 『구리시 인창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 1994.) 인창동 일대는 앞서 말했듯이 일제시대 청동기 유물이 출토된 곳이다. 조사대상지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어 지표면의 유물 조사와 시굴조사를 하기 힘들었지만 일제시대 발견된 것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신앙생활 등 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자연지리적 변천사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94년 아차산에 대한 종합조사가 실시되었다.(구리시·구리문화원,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1994.) 아차산과 주변 지역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선사와 고대의 유물들이 나와 그 결과가 고고학계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아차산은 각종 개발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으며 유적지 또한 파괴되어 가는 실정에 있다.

구리시와 구리문화원에서 계획한 아차산 종합학술조사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차산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계기가 된 것이다. 아차산 종합학술조사의 의의는 시 당국과 지역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1991년 구리문화원의 설립과 아차산에 대한 시민적 관심 고조가 아차산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차산 종합학술조사의 중요한 성과는 아차산이 삼국시대 백제의 주요 무대였을 뿐 아니라 고구려의 활약지였다는 것이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 형태는 작고 독특한 전투용 요새들로서 이들 요새들은 능선을 축으로 하여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조사를 통해 아차산 전역에서 15개소의 고구려 유적지를 발견하였고, 완전한 형태로의 복원이 가능한 토기 5점과 약 1,000여 점의 고구려 토기조각을 채집하였다.

아차산은 고대역사의 주요 무대였다. 따라서 지표면에 대한 조사만을 통해서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표조사뿐 아니라 좀더 깊이 파내려가는 본격적인 발굴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굴조사는

이차산을 중심으로 한 고대역사의 전개가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종합조사를 계기로 구리 전 지역에 대한 민속조사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도 마을신앙의 드문 사례로 전해내려 온 갈매동의 도당굿이 발굴되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제2절 아차산의 유적·유물

아차산에는 아차산성을 비롯하여 산 전역에 유적과 유물이 흩어져 있다. 아차산은 고대 삼국 역사의 주요한 무대로서,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지표조사 과정에서 고구려시대 토기가 출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적·유물은 거의 없으며, 각종 개발과 등산로의 개설로 인해 현재에도 급속하게 유적지가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유적에 대한 발굴계획이 필요하다.

1. 아차산성

아차산성은 돌로 쌓은 성으로서 백제의 한성시대(기원전 18~기원후 475)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3년 국가지정 사적 제234호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아차산성은 아차산의 주요 성곽유적이지만 워커힐 호텔 내에 있음으로 해서 호텔의 확장에 따른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아단성·아차성·장한성·광진성이라고도 불리는 아차산성은 396년 광개토왕이 함락한 성 중의 하나로 그 이름이 「광개토왕비」에 나타나 있다. 또한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도 “475년(개로왕 21) 고구려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백제왕을 사로잡아 ‘아단성’ 아래로 압송하여 죽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두 기록에 나오는 아단·아차성이 현재의 아차성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아차성은 고대 삼국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성



아차산성 전경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차산성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테피식이나, 산 정상부를 돌아가며 축성하지 않고 아차산 능선 말단부의 남쪽지역을 조망하기 좋도록 작은 계곡을 포함시켜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아차산성은 토성(土城)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돌로 쌓은 완전한 석축성이다. 단, 정상부에서 산 아래쪽으로 성벽 윗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토사가 덮여 원래의 축성형태를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석축의 일부가 드러나 있으며 전체적으로 성벽의 윤곽이 뚜렷하다.

보다 자세한 축성방법을 보면 동벽과 서벽의 경우 지형적인 여건을 이용하여 능선을 따라가며 안과 밖을 모두 올려 쌓았으며, 북벽과 남벽은 경사면에 의탁하여 축조하였다. 성의 돌은 30~40cm 크기의 화강석을 이용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잘 다듬어진 것들도 있다. 아차산 주능선과 연결되는 지점에는 돌로 단을 쌓아 장대를 설치함으로써 아차산 주능선을 포함하여 사방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벽은 다른 쪽의 성벽보다 길고 높이는 8~10m로 높으며, 밖은 경사 70~80°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쪽 성벽은 한강 이남지역이 잘 조망되며 동쪽으로 완만한 계곡이 이어진다. 특히 한강을 건넌 적들이 계곡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특히 견고하게 쌓았다. 남쪽 성벽은 작은 계곡을 가로지르도록 하여 성 안에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남쪽 성벽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주방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쪽으로 면해 있어 가장 공격이 용이한 지점이다. 그러나 남쪽 성벽으로 올라오는 길목의 양쪽에 한강변으로 향하여 길게 뻗은 능선이 마치 용성(甕城)의 역할을 함으로써 접근하는 적을 막았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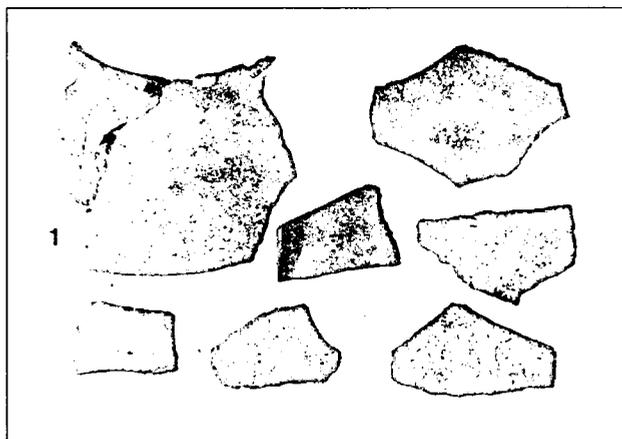
아차산성 내에는 성문의 흔적과 장대지(長臺址) 등 여러 건물의 흔적이 있다. 또 아차산성 내부 전체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으나 목이 길쭉한 장경호와 토기·기와 파편이 발견되었다.

2. 고구려 유적·유물

여기에서의 고구려 유적은 주로 보루성(堡壘城)이라는 소규모 요새지를 말한다. 보루성은 보통 집터 넓이의 요새성인데 아차산의 주요 정상부에 분포해 있다.

유적 1 아천동과 서울 중곡동의 경계지점의 아차산성에서 능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700m, 해발 268m의 정상부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능선의 방향을 따라 장축이 북동~남서향인 긴 장타원형이다. 유적의 규모는 둘레가 91m, 안쪽에서의 높이는 1.5m, 하단부의 폭은 6m 정도이다.

여기에서 나온 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으로, 흑색마연토기의 동이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갈색이나 홍갈색의 연질토기들도 많다.



아차산 고구려 유적 2에서 채집된 토기편

유적 2 교문동의 대성암 뒤편 해발 276m 지점, 작은 봉우리의 정상부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곳은 미사리·암사동 등 한강 일대를 내려다보기 좋고 유적의 동쪽 하단부에는 암벽이 형성되어 있어 방어에 매우 용이하다. 유적에는 정상부를 돌아가며 돌을 쌓은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둘레 바깥쪽의 석축부는 직경 15m 정도의 원형으로 쌓여 있으며 세 단 정도가 노출되어 있다. 바깥 석축의 안쪽에는 적갈색의 매우 단단하게 다져진 소토층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흙과 돌이 녹아 적갈색을 띠는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높은 열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토층 속과 주변에서 고구려의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황갈색과 홍갈색의 연질토기들인데 호형토기가 대부분이다.

유적 3 교문동과 서울 중곡동의 경계지점으로 아차산 유적 2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m 거리의 해발 296.9m 지점에 있는 유적이다. 평탄한 정상부를 돌아가며 보루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둘레는 대략 110m이다. 석축시설은 유적의 남쪽 부분에 일부 노출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흙에 덮여 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황갈색이나 회갈색, 홍갈색, 회흑색을 띠고 있는 고구려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유적 4 교문동과 중곡동의 경계지점으로 아차산 유적 3에서 북쪽으로 약 400m 거리에 있다. 이곳은 해발 285m 지점이며 아차산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마봉 일대와 한강 유역 등에 대한 관측도 쉽게 할 수 있다. 정상부는 비교적 넓고 평탄하며 그 주위에 석축시설이 있다. 현재에는 흙에 덮여 있어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곳곳에 석재가 노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수백 점의 토기편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5점이 완전하게 복원되었다. 유물 중 가장 많은 것은 밑이 평평한 평저호 유형이고 광구호, 접시, 뚜껑류도 상당히 많았다. 토기는 색깔이 황갈색, 홍갈색, 회흑색이며 대체로 물레를 사용하



아차산 고구려 유적 4에서 채집된 토기(정동호)

지 않고 손으로 빚어 만들었다.

3. 고분(옛 무덤)

아차산에는 현재에도 서울 망우리 쪽으로 대규모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묘역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으나 고대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옛 무덤의 잔재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고분 1 우미내 마을 서편 바위산 정상부 해발 125m 지점에 있는 석곽분이다.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석곽을 조성하였다. 석곽은 장벽에 2매, 단벽에 1매의 대형 판석을 세우고 천장에 2매의 대형 판석을 덮었다. 석곽 내부의 규모는 길이 240cm, 폭 80cm, 높이 90cm 정도로 장축은 남북향이다. 외부에 봉토를 덮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거의 유실되었다. 고분 주변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거의 없어 축조시기를 알 수 없으나, 아차산 일대에서 발견되는 다른 고분과 비슷한 시기로 여겨진다.

고분 2 아차산 주능선의 동쪽 작은 봉우리의 정상부에 있다. 현재 이곳은 등산객들이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있고 정상부 주위를 돌아가며 석축이 쌓여 있다. 위치상 고구려 유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신라가 이곳을 파괴하고 고분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토기편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고분 3 고분군 2지역에서 아차산 봉우리로 올라가는 등산로 우측에 있는 석곽분이다. 무덤은 파괴되어 현재 동벽과 남벽만이 남아 있다. 벽은 가로 세로 각각 200cm, 80cm 정도의 판석 한 개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사용된 돌들은 무덤 아랫부분의 경사면에 흩어져 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고분군 1 아차산 공원 입구에서 등산로를 따라 400m 정도 올라가서 아차산 성과 용마산 방향으로 갈라지는 등산로 좌측(서북쪽) 해발 165m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약 15기 정도의 석곽묘가 능선 경사면의 남서쪽으로 약 400여 평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고분군 2 고분군 1지역에서 서북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가면 영화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접해 대성암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이곳의 완만한 구릉 사면에 약 7기의 석곽묘가 있다. 이 중 3기는 파괴되어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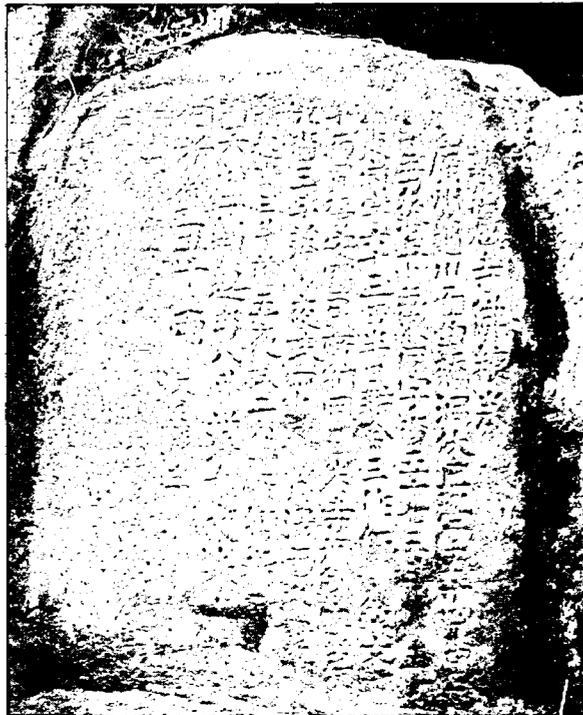
고분군 3 고분군 2지역에서 능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나오는 보루성을 지나 완경사를 이루는 능선 위에 있다. 약 20기의 석곽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여 기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다.

고분군 4 아천동 새마을회관 북편에 집중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산의 동남쪽 구릉 사면에 20~30여 기의 석곽묘가 흩어져 있다.

4. 불교유적

1) 절 터

범굴사(梵窟寺)지 아천동에 있는 범굴사지에는 현재 대성암(大聖庵)이 자리 잡고 있다. 대성암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절을 다시 만들면서 지은 이름이다. 범굴사는 647년(진덕여왕 1)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개창하였다고 하며,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폐사·화재 등의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일제 때 대응전을 비



범굴사불량편

롯한 여러 건물이 다시 지어졌으나, 한국전쟁으로 또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대성암은 1954년에 재건한 것이다.

대성암에는 범굴사와 관련하여 자연바위에 새긴 글씨가 남아 있다. 「범굴사불량권(梵窟社佛糧券)」과 「불량시주기(佛糧施主記)」라는 제목의 이 암각문은 대웅전 뒤편의 암벽을 판석처럼 다듬어 네모꼴로 구획을 짓고 새겼다. 내용은 범굴사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논·밭의 소유량과 매입가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리고 속(束)·두락(斗落 : 마지기)·야미(夜味 : 배미) 등 그 당시에 사용하던 논·밭의 단위와 이두식 표기도 나타나 있다.

아천동에서 대성암으로 오르는 길에는 열반에 든 승려들의 시신을 화장하는 다비터(荼毘址)도 남아 있다. 다비터의 규모는 가로 세로 모두 약 17m로 40평 정도이다.

절터 1 아차산 정상의 동쪽 능선으로 직선거리 약 250m, 해발 190m 지점의 계곡 상부에 있다. 이 절터는 길이 약 38m, 높이 2.5m의 규모이며, 마치 성벽을 연상시키는 중간 축대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정확한 구역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계곡 상류의 능선과 능선 사이에 위치한 위쪽 절터는 대략 길이 약 50m, 폭 45m로 800평 정도의 규모이며, 아래쪽 절터는 약 600여 평 정도 된다. 따라서 둘을 합치면 매우 넓은 절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절터 2 범굴사지에서 동북쪽으로 가파른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위쪽으로 직선거리 250m, 해발 180m 지점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위쪽 계곡 옆으로 절 건물로 추정되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자그마한 건물지가 있다. 건물지에는 5개의 초석이 드러나 있다. 규모는 가로 7.7m, 세로 4.6m이고 초석간의 거리가 2.5~3.5m 정도인 것으로 보아 작은 규모의 암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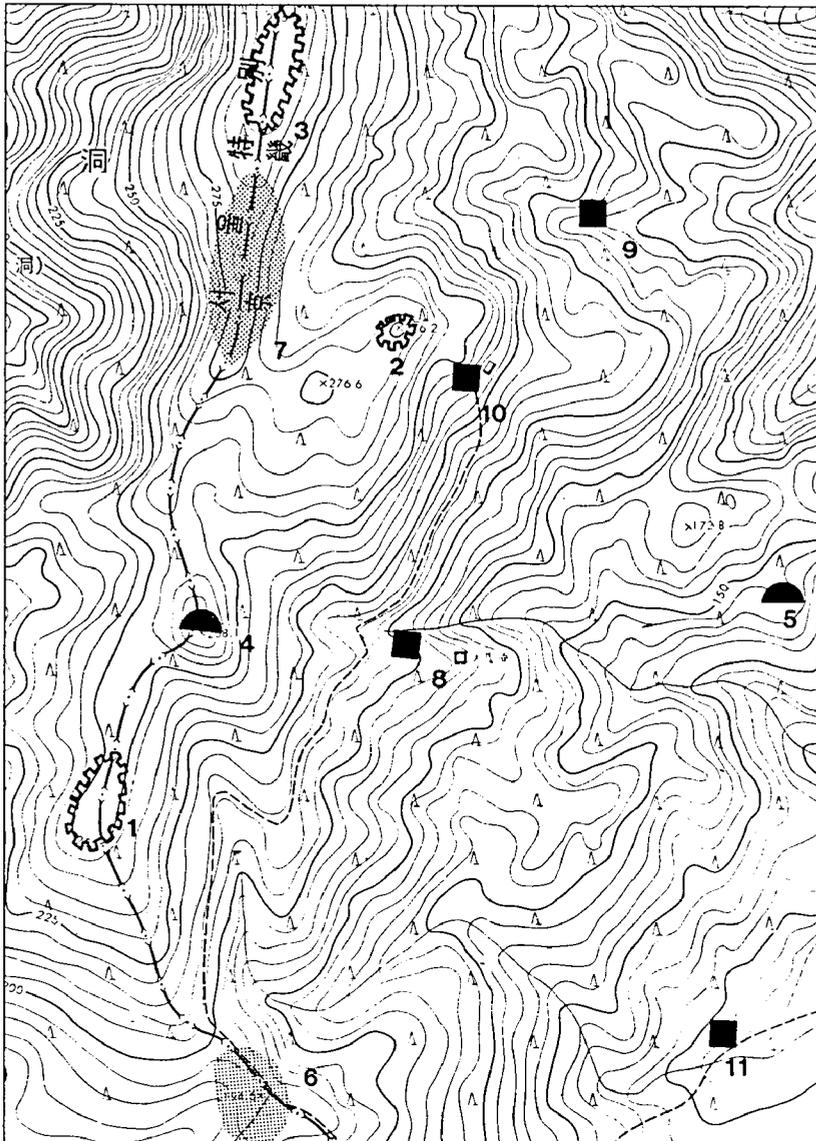
절터 3 한다리마을 우측 아차산 서쪽 사면 해발 100m 지점의 평탄지에 위치한다. 지금은 개인 초옥이 들어서 있고 관룡탑(觀龍塔)이라고 부르는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기와조각과 토기·자기조각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2) 탑

3층석탑 절터 2로부터 동쪽으로 약 20~30m 떨어진 바위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이 탑은 현재 두너진 채 탑 부재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본래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옥개석과 기타 부재들로 보아 3층석탑으로 여겨진다. 규모가 작아 아담하고 경쾌한 맛을 풍기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중·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온달샘석탑 대성암에서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300m, 해발 200m 지점에 위치한 탑이다. 옆에 '온달샘'이라는 약수터가 있다. 현재는 탑의 기단부와 옥개석 일부만 남아 있어 그 층수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의 3층석탑과 비교해 보면 다소 둔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고려 말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룡탑 절터 3의 평탄지 중앙에 위치한 탑으로, 주변의 막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적석탑(積石塔)이다. 30여 년 전 김법안 처사부부가 쌓았다고 하는 이 탑은 방형의 평면에 꼭대기를 뾰족하게 처리하였으며, 밑면이 11m, 높이가 13m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양식의 탑은 불탑이라기보다는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적 분포도(1 : 아차산 고구려 유적 1, 2 : 아차산 고구려 유적 2, 3 : 아차산 고구려 유적 3, 4 : 아차산 고분 2, 5 : 아차산 고분 1, 6 : 아차산 고분군 2, 7 : 아차산 고분군 3, 8 : 아차산 사지 1, 9 : 아차산 사지 2, 10 : 대성암, 11 : 다비터)

제3절 동구릉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1408년(태종 8) 사망하자 그의 능인 건원릉이 양주 땅 '검암'에 조성되었다. 이후 조선조 500년간 이곳에 왕과 왕비들의 능이 들어서면서 동구릉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능침지로 자리잡았다. 동구릉은 현재 구리시 인창동 신2-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원래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의 명으로 파주·고양 등지의 길한 능자리를 물색하던 중 당시 검교참찬의정부사를 지내던 김인귀가 추천하고 하륜이 결정하여 정해진 곳이었다.

동구릉은 그 조성이 조선왕조의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건원릉부터 시작하여 1855년(철종 6)에 익종의 수릉이 아홉번째의 왕릉으로 조성되고 1904년 현종의 계비인 효정왕후가 안장될 때까지 아홉 개의 능역에 17위의 왕과 왕비의 능이 들어섰다. 그럼으로써 조선왕조의 능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대능원을 이루게 되었고, 그간 왕릉이 늘어날 때마다 동오릉·육릉 또는 동칠릉 등으로 불려오던 것이 비로소 동구릉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동구릉은 국가지정 사적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57만 9,557평의 넓은 터에 다음의 아홉 개 능이 자리하고 있다.

<표 3> 동구릉 일람표

능호	역대·묘호·시호	조성연대	비고
건원릉 (建元陵)	1대 태조	1408년(태종 8) 9월	
현릉 (顯陵)	5대 문종	1452년(단종 즉위) 9월	
	현덕왕후 권씨	1513년(중종 8) 4월 천장	1441년(세종 23) 9월 초장(안산 소릉)
목릉 (穆陵)	14대 선조	1630년(인조 8) 11월 천장	1608년(광해군 즉위) 6월 초장(건원릉 서쪽 언덕)
	의인왕후 박씨	1600년(선조 33) 12월	초호 유릉
	계비 인목왕후 김씨	1632년(인조 10) 10월	초호 혜릉
휘릉 (徽陵)	16대 인조계비 장렬왕후 조씨	1688년(숙종 14) 12월	
승릉 (崇陵)	18대 현종	1674년(숙종 즉위) 12월	
	명성왕후 김씨	1684년(숙종 10) 4월	

능호	역대·묘호·시호	조성 연대	비고
혜릉 (惠陵)	20대 경종비 단의왕후 심씨	1718년(숙종 44) 4월	
원릉 (元陵)	21대 영조	1776년(정조 즉위) 7월	
	계비 정순왕후 김씨	1805년(순조 5) 6월	
수릉 (綏陵)	추존왕 익종	1855년(철종 6) 윤 5월 천장	1830년(순조 30) 8월 초 장(양주 천장산 의릉 왼 쪽 언덕, 초호 연경묘) 1835년(헌종 1) 5월 익 종으로 추존(수릉) 1846년(헌종 12) 윤 5월 천장(양주 용마봉)
	신정왕후 조씨	1890년(고종 27) 8월	
경릉 (景陵)	24대 헌종	1849년(철종 즉위) 10월	
	효현왕후 김씨	1843년(헌종 9) 12월	
	계비 효정왕후 홍씨	1904년(광무 8) 1월	

동구릉에 조성된 왕릉들의 건물과 석물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능 입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그 오른쪽으로 네모나고 평평한 판위(版位)에 전석(塹石 : 벽돌)이 깔려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돌을 깎아 신도(神道 : 능으로 가는 길, 신로라고도 함)가 있으며, 신도를 따라 가면 제사를 올리는 정자각(丁字閣 : '丁'자 모양의 집)이 서 있다. 원래 정자각을 지나기 전에 동·서 양쪽에는 수복방(守僕房 : 제사에 관한 일을 하는 곳), 수리방(水刺房 : 음식을 만드는 방) 등의 건물이 있으나 건원릉을 제외한 다른 능에는 터만 남아 있다. 한편 정자각 동쪽에는 비각을 세운다. 보통 비각 안에는 능표(陵表)와 신도비(神道碑 : 왕릉 및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근처 큰 길가에 세우는 비)가 세워지지만, 태종 이후로는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다.

왕릉의 봉분은 정자각 뒤편의 높은 곳에 위치한다. 왕릉의 봉분 주변은 대개 상·중·하계의 3단으로 나뉘어 각 단에 다양한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 봉분에는 호석(護石 : 돌레돌)과 석난간(石欄干)을 두르고 앞에는 혼유석(魂遊石 : 낮이 노는 돌)인 상석(床石)이 놓이며 봉분 둘레에는 각각 4마리의 석양(石羊)과 석호(石虎)가 교대로 왕릉을 호위한다. 그 앞 좌우편의 양단에 망주석(望柱石)이 하나씩 있으며, 이와 같이 봉분을 중심으로 배열된 부속물들 주위에 곡장(曲牆)이라 불리는 담장이 세워진다. 그리고 한 단을 내려와 상석 앞에 장명등(長明燈 : 석등)을 세우고 좌우 끝에 문인석(文人石)을, 다시 한 단을 내려와 문인석과 동일선상에 무인석(武人石)을 배치한다. 이때 문인석과 무인석 뒤에는 석마(石馬)를 세우고 장명등 앞쪽에는 정중석(正中石)을 깔았다. 후기에 오면서

이러한 3단이 2단으로 간소화되었다.

1. 건원릉

조선 제1대왕 태조(太祖 : 1335~1408)의 능이다.

태조 1392년에서 1398년까지 재위하였다. 이름은 성계(成桂)이며, 자는 중결(仲潔), 호는 송헌(松軒)이다. 화령부(和寧府 : 함남 영흥) 출생으로 이자춘(李子春)의 둘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최씨(崔氏)이다. 비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이고, 계비는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이다.

그의 선조는 대대로 두만강과 덕원지방의 천호(千戶)로서 원나라에서 벼슬하였다. 아버지 이자춘도 원나라의 총관부(總管府)가 있던 쌍성(雙城)의 천호로 있었다가 1361년 고려의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이 지역의 실력자가 되었다.

이성계는 이러한 가문의 배경과 타고난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자 토벌전에서 큰 전공을 세웠으며, 동북면에 침범한 여진족과 경상도와 지리산에서 창궐하던 왜구를 물리쳤다.

이러한 공으로 그는 1388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다. 이해 명나라의 철령위(鐵嶺衛) 설치문제로 조선과 명나라 사이 외교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요동정벌이 결정되자, 이에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우군도통사가 되어 좌군도통사 조민수와 함께 정벌군을 거느리고 위화도까지 나아갔으나 중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였다. 개경에 돌아와 죄명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창왕을 옹립, 수시중(守侍中)과 도총중외제군사(都總中外諸軍事)가 됨으로써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듬해 다시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뒤 1390년(공양왕 2) 전국의 병권(兵權)을 장악하였으며, 곧 이어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었다. 이 무렵 그는 신흥정치세력의 대표로서 새 왕조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1391년 삼군도총제사(三軍都總制使)가 되었으며,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1392년 7월 공양왕을 폐위하고 마침내 새 왕조의 왕위에 올랐다. 그는 명나라에 대해 사대정책을 쓰면서, 명나라의 양해 아래 1393년 새 왕조의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확정하였으며,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정했다. 건국 초기에는 공신들이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였으나, 태조는 공신들의 지배력을 혁파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통치체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개혁은 이방원과 같은 왕실인물들로부터 도외시되었다. 결국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1400년 제3대 태종이 즉위하고 정종은 상왕, 태조는 태상왕(太上王)이 되었다.



건원릉

1408년 5월 24일 73세를 일기로 죽었다. 시호는 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다.

부속유물 태조의 건원릉은 고려시대의 왕릉 중 가장 장려하고 완전하게 정비된 현릉(공민왕릉)과 정릉(노국대장공주릉)을 기본으로 조성되었다. 왕릉은 10개의 장대석으로 짜여진 석교를 건너 홍살문에 이름으로써 시작된다.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직선의 신로(神路)는 판석을 깔았으며, 초입의 오른쪽에 정방형 평면의 판위가 자리하였다.

홍살문 앞의 신로는 정자각을 향하여 직선으로 뻗다가 정자각의 축대를 따라 오른쪽으로 꺾이고 다시 위로 틀어 여기서 두 개의 돌계단(石階)과 만난다.

정자각은 정면 1칸, 측면 2칸의 전면공간과 정면 3칸, 측면 2칸의 후면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뒷면 중앙칸 문 앞으로 댕돌을 놓았으며, 여기서 석판교(石板橋)를 밟고 배수로를 건너 신로를 따라 경사진 능역으로 오르게 된다. 정자각 앞 좌측에는 축문(祝文)을 태우기 위한 망료위(望燎位)가 서 있고, 우측에는 신도비각이 서 있다.

우선 봉분을 보면 밑부분을 12각의 화강암 호석으로 두르고 그 주위를 석난간으로 에워쌌다. 또한 호석의 밑에는 봉분이 밖으로 밀리지 않도록 바닥에 박석(얇은 돌)을 경사지게 덮었는데, 바닥 위로는 부채살 모양의 턱을 돌우어 박석과 박석이 서로 물리어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형의 효과도 내고 있다.

석난간의 주위는 4마리씩의 석양과 석호가 교대로 능을 호위하고 있으며 석호의 모습은 앞발을 피고 앉아 있는 모습이며, 석양은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봉분 앞쪽의 정면 중앙에는 장방형의 상석(혼유석)이 놓여 있고 이 상석을 5개의 고석(鼓石: 북 모양의 받침돌)이 전후 좌우와 중앙에서 떠받치고 있다. 상석



건원릉의 호석

의 좌우측 양단에는 팔각기둥 형태의 망주석이 서 있다. 이상의 봉분 상설(象設) 물을 에워싸기 위하여 동, 서, 북편으로 곡장(담장)을 둘렀다. 건원릉의 상설에서는 여기까지가 상계(上階)에 해당하고, 그 아래에 중계(中階)와 하계(下階)가 있어 모두 3계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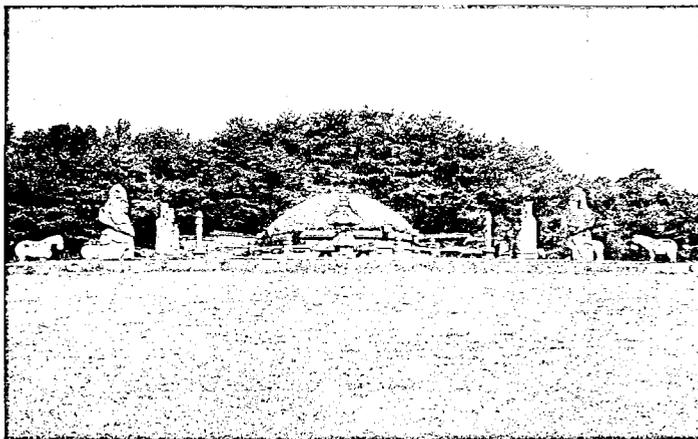
중계에 이르면 우선 중앙에 장명등이 세워져 있다. 장명등의 좌우 양단에는 머리에 복두(幘頭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쓰던 모자)를 쓰고 양손으로 활(笏 : 벼슬아치가 왕을 뵈 때 두손으로 드는 물건)을 들고 있는 문인석이 서 있으며, 그 뒤에는 석마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단을 내려온 하계에는 문인석과 열을 맞추어 무인석이 갑옷과 투구차림에 칼을 쥐고 서 있고, 역시 무인석 뒤에도 석마가 한 마리씩 있다.

2. 현릉

조선 제5대왕 문종(文宗 : 1414~1452)과 비 현덕왕후(顯德王后 : 1418~1441)의 능이다.

문종 문종은 1450년에서 1452년까지 재위에 있었다. 이름은 향(瑒), 자는 휘지(輝之)이다. 세종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이고 비는 현덕왕후이다. 1421년(세종 3)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50년 37세로 왕위에 올랐다.

학문을 좋아했고 학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세종의 건강이 좋지 않아 1445년부터 세자 섭정이 시작되었다. 이 섭정은 세종이 죽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로 인



현릉(문중)

하여 문중은 즉위하기 전에 실제 정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문중조에 편찬된 서적으로는 『동국병감(東國兵鑑)』·『고려사』·『고려사절요』 등이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편찬은 전 왕조의 역사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정치·제도·문화의 정리를 위하여도 필요한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업이었다. 문중은 유학뿐 아니라 천문(天文)과 역수(曆數) 및 산술(算術)에도 정통하였고, 예·초·해서(隸·草·楷書) 등 서예에도 능하였다. 그러나 몸이 허약하여 재위 2년 4개월 만에 39세로 병사하고, 나이 어린 세자 단종이 즉위하였다. 시호는 공순(恭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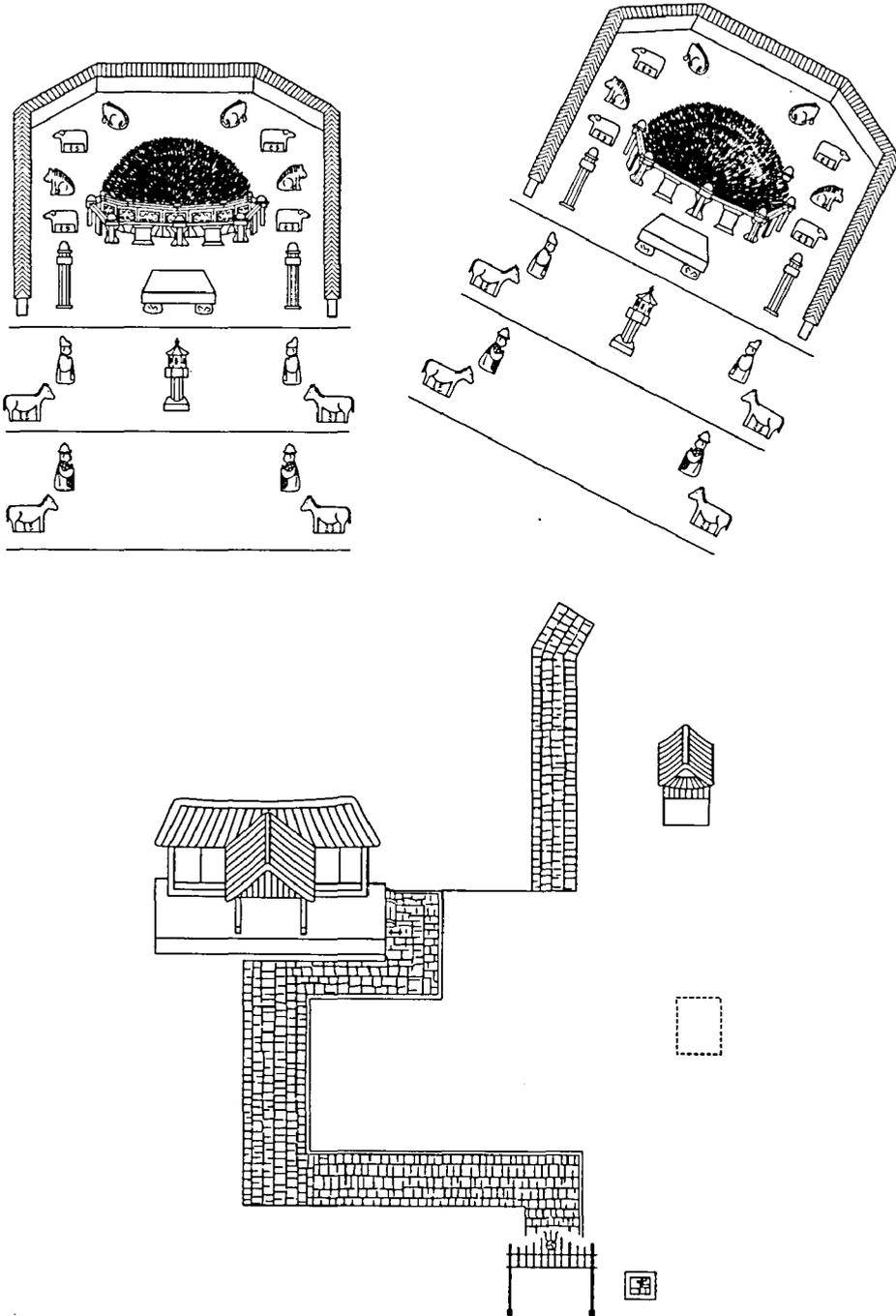
현덕왕후 현덕왕후의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의 딸이다. 1431년(세종 13) 세자궁에 선임되었으며 순빈(純嬪)이 부덕하다고 하여 폐빈(廢嬪)된 뒤 세자빈이 되었다. 1441년 단종을 출생하고 3일 뒤에 죽었다. 1450년 현덕왕후로 추증(追贈 : 죽은 뒤에 품계를 높이는 것)되었다. 1441년 안산에 처음 능을 쓴 뒤 1513년 현릉 동쪽으로 옮겨왔다. 소생으로는 단종과 경혜공주(敬惠公主)가 있다.

부속유물 현릉은 능역은 같으나 서로 다른 구역에 능자리를 정한 동원이강식(同原異岡式) 능제를 택하였다.

현릉은 멀찌감치 자리잡은 돌다리를 건너 진입하는데 우편에 판위가 있고 홍살문은 신도 인쪽에 세워져 있다. 신도는 일직선이 아니라 도중에 좌향의 직각으로 한 번 꺾인 후 다시 상향 직각으로 꺾여 정자각을 향하고 있으며, 신도 우편에 건물터가 남아 있다. 정자각 뒤편으로 이어지는 신도는 왕과 왕비의 능을 향하여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현재의 정자각은 왕비의 능이 새로 옮겨오면서 양 능의 중간지점으로 옮겨진 것이다. 정자각 우편에는 사망 1칸의 비각이 남아 있다.

석물을 보면, 호석이 봉분을 둘러싸고 있으며 호석을 둘러싼 석난간의 높이는

<그림 2> 현릉 상설도



낮아졌다. 봉분 남쪽 삼계의 높낮이도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편 호석의 표면에 새겨진 소용돌이 구름무늬는 더욱 조밀해지고 상·하대석의 연꽃잎무늬는 건원릉의 연꽃잎보다 날카로워졌다. 호석 바닥의 박석에는 부채살 모양의 돌출표현이 생략되었으며, 상석을 받치는 고석의 숫자도 네 개로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는 석물조형의 규모가 줄고 일부 장식이 생략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장명등을 비롯하여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호, 석마 등에서도 나타난다. 왕비의 능은 왕릉의 능제를 따르고 있는데 다만 봉분을 에워싸는 호석이 없이 석난간만 있다. 난간 주위의 석양은 머리부분이 앞으로 쏠려 있으며 다리 사이를 막아 그 자리에 꽃무늬를 음각하였다. 곡장에는 별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현릉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기본예식인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책)의 능제를 전해주는 가장 오래된 왕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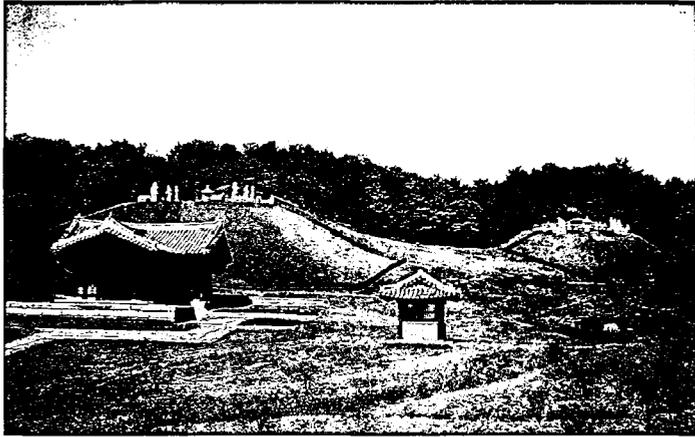
3. 목릉

조선 제14대왕 선조(宣祖 : 1552~1608)와 비 의인왕후(懿仁王后 : 1555~1600) 그리고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 : 1584~1632)의 능이다.

선 조 선조는 1567년에서 1608년까지 재위에 있었다. 초명은 권(鈞), 뒤에 공(公)으로 개명하였다. 증종의 손자이며,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셋째아들이고, 어머니는 증영의정(贈領議政) 정세호(鄭世虎)의 딸이다. 비는 박응순(朴應順)의 딸 의인왕후이며, 계비는 김제남(金悌男)의 딸 인목왕후이다.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즉위하였다.

훈구세력을 물리치고 사림(士林)들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이항(李滉)과 이이(李珥) 등 대학자들을 극진한 예우로 대하였다. 그러나 정국을 주도하던 사림들이 1575년(선조 8)에 이르러 동인(東人)·서인(西人)으로 분당되었으며, 집권한 동인도 서인들에 대한 논죄문제로 남·북으로 다시 분열되어 당파싸움이 심해졌다. 1589년에는 정여립의 모반(기축옥사)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590년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일본을 통일하자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 등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하여 그곳 동향을 살피오게 하였다. 다음해 돌아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함으로써 국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던 중,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군이 침략한 지 보름 만에 서울도 위급하게 되자 수성(守城)의 계획을 포기하고 개성으로 물러갔다. 적이 한강을 건너고 도성이 무너지자 다시 평양으로 퇴각했으며, 임진강 방어선도 무너지자 의주로 피난하여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였다. 그러나 각지의 의병들과 수군의 활약으로 1593년 4월 강화를 조건으로 왜군이 남으로 퇴각하자 이해 10월 환도하였다. 서화에 뛰어났다. 1608년 사망하자 왕세자 광해군이 즉위하였다. 시호는 소경(昭敬)이다.



목릉(좌: 선조, 우: 인목왕후)

의인왕후 의인왕후의 본관은 나주(羅州)로 변성부원군(藩城府院君) 박응순의 딸이다. 1569년(선조 2)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소생은 없다.

인목왕후 인목왕후의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의 딸이다. 1602년(선조 35)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1606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낳았다. 이때 광해군이 세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당시 실권자인 유영경(柳永慶)은 적통론(嫡統論)에 입각하여 적출인 영창대군을 세자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급사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유영경 일파는 몰락하고 대북정권이 들어섰다. 이들은 왕통의 취약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선조의 첫째 왕자인 임해군(臨海君)을 제거하고 이어서 영창대군을 폐서인시킨 뒤 살해하였다. 이어 대군의 외조부 김제남을 사사시키고, 인목왕후를 폐비시킨 다음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정변의 구실을 주어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인목왕후는 복호되어 대왕대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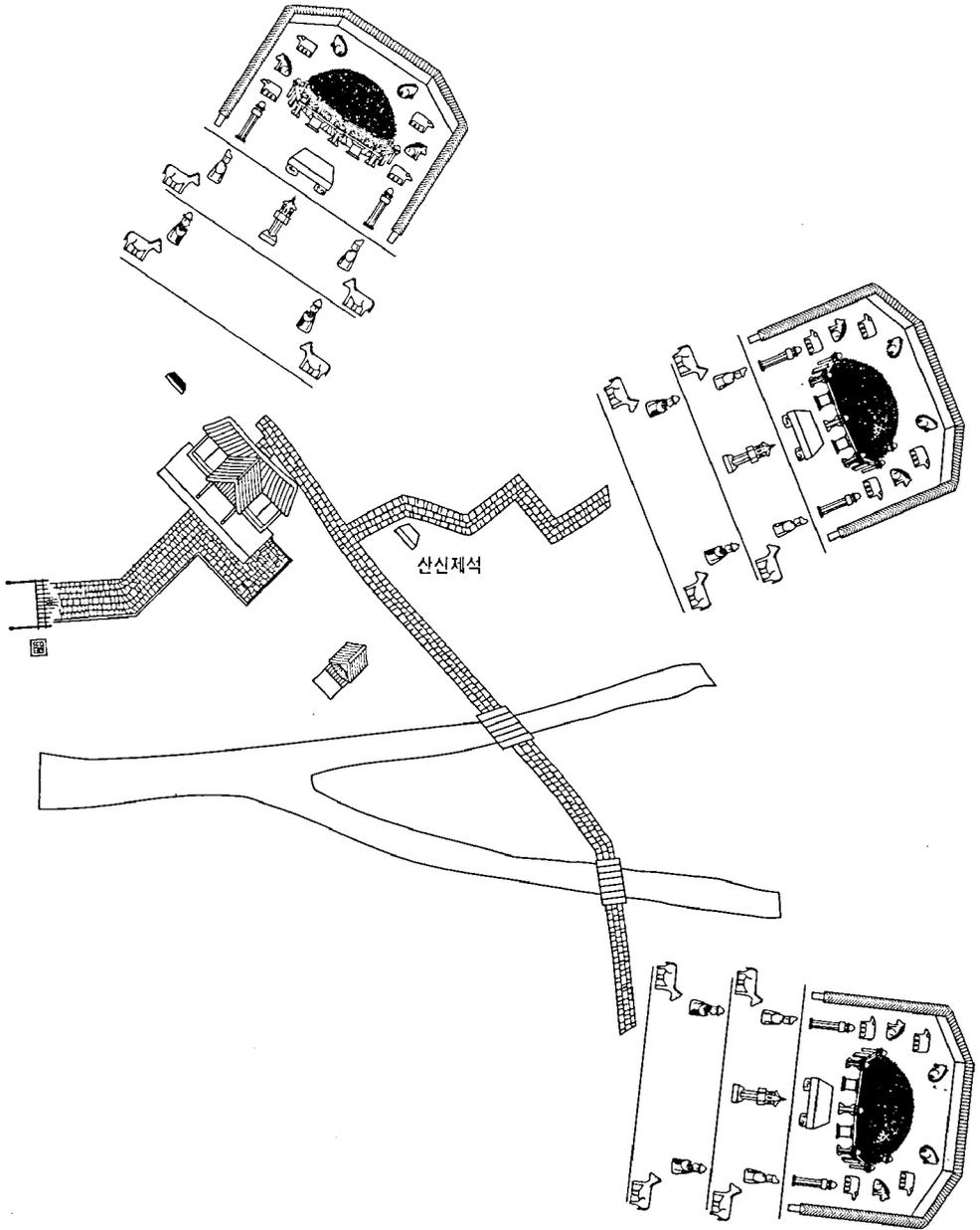
부속유물 3개의 능이 한 능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선조와 인목왕후의 능은 정자각의 북편에 배치되어 있고 의인왕후의 능은 정자각 동편 언덕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적인 배치는 같은 능역에 줄기와 향배가 전혀 다른 이른바 동역이강식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목릉은 돌다리를 건너 홍살문을 통하여 진입한다. 정자각은 왕릉을 향하여 서 있으면서 신로는 삼릉으로 모두 뻗어 있다. 신로는 도중에서 왼편으로 약간 꺾인 다음 정자각을 향하고, 의인왕후릉으로 향하는 신로가 비각을 지나면서 아래로 꺾어 나아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꺾여 왕비릉 앞에 이른다.

목릉의 석물은 영릉의 제도를 따르고 있으나 조형기법은 많이 떨어진다. 봉분에는 호석과 박석, 석난간, 혼유석과 망주석 그리고 돌짐승이 배치되고 곡장이 둘러쳐져 있다.

중·하계의 문인, 무인석의 조형은 몸집이 크기만 할 뿐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그림 3> 목릉 상설도



맞지 않는다. 문·무인석 뒤에 딸린 석마와 봉분의 석양은 다리 사이를 막아 지초 무늬를 새겨 넣었다. 한편 망주석은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장명등은 받침대의 중대석이 퇴화하고 지붕의 형태는 단순해지면서 정상부에 연봉을 곁으로 올려 마감하였다. 선조릉의 석물조형은 현재 조선왕릉의 석물작품 중 가장 줄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인왕후릉은 왕비의 능인 까닭에 호석을 두르지 않았다. 망주석에는 다채로운 꽃무늬 장식이 새겨 있지만, 조형은 섬약하며, 석양과 석마는 다리 사이를 띄웠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안면처리가 미숙하며 조각에 생기가 부족하다. 능 앞에 혈린 정자각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선조릉 동편에 자리잡은 계비 인목왕후릉은 역시 왕비의 능제에 따라 호석을 생략하고 석난간만을 돌렸으며 망주석은 가늘고 석양과 석마는 다리 사이를 막았다. 상석은 밑면을 사각으로 길게 깎았으며, 장명등은 중대가 퇴화되고 상대에 모란문이 장식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조형이 선조릉과 비슷하다.

4. 휘릉

조선 제16대왕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 1624~1688)의 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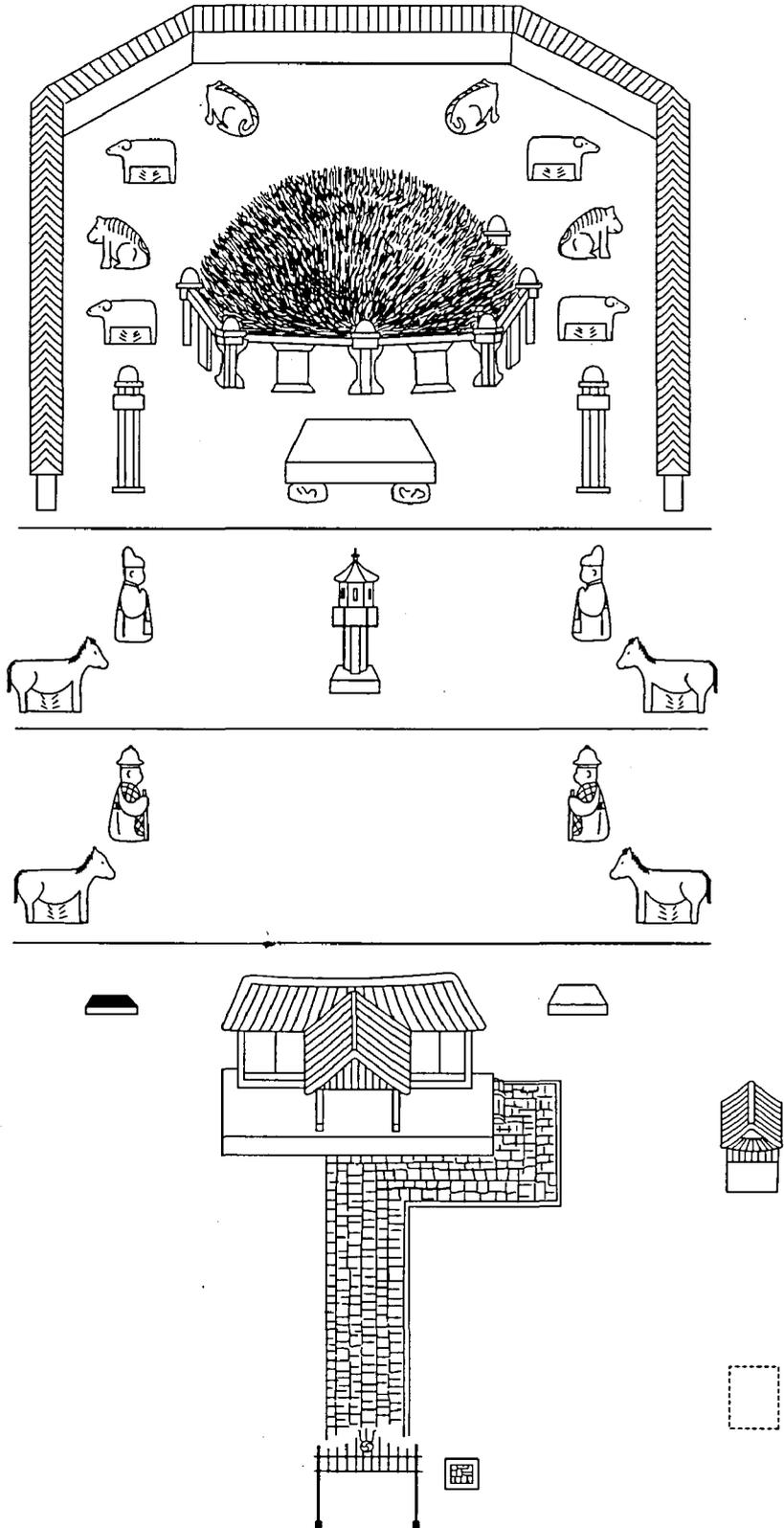
장렬왕후 본관은 양주이며, 아버지는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이다. 1638년(인조 16) 왕비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가 죽자 대비가 되고, 1651년(효종 2) 자의(慈懿)의 존호를 받았다. 1659년 효종이 죽자 대왕대비가 되었다. 이때 그녀가 입어야 할 복상(服喪)이 정치문제화되기도 하였다. 64세를 일기로 죽었으며, 자녀를 두지 못했다.

부속유물 신로교와 홍살문을 지나면 정자각이 나온다. 정자각으로 향하는 신



휘릉(장렬왕후)

<그림 4> 휘릉 상설도



로의 주변에는 포석(鋪石)이 그대로 깔려 있고 우편으로 건물터가 있다. 정자각 옆으로는 사방 단칸의 비각이 세워져 있다.

봉분 주위의 석난간에는 석주(石柱)의 연꽃 봉오리 밑의 장식무늬가 직선으로 매우 날카로워졌으나, 힘은 없고 혼유석을 받치는 북돌은 다섯 개로 건원릉식을 따랐다. 곡장에는 성좌(星座)무늬가 박혀 있다.

망주석 상부의 연봉을 받치는 장식무늬는 날카롭게 표현되었다. 봉분 주위의 석양은 빨이 과장되고 석호의 꼬리 또한 과장되어 있으며 모두 머리가 몸통보다 커 비례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한 비례는 문인석과 무인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례로 머리가 가슴에 파 묻히고 눈과 코가 과장되게 표현된 점을 들 수 있다. 장명 등은 기단부의 하대에 꽃무늬와 당초무늬를 새기고 상부를 연꽃잎무늬로 덮였으며, 중대에는 안상(眼象)을 새겼고 상대는 하단에 연꽃잎무늬를, 측면에 꽃무늬를 조각했다. 화창(火窓)은 작은 네모꼴을 이루었으며 내곽은 아(亞)자형을 이루고 있다. 지붕의 추녀에는 꽃무늬를 새기고 지붕 위 꼭대기는 연잎무늬로 덮었다.

5. 승릉

조선 제18대왕 현종(顯宗 : 1641~1674)과 비 명성왕후(明聖王后 : 1642~1683)의 능이다.

현종 현종은 1659년에서 1674까지 재위에 있었다. 이름은 연(欄), 자는 경직(景直)이며 효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며, 비는 김우명(金佑明)의 딸 명성왕후이다. 효종이 봉림대군(鳳林大君) 시절에 청나라의 불모로 심양(瀋陽)에 있을 때 심관(瀋館)에서 출생하였으며, 1649년(인조 27)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즉위하자 1651년(효종 2)에 왕세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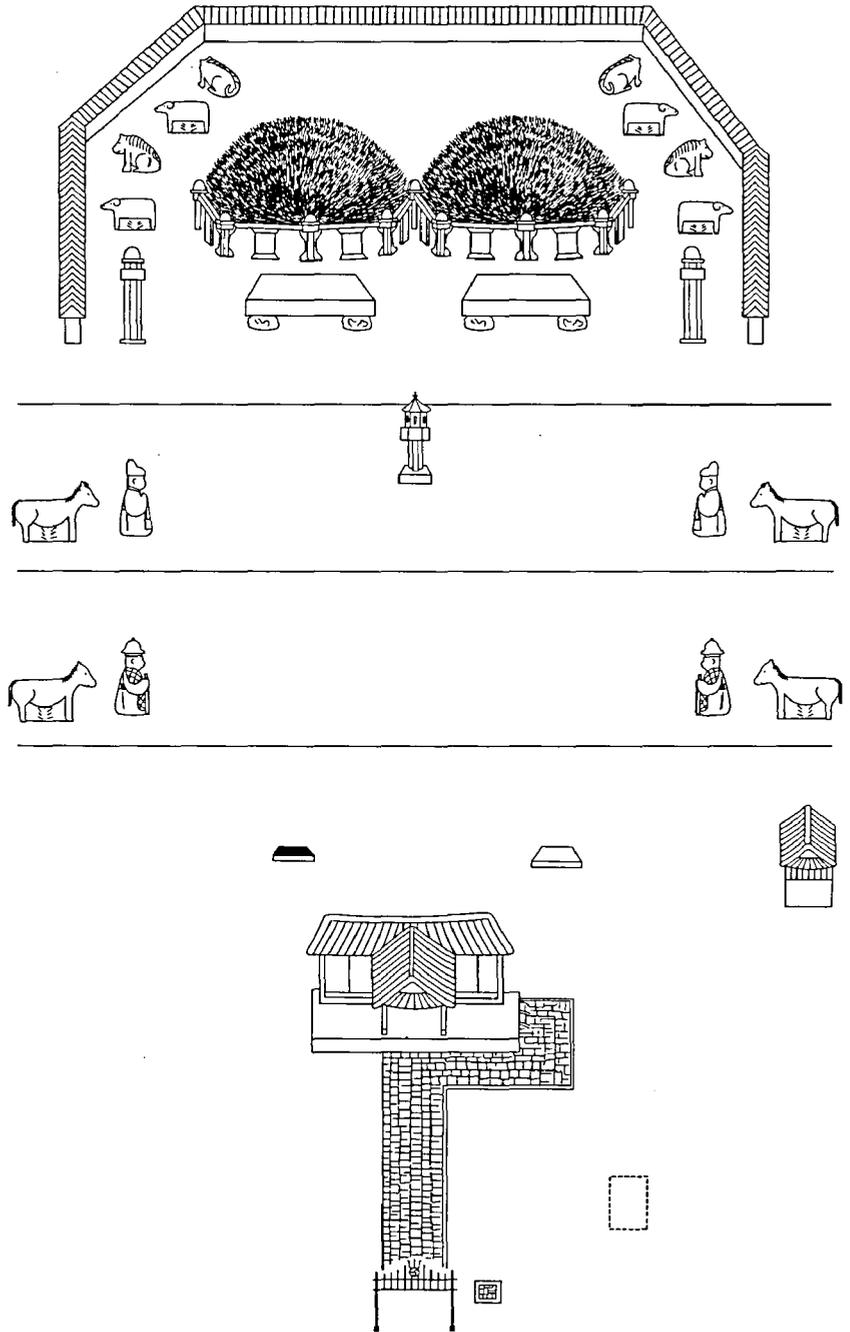
현종은 재위 15년 동안의 대부분을 예론을 둘러싼 정쟁 속에서 지냈으나, 호남 지방에 대동법을 시행하고 동철활자 10여 만 자를 주조시키기도 하였다. 시호는 소유(昭休)이다.

명성왕후 명성왕후의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영돈녕부사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의 딸이다. 1651년(효종 2)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1659년(현종 즉위) 왕비에 책립되고, 1683년 12월 5일 42세로 죽었다.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하였다. 소생으로는 숙종과 명선(明善)·명혜(明惠)·명안(明安)공주가 있다.

부속유물 능제는 『국조오례의』의 제도를 따랐고 석물의 조형양식은 인조 장릉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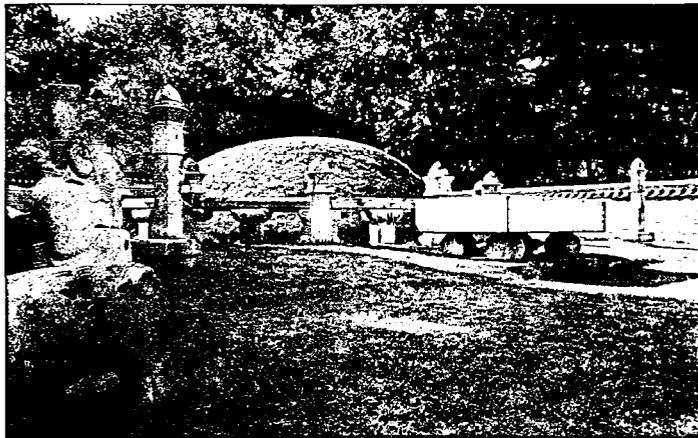
초입의 돌다리를 건너 신로를 지나면 정자각이 나온다. 정자각은 후면공간에

<그림 5> 승릉 상설도





승릉(현종·명성왕후)



혜릉(단의왕후)

정면 다섯 칸을 내고 측면은 두 칸을 두었는데 지붕도 지금까지의 맛배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을 엮었다. 비각은 정자각의 동편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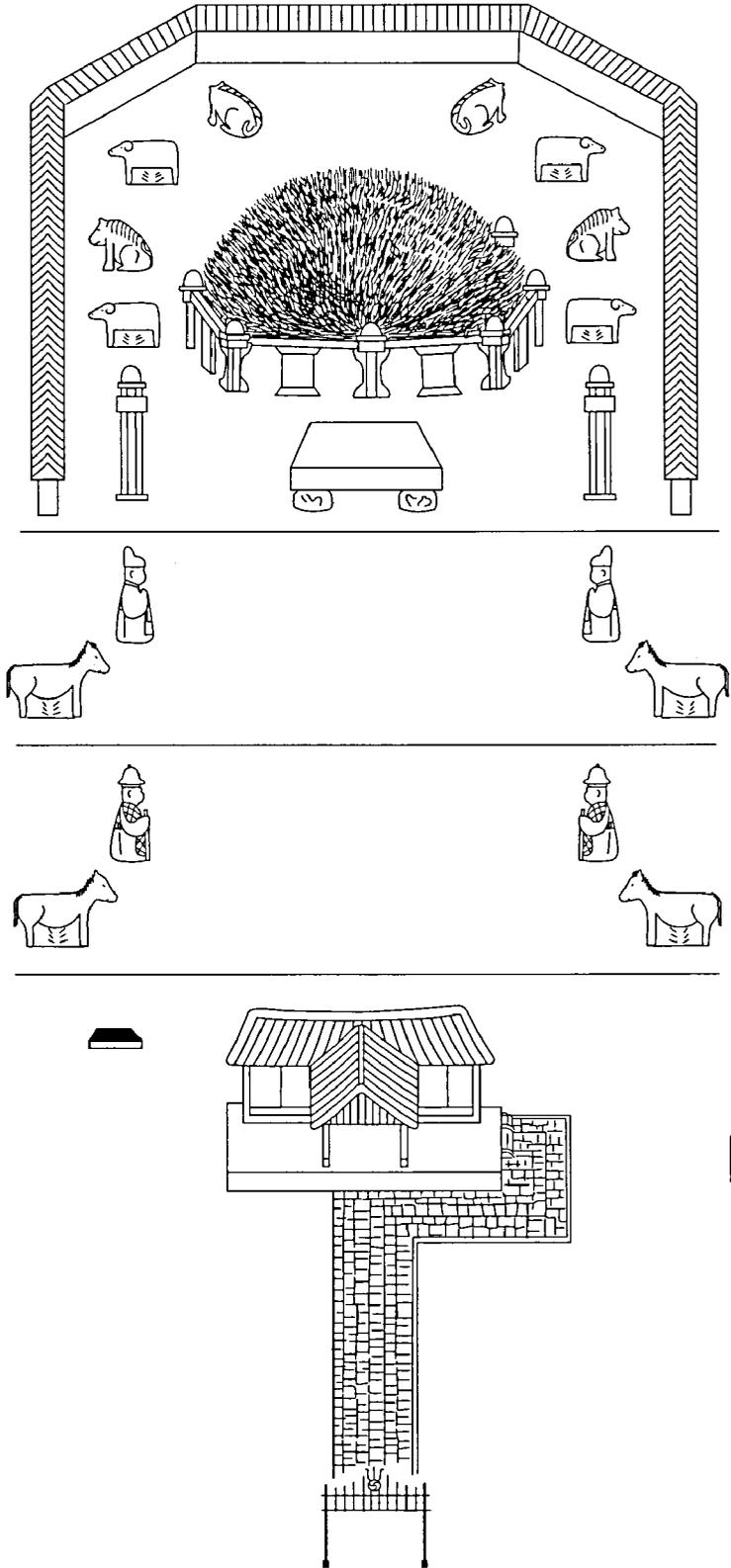
봉분은 쌍릉형식을 취하였으며, 호석은 왕비릉은 물론 왕릉에서도 생략되었다. 왕릉과 왕비릉을 함께 둘러싸고 있는 난간석이 예리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봉분 앞에 망주석이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상은 얼굴과 복색의 표현이 뚜렷하고 그 뒤에 깔려 있는 석마는 다리 사이를 막고 거기에 지초무늬를 새겼다.

6. 혜릉

조선 제20대왕 경종의 비 단의왕후(端懿王后 : 1686~1718)의 능이다.

단의왕후 본관은 청송으로, 청은부원군(淸恩府院君) 심호(沈浩)의 딸이다. 1696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경종이 즉위하기 2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

<그림 6> 혜릉 상설도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후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단의(端懿)이다.

부속유물 능력은 초라한 편이며, 1995년 12월에 홍살문과 정자각을 다시 세웠다. 정자각 신계(神階)의 소맷돌 측면에는 넓적한 구름무늬와 당초문이 장식되고 테두리 하단에는 태극장식이 돌아 있으며 정자각 옆에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석물의 규모는 동구릉의 석물 중 가장 왜소하다. 석마와 석양은 다리 사이를 막아 그 공간에 지초를 새겼으며 머리가 큰 석양은 등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사람 크기와 거의 같으며, 문인석은 점잖고 무인석은 험악한 인상을 준다. 망주석 역시 왜소한데 하대에는 연꽃무늬, 중대에는 안상, 상대에는 구름무늬와 안상을 교대로 배치하고 윗면을 연꽃잎무늬로 덮었다.

7. 원릉

조선 제21대왕 영조(英祖 : 1694~1776)와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 1745~1805)의 능이다.

영 조 영조의 재위연도는 1724~1776년까지이다. 이름은 금(吟)이며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이다. 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며, 계비는 김한구(金漢耆)의 딸 정순왕후이다.

1699년(숙종 25) 연잉군(延昞君)에 봉해졌다. 당시 소론은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경종)를 지지하고, 노론은 숙빈 최씨 소생의 왕자(영조)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721년 경종이 왕이 되었고, 정권을 잡은 소론은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신축옥사를 일으켰다. 다음해에 소론은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 명을 처형하고 관련자 170여 명도 유배 또는 치죄를 하는 대대적인 노론 축출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724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경종이 죽자 왕세자인 영조가 등극하였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소론에 보복을 가하려는 노론을 견제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 갔으며, 탕평정책을 펴 붕당의 폐해를 없애려 하였다. 그 뒤 영조는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의 기초를 다져 나갔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론 측 김한구·홍계희(洪啓禧) 등이 나경언(羅景彦)을 사주하여 사도세자의 행동을 고발하게 하여 1762년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영조 재위 때에 시행한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이다. 이 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숨겨진 탈세토지를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원릉(영조·정순왕후)

환곡분류법(還穀分留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서얼차대(庶孽差待)로 사회참여의 불균등에 의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서자도 관리로 등용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177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증보문헌비고』의 골간을 이룩하였다. 또한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간행하였다.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에서 가장 긴 52년 동안 재위에 있다가 1776년 83세로 죽었다. 처음에 올린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뒤에 영조로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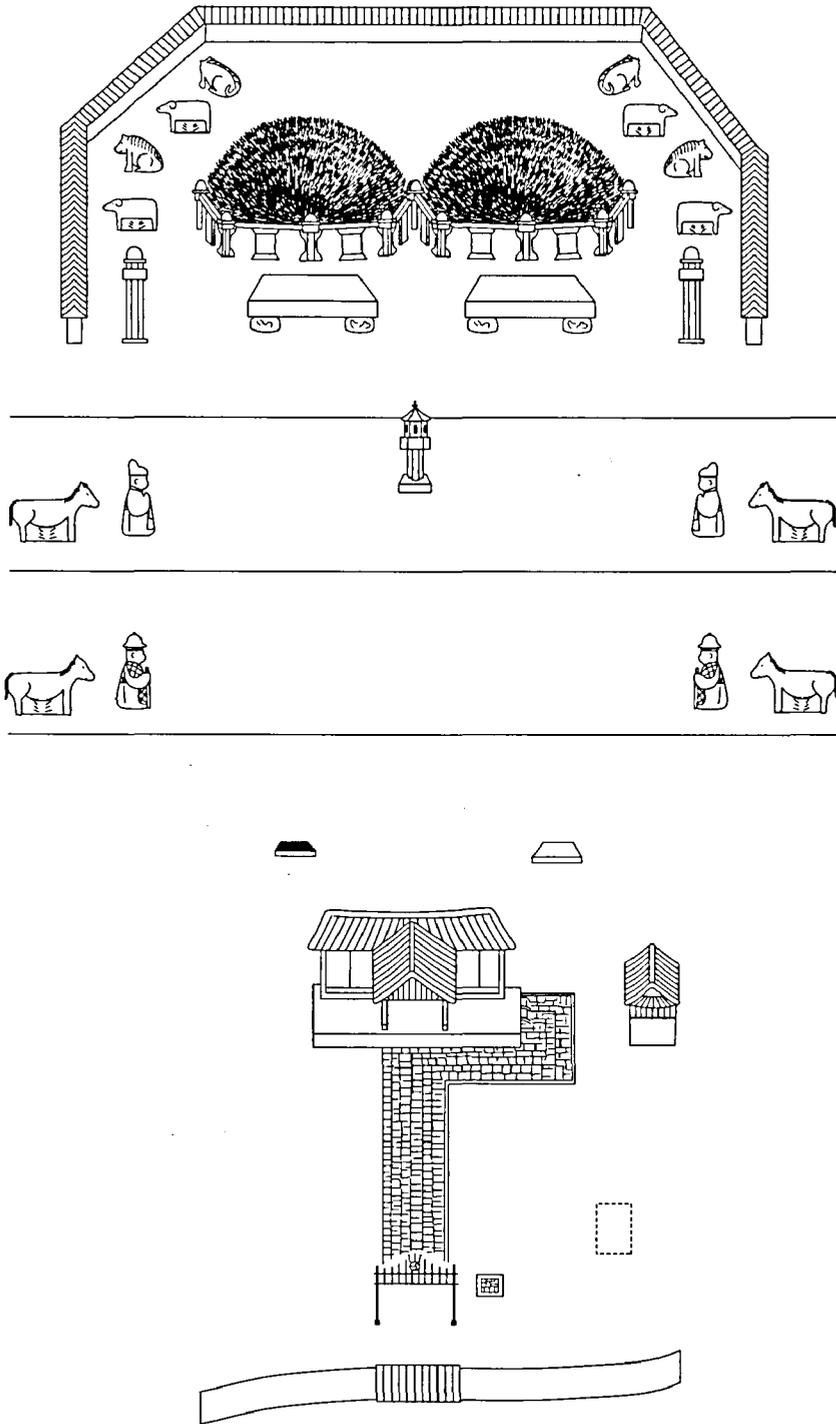
정순왕후 정순왕후의 본관은 경주(慶州)로 오흥부원군(愨興府院君) 김한구의 딸이다. 영조의 비 정성왕후가 죽자 1759년(영조 35) 왕비에 책봉되었다.

소생은 없었고 사도세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당쟁에서 세자를 동정하는 시파(時派)를 미워하고, 세자에 반대하는 벽파(僻派)를 옹호하였다. 정조가 죽고 어린 나이의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벽파와 결탁, 정치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시파를 모함하여 천주교에 대한 일대 금압령(신유사옥)을 내리기도 하였다. 시호는 정순(貞純)이다.

부속유물 원릉은 신로교를 건너 멀찌감치 서 있는 홍살문을 지나 신로를 통해 진입한다. 신로 우측에는 정면 3칸의 비각이 세워져 있고 정자각 주위에는 포석들이 넓게 덮여 있다. 정자각으로 오르는 돌계단의 소맷돌은 매우 크다.

봉분에 이르면 왕릉과 왕비의 능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고 양 능이 호석 없이 석난간만 돌려 있다. 혼유석은 왕과 왕비의 봉분 앞에 각각 하나씩 배치하였으나 장명등은 양 혼유석 앞의 한가운데에 하나만 세웠다. 봉분 주위의 석양과 석호는 매우 왜소하며 다리 사이는 막혀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 역시 규모가 작다. 문·무인석 뒤편의 석마에는 다리 사이를 막고 지초무늬를 새겨 넣었다. 능 후면에는 곡장이 세워져 있는데 담벼락에는 성좌무늬가 매우 촘촘히 박혀 있다.

<그림 7> 원릉 상설도





수릉(익종과 신정왕후의 합장릉)

8. 수릉

추존왕인 익종(翼宗 : 1809~1830)과 비 신정왕후(神貞王后 : 1808~1890)의 합장능이다.

익종 익종은 조선 제23대왕인 순조의 세자이다. 이름은 영(昞 : 원래의 음은 대이나 영으로 부르도록 정하였음),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현(敬軒)이다. 어머니는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로 김조순(金祖淳)의 딸이다. 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19년 조만영의 딸을 맞이하여 가례를 올렸다. 1827년 부왕인 순조의 명령으로 대리청정을 하였고 그 후 4년 만에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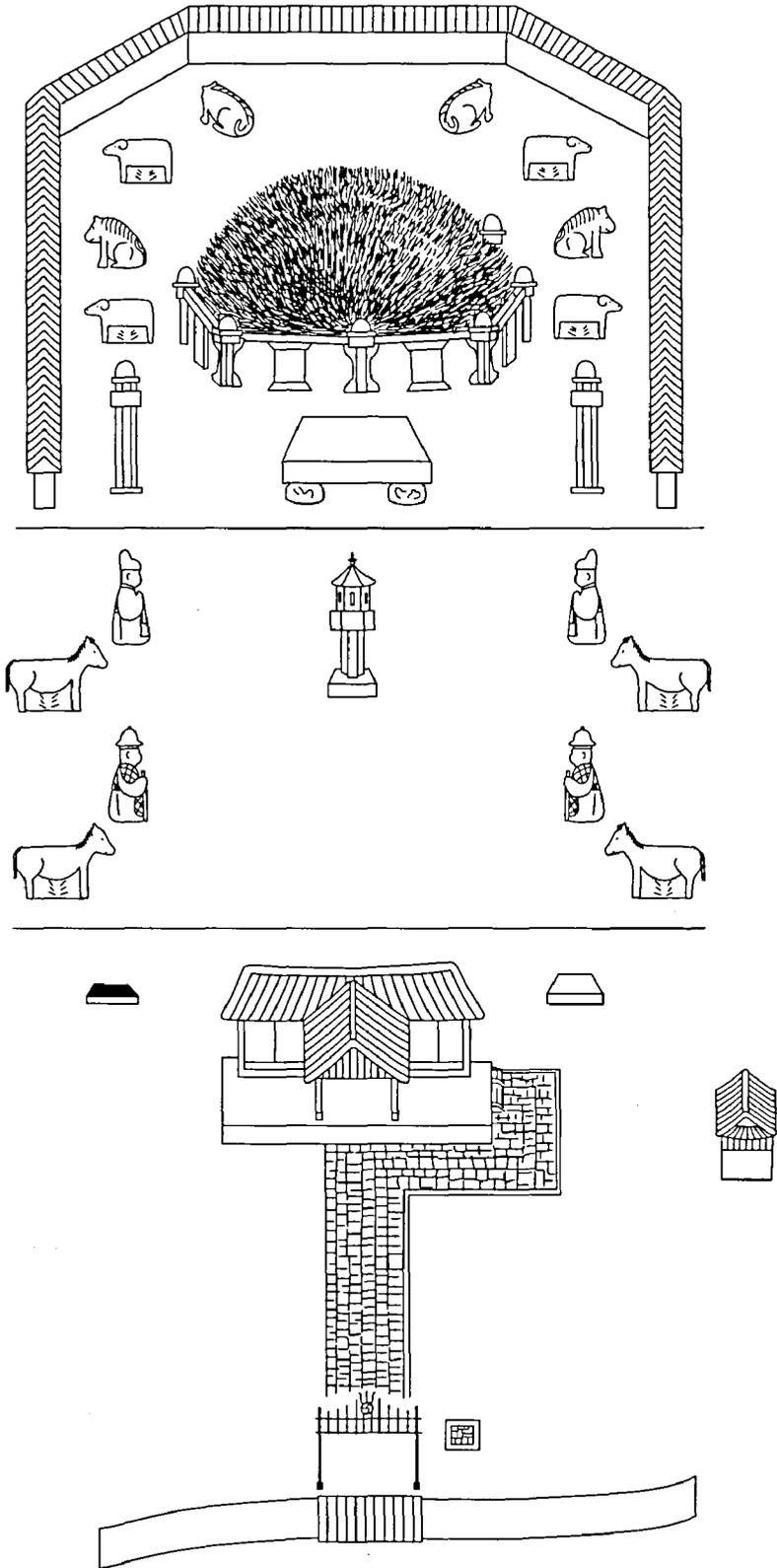
그의 아들 현종이 즉위한 뒤 왕으로 추존되어 익종이라 하였다. 묘호는 문호(文祜), 시호는 효명(孝明)이다.

신정왕후 신정왕후의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영돈녕부사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딸이다. 12세 때 익종비로 책봉되어 세자빈이 되었고 효부라는 칭송을 들었다. 1827년(순조 27) 현종을 낳았다.

1834년 현종이 왕위에 오르고 죽은 남편이 익종으로 추봉되자 왕대비로 되었으며, 1857년(철종 8) 순조비인 순원왕후가 죽자 대왕대비가 되었다. 철종이 재위 14년 만에 후사(後嗣) 없이 죽자 왕실의 권한은 대왕대비가 갖게 되었다. 그 전부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昞應) 및 조카인 조성하(趙成夏)와 손을 잡고 있었으므로 흥선군의 둘째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또한, 안동김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고종을 아들로 삼아 익종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리하여 내전에 고종의 옥좌를 마련하고 자신은 그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였다.

부속유물 수릉 초입은 신로에 올라 홍살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신로 주변

<그림 8> 수릉 상설도



에는 포석이 많이 깔려 있으며, 정자각으로 오르는 돌계단 소맷돌 측면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다. 정자각 우편에는 정면 2칸의 비각이 있다. 봉분 주위의 석물의 규모는 왜소하고 섬약하나 무늬의 장식은 세밀한 편이다. 망주석의 세호는 좌우의 방향이 상하행으로 되어 있는데 꼬리가 유난히 길다. 장명등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며 기단이 각대형이다. 이 능에서도 삼계(三階)의 층위는 이계(二階)로 줄어 문인석과 무인석은 한 단에 배열되어 있다. 문인석은 복두를 쓰는 대신 금관을 썼고 무인석의 투구는 매우 장식적이다.

9. 경릉

조선 제24대왕 헌종(憲宗 : 1827~1849)과 비 효현왕후(孝顯王后 : 1828~1843) 그리고 계비 효정황후(孝定皇后 : 1831~1903)의 능이다.

헌종 헌종의 재위기간은 1834년에서 1849년까지이다. 이름은 환(奂), 자는 문응(文應), 호는 원헌(元憲)이다. 순조의 손자로 익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조만영(趙萬永)의 딸 신정왕후이다. 1830년(순조 30) 왕세손에 책봉되고, 1834년 순조가 죽자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 : 순조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1837년(헌종 3) 3월 김조근(金祖根)의 딸을 왕비로 맞았으나 1843년에 죽자 이듬해 10월 홍재룡(洪在龍)의 딸을 계비로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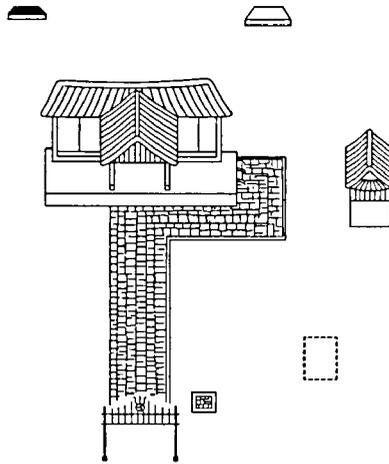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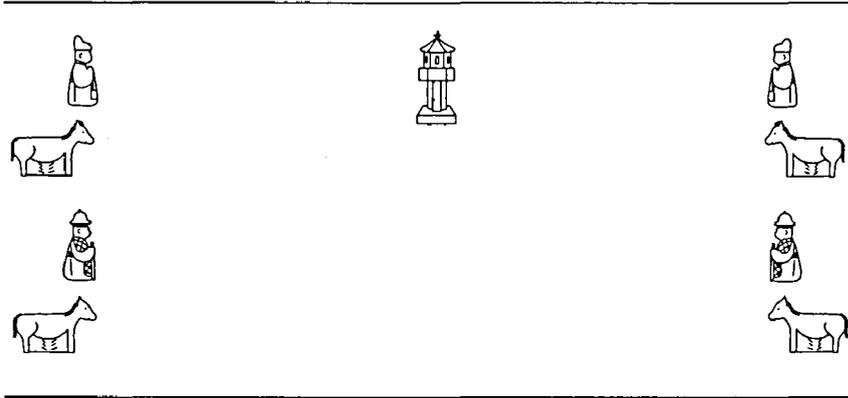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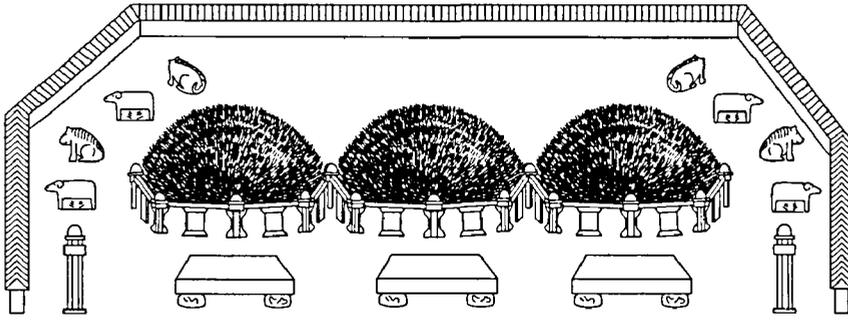
1841년 비로소 친정(親政)에 들어갔으나 조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고 과거제도와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삼정(三政)의 문란 등으로 국정이 혼란해졌다. 재위 15년 중 9년에 걸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민생고가 끊이지 않았다.

1848년부터는 많은 이양선(異樣船)이 나타나 민심이 흉흉하였다. 순조 때의 천주교 탄압정책을 이어받아 천주교인을 적발하기 위해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경릉(헌종·효현왕후·효정왕후)

<그림 9> 경릉 상설도



을 실시하였으며, 1846년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金大建)을 처형하였다. 1849년 23세로 후사 없이 죽었다.

효현왕후 효현왕후의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영돈녕부사 영흥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의 딸이다. 1837년(헌종 3) 왕비에 책봉되고, 4년 뒤에 가례(嘉禮)를 올렸다. 왕후가 된 지 2년 후인 1843년 병으로 죽었다.

효정왕후 효정왕후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판돈녕부사 익풍부원군(益豐府院君) 홍재룡의 딸이다. 1844년(헌종 10) 왕비가 되었고 1849년 철종이 즉위하자 대비가 되었으며, 1857년(철종 8)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가 죽자 왕대비가 되었다.

부속유물 경릉의 초입 역시 홍살문을 지나 신로가 이어져 있다. 판위는 넓고 홍살문 옆에 건물터가 있으며, 정자각 오른쪽에는 비각이 서 있다.

봉분으로 오르면 호석이 생략된 3개의 능 주위를 석난간이 하나로 에워싸고 있다. 혼유석은 각 봉분마다 하나씩 있으나, 장명등은 가운데에 하나만을 세웠다. 봉분 외곽의 곡장에는 성좌무늬가 횡렬 1조로 배열되어 있다.

석물의 위계는 3계 층단에서 2계 층단으로 줄어들고 문인석과 무인석이 단의 구별 없이 한 단에 배열되어 있다. 망주석의 세호는 형태가 뚜렷하며 좌우의 방향이 상하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장명등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며 기단의 하대가 각대형(脚臺形)을 이루고 중대석은 낮으며 상대석이 강조되었다.

제4절 선현 묘역

1. 명빈(明嬪) 김씨 묘

명빈은 조선 3대왕인 태종의 빈이다. 명빈 김씨는 본관은 안동이고 지돈녕부사 안정공 김구덕의 딸이다. 1411년(태종 11) 빈으로 책봉되어 성종대에 사망할 때까지 7대의 왕조를 거쳤다.

명빈 김씨 묘역의 소재지는 아차산 동록의 동사골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천동이다. 신중호 묘역에서 강변 쪽 도로로 내려오는 중에 있다. 명빈 묘역은 최근 국가지정 사적 제364호로 지정되어 단장을 새롭게 하였다.

묘는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사성(沙城 : 묘의 봉분 뒤에 둘러쌓여 있는 둔덕)은 없으며 새롭게 정비된 탓인지 봉분이 비교적 크게 쌓여 있다. 봉분 앞에는 비갓을 올린 묘비가 있으며 그 앞으로 상석과 향로석(香爐石)이 있으며 혼유석(봉분과 상석 사이에 있는 돌)은 없다. 상석 좌우로 댕돌이 있으며, 상석은 그 위에 놓여 있다. 그 앞쪽 양옆에 문인석(문신 모양의 돌)이 1쌍 있다.

묘갈은 후면에 성화(成化) 기해 10월이라고 새겨진 것으로 보아 서기 1479년(성종 10)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비 전면에는

明嬪金氏之墓
(명빈김씨지묘)



명빈 김씨 묘

라고 새겨져 있다.

2. 나만갑(羅萬甲) 묘 및 신도비

조선 중기에 형조참의 등의 관직을 지내고 사후 좌의정에 증직된 구포(鷗浦) 나만갑의 묘이다. 나만갑의 묘가 있는 안정 나씨 묘역은 사노동에 있다.

나만갑의 묘는 동남간을 향하고 있으며 부인 초계 정씨와의 합장묘로서 묘역의 맨 위에 있다. 봉분은 사성이 둘러싸고 있으며, 봉분 둘레에는 대나무 등을 새긴 호석이 둘러쳐져 있다. 봉분 바로 앞에 위가 둥그스름한 월두형의 묘비가 대좌 위에 놓여 있다. 월두형의 묘갈 앞에는 혼유석 2개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어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앞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그리고 상석 좌우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4개의 장대석이 단을 이루고 있다. 그 앞에 양옆으로 문인석이 2개 있으며 조금 더 벌어진 양옆으로 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가운데 맨 앞에 장명등이 있다. 석물 중 호석·망주석과 용관을 올린 비석·장명등은 근래의 후손이 세운 것이다.

묘비를 세운 연대는 숭정(崇禎) 계미라 새겨진 것으로 볼 때 1643년(인조 21)이며, 비 전면에는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嘉善大夫行刑曹參議
羅公萬甲之墓 貞敬夫人草溪鄭氏附左
(중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사감춘추관사가선대부행형조참의나공만
갑지묘 정경부인초계정씨부좌)

라는 명문이 있다.



나만갑 묘

나만갑 신도비는 묘역 아래편에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후손이 현재의 자리로 이전해 온 것이다. 신도비의 건립연대는 1659년(효종 10)으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찬하고, 조선시대 명필로 알려진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썼으며,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 전액(篆額 : 비석의 제목을 한문글씨체의 하나인 전서체로 쓰는 것)을 했다. 비석은 대좌 위에 놓여 있으며 비몸 위에 가침석(지붕 모양의 돌)을 얹었다. 비석 대좌는 4면에 안상문(眼象文)을 조각하였고 그 위에 두 겹의 연꽃을 새겼다. 비석의 재질은 대리석이다. 글씨의 보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몇 글자가 상실되었다. 최근에 비각이 세워졌다.

3. 나성두(羅星斗) 묘

나만갑의 아들이자 조선 중기 해주목사를 지낸 기주(棋洲) 나성두의 묘이다. 나성두 묘는 안정 나씨 묘역에서 아들인 나양좌의 묘 바로 밑에 위치해 있으며, 부인인 경주 김씨와의 합장묘이다. 이장할 때 묘 조성 당시의 석물을 모두 옮겨왔다.

봉분 뒤에 사성이라고 볼 수 없는 낮은 턱이 있고 봉분에는 호석이 둘러쳐져 있다. 봉분 앞의 묘갈의 형태는 위로 올라갈수록 비몸이 넓어지며, 위에는 팔작지붕 모양의 돌을 얹었다. 비석 대좌에는 별다른 조각이 새겨 있지 않다.

묘갈 앞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나란히 놓여 있다. 상석 좌우로 장대석이 단을 이루었는데, 상석은 북돌(상석을 받치고 있는 북처럼 생긴 돌)은 없이 앞쪽은 걸방석이 뒤쪽은 댕돌이 받치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앞쪽에는 장명등이 있다. 장명등의 형태는 다른 묘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각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8각을 이루고 있으며, 갈기가 서로 연결되어 마주보고 있는 사자가 앞발로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묘 양면으로 금관조복 차림의 문인석이 1쌍 있고, 그 조금 앞편으로 간격을 벌려 망주석이 1쌍 놓여 있다. 이 중 호석과 망주석은 최근의 석물이다.

봉분 앞에 있는 묘비의 건립연대는 1684년(숙종 10)이며 비석의 전면에는

有明海州牧使羅公星斗之墓 淑人慶州金氏附左
(유명해주목사나공성두지묘 숙인경주김씨부좌)

라는 명문이 있으며, 비의 양옆과 뒷면에도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나성두 신도비는 나만갑 신도비 왼편에 있다. 나성두 신도비는 1709년(숙종 35) 8월에 세워졌는데,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짓고 윤추(尹推)가 썼으며 문곡 김수항이 전액을 하였다. 신도비는 대좌 위에 비몸이 있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가침석이 올려져 있다. 비문은 비석 사면에 모두 새겨져 있고 글씨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남양 홍씨 묘역

4. 흥응(洪應) 묘

조선 중기 의정부 좌의정을 지낸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 충정공(忠貞公) 흥응(1428~1492)의 묘이다. 아천동 아치울의 오른쪽 능선 남양 홍씨 묘역에 있다.

묘는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사성과 호석은 없다. 봉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비석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다. 혼유석은 안 보이며 상석 좌우로 장대석으로 쌓은 단이 있다. 상석은 받침돌 없이 그냥 댓돌 위에 얹혀 있고 향로석은 없다. 그 앞 양 옆으로 문인석 2개가 묘단의 양끝에 세워져 있다.

봉분 앞의 묘비의 전면에는

左議政益城府院君贈諡忠貞公洪公之墓

(좌의정익성부원군증시충정공홍공지묘)

라는 글씨가 있으며 비석을 세운 연대는 새겨 있지 않다.

묘 오른쪽 앞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흥응 신도비는 예조참의 이숙함이 글을 짓고 동생인 홍흥(洪興)이 글을 쓰고 전액을 했다. 신도비는 비몸에 용을 새긴 돌을 올렸다. 비석을 받치고 있는 대좌에는 별다른 문양이 새겨 있지 않다. 비를 세운 연대는 1492년이다.

5. 홍상(洪常) 묘

조선 세조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인 덕종의 부마이며 충정공 흥응의 아들인 당양군(唐陽君) 홍상(1457~1513)의 묘이다. 남양 홍씨 묘역에서 어머니인

정경부인 이씨 묘 바로 아래에 있다.

묘는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봉분 바로 앞에 묘비가 있다. 그 앞에는 혼유석과 향로석 없이 상석만 있다. 상석 좌우로는 7개의 장대석으로 단이 쌓여 있고, 상석은 가운데 장대석의 끝선이 맞추어 놓여 있다.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다. 장명등은 전체 형태가 4각형으로 되어 있고, 각 면에 연화문(蓮華文)과 안상문 등이 새겨져 있으며,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이 올려져 있다. 그리고 묘 양옆으로 금관 조복을 입은, 정교하게 조각된 문인석이 1쌍 놓여 있다.

봉분의 묘비 전면에는

綏祿大夫唐陽君贈諡昭夷洪公之墓
(수록대부당양군증익소이홍공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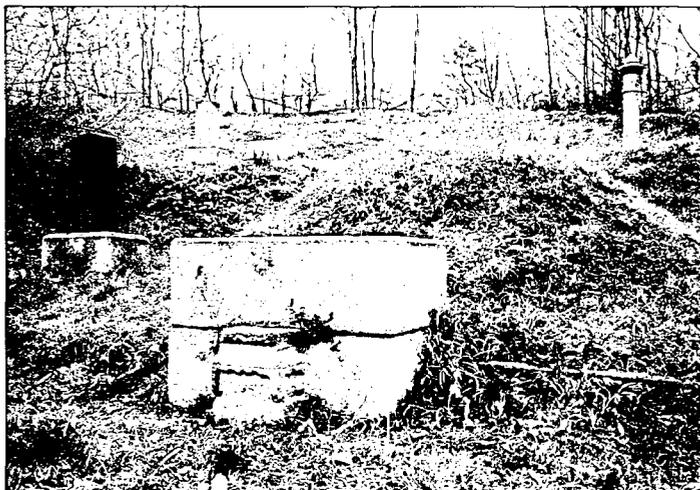
라는 명문이 있으며 건립연대는 1513년이다.

홍상의 신도비는 오른쪽의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 성균관사성지제교(成均館司成知製敎) 이행(李衍)이 글을 짓고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김희수(金希壽)가 글을 썼다. 신도비 위에는 용을 새긴 돌이 올려져 있으며 대좌에는 연화문과 안상문이 새겨 있다. 건립연대는 1514년(중종 9)이다.

6. 범경문(范慶文) 묘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서 검암산인이라는 호로 이름을 남겼던 범경문의 묘이다. 금성 범씨 묘역은 인창동 최춘말 뒷구릉에 있다. 범경문의 묘는 부인인 김해 김씨와의 합장묘이며, 묘역 제일 오른쪽 밑에 동남간을 향하고 있다.

봉분 좌측에 묘비가 대좌 위에 있고 봉분 앞에 혼유석, 상석, 상석받침과 일체



범경문 묘

인 향로석이 놓여 있다. 묘비를 세운 연대는 1828년(순조 28)이며, 비문은 아들인 범윤철이 짓고 박희연이 썼다. 비의 전면에는

贈工曹參判行同知中樞府事羅州范公諱慶文墓 贈貞夫人金海金氏祔右
(증공조참판행동지중추부사라주범공휘경문묘 증정부인김해김씨부우)

라는 명문이 있다.

7. 신종호(申從獲) 묘

신숙주의 손자이자 아차산인 신잠의 아버지이며, 조선 전기 도승지 이조참판 동지춘추관사 등을 역임한 삼괴당(三魁堂) 신종호의 묘이다. 묘역은 교문동 동사 골에 있고 부인인 전주 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묘는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봉분 측후방으로 큼직한 사성이 있다. 봉분에는 대나무·난초 등을 새긴 호석이 둘러쳐져 있다. 봉분 앞에는 묘비가 대좌 위에 놓여 있다. 묘비는 별다른 문양은 없고 마모가 심한 편이다.

묘비 앞에는 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다. 혼유석은 같은 크기의 돌을 좌우로 두 개 놓았고, 상석은 같은 폭의 곁방석 위에 정방형의 받침석이 네 개 있고, 그 위에 놓여 있다. 상석 앞에 있는 향로석은 최근의 석물이며 상석과 향로석 사이에 좌우로 댓돌이 있다. 그 앞으로 팔작지붕형의 지붕돌을 올린 키가 작은 장명등이 놓여 있다. 장명등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옥개석은 팔작지붕 모양을 하고 있다. 무덤 양편으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상석 우측에는 최근에 세운 묘비가 있다.

봉분 바로 앞의 묘비는 1541년(중종 36) 여름에 세운 것이다. 비석의 전면에는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世子右副賓客申公 貞夫人李氏 合葬之墓
(가선대부예조참판겸동지경연춘추관사예문관제학세자우부빈객신공 정부인이씨 합장묘)

라는 명문이 있다. 상석 우측에 있는 묘비는 후손이 1987년에 세운 것이다.

8. 이민수(李敏樹) 묘

조선시대 전주부윤(全州府尹)을 지낸 이민수의 묘이다. 이민수의 묘가 있는

전주 이씨 묘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천동이고, 312번 국도를 따라서 구리시 쪽으로 오다가 좌측에 있는 아치울로 들어오면 좌측의 응달말의 산 능선에 있다. 묘역에는 묘소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다. 이민수 묘는 묘역의 오른쪽 제일 위에 있다. 묘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부인인 풍산 김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뒤에는 사성이 쌓여져 있고 호석은 없다. 봉분 앞에는 월두형의 묘비가 대좌 위에 있고 그 앞으로 혼유석, 상석 그리고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은 6각형이며, 상석은 좌우 각각 3개씩 놓인 뗏돌과 끝선이 맞추어 놓여 있다. 특징적인 것은 향로석 양옆에 1쌍의 동자석이 있다는 것이다. 동자석 좌우로 망주석이 있으며, 망주석 앞에 두께가 두꺼운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 앞의 묘비는 건립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운 때를 알 수 없지만 근래의 것은 아니다. 묘비 전면에는

通政大夫守全州府尹李公敏樹之墓 貞夫人豊山金氏祔右
(통정대부수전주부윤이공민수지묘 정부인풍산김씨부우)

라는 명문이 있다.

9. 이정빈(李廷賓) 묘

조선 중기 이조좌랑 등을 지냈으며 사후 의정부 영의정에 증직된 이정빈의 묘이다. 이정빈은 임진왜란중 전사했는데 묘는 신발을 안장한 가묘이다. 부인인 청주 한씨와의 합장묘이다.

묘는 북동향을 하고 있으며 봉분 뒤에는 사성이 쌓여 있다. 봉분 앞에 월두형의 묘비가 연꽃문양을 새긴 대좌 위에 있으며 그 앞으로 혼유석과 상석 그리고 6각형의 향로석이 있다. 상석 좌우로 약 30cm 높이의 높은 뗏돌이 각각 3개씩 놓여 있고, 상석은 이 뗏돌에 끝선을 맞추어 놓여 있다. 뗏돌 양끝에 망주석이 놓여 있으며 그 앞쪽에 문인석이 있다. 이상의 석물들은 분묘 조성 당시의 것이다.

봉분 앞의 묘비는 마모가 심해 세운 연도는 알 수 없다. 묘비 전면에는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
師傅行奉訓郎吏曹佐郎知製教李公之墓 貞夫人淸州韓氏之墓
(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상감사세자사부행
봉훈랑이조좌랑지제교이공지묘 정부인청주한씨지묘)

라는 명문이 있다. 묘비 옆에는 1984년 후손들이 세운 신도비가 있다.

10. 채유후(蔡裕後) 묘

조선 중기 대제학·예조판서 등을 지내고 사후 좌찬성에 증직된 호주(湖洲) 채유후의 묘이다. 평강 채씨 묘역은 동구동 안말에 있으며 안정 나씨 묘역과 인접한 곳에 있다. 묘는 부인인 파평 윤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뒤로 사성이 있으며 봉분에 호석이 둘러쳐져 있다. 봉분 앞으로 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고 좌측으로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하나는 분묘 조성 당시의 것으로 보이며 그 우측에 1988년 후손들이 세운 비석이 있다. 상석 앞쪽은 북돌이 받치고 있고 뒤쪽은 최근 놓은 높다란 댓돌 위에 걸쳐 있다. 상석 왼쪽으로는 비석 없는 대좌가 있으며 상석 앞쪽에 장명등이 있다. 또한 양옆으로 문인석과 망주석이 1쌍씩 놓여 있다. 석물 중에서 봉분 왼쪽의 비석 받침돌과 오른쪽에 개석을 올린 비석 그리고 상석·향로석·문인석·망주석 등은 묘 조성 당시의 것이다.

작은 묘비의 비문은 알아볼 수 없다. 묘역에서 왼쪽 앞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1959년 후손들이 세운 신도비가 있다.

11. 송순(宋諱) 묘

조선시대 의정부좌참찬 등을 지낸 의령군(義寧君) 송순의 묘이다. 송순의 묘는 교문동 박촌 옆에 이문안의 낮은 구릉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교문동이다. 송순 묘소의 주위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와 상석만 있는 폐묘가 산재해 있다. 묘는 부인인 밀양 박씨와의 합장묘이며 동남간을 향하고 있다.

봉분 바로 앞에 위가 등근 묘비가 대좌 위에 놓여 있다. 대좌는 분묘 조성 당시의 것이지만 비는 근래의 것이다. 그 앞으로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있다. 상석은 북돌이 따로 없이 좌우로 있는 댓돌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봉분 조금 앞 양옆에 망주석과 금관조복을 입은 문인석이 1쌍씩 있다. 묘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석물은 묘 조성 당시의 것이다.

묘갈은 원래 1616년(광해군 8) 4월에 세워졌으나 현재의 것은 1978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묘 전면에는

奮忠秉義決幾亨難功臣政憲大夫議政府左參贊義寧君宋諱之墓

貞夫人密陽朴氏附左

(분충병의결기형난공신정헌대부의정부좌참찬의령군송순지묘 정부인밀양박씨부좌)

라고 새겨 있다.



효빈 김씨 묘

12. 효빈(孝嬪) 김씨 묘

효빈 김씨는 조선 3대왕인 태종의 빈으로 경령군(敬寧君) 이비(李裊)의 생모이다. 묘의 소재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교문동이며, 아차산 기슭에 있고 묘역 전체는 남방을 향하고 있다. 묘역에는 모두 3기의 묘가 있는데 맨 위에 효빈 김씨의 묘가 있고, 높다란 단 오른쪽 아래로 경령군의 아들인 오성군(梧城君) 이치(李祘)와 부인 팔계 정씨의 쌍분이 있다.

석물들은 다른 묘에 비해 형식이 특이하고 옛것이 많으나 마모가 심한 편이며 묘비는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상석에 ‘효빈김씨지묘(孝嬪金氏之墓)’라고 새겨 있고 혼유석·상석·향로석은 최근의 석물이다. 봉분 오른쪽에는 비갓을 씌운 비석이 있는데 이 역시 최근에 세운 것이다. 비 전면에 ‘조선국효빈김씨지묘’라고 새겨 있으며, 후면에는 효빈 김씨에 대한 가계 등의 내용이 새겨 있다. 그리고 뗏돌의 양끝 앞에 망주석이 1쌍 세워져 있으며 그 앞에 문인석이 놓여 있다. 망주석은 최근에 세운 것이고 문인석은 묘 조성 당시의 것인데 마모가 심하다. 문인석 사이에 다시 뗏돌이 놓여 있다. 봉분의 1자형의 호석과 문인석 그리고 일부를 제외한 뗏돌은 옛 석물이다.

오성군은 효빈 김씨의 손자로서 맏아들 경령군의 세번째 아들이다. 오성군의 묘소는 효빈 김씨의 묘소에서 높다란 단을 내려와 약간 오른쪽에 있다. 부인인 팔계 정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으며, 효빈 김씨의 묘와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하고 있다.

묘 조성 당시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비석이 3개 있으나 모두 마모가 심해 판독하기는 어렵다. 봉분 뒤쪽에 쌍분을 모두 포괄할 정도의 사성이 있다. 양 봉분은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편이며 장대석과 상석이 각각 따로 놓여 있다. 호석과 봉분 사이의 비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석물은 묘 조성 당시의 것이다.

제5절 북메우기

1. 북의 연원과 우리나라의 북 역사

북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나 추수 후 벌이는 잔치에서 나무통을 두드리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가 차츰 가죽을 이용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북은 신성한 하늘의 소리로 인식되었으며, 제사·음악 등의 행사를 비롯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종교나 신앙에서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불교에서는 절에서 치는 큰북 소리를 중생들을 일깨우는 부처의 소리로 인식하였고, 힌두교에서는 창조의 소리를 들려주는 매체로서 북을 사용하였다. 한편 시베리아 샤먼들은 북이 신성한 힘을 주는 정령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북을 사용했다. 고구려 안악3호 고분벽화 주악도(奏樂圖)와 행렬도(行列圖)에는 각각 입고(立鼓)와 담고(擔鼓)라는 북이 그려져 있다. 백제 때 역시 북·공후 등의 악기가 있었다. 중국의 역사책인 『수서(隋書)』에도 고구려·백제의 북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세 가지 현악기와 세 가지 관악기인 삼현삼죽(三玄三竹) 음악에 대고(大鼓)를 함께 사용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장구, 교방고, 진고, 입고 등이 궁중음악에 쓰였으며 이 밖에도 진고, 입고, 비고 등으로 불린 많은 종류의 북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중앙과 지방관서에 풍물장(風物匠)이라는 악기 만드는 장인을 두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군기시(軍器寺)에는 군사적인 목적의 북을 만드는 고장(鼓匠)이 있었다. 따라서 사용된 북 또한 다양하였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뇌고(雷鼓), 뇌도(雷鼗), 영고(靈鼓), 영도(靈鼗), 노고(路鼓), 노도(路鼗), 토고(土鼓) 등이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장구가 민간음악에 사용되었으며, 농악의 발달과 무용의 다양화로 소고나 소북 종류가 성행하여 근래에까지 이르고 있다.

2. 전통북의 종류

전통북은 종묘제례, 궁중의례, 일반서민들의 농악, 군대, 종교 등 그 쓰임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주로 종묘의 제례악에 사용되는 것으로 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장구·갈고·교장북 등이 있으며, 건고(建鼓)·삭

고(朔鼓)·응고(應鼓)·조고(兆鼓)·교방고(教坊鼓)·절고(節鼓)·진고(晉鼓)
·좌고(座鼓)·용고(龍鼓)·중고(中鼓) 등은 궁중의례에 사용되었다.

농악 및 무용에 쓰였던 것으로는 줄북(매구북), 송무북(춤북)이 있으며 관청에서 또는 군사적 용도로 담고·현고(縣鼓)·마상고(馬上鼓)·개고(揩鼓)·요고(腰鼓) 등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오늘날까지 가장 흔히 쓰는 것으로 불교의식에 쓰이는 법고(法鼓), 사당패나 선소리꾼이 소리하며 치는 소고(小鼓), 판소리 장단에 쓰이는 소리북, 농악에 사용되는 썰기북 등이 있다. 이 중 주요 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건 고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평양역전 2실분의 전실 남쪽 벽에 그려져 있다. 밑받침대 발에서부터 꼭대기 상로까지의 높이가 4m를 훨씬 넘어 우리나라 북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

고장북 판소리 북장단 칠 때 쓰이는 북으로 판소리, 고사(告祀)소리, 독경소리의 반주에도 사용되어 소리북이라고도 한다. 조선 말기에 그려진 여러 판소리 도에서 소리북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수는 소리꾼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고 왼손으로 북을 친다. 직경이 1자 2치이며 길이는 8치 정도이다.

교방고 교방에서 사용하던 북이다. 교방은 궁중에서 무용을 하는 기악녀들이 거주하거나 무용연습을 하는 곳이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쓰여온 것으로 추정되며 북을 칠 때는 네 발 달린 틀 위에 뉘어 놓고 원무 4명이 두 손에 북채를 들고 북을 끼고 돌며 위에서 내리친다.

노 고 통이 긴 북 2개를 겹쳐 틀에 매단 것으로 왕실의 제례 때 사용된다. 현재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악학궤범』을 보고 1930년에 제작한 것으로 북통이 비교적 긴 큰북 2개를 서로 엇갈리게 나무자루에 꿰어 달았다.

진 고 종묘제향 등의 의례나 그 밖에 연주에 사용되는 북 중 큰북에 속한다. 중국 고대악기로서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뇌 고 의례 때 댓돌 아랫마당에 설치하는 악기로 진고와 함께 음악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친다. 근래에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북통의 한 쪽에만 가죽을 댄 원추형의 작은북 6개를 둥근 모양으로 모아 북틀에 매달아 놓았다. 북면이 6면인 것은 제천의식의 강신악(降神樂)이 곡을 6번 반복하기 때문이며, 6면 중 실제로 치는 곳은 한 면이다.

담 고 고구려 안악3호 고분벽화와 덕흥리, 수산리, 약수리 등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다. 보통 두 사람이 메고 한 사람이 치는 북으로 행렬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도고 자루 끝에 매단 작은북으로 북통 좌우에 구슬 같은 것을 하나씩 끈으로 매달아 흔들면 그 구슬이 북을 치도록 고안되었다. 고구려 안악3호 고분과 약수리 고분벽화의 행렬도에서 볼 수 있다.

미상고 군대를 위한 북으로 고구려 안악3호 고분벽화의 행렬도에서 볼 수 있다. 이름 그대로 말 위에서 치는 북이며, 북통의 배가 매우 부르다. 밑에 작은 원통형의 북이 말안장과 연결되어 있어 고수가 양손에 북채를 들고 칠 수 있도록 했다.

법고 불교에서는 범종, 목어, 운판, 대고 등 4가지의 악기를 쓰는데 이 중 대고가 법고이다. 사찰의 법당이나 누각에 쓰이는 초대형부터 법고춤, 법무(法舞), 염불의 반주에 쓰이는 대형, 중형 등 다양한 크기의 북이 있다. 불교에서는 북소리를 부처의 기르침이 울리는 것이라고 하여 북을 치는 행위를 중생을 깨우쳐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삭고 향연 등을 벌일 때 주악에 사용하는 것으로 12세기 초인 고려 예종 때 중국에서 들어왔다. 조선 세종 때 많이 제작되어 사용하였다. 긴 북통에 고리를 박고 나무틀에 매달았으며 북면이 양쪽에 있으나 한 면만 친다. 윗부분에 새장식이 있으며 삭고에는 해를 그리고 흰 색을 칠하여 낮을 상징하며, 응고에는 달을 그리고 붉은 색을 칠하여 밤을 나타낸다.

승무북 절에서 사용하는 것을 법고라고 하고 일반 춤꾼들이 쓰는 것을 승무북이라고 한다. 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크기가 작다.

영고 8개의 북을 모아 나무틀에 매달았다. 영고가 8명인 것은 지신(地神)제사의 강신악이 같은 곡을 8번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도 보통 북과 다르게 작은북을 나무자루로 꿰뚫고 북통에는 양쪽에 고리가 있어 그 귀에 가죽끈을 달아 두 손으로 나무자루를 잡고 흔들면 두 귀의 가죽끈이 스스로 북면을 때려 소리가 난다. 영도는 음악을 시작할 때 3번 흔들어 악작(樂作)을 신호할 때 쓴다.

용고 태평소, 나팔, 징, 자바라, 나각 등과 함께 행진악에서 사용하는 북이다. 북통에 단청으로 용이 그려져 있으며, 양면에 고리를 달아 여기에 끈을 매어 어깨에 걸고 양손에 북채를 쥐고 가죽면을 위로 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 용고는 초립을 쓰고 황괘자(黃掛子)를 입고 남띠를 두르며 행전에 미투리를 신고 손에 짧은 흰 한삼(汗衫)을 꺼 양손에 든 2개의 북채로 내리친다.

장 구 전통음악에서 당악·종묘제례악·삼현육각·줄풍류·취타·산조·가곡·가사·시조·잡가·민요·무악·농악 등에 모두 사용된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장구는 그 모양이 지금과 달리 장구면이 매우 좁고 뾰족하게 나왔다. 오른쪽에 쓰는 가죽은 채편이라 부르고 왼쪽은 북편이라고 하는데, 채편은 대나무로 만든 가는 채로 치고 북편은 손바닥이나 방망이로 친다. 양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쌍, 채로 채편만 치는 것을 편, 왼손으로 북편만 치는 것을 고, 채로 잠시 치고 굴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요라고 한다.

절 고 문묘제향악과 종묘제향악의 등가(登歌)에 편성된 북이다. 북통을 올려 놓는 4각의 대 중앙에 홈을 파고 그 구멍에 북통의 한 모서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북면은 비스듬히 위를 향한다. 『악학궤범』을 보면 “당나라 이후부터 아악에 쓰여 등가의 시작과 끝에 쓰일 뿐만 아니라 연극중에도 간간히 친다”고 적혀 있다.

좌 고 김홍도의 무악도(舞樂圖)에 보이는 작은북을 좌고로 보기도 하는데 삼현육각에 편성되어 사용된다. 좌고는 춤의 반주뿐만 아니라 관악협주나 합악(合樂)에 사용하지만 현악에는 쓰지 않는다. 좌고의 양쪽면 지름은 1척 7촌이며 북통의 넓이는 7촌으로 북통의 상하 좌우에 3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꼭대기에 해모양을 새겨 붙인 4각의 긴 틀에 3개의 걸쇠가 있어 북고리를 건다. 채 하나로 북의 한쪽만을 치는데 흔히 장구의 북편가락과 비슷하게 친다.

줄 북 농악에 쓰여 농악북이라고도 하며 매구북, 췌기북으로 불리기도 한다. 광목이나 베로 만든 끈을 묶어 어깨에 매고 왼손으로 북을 잡고 오른손으로 북채를 들고 친다. 작은 것은 벽구라고 부르며 얇고 매우 작아 농악대에서 소고잡이가 들고 친다.

3. 전통북의 재료와 제작공구

북을 만드는 주재료는 북에 씌우는 가죽과 몸체인 북통을 만드는 나무이며 이러한 재료와 함께 여러 가지 제작공구가 필요하다.

가죽 북에 씌우는 가죽은 소가죽·말가죽·개가죽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3~5년생 황소가죽과 말가죽이 가장 좋다. 암소가죽은 얇고 작은 편이어서 고음을 필요로 하는 악기에 사용하며, 황소가죽은 엉덩이·배·목 등 부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뱃가죽은 연한 편이라 높은 소리에 어울려 승무북에 쓰이며 장구의 채편에 사용하기도 한다. 가죽이 질기고 두꺼운 한우의 목덜미가죽은 큰북에 쓴다. 말가죽은 얇고 소리가 높아 북의 수명이 소가죽보다 짧으며, 개가죽은 주로 장구를 만들 때 사용한다.

나무 북의 몸체인 북통은 주로 나무로 만들지만 가끔 양철판이나 청동 또는 사기로 만들기도 한다.

나무는 대부분 15년에서 20년이 넘은 것을 이용하는데, 주로 피나무·소나무·오동나무·미루나무 등이 쓰인다. 큰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3그루가 필요 한데 생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려서 사용한다. 북이 크고 작품성이 높은 것은 대부분 춘양목으로 만든다. 춘양목은 잘 트지 않고 갈라지지 않아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가죽 다루는 공구 가죽을 다룰 때는 회통·쟁판·걸고리·무디·받침대·장두칼·가죽대패·작기 등을 사용한다.

회통은 회와 닭똥을 오줌과 섞는 통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나무통을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플라스틱을 쓴다. 쟁판은 사방 2m 정도의 넓이로 된 판으로 그 위에 생소가죽을 말린다. 걸고리는 가죽을 쟁판에 걸 때 사용하는데 소나무 판자 위에 녹슬지 않은 걸고리를 걸어 집게를 집어 건다. 무디는 가죽의 털을 제거하는 것으로 북제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공구이다. 털을 제거할 때 밑에 받치고 털을 밀어낼 때에는 받침대를 사용한다. 장두칼은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가 반달 형태로 만들어졌다. 가죽을 미는 가죽대패는 나무 깎는 대패와 달리 옆으로 넓적한 것이 특징이며 양쪽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민다. 대패날은 일반 대패와는 다르게 강철의 큰 톱날을 쓰며 가죽을 자를 때에는 연장칼을 사용한다. 작기는 북 양편의 공판 가죽을 씌울 때 가죽을 늘이는 데 쓰인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공구가 기계화되었으며, 가죽은 모두 공장에서 손질된 것을 구입해 쓰기 때문에 가죽 다루는 공구가 대부분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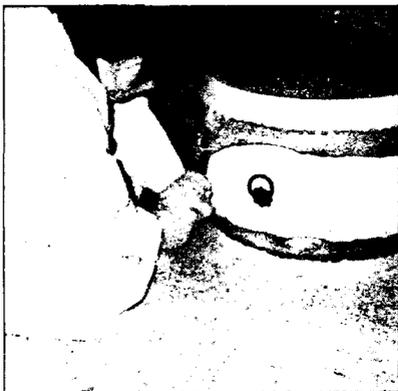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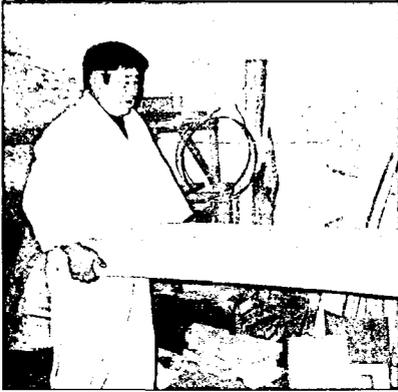
북통 만드는 공구 북통을 만들 때는 주로 나무를 다루는 공구인 톱·대패·자귀·칼 등을 사용한다.

톱은 나무를 자르는 톱과 판자를 켜는 톱, 세부조각을 자르는 줄톱이 있다. 대패는 북통의 표면을 훑어내는 것과 안을 깎아내는 대패, 장두칼처럼 생겨서 통의 양끝을 훑어내는 대패 등이 있다. 자귀는 쪽편 밑부분을 다듬거나 표면을 반듯하게 쪼아내는 데 사용하며 칼은 가죽을 자르거나 북통을 깎아낼 때 쓰는 것으로 등근칼·작두칼·연장칼 등이 있다.

4. 전통북 제작순서

북을 만드는 공예기술을 북메우기라고 한다.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북통에 씌우는 일을 말하는데 이것이 북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북 만드는 일 전체를 일컬어 ‘북메우기’라고 한다.

북 제작순서



북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가죽 다루는 일과 북통 만드는 일로 구분되는데, 다음에서 일반적인 북 제작순서를 살펴보겠다.

1) 가죽다루기

털을 뺀 가죽을 3일 정도 물에 담가 두고 불린 후 가죽을 장대 위에 걸쳐 놓고 장두칼로 소털을 제거하면 하얀 가죽바탕이 나온다. 이것을 시냇물에 2일 정도 담가 두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햇볕에 하루반 동안 말린다.

2) 북통짜기

북에는 원통북(통통)과 쪽북(쪽통)이 있다. 원통북은 통나무 속을 파내서 나무 원통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고, 쪽북은 나무쪽을 조각조각 다듬어 붙여 북통을 만든 것이다. 장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북은 모두 쪽통으로 제작되는데, 쪽통은 소리가 새고 정교하지 않다.

쪽북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일정한 크기와 각도로 휘어진 북통쪽을 쓰임새에 따라 알맞게 자른 후 표면을 매끄럽게 손질한다. 그 다음 다듬어진 쪽판의 한쪽 옆면에 집착제를 발라 미리 준비된 테를 사용하여 하나씩 붙여 나가면서 북통을 만든다. 그 후 햇볕에서 여름에는 4~5시간, 겨울에는 하루 정도 굳힌다. 잘 건조시킨 후 마르면서 생긴 보푸라기를 깎기칼로 깎아내고 거친 부분은 사포질을 하여 다듬는다.

3) 북통씩우기

북통짜기가 끝나면 한지나 삼베, 광목 또는 가죽을 북통 안팎으로 바른다. 이것은 북통의 표면을 보호하면서 북통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과 소리가 새는 것을 막고 또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한편 북통의 나무에 격지가 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북통을 씌운 후 겨울에는 18~20도 이상 되는 방에서, 봄부터는 밖에서 하루 정도 자연건조시킨다.

북통에 씌운 것이 다 마르면 고리 박을 자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고리가 달린 못을 박아 안쪽에서 고정시킨다. 그 다음 북통 아래위 가장자리로 철테를 끼우는데 이 테는 북소리가 잘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북통의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4) 북메우기

북통이 완성되면 북면 양쪽에 가죽을 씌우는 북메우기 공정에 들어간다. 옛날에는 가죽을 북통 위에 올려 놓고 꼭 맞는 테를 씌운 뒤 그 위로 올라서서 뒤꿈치

로 밟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가죽이 충분히 늘어나게 했으나 요즘은 가압작기시설을 사용한다.

가죽을 멜 때에는 먼저 가죽을 십자 방향으로 당겨 못을 박고 8방, 16방으로 못을 박아 가죽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치 간격으로 못을 박는데 이때 눅눅하게 젖은 북면을 두드리며 소리를 가늠해 가면서 당기기를 조절하는 젖은음잡기를 한다. 너무 늘어 붙이면 가죽에 무리가 가 상하기 쉽고 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한 공정이다.

5) 소리고르기

이틀 정도 양쪽 북면의 가죽을 말린 후에는 다시 소리를 들어보면서 소리고르기를 한다. 소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해체하여 다시 만든다. 소리잡기가 잘되었으면 가장자리 가죽을 잘라내고 다듬은 후 그림바탕칠을 하여 잘 말렸다가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 다음으로 북면 가장자리에 장식못을 둘러 박는데 고급북에는 촘촘히 여러 개 박는다.

6) 단 청

대북·용고·승무북·교방고·무용북 등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판소리북·줄북·췌기북 등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단청을 할 때에는 안료에 접착제를 섞어야 색이 묻어나지 않는다. 주로 원색을 사용하고 청룡·황룡의 용그림을 많이 그리며, 주문에 따라 봉황·학 등을 그린다. 법고·용고·대북의 북통에는 주로 하늘의 소리를 끌어내린다는 의미로 흰 구름과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그린다. 양옆의 북면에는 태극문을 많이 그린다. 북의 종류와 쓰임에 따라 북틀을 만들어 걸기도 하는데 무용북에 쓰이는 북틀은 나무대 전체에 붉은 밤색을 칠하고 대 아랫부분에 청색 줄기, 노란 꽃, 붉은 속칠로 그림을 그린다.

5. 전통북의 전승현황

전통적으로 북은 갖바치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던 서울 성북구, 동숭동 일대와 전라남도 담양에서 많이 만들었다. 근래에 북을 비교적 많이 만들고 있는 곳은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이며 주로 농악북과 장구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80년 전남 담양의 박균석(朴均錫)이 최초로 정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현재 구리에서 활동중인 윤덕진(尹德珍)이 1989년에 북 만드는 기능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 5월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63호 북메우기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박균석의 뒤

를 잇고 있다. 현재 북메우기는 1995년 3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으로 재분류되었다.

윤덕진은 그 동안 민속촌의 큰북과 전국 대형 사찰의 법고 그리고 1986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사용된 법고·줄북·무용북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사용된 용고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의 신문고, 청와대 앞의 문민고 등을 제작하였다.

제6절 갈매동 도당굿

1. 개요

마을굿은 마을공동체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고 마을사람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기층문화를 대변하는 우리의 전래 신앙풍습이다. 마을굿은 그 자체가 수호신을 모시는 제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축제이자 놀이문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는 마을굿이 갖고 있던 지역문화의 독자적인 기반을 점차 무너뜨렸고 마을굿은 점점 보기 드문 행사가 되었다.

1995년 8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갈매동 도당굿은 경기도 도당굿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적인 마을굿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갈매동에는 마을 가운데에 당집이 있는 마을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곳을 도당산이라고 부른다. 격년마다 봄에 치러지는 갈매동 도당굿은 전형적인 경기도 북부의 도당굿 양식을 나타낸다.

현재 마을에는 1928년과 1960년에 기록된 도당굿 제의 관련 문서가 2개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 후기 갈매동의 도당굿 풍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928년도 기록인 굿청진설도에는 각각의 제차대로 차린 상이 나옴으로써 어떤 상차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으며, 당시에 이루어지던 굿거리를 알 수 있다. 상차림은 대동차지와 무당차지로 나눈다. 대동차지는 마을주민의 상차림을 말하는데 우측에 제장상, 가운데에 제석상을 각각 4상씩 모두 12상을 차린다. 그 밖에 말명상과 안반상, 호구상, 3개의 시루를 바친다. 무당차지는 무당이 도당굿을 할 때 차리는 상을 말한다.

굿거리별 상차림 준비는 각각의 제차에 쓰이는 떡쌀을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당시에 쓰이던 굿거리 및 굿거리 제차의 다양한 진행과 제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굿에 필요한 제물 목록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제의의 규모와 제숫거리를 알 수 있는데 제물준비가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굿의 규모도 성대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도 기록을 살펴보면 굿청진설도와 굿거리별 떡쌀차림은 1928년도와 동일하나 산치성의 제숫거리 목록이 약간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축문과 덕담이 실려 있다.



부장풀이

2. 절차와 내용

갈매동 도당곳의 정식명칭은 ‘갈매동 산치성 도당곳’이다. 도당산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당집은 1칸 규모의 기와집이다. 당집 상량문을 통해 이 건물이 1935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산 중턱 언덕배기에 있는 숙수간은 1994년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다.

산치성 도당곳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산신당이 상당이고 도당이 하당이다. 도당산의 중턱에 산신당이 있는데 당집은 없고 나무만 서 있다. 도당집에는 도당 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가 모셔져 있다.

경기도의 많은 도당곳이 추수를 끝낸 10월 상달에 하는 데 비해 갈매동에서는 봄에 한다. 이것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를 택해 대동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제의를 주관할 삼화주를 뽑는다. 삼화주로 뽑힌 사람은 그날 초부정을 행하는데 밥 3공기, 무나물 1그릇, 옥수 3그릇을 차린다. 그리고 그을음물 한 그릇과 고춧가루 섞인 물 한 그릇을 대문에 3번 나누어 뿌리는데 이것은 잡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비내리'라는 행사를 하는데, 삼화주가 모여 도당할머니와 도당할아버지에게 빌고 나서 넓은 그곳에 쌀을 붓고 나무를 세워서 대를 받는다. 대잡이로 임명된 사람이 대를 가지고 대가 이끄는 데로 따라가 마을사람 중에서 도가를 지명한다. 도가로 뽑힌 사람은 초상집이나 험한 일은 피하고 외출을 삼간다. 또한 제물준비를 비롯한 여러 굿일을 주관하고 그 대가를 마을에서 지불한다.

다음 제물을 차리는 사람인 숙수와 당지기 역할을 하는 당주를 뽑는다. 숙수나 당주는 집안에 초상이 났다거나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음력 3월 초하룻날이 되면 당주, 숙수, 도가, 화주, 시주 5명이 마을의 좌장격인 사람의 집에 모여 제일을 결정하고 곧바로 당집에 가서 대들보에 연월일시를 적은 종이를 붙여 놓는데 이는 날이 잡혔음을 도당에게 알리는 것이다.

도가는 삼화주 선출 이후부터 제비마련에 나선다. 제비는 가구당 각출이 원칙인데 예전에는 개인별로 쌀을 반 말에서 한 말 정도 냈으나 현재는 쌀과 함께 돈을 낸다. 제비를 모을 때에는 마을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참한다. 실제로 제일 당일에 와서 소지를 올리거나 굿놀이에 동참하는 등 의지로 나간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다. 1994년에는 약 200여 호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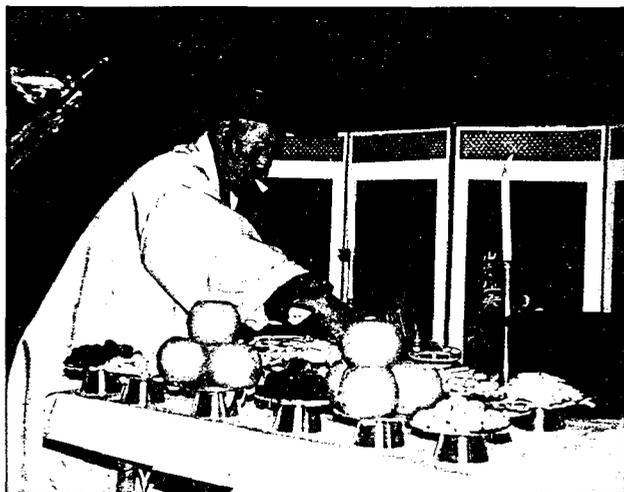
삼화주와 마을어른들이 마련하는 제숫거리는 마을에 전해져오는 문헌에 의해 준비한다. 마을아낙네들이 머리에 공양미를 엮고서 도갓집으로 찾아온다. 제물은 대개 청량리시장으로 사러 가는데 장에서는 지켜야 할 금기가 있다. 초상을 치른 집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으며, 최대한 좋은 것으로 사고 절대로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

사 온 제물은 숙수간에 보관해 두고 그 다음날부터 차리기 시작한다. 초하룻날 사 온 제숫거리가 손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밤새 지킨다. 제물마련은 숙수간과 찬방에서 이루어진다. 숙수간은 굿청과 찬방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 산치성과 도당굿에 쓰일 제수를 정리한다. 익히는 음식은 모두 찬방에서 마련한다.

1994년의 경우 제의에 쓰여진 떡시루는 산신시루·계면떡·안시루·화전미찜쌀·군웅시루·호구시루·대감시루·서낭시루·당집시루·터주시루·뒷전시루 등 11개이다. 흥미로운 것은 화전미찜쌀로 시루가 아닌 단순한 떡인데 시루 쪽에 끼어서 한 상을 받는다. 건달떡이라고도 부르는 화전미찜쌀은 분홍·노랑·흰색으로 빚고 썩·대추·미나리잎을 엇비슷하게 놓는다. 시루는 숙수간에서 도가와 시주, 화주의 손으로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만들며 찌지는 순서대로 당에 올린다.

갈매동 도당굿 제물에서 특별한 것은 조포와 계면떡을 들 수 있다. 조포는 두부를 말하는데 음력 3월 2일 밤 산치성을 올리기 전에 숙수간에서 손두부를 만들어 올린다. 계면떡은 도당굿 열네거리 중 열번째 계면떡거리에서 만신이 만수반이 하면서 파는 메떡으로 안반 위에서 손으로 밀어 적당하게 자른 떡을 말한다.

술은 정종을 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조라술을 빚는다. 조라술은 숙수간 옆의 참나무 아래에 묻어둔다. 이 외의 술은 막걸리를 쓰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소주를 비롯한 다양한 술이 등장하고 있다. 갈매동 도당굿에서는 산치성에 쓰이는 향을 직접 만드는데 향나무를 조각내 깎아서 쓴다.



산치성

본격적인 제의가 시작되면 만신과 대잡이가 숙수택에 모여 당집으로 간다. 당집 신단에 촛불을 밝히고 북어, 제주(막걸리) 정도의 간단한 상을 올려 당신에게 산치성과 도당굿의 신고제를 지낸다. 그 다음 대잡이, 단골만신, 당주, 숙수 내외와 마을대표 몇 사람이 당집 뒤편에 마련된 신장터로 가서 무악기를 이용, 산맛이·님맛이 축수와 올해의 일꾼을 뽑게 됨을 산할머니에게 고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정성은 다른 정성이 아니라
 잎이 피어 잎맞이
 꽃이 피어 꽃맞이
 님맛이 정성에 그저 산할머니
 해후년은 갑술년이요
 이월 초하루 님맛이 꽃맞이
 산치성을 대동이 합심하여 드리려하오니
 부정 없고 깨끗하여
 이 치성 잘 치를 수 있는
 도가 화주 시주 뽑아
 그저 석삼년 무고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공수를 여러 번 반복하여 신장대에 대가 내리면 마을로 내려와 도가, 화주, 시주순으로 그 해의 일꾼을 선출한다. 대의 끌림에 따라 선출된 사람의 집에 도착하면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이들을 맞이하여 대문, 부엌, 안방문을 순서대로 열어 간택됨을 집주인에게 알린다. 이때 만신은 고리짝을 꺾으며 검암산 산신에게 그 소임을 맡았음을 고한다. 또 만신이 '아름장'과 '술장' 올림을 축수하며 치성 기간중에 무사태평하게 소임을 다하도록 기원한다.

이날 오시(午時)경에 도갓집과 숙수집 등 선출된 제관집을 돌면서 부정풀이를

하는데 이것을 ‘집고사’ 또는 ‘가택안방풀이’라고 한다. 무당과 제관들은 산으로 가서 우물여담을 한다. 이것은 산에서의 부정을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신장대가 가는 방향으로 대잡이가 가서 우물물을 세 바가지 떠서 주위에 버린다. 일종의 액막이 우물굿으로 우물물을 맑게 하여 일 년 내내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한편, 유가를 돌 때 횃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는 상당히 많은 양의 횃대를 만들어야 한다. 불꽃이 오래가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는 보통 열 자 정도이며 가늘고 길게 팬 나무 12줄 정도로 묶는다.

음력 3월 2일이 되면 속수간에서는 조포를 먼저 만든다. 조포는 밤 9시경에 그릇에 담아 당막에 차일을 쳐놓고 상에 올려둔다. 불결한 것이 범하지 못하도록 채로 덮어 두고 제를 지내는 동안 도당에게 조포를 올렸음을 알린다. 조포는 일종의 액막이용으로 보이는데 당에 조포를 올리는 것은 1928년도 기록에도 나온다.

이때 당주댁의 안주인은 안반고사를 올리는데 이 고사는 유일하게 여성이 올리는 제사이다. 넓은 떡판에 10종류의 음식을 각각 조금씩 떼어내어 접시에 담지 않고 그대로 놓는다. 이 고사는 안주인이 간단하게 기원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이를 음복하면서 산치성을 기다린다.

마침내 10시가 되어 밤이 으스스해지면 산치성을 올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한 아낙들과 제관들이 모인다. 이때 준비한 모든 제물에는 한지를 씌워 부정을 피하고 모든 참여자들은 입에 한지를 물어 입부정을 막는다. 산치성을 올리는 동안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준비한 제물을 순서대로 상에 올리고 산신에게 올리는 인사가 끝나면 축문을 읽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술년 삼월 삼짇날
온 대동이 산할머니 모시고
대가 안 내리면 할아버지가 나뉘텐데
대동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대동이 애를 써서 서낭배웅하는데
대동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꽃맛이 잎맛이 개나리 진달래 화전맛이 하려는데
얼마나 애들 썼어요 대동 편안하게 해주세요

축문을 태우고 나면 산치성이 끝난다. 산치성을 끝내고 돌아오면 대를 마당에 세워 두고 서낭맛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서낭신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대를 둘러싸고 개인적인 복을 기원한다. 서낭맛이를 끝으로 산에서 이루어지는 의례가 끝나면 바로 도당굿의 핵심 행사인 유가에 들어간다.

유가는 일종의 길놀이로서 횃대를 든 청년들이 불을 밝히는 가운데 무당, 당주가 |앞장서고 바라·장구·북·피리·대금·해금 등의 악기를 든 악사들이 뒤따



유가

르면 그 뒤를 마을주민들이 따른다. 이때 주민들은 문을 열고 집밖으로 팥시루를 내놓는데 그 위에 북어를 올리거나 초를 켜서 북을 빈다. 대가 집 안으로 들어가 축원을 해주면 대주가 나와서 절을 하고 유가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집집마다 문 앞에 불을 피워 유가를 맞이한다는 신호를 한다.

유가를 다니다가 새우개고개에 당도하면 만신은 검암산할머니와 서낭할아버지의 결합을 주선하는 비손과 공수를 한다. 결합이 끝나면 만신은 서낭시루떡·제주·북어 등을 사방에 뿌리면서 고수례를 한다. 이것은 생산의 원리인 음과 양의 조화로 풍년은 물론 가축번식, 대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신앙의 일반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듯 유가는 산치성을 끝내고 이어지는 마을공동체의 축제이다. 마을곳이 시작됨을 널리 알리는 유가행렬을 통하여 마을사람들은 곳을 맞이하고 이때 각자의 집에서는 집안고사를 동시에 지낸다. 유가행렬 때 대잡이의 대에는 한지에 쓴 돈이 하얗게 걸리는데 예전에는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엽전을 걸던 시절에는 엽전꽃이라고 부른 동전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휘어질 정도였다 한다.

유가 행렬이 동네 사거리에 이르면 유가를 마무리하고 여기에서 사거리고사를 지낸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고사를 올림으로써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리굿의 의미가 담겨 있다.

유가가 끝나면 곧이어 본굿이 시작된다. 이때에는 갈대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사람이 몰려왔다. 예전에는 500~6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대했다고 한다.

대잡이와 무당, 약사행렬이 천천히 산을 올라오면서 '장문밟기'를 하는데, 해금과 북이 주가 되어 대잡이가 소리에 맞춰 서서히 발쭉뛰기를 한다. 신당 어귀에서 굿창까지 불과 20m가 채 못 되는데, 이를 지나는데 무려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 한국전쟁 전에는 무당이 말잔등에 서서 재주를 부리며 장문밟기를 했다고 한다.

마당에 도착하면 대를 세우고 가운데 줄을 친 후 전갈을 읽는데 곳을 하게 된

내력을 답하는 것이다. 당막 안의 도가가

경기 우도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
산은 주산이요
일국지명산이요
일국지명산은 나라에 원당이요
계불계적이요
삼한적 이래로 갈매동 만민이
삼년 세력을 받쳐서
극진치성을 접수어 계신 터이신데

라는 전갈을 보내면 당 밖에 서 있는 제주는 다음과 같은 전갈을 보낸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산 군웅 마나님 수이시나
새우개 소당 마나님 수이시나
하위함 역하여 지나시는 터이신데
꽃이 피어 꽃맞이며
잎이 피어 잎맞이로
잠깐 놀고 가지는 행차라고 여쭙어라



군웅거리

전갈을 주고받는 것은 구룡산신의 음과 서낭신의 양이 2년 만에 교합했음을 의미한다. 주고받는 답변이 끝나면 처놓은 줄을 끊고 대를 굿당에 안치함으로써 본격적인 굿거리가 시작된다. 굿거리는 무당이 진행하며 악사는 경기굿 전문악사를 초빙한다. 굿거리는 초부정→가망청배→조상거리→신할머니→별상→대감놀이→제석거리→호구거리→바라→계면떡거리→군웅거리→걸림→당굿→뒷전으로 이루어진다. 굿이 끝날 때면 소머리에 닭을 올리고 주무와 더불어 굿마당을 한 바퀴 돌아와 제자리에 놓고 절을 함으로써 인사를 한다.

음력 3월 초닷새 도갓집에서는 마을대표들이 모여 산치성과 도당굿에 쓰인 비용을 정산하는데, 이로써 굿은 끝난다. 마을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갈매동 도당굿은 서울 근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마을신앙풍습이다. 갈매동 도당굿이 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무너져가는 공동체의식을 다시 굳게 묶을 수 있는 지역문화의 기반으로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7절 설화

아차산의 유래 1 한양성은 풍수지리 형세상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과 남쪽의 남산(목멱산)이 각각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세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산이 한양성의 안산(案山)이요, 동서남북의 남쪽 주작을 이루는 산이 되려고 한양을 향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지금의 아차산 자리에 이르러 한양 쪽을 보니 이미 그 자리에 중남산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산이 그 자리에 퍼져 ‘아차’ 했다 하는 것에서 아차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아차산의 유래 2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자 어떤 우국지사가 의병을 모집해서 서울을 지키려고 쫓아 들어왔는데 막 아차울 고개를 올라서서 보니 이미 서울은 함락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 우국지사는 ‘아차 늦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하는 데에 아차라는 유래가 나왔다.

아차산의 유래 3 옛날에 삼청동에 점을 잘 친다는 사람이 있어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들였다.

“네가 점을 잘 친다고 하니 한번 쳐봐라.”

해놓고는 통 속에 쥐 한마리를 감춰 놓고서

“이 안에 있는 쥐 한마리가 몇 마리나?”

하고 물었다.

이에 그 점장이는 세 마리가 들었다고 대답했다.

“나쁜 놈! 한 마린데 세 마리가 들었다고 하니 이 놈을 죽여버려라.”라고 임금이 말했다.

여러 장정이 달려들어서 그 점쟁이를 붙잡아 나간 후 임금이 이상해서 쥐를 잡아 배를 갈라보니 새끼가 두 마리 있었다.

그래서 임금은 사람을 급히 보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이지 말라고 달려가면서 손을 들어 표시하는 것을 본 백정이 빨리 죽이라는 줄 알고 죽여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차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장자늬 옛날 장자뭇에 장자(부자)가 살았는데, 아주 심통이 많고 고약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장자의 집에 도사가 와서 저녁 때 염불을 하고 시주를 구했다. 주인인

장자는 어떻게나 심사가 고약한지 외양간에서 무럭무럭 김이 나는 똥을 너가래로
푹 퍼서

“옛따 이거나 가져가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근처에 우물늪에서 그 집 며느리가 저녁
쌀을 씻다가 칠바가지에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쇠똥을 받아가는 도사를 보고

“스님! 스님! 이리로 오십쇼.”

불러서는, 그 쇠똥을 훌렁 쏟아버리고 우물을 떠서 바지를 부시고 저녁쌀 씻어
놓은 것을 손으로 한 움큼 떠서

“이걸 가져가세요.”

하였다. 그 도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 집에는 며느리밖에 쓸모 있는 사람이 없었
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돌아서서

“젊은 댁은 날 따라 오라.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던지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돌아가는데 우미천을 지나가다가 별안간 뇌성벽력이 치면
서 굵은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때,

“아이쿠 장독을 안 덮었네.”

하고 며느리가 돌아보다가 그대로 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뒤 그 돌에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길 넓히는 공
사를 하다가 그 돌을 불도지가 밀어 한강으로 빠졌다고 한다.

건원릉의 갈대 동구릉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을 비롯하여 여러 왕과 왕비의 능
이 아홉 개가 있어 동쪽의 아홉 능이라는 뜻으로 동구릉이라고 한다. 동구릉 중에
서 태조의 능인 건원릉의 봉분에 입힌 때는 갈대인데, 함흥에서 날라다가 입혔다
고 한다. 이는 태조가 고향의 흙에 묻히지 못하자 떼만이라도 고향인 함흥의 갈대
로 덮기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함흥과 서울 사이의 거리는 천리나 되어 지금 같으면 한나절이면 갈대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당시에는 아무리 빨리 나른다고 해도 보름이 걸렸다. 그런데 보름
동안에 갈대가 말라 죽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서울과 함흥을 사람이 일렬로 연결
하여 릴레이식으로 갈대를 하루 만에 날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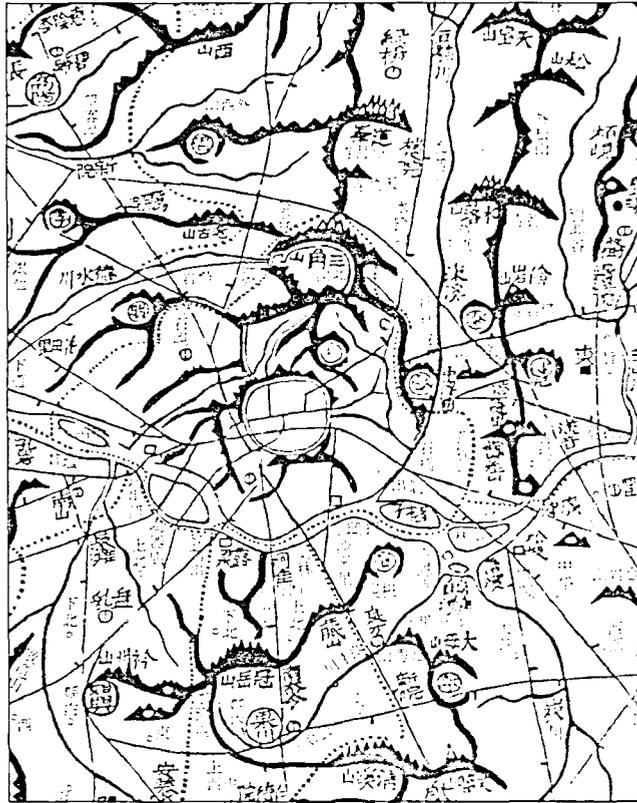
그런데 건원릉에 입힌 갈대가 가끔 말라 죽어서 탄 데서 난 갈대로 입히면 그
갈대는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그래서 함흥에서 자란 갈대로만 입혔다고 한
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한양까지 쳐들어와서 능을 약탈하려 했는데, 능에 불을 지
르면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불을 꺼버렸다. 이렇게 몇 차례나 불을 다시 지
르려 했지만 계속 바람이 불어와 불을 꺼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있자 왜군들
은 감히 건원릉에 접근도 못하고 있었는데, 밤에는 능의 비석이 장수가 되고 갈대
는 군사가 되어 능 인근 왜병의 진영을 치니 왜병들이 무서워 달아났다고 한다.

망우리의 유래 망우리에 정씨가 살고 있었다. 그 정씨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은 태조와 같이 동문수학하던 사이로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정사에 골치가 아프던 태조가 자기가 묻힐 자리나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동구릉 자리를 찾아냈다. 묘 자리를 정해 놓고 호숫해 하던 태조는 동문수학하던 정씨의 조상집이 가까이에 있어 그 집에 가서 “이제 나 후세에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이내 모든 시름을 잊었다네”라고 말한 후 그 다음부터 걱정을 잊었다는 의미로 망우리라고 했다 한다.

대성암 쌀비위 지금의 대성암 자리는 삼국시대 신라의 유명한 승려인 의상대사가 도를 닦던 곳이었다 한다.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수도 자리 뒤의 바위구멍에서 쌀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밥을 짓는 사람이 하늘이 내려준 이 천공미를 좀더 많이 얻고자 욕심을 부려 바위구멍을 더 크게 넓히려 하자 쌀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쌀뜨물과 타버린 쌀이 수삼일 동안 나오다가 멎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제1절 '구리'의 유래



<지도 1> 「대동어지도」의 서울과 그 인접 지역

땅에 이름이 붙는 유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지세 즉, 생김 모양 또는 방향에 따라 지어진 것이 있고, 그 고장에 특징적으로 많이 나는 식물·동물 또는 특산물에 따라 지어진 것이 있다. 또한 그 지역에 많이 사는 성씨에 따라 지어진 것도 있으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지명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한 지명에는 땅의 이름은 물론이고 바다의 이름, 내(川)의 이름들까지 포함되어 지표상의 모든 이름이 그 대상이 된다. 지명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지리학 및 어원학 등의 학문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유지명은 대체로 신라의 삼국통일 후 한자화되었다. 그런데 지명의 유래를 살피는 데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지명에는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고유지명의 근원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에 맞게 다시 만든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새말'이라는 고유지명이 있

을 때 그 유래를 따지지 않고 이를 한자화할 경우 ‘새롭다’는 의미의 신(新)자를 넣어 신촌, 또 ‘쇠’라는 의미의 금(金)을 넣어 금촌, 또 ‘사이’라는 의미의 간(間)자를 넣어 간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와 지리적인 형세가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고유지명의 유래가 일제에게는 소중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대로 한자화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일고 있는 고유지명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구리’라는 명칭은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폐합 때 부령(府令) 제111호로 당시 양주군 망우리면(忘憂里面)과 구지면(九旨面)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하여 구리면(九里面)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따라서 현 구리 지역의 옛 명칭인 ‘구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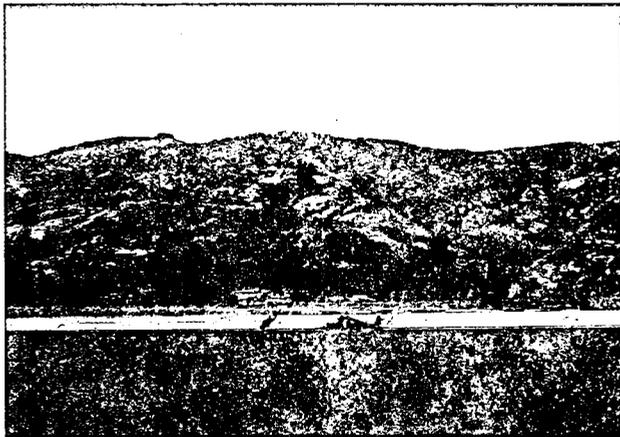
현 구리시의 옛 명칭은 구지(龜旨·九旨)였다. 그 구지(龜旨)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문헌은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1530년 조선 중기인데 그 이전의 책에서는 구지라는 명칭을 찾을 수 없다. 한편 1871년 간행된 『경기읍지』의 지도에는 ‘구지(九旨)’라 표기되어 있다. 즉 ‘구지’의 한자 표기는 ‘구지(龜旨)’가 일반적이었지만 ‘구지(九旨)’라는 표기도 아울러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구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육지가 강이나 바다로 돌출한 지역을 ‘곶’이라 하는데 구리지역은 한강과 왕산내로 둘러싸인 곶으로 볼 수 있다. 곶이 고지로, 고지가 구지로 변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리를 한자로 ‘구지(龜旨)’·‘구지(九旨)’라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2절 주요 산·천·고개의 유래

아차산 구리시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삼국사기』에는 ‘아차(阿且)’와 ‘아단(阿坦)’ 두 가지 표기가 나타난다. 지금의 ‘아차(峨嵯)’와 음과 뜻이 똑같은 명칭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역사책인 『고려사』에 처음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봉화산을 포함하여 망우리 공동묘지지역과 용마봉 등의 광범위한 지역이 모두 아차산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차산은 남쪽을 향해 불뚝 솟아오른 산이라 하여 남행산(南行山)이라고도 하며 마을사람들은 아끼산·아키산·에계산·액끼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끼산·아키산·에계산·액끼산 등과 유사한 명칭은 『경기지(京畿誌)』 양주조에 화양사가 ‘악계산(嶽溪山)’에 있다고 설명한 데서 나타난다. 이 악계산은 아



아차산



검암산

차산과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아차산 서쪽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차'와 '아단'의 뜻은 일반적으로 '작은' 또는 '아들'로 보고 있다.

검암산·구릉산 동구릉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동구릉이 있다 하여 일반적으로 구릉산이라 부르지만 「건원릉비」에는 '검암산(儉巖山)'이라 표기되어 있다. 또 김정호가 지은 『대동지지』에는 '검암산(儉岩山)'이라 표기되어 있다. 소나무가 울창한 산의 색이 검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주변 마을사람들은 금암산(錦岩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릉산이라는 명칭은 아홉 개의 능이 모두 들어선 이후의 명칭으로, 오래된 것은 아니다.

왕숙천·왕산내 왕숙천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입리에서 발원하여 구리시 북쪽으로 흘러 동쪽을 감싸고 돌아 한강으로 합류한다. 이 역시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즉, 태조가 묘자리를 구하러 와서 냇가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하여 '왕숙'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료적인 근거는 없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왕숙천은 '풍양천(豊壤川)'으로 나타나 있다. 『경기지』 양주초에는 왕숙탄(王宿灘)이라 표기되어 있다. 『대동지지』에는 '왕산천(王山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은 대대로 왕산내로 부르고 있다.

망우리고개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경계에 있는 고개로 수도 서울의 동쪽 관문이다. 역사적인 일화에 의해 붙은 이름으로 조선 태조가 말년에 이 고개를 넘어 현 건원릉 자리에 자신이 묻힐 묘자리를 정하고 난 후 근심을 잊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조실록』 권31, 9년 12일 임인조와 『세조실록』 권41, 13년 1일 기묘조에는 망울리(亡兀里·芒兀里)라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망우(忘憂)의 유래는 후세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숫돌고개 두레물골 서쪽에서 갈매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 주위에서 숫돌이 난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제3절 각 동 지역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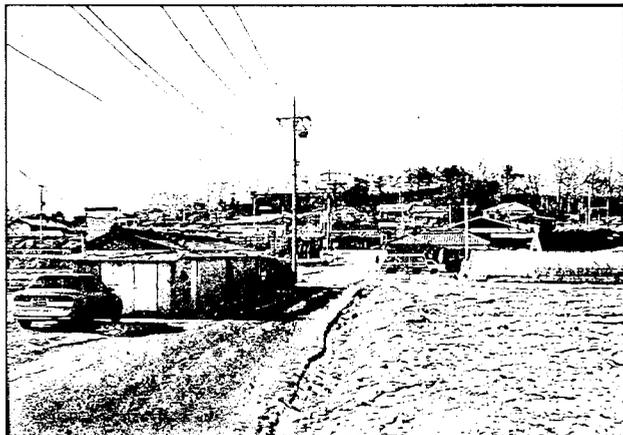
각 동의 유래는 행정동을 중심으로 법정동 및 자연부락의 지명유래를 서술하였다.

1. 갈매동

조선시대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는 양주군 노원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원면의 담터와 구지면의 사노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갈매리라 하였다. 이때 구리면의 한 리가 되었으며 1979년 갈매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갈매동이 되었다.

마을 주위의 산의 모습이 칙(葛)과 매화(梅)와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갈매동 북북서 방향에 불암산이 있고 북동쪽 방향에는 진접의 테미산이 있다. 풍수지리적인 해설에 의하면 목마른 말이 화집리에 있는 샘물의 물을 먹는 형국인 '갈마음수' 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마가 갈매로 바뀐 것이라는 설도 있다.

담터·장기(塙基) 삼화농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갈매동 6·7·8·9통 지역을 말하며 북쪽과 서쪽으로 둘러싼 작은 야산들이 마치 마을을 담으로 둘러싼 듯하여 붙은 이름이다.



범데미

범데미·범더미 갈매국민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갈매동 4·5통 지역을 말한다. 옛날 서울로 넘어가는 고개에 범이 자주 나타났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가는 길가에 있다. 1950년대에는 길을 경계로 남쪽에는 2~3채의 집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구리농협 갈매지소를 비롯하여 약 40여 호가 들어서 있다.

섬말·도촌(島村) 갈매국민학교에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암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마을을 좌우로 둘러싸고 흘러 마치 섬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가운데섬말이라고도 하며 약 30~40호가 모여 산다.

2. 동구동

19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조례 제87호에 의하여 사노리와 인창리 일부를 합쳐, 동구동의 이름을 따서 동구동이라 하였다. 행정동 명칭이다.

사노동 시 승격 당시 개편된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안말·두레물골·양지말·언제말 등 네 개의 마을이 원래 사노리였다. 태조의 건원릉을 만들 때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 살았다고 하는데, 이때 지금의 안말에 박씨, 두레물골에 추씨, 양지말에 주씨, 언제말에 엄씨 성을 가진 4명의 노인들이 부역이 끝나고 그대로 눌러 살아 사노리(四老里)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옛 족보 또는 옛 비문에는 사노리(沙老里)로 표기되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건원릉 부역민의 일부 사람들이 마을에 남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노’를 네 명의 노인들과 연관시킨 것은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로 추정된다. 지금은 여덟 개의 마을로 되어 있다.

두레물골 안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에 단 한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마을사람들이 모두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두레는 그 어원이 ‘두레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돌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태조 이성계의 장례에 부역으로 동원된 추씨가 정착한 곳이라 전해진다.

안말·내동·응달말 두레물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웃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의 동구동 5통 지역이 웃말이었고 14통 지역이 아랫말이었다. 지금은 약 100여 호가 모여 산다. 태조의 장례에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박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진다.

양지말 두레물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남쪽을 향해 양지바른 곳에 있다. 태조 건원릉을 조성할 때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주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진다.



두레물골

언제말·언촌 양지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태조 건원릉의 조영에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엄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진다.

최촌(崔村)말·간촌(間村) 벼들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중엽부터 최 씨들이 많이 살아 최촌말이라 하였다. 일제시대에 간촌으로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최촌말이라는 말이 남아 있다.

동구릉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비롯하여 여러 왕과 왕비의 능이 아홉 개 있어 붙은 이름이다. 동구릉의 옛 명칭은 『영조실록』 33년 5월 18일 무신년조에 “호랑이가 동오릉(東五陵)에 들어갔으므로 군문(軍門)에 명하여 잡도록 하였다”는 데서 처음 나타난다. 『여지도서』에는 ‘육릉동(六陵洞)’이라 표기되어 있고 1842년경 간행된 『경기지』에 있는 지도에는 ‘칠릉(七陵)’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동구릉’은 능이 새로 생길 때마다 시기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동구릉으로 명칭이 정착된 시기는 1855년으로 추존왕 익종의 묘를 용마봉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9개의 능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3. 인창동

구리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 북쪽에 있는 동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의 동창리(東倉里)와 인장리(仁章里)의 각 일부를 합쳐, 인장리의 ‘인’자와 동창리의 ‘창’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궁말·동창·간촌이 합쳐 인창동이 되었다. 범정동 역시 인창동이지만 일부가 동구동과 교문동으로 포함되었다.

동창·창말·창동 동구릉 주위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30리 지점에 있었던 동창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동개

· 옷말 · 아랫말 · 셋말을 모두 합쳐 동창이라 부른다.

베들고개 간촌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왕숙천이 넘쳐 흘렀을 때 이 고개에서 배를 타고 피하였다 하여 배탈고개인데, 이것이 후에 베들고개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배탈'에 대해서는 이 고개를 넘어 배를 탈 수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지금 이곳에는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남양주시 공무원 주택이 들어섰고, 영세한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4. 교문1·2동

예로부터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교문'이라는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문동(里門洞)과 백교리(白橋里) 전부, 인장리 일부를 병합하여 백교의 '교'자와 이문의 '문'자를 따서 교문리라 한 데서 유래한다. 1986년 시 승격에 따라 7개 법정동의 하나로 교문동이 되었다. 또한 옛 이문안·한다리·아천동 등을 포함하여 6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95년 교문1·2동으로 분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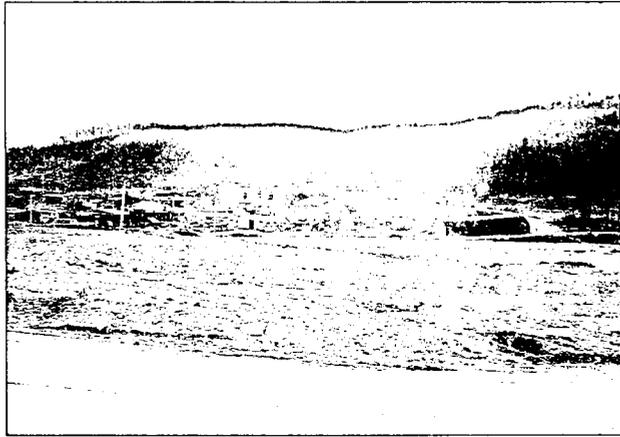
아천동 예로부터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아차동(峨嵯洞)과 우미천리(牛尾川里) 전부, 토막리(土幕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아차동의 '아'자와 우미천리의 '천'자를 따서 아천리라 하였다. 1986년 1월 1일 조례 86호에 의해 7개 법정동의 하나로 아천동이 되었다. 당시 행정동으로는 교문동에 속했으며 현재는 교문1동 지역이다.

딸기원 교문사거리에서 망우리로 넘어가는 고개 좌우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들어설 때 딸기밭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德峴) 지금의 교문사거리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 전염병이 돌면 병에 걸린 사람을 덕에 매달아 놓은 고개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곳을 윗덕고개라고 불렀고 지금의 전화국 근처를 아랫덕고개라고 하였다.

도래미 셋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길이 마을 앞을 돌아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서 절그릇을 만들었다 하여 도리미(陶里美)라고도 한다. 1956년에 발간된 『경녕군파(敬寧君派) 선원이씨세보(璿源李氏世譜)』에 있는 지도에는 '도림(桃林)'이라 표기되어 있다. 마을 앞을 돌아갔다고 하는 길은 지금은 없어졌다.

박촌 셋다리 북쪽과 안골의 남쪽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말이라고도 한



아치울

다. 밀양 박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박씨 성을 가진 호수는 옛날에는 16호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호 정도만 남아 있다.

백교(白橋)·한다리 아치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발행된 지도에는 ‘한교(漢橋)’,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에는 ‘일교(一橋)’,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백교’라 표기되어 있다. 1956년에 발간된 『경녕군과 선원이씨세보』에 있는 지도에는 ‘대교(大橋)’라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크다는 뜻의 우리말 ‘한’을 한자말인 ‘한(漢)’, ‘대(大)’, ‘일(一)’자 등으로 대신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곳의 원 지명은 한다리인데 일제시대에 ‘흰다리’라고 하여 이것이 다시 ‘백교’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한다리’가 옳은 지명이라고 한다.

아치울 아차산 동쪽 골짜기 가운데 가장 넓고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구리시와 서울시 광장동 간 4차선 도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60여 채의 집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수백 채의 집들이 들어서 있다. 옛날 아치울에는 응달짜·양지짜·웃골 등의 소지명이 있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아차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미내(牛尾川) 아차산의 대성암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서울특별시의 위귀힐에서 구리시로 들어오면서 처음 나타나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너머말·양지말·건너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건너말·양지말이 있던 자리에 K1기지가 들어섰고 너머말만 남아 있다. 지금도 이 너머말을 우미내로 부른다. 우미내는 이 마을 주위의 산이 바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고 소나무 움을 베어내도 잘 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12년에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우미천리’라 표기되어 있다.

이문(里門) 안 아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망우리공동묘지 동쪽 끝짜기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리(里)를 표시하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문의 본래 뜻은 커다랗게 동네 어귀를 가로막아 낸 문을 가리킨다. 이문을 세운 목적은 도적떼를 막기 위한 것이며, 마을 앞에 방책과 출입문을 갖추어 세우고 밤에는 통행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안골·박촌(아랫말)·샛다리·도래미·가능골·갈매지 등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동산골 K1기지에서 북쪽 산자락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3~4채의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 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동산 너머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미암(米岩) 대성암 뒤편에 있는 바위 구멍이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의상대사가 수도할 때 천공미(天供米)가 나온 구멍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시루봉 윗골 북쪽에 있는 아차산의 봉우리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남양 홍씨에게 내려 준 사패산(賜牌山)이라고 한다. 봉우리가 시루처럼 넓다 하여 시루봉이라고 하며, 한다리에 살던 내시와 남양 홍씨들 간에 땅 싸움이 벌어져 시위봉이라고도 한다. 『경녕군과 선원이씨세보』에 있는 지도에는 ‘태자봉(太子峰)’이라 표기되어 있다.

5. 수택1·2·3동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택리(水澤里)·인장리·평촌리(坪村里) 각 일부, 미음면(湑陰面) 수변리(水邊里) 일부를 병합하여 수택리라 하였다. 1986년 1월 1일 조례 86호에 의해 7개 법정동의 하나인 수택동으로 바뀌었다. 시 승격 당시 법정동 수택동은 행정동으로는 수택동에 속했으나 1996년부터 행정동 개편에 의해 수택1동에 속하게 되었고 동시에 수택동 일부, 교문동 일부, 토평동 전 지역을 포괄했던 수평동은 수택2·3동으로 개편되었다.

‘수택’이라는 명칭은 옛부터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늪이 있어 수누피·수늪이라 불려왔다. 북쪽으로는 남양주시로 가는 8차선 도로가 나 있고 동쪽으로는 왕숙천이 흐른다. 수택동지역은 구리시의 중심 변화가로 옛 마을로는 수누피·검배·이촌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고 현대식 상가와 주거지로 변하였다.

토평동 조선시대부터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 평촌리·토막리·수택리 각 일부와 미음면 수변리·석도리(石島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토막리의 ‘토’자와 평촌리의 ‘평’자를 따서 토평리라 하였다. 1986

년 1월 1일 조례 86호에 의해 구리시 7개 법정동의 하나로 토평동이 되었다. 현재 행정동으로는 수택3동에 속한다.

수평동 시 승격 당시 구리시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6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로 1986년 1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토평리 전부와 수택리·교문리 일부 지역을 합쳐 수평동이라 하였으나, 1996년 행정동 개편에 따라 동명이 폐지되고 수택2·3동으로 개편되었다.

검배 구리시보건소 주위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는 크고 검은 바위가 있어 검배라 불렀는데 일제 때 신대촌으로 바뀌었다. 일제시대 때의 신대촌(새터말)은 새말(신촌)과 구말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구말은 안말 또는 너머말 등으로 불렸다. 현재 이러한 소지명들은 다 없어졌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검배라고 부른다.

돌섬 벌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미음면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법정동 토평동에 속하여 구리면 관할이 되었다. 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석도(石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름 그대로 돌이 많은 섬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벌말 돌섬 북서쪽 들판에 있는 마을이다. 이름 그대로 벌판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자로는 '평촌(坪村)'으로 표기한다. 벌말의 서쪽마을을 아랫말이라 하고 동쪽마을을 웃말이라고 한다.

수누피·수늪 수평동사무소(현 수택2동사무소) 주위에 있던 마을로 '원수택'이라고도 한다. 지명으로 보아 이 지역이 옛 수택동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누피 가운데에 있던 마을을 '가운뎃말'이라고 하였다.

이촌(李村) 일화제약 주위에 있던 마을이다. 전주 이씨들이 모여 살아 붙은 이름이다. 이촌마을에는 술막·그렁둔지(기롱둔기) 등의 소지명이 있었다.

장지미울 벌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지늪과 관련된 마을은 아니다. 1970년대 중랑교의 제방둑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생긴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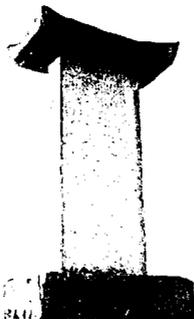
장지늪 꿈장늪 남서쪽에 있는 늪이다. 잘 알려진 관련 설화가 있는데, 돈에 인색한 장자(부자)가 살던 집터로 동냥 온 중에게 쇠똥을 퍼주고 천벌을 받아 늪으로 변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제7장 인물

제1절 고려·조선시대 인물

제2절 근현대 인물



제1절 고려·조선시대 인물

고언백(高彦伯) ?~1609(광해군 1)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임진왜란 때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수호하고 왜적을 물리친 공을 세웠다.

교동향리(喬桐鄉吏)로서 무과에 급제하였고, 군관과 변장을 지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영원군수(寧遠郡守)로 있었는데,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왜적에 맞서 유인전을 전개하였다. 이듬해 양주에서 왜병을 죽인 공으로 정3품 이상을 의미하는 당상관에 올라 양주목사를 제수받았다. 양주목사에 임명된 것은 고언백이 양주 구지면에 있는 태조의 건원릉을 수호하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병사를 모으고 건원릉의 주산인 검암산 정상에 2개의 전투용 보루를 세워, 이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던 왜병을 격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당시 왜병들은 자신들이 번번히 패하자 왕릉의 신령한 기운이 고언백 부대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고 한다. 고언백은 태릉 방어에도 공을 세워 경기도방어사로 승진하였다.

고언백은 이후에도 계속 전공을 올렸는데, 한양탈환전에서 명나라 군사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다시 경기도방어사가 되어 큰 전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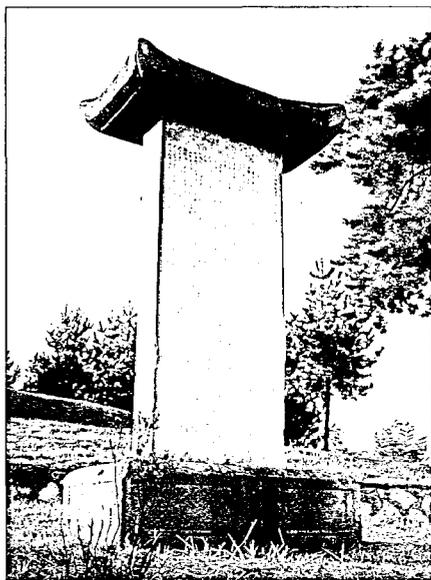
이러한 전공으로 인하여 왜군이 물러간 후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제흥군(濟興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1609년(광해군 1) 임해군(臨海君)이 제거될 때, 임해군의 심복이라 하여 함께 살해되었다. 후에 선무공신으로 관직이 회복되었으며,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나만갑(羅萬甲) 1592(선조 25)~1642(인조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몽퇴(夢賚), 호는 구포(鷗浦)이다.

1613년(광해군 5) 사마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이해에 인목대비의 서궁유폐사건이 일어나자 벼슬에 뜻을 잃고 어머니를 모시고 귀향하여 오로지 책을 읽고 학문을 닦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10년 동안 고향에서 독서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순릉참봉(順陵參奉)으로 다시 관직에 들어왔다. 이해에 알성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관 겸치정사에 기용되었다. 1625년 예문관검열(檢閱)을 거쳐 홍문관교리(校理)에 임명되었다.

이때 노서(老西)의 거두인 김류가 북인인 남이공을 추천하여 등용하자, 소서



나만갑 신도비



나성두 신도비

(少西)의 일원이었던 나만갑이 이를 적극 반대하다가 결국 강동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 뒤 이귀의 도움으로 강등된 관직을 되찾았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왕이 강화도로 피난하자, 종사관으로 왕을 따라 강화도로 가서 풍기를 바르게 하고 도민을 서로 경계하게 하여 범죄를 엄하게 다스렸다. 이듬해 환도한 후, 병조정랑·홍문관수찬·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했으나 이때 포로문제가 일어나 김류 등의 탄핵을 받고 귀양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1631년 홍문관부수찬·사간원헌납이 되었으며 1634년 홍주목사를 역임하고, 이듬해 형조참의에 올랐다가 시정논의 과정에서 재차 파직당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공조참의로 기용되었다. 이어 병조참지로서 관향사가 되어 군량공급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청과 강화조약을 맺은 후 무고를 받아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다.

1639년 유배에서 풀려나 영천(榮川)에서 여생을 보냈다. 후에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병자록(丙子錄)』·『구포집(鷗浦集)』

이 있다. 신도비는 1658년(효종 9)에 건립되었다.

나성두(羅星斗) 1614(광해군 6)~1663(현종 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우천(于天), 호는 거주(碁洲)이다. 나만갑의 아들이며, 우의정을 지낸 장유(張維)의 문인이다.

1646년(인조 24) 음사(陰仕)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마(洗馬)가 되었으며, 이어 세자익위사 익찬(翊贊)을 거쳐 호조좌랑을 역임하였다. 그 뒤 봉산현

감을 지낸 뒤 효종 때에 해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청백리로서 이름이 높았다.

나양좌(羅良佐) 1638(인조 16)~1710(숙종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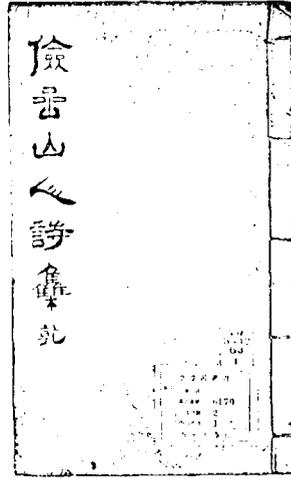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현도(顯道), 호는 명촌(明村)이다. 할아버지는 나만갑이고 아버지가 나성두이며, 윤선거의 문인이다.

명필로 이름높았던 송준길의 천거로 희릉참봉(禧陵參奉)·동몽(童蒙)교관·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83년(숙종 9) 평강현감을 잠시 지내다가 사직하였다. 1685년 공조좌랑·충청도도사·종친부전부·삭령군수 등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모두 사퇴하였다.

1687년 스승 윤선거의 누명을 벗기려고 상소했다가 영변에 유배당했으나, 이듬해에 풀려났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煥局)으로 자형 김수항, 매제 이사명이 극형을 당하자 천리길을 달려가 이사명의 상을 치르고 돌아오니 모두들 그 의협심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1706년 처음으로 사헌부장령을 지냈다.

저서로는 『명촌잡록(明村雜錄)』이 있다.



『검암산인시집』

범경문(范慶文) 1738(영조 14)~1800(정조 24)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인창동 최촌말에 묘가 있다. 본관은 금성(錦城), 자는 유문(孺文), 호는 검암(儉巖)이다. 중인 출신으로 가계와 생애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집은 아침마다 배오개시장(梨峴市)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장안의 광고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17, 18세 때에 이미 문장으로 진신대부(縉紳大夫)들 사이에 이름이 있었다. 여항시인인 김시모·김진태 등과 교류하며 창작활동을 하였다. 최윤창·마성린·백경현 등과 사귀었으며, 손아래인 천수경을 비롯한 소위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구성원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음주를 좋아하고 성격이 맑고 넓어 생존 당시 이름있는 시인들과 교류하였다. 그가 남긴 시 작품의 다수가 서로 시를 읊어 주고받는 수창시(酬唱詩)이다. 시집으로는 『검암산인시집(儉巖山人詩集)』 2권 1책이 있다.

송순(宋諱) 1538(중종 33)~1616(광해군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교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진천(鎭川), 자는 혼원(渾元), 호는 망촌(忘村)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에 합격하였다. 1587년 사헌부지평을 지낸 뒤 1596년 세자시강원보덕·사헌부집의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전라도관찰사·호조참

의 등을 역임하였다. 1598년 병조참의·우부승지를 역임한 뒤 대사성·이조참의·예조참의·좌부승지를 지냈다. 잠시 강화부사·홍주목사로 나갔다가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 광해군이 즉위하자 병조참관·대사간·대사헌 등을 지내면서 자주 사직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15년 형조판서·호조판서·지의금부사를 거쳐 이듬해 정헌대부로 대사헌에 다시 임명되었고 의령군(義靈君)에 봉해졌다. 죽은 후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 관작을 박탈당하였다.

신잠(申潛) 1491(성종 22)~1554(명종 9)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화가로 아차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원량(元亮), 호는 영천자(靈川子)·아차산인(峨嵋山人)이다. 신숙주의 증손이며, 아버지가 신종호다.

1513년(중종 8) 진사가 되었고, 1519년 현량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나 이해에 기묘사화로 파직되었다. 그 뒤 20여 년간 양주 아차산 아래에 은거하며 서화에만 몰두하다가 1543년 재등용되어 사옹원의 주부가 되었다. 이어 태인현감·간성군수를 역임하고, 1553년(명종 8) 상주목사에 임명되어 재직중 죽었다.

시·서·화에 모두 능하여 3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특히 대나무와 포도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현재 그의 작품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지 않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심매도(尋梅圖)와 화조도(花鳥圖)가 그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영천집(靈川集)』이 있다.

신종호(申從簿) 1456(세조 2)~1497(연산군 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아чин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차소(次韶), 호는 삼괴당(三魁堂)이다. 신숙주의 손자이다.

1474년(성종 5) 성균진사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1480년 식년문과에 다시 장원을 하여 그 해 감찰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천추사(千秋使) 홍귀달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수찬·교리를 지냈다. 1486년 부응교(副應敎)로 있을 때 문과중시에 장원이 되었는데, 과거제도가 생긴 이래 세 번이나 장원을 한 것은 그가 처음이라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 해 예빈시부정(副正)이 되었다.

『여지승람』을 정정하여 『동국여지승람』으로 다시 찬술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 공으로 사슴가죽을 하사받았다. 또한 왕명으로 요동(遼東)에서 한어(漢語)를 습득하고 돌아왔다. 1488년 홍문관직제학을 거쳐 부제학이 되었으며, 이듬해 동부승지가 된 뒤 예조참의·좌승지·우승지·도승지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491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북호(北胡)의 변경침입사건에 관한 여전회의에서 영의정을 모욕한 죄로 파면되었으나 다시 등용되어 도승지, 동지중추부사, 병

조·예조·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494년 경기도관찰사를 지내고, 이듬해 예조 참판 겸 동지춘추관사로 있으면서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6년(연산군 2) 병을 무릅쓰고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던 중 개성에서 죽었다. 문장과 시·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삼괴당집(三魁堂集)』이 있다.

오억령(吳億齡) 1552(명종 7)~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단이 있다. 본관은 동북(同福), 자는 대년(大年), 호는 만취(晩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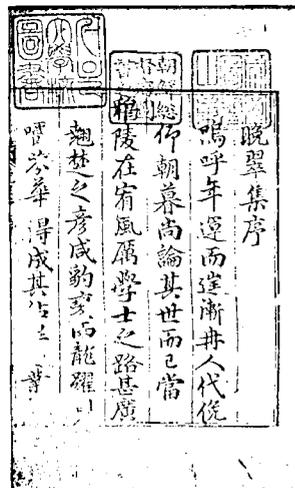
1570년(선조 3) 사마시를 거쳐 158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에 뽑혔다가 예문관검열, 호조·이조의 좌랑을 지냈다.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 : 유능한 젊은 벼슬아치를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하고 이조정랑과 경상도안무사를 거쳐 사간원집의·홍문관전한을 역임하였다. 이때 일본의 사신 현소가 오자 선위사로서 그를 맞고, 왜병이 대거 침입해 올 것을 예언하여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직되었다. 그 뒤 의정부검상(檢詳)·성군관사성(司成)을 거쳐 1591년 진주사(陳奏使)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던 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개성에서 선조를 호종하였다. 이후 의주에서 이조참의, 우승부지, 대사성, 병조·공조·이조의 참의,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의 부접반사(副接伴使) 등을 지냈다.

환도 후 대사간·도승지를 지내고 이듬해 대사헌·이조참판, 이어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뒤 1601년 부제학으로 청백리에 뽑혔다. 1604년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1607년 예조참판을 지냈고 이듬해 선조가 죽자 고부청시청승습부사(告訃請諡請承襲副使)로 명나라에 갔으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귀국 후 한때 파직되었다. 그 뒤 병조참판·한성부판윤·대사헌·형조판서·우참찬·개성유수를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인목대비를 폐하는 데 반대하자 대북파 정인홍이 앞서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일을 다시 거론하며 탄핵하니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멀리 귀양을 보내자는 논의가 일어나자 4년간 대죄(大罪)하다가 죽었다.

문장이 뛰어났고, 초서(草書)·예서(隸書)·전서(篆書)에 능했다. 백천(白川)의 문화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만취문집(晩翠文集)』이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오익(吳翊) 1574(선조 7)~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단이 있다. 본



『만취문집』

관은 동복(同福), 자는 필보(弼甫), 호는 월강(月岡)·묵재(墨齋)이다. 우참찬(右參贊) 오억령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 36) 진사로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예문관봉교(奉敎)로 춘추관기사가 되어 임진왜란 때 불탄 실록의 재간(再刊)에 참여하였다. 1604년 예문관검열, 이듬해 대교(待敎)·승정원주서(注書) 1606년 사헌부감찰(監察), 이듬해 성균관전적·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시간원 정언·예문관수찬을 지내고 이듬해 병조정랑·지제교로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4년 검상, 이듬해 의정부사인(舍人)·승정원승지를 역임하고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글씨에 능하였고 함흥의 「환조정릉신도비(桓祖定陵神道碑)」 비문을 썼다.

오정위(吳挺緯) 1616(광해군 8)~1692(숙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아чин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군서(君瑞)·서장(瑞章), 호는 동사(東沙)이다.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52년(효종 3) 홍문관부교리·수찬을 거쳐 1659년 승정원승지 등을 역임하고 1664년(현종 5) 예조참의가 되었다. 그 뒤 충청도관찰사·양주목사·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672년 호조·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숙종 초에 서인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로 남인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될 때 청남(淸南)에 속하여 강경론을 지지했다. 1677년(숙종 3)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예조판서·우참찬을 지냈다.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무안(務安)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삭주·보성(寶城)으로 이배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풀려나와 공조판서에 재등용 되고,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이억기(李億祺) 1561(명종 16)~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아чин동에 의관을 거두어 치장한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수(景受)이다. 아버지는 필주군(泌洲君) 이연손이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나고 용맹하여 찬탄을 받았으며, 17세에 사복시내승(內乘)이 되고, 그 후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다. 경흥부사(慶興府使)·온성부사(穩城府使)를 역임하면서 북방의 경비에 큰 공을 세웠다. 1591년(선조 24) 순천부사를 거쳐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원균 등과 합세하여 당항포·한산도·안골포·부산포 해전 등에서 적의 병선을 대파하고 제해권을 잡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순신이 무고로 토옥되자 이항복·김명원 등과 함께 그의 무고를 주장하는 데 앞장섰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통제사 원균의 휘하에서 좌익군(左翼軍)을 지휘하여 용전하다가 칠천량(漆川梁) 싸움에서 원균과 함께 전사하였다.

난이 끝난 후 선무공신 2등으로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완흥군(完興君)으로 추봉되었다. 1600년 여수의 충민사(忠愍祠)에 이순신과 함께 제향되었다. 시호는

의민(毅愍)이다.

이척(李瀾) 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급지(汲之), 호는 영호정(映湖亭)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7대손이다.

음서로 훈련원 도정(都正)이 되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죽산부사(竹山府使)로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을 수비하였다. 이로 인해 왕으로부터 금대(金帶)와 금권(金圈)을 하사받은 후 공조참판에 올랐으나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고 사직하였다. 후에 『절의록(節義錄)』에 수록되었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이충(李冲) 1568(선조 1)~1619(광해군 1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거용(巨容), 호는 칠택(七澤)이다.

1600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무장현감(茂長縣監)을 거쳐 1602년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1606년 성천부사(成川府使)로 나갔다. 이어 형조정랑·상례(相禮)·광주목사(廣州牧使) 등을 거쳐 1609년(광해군 1) 사도시정(司導寺正)으로 춘추관편수관(編修官)을 겸직하면서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대간으로부터 간신의 손자라 하여 탄핵을 받고 니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1612년 전라도관찰사에 올랐다. 이듬해 대사간(大司諫)·병조참판을 역임하고 1616년 선수도감제조(提調)를 거쳐 1617년 좌참찬·우찬성이 되고 1618년 좌부빈객(左副賓客)·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등을 역임하였다. 뒤에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정기원(鄭期遠) 1559(명종 14)~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교문동에 단이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사중(士重), 호는 견산(見山)이다.

1585년(선조 1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주서가 되었다. 이후 사헌부감찰이 되었다가 호조·형조·공조의 좌랑 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1594년 의주 행재소(行在所)에서 병조좌랑·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가 곧 정랑이 되었다. 이해 안악현감이 되었다가 이듬해 병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장령 겸 지제교가 되었다. 이후 사간원헌납, 홍문관수찬, 시강원문학, 사간원사간, 종부시정(宗簿寺正), 승정원동부승지·우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96년 고급주문사(告急奏聞使)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가서 왜군이 재침입해 올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부총병(副總兵) 양원(楊元)의 접반사(接伴使)로 남원에 갔다가 왜군과 싸움 도중 남원성에서 제장(諸將)과 함께 전사하였다. 양원이 조정에 돌아가 당시의 상황을 전하자 선조는 예조판서로 추증하였고, 뒤에 다시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세자이사(世子貳師)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를 더하였다. 1604년 선무공신 3등에 내성군(萊城君)으로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났고 글씨도 잘 썼다. 남원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조운홀(趙云訖) 1332(충숙왕 복위 1)~1404(태종 4)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고려사』에 묘가 아차산 남쪽에 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본관은 풍양(豐壤), 호는 석간(石澗)·서하옹(西霞翁)이다. 평장사(平章事) 조맹의 후손으로, 흥안군(興安君) 이인복의 문인이다.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가 되었고, 함문사인(閤門舍人)을 거쳐 1361년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에 올랐다. 홍건적의 침입 때 남쪽으로 피난하는 왕을 호종하여 1363년 2등공신이 되었다. 이듬해 국자감직강(直講)이 되고 이어 전라·서해·양광의 삼도안렴사(三道安廉使)를 지냈다. 1374년 전법총랑(典法摠郎)이 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상주 노음산(露陰山) 기슭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석간서하옹(石澗棲霞翁)이라 하며 출입할 때는 소를 타고 다녔다. 이때 「기우도찬(騎牛圖贊)」·「석간가(石澗歌)」 등의 작품을 지었다.

1377년(우왕 3) 다시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기용되고,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로 있다가 1380년 사임하고 광주(廣州) 고원강촌(古垣江村)으로 은퇴하였다. 그곳에서 자은사(慈恩寺)의 중 종림(宗林)과 친교를 맺으며 사평원(沙平院)·판교원(板橋院)을 중수하고 스스로 원주(院主)라 칭하였다. 1388년 다시 전리판서(典理判書)에 기용되고, 이해 밀직제학(密直提學)에서 서해도관찰사로 나가 왜구를 토벌하였다.

이듬해 침서밀직사사(簽西密直司事)를 거쳐 1390년(공양왕 2) 계림부윤(鷄林府尹)을 지냈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강릉부사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신병으로 사직하고 광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검교정당문학(檢校政黨文學)에 임명되었다. 그 후 사직하고 광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스스로 묘지(墓誌)를 짓고 73세에 죽었다.

저서로 『석간집(石澗集)』이 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편서로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이 전하고, 그 밖에 『동문선』에 5수의 칠언절구가 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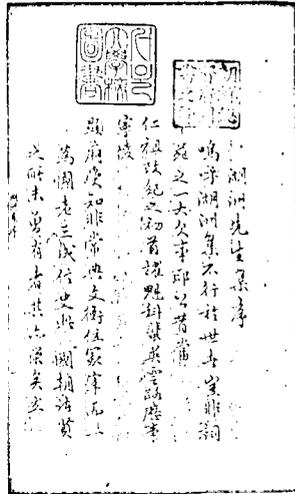
채유후(蔡裕後) 1599(선조 32)~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이다.

17세 때 생원이 되고 1623년(인조 1)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가독서를 한 뒤에 교리·지평·이조좌랑·응교를 지내고 사간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집의(執義)로서 인조를 호종하였다. 김류 등의 강화천도 주장을 반대하고 주화론에 동조하였다가 구금된 뒤 1638년 석방되었다. 난이 끝난 뒤 사은사 이성구의 서장관으로 심양에 다녀왔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 죽자 예조참의로서 호상(護喪)을 맡았다. 1647년 동부승지를 거쳐 부제학

· 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하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1652년(효종 3) 이조참판에 오르고 이듬해 대제학으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후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사를 역임하고 여러 차례 대사헌을 거친 뒤, 1657년 대제학으로서 『선조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이어 예조판서·우참찬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제학을 8년 동안 겸하였다. 이후 형조판서를 지내고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왕앞에서 술주정을 부려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현종이 즉위한 뒤 찬집청 당상(堂上)이 되어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659년(현종 1)



『호주집』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9월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유계(兪棨)의 탄핵으로 사임하였다. 그 뒤 공조참판·내국제조(內局提調)를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병사했다. 죽은 뒤 실록편찬의 공으로 승정대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작품으로는 시조 2수가 전하며, 저서로는 『호주집(湖洲集)』이 있다.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홍상(洪常) 1457(세조 3)~1513(중종 8)

조선 덕종의 사위로 아천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자강(子剛)이며, 좌의정 홍응의 아들이다.

1466년(세조 12) 덕종의 딸 명숙공주(明淑公主)와 결혼하여 당양위(唐陽尉)에 봉해지고 오위도총부도총관이 되었다. 연산군 초에 수록대부(綏祿大夫)의 위계를 받았으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함평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안성으로 양이(量移)되었고, 다시 거제로 유배되었다가 제주로 이배되었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조정에 돌아온 뒤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도량이 넓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부귀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 백성들이 왕실의 사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 한다. 신도비는 1514년에 건립되었는데, 성균관사성이행이 짓고 사헌부장령 김희수가 썼다. 시호는 소이(昭夷)이다.

홍응(洪應) 1428(세종 10)~1492(성종 23)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응지(應之), 호는 휴휴당(休休堂)이다.

1451년(문종 1)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을 거쳐 사가독서를 한 뒤 집현전교리·필선·보덕을 역임했다. 1463년(세조 9) 도승지로 있



홍응 신도비

며, 어진 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신도비는 1492년에 세워졌는데, 예조참의 이숙함이 글을 짓고 동생 홍홍이 쓰고 전액을 하였다.

을 때에 영응대군(永膺大君)과 함께 『명황계감(明皇誠鑑)』을 국역(國譯)하였다.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하고, 1468년(예종 즉위)에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이 되었다. 그 뒤 지중추부사에 올라 익성군(益城君)에 봉해졌다. 1471년(성종 2)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오르고 익성부원군(益城附院君)에 진봉되었다. 1479년 우의정이 되고 1485년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4도순찰사를 지낸 후 좌의정이 되었다.

문장이 뛰어난 글씨를 잘 썼으

제2절 근현대 인물

김규식(金奎植) 1880(고종 17)~1931

구지면의 사노리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다. 호는 노은(蘆隱)으로 한말에는 의병활동을, 합병 후에는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수행하였다.

한말 대한제국군인 육군 참위(參尉)로 군대에 복무하다가 1907년 군대가 해산당하자 철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차에 걸쳐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1908년 1월에는 13도연합 의병부대의 일원으로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력한 군사력에 밀려 1908년 1월 13도 연합의병군의 서울진격작전 당시 부상을 당한 적도 있다. 이후에도 경기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포로가 되었다. 이후 석방되어 1910년 합병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8월 북만주의 항일무장독립 운동조직인 북로군정서의 사단장이 되어 무장투쟁에 앞장섰다. 또한 만주 왕청현 십리평에 세운 사관연성소의 교관으로서 김좌진 등과 함께 청년교육에 힘썼다.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제2연대 제1대대장으로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밀산(密山)에서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등 여러 단체의 군대가 통합하여 편성된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의 총사령이 되어 3,500여 명의 독립군을 이끌었다.

자유시참변 후에 다시 연길현으로 돌아와서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해노병회(上海勞兵會)의 지원을 받아, 1923년 5월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을 조직하고 총사령에 선출되었다. 고려혁명군은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제도를 실시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군수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소련으로부터 비밀리에 무기를 구입하여 무장력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계속하였다.

1925년에는 북구영안현(北溝寧安縣)에서 정의부와 참의부가 합쳐 조직된 신민부(新民府)에 참여하였고 1926년 4월 5일 길림성 영남(嶺南)호텔에서 각계의 혁신적인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항일투쟁을 계속할수록 장기적인 항일투쟁을 위해서는 2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연수현(延壽縣)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학교 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31년 4월 10일 주하현(珠河縣)으로 가서 최악·홍진·신숙 등을 만난 후 암살당하고 말았다.

1963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문일평(文一平) 1888(고종 25)~1939

국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호는 호암(湖巖),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한학을 배우며 성장하였다. 묘가 망우리 묘지(묘지번호 203742) 구리지역에 있다.

1905년 미국 선교사의 소개로 일본에 유학하여 1908년 졸업할 때까지 유학생들의 자강운동단체였던 태극학회(太極學會)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귀국하여 평양의 대성학교, 의주의 양실학교, 한성의 경신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고 유학생 활에서 구상한 자강운동론을 교육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교육을 통한 자강운동의 보급을 포기하고 다시 일본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의 탄압이 심해지자 중국 상해로 건너갔다. 1912년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신규식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인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고 여기서 함께 활동하였던 박은식·신규식·신체호 등과 함께 박달학원(博達學院)의 교사로 활동했다. 동제사는 정치사상으로 시민적 민족주의와 대동사상(大同思想) 등을 지향하였고, 국혼(國魂)을 중시한 민족주의 역사관 그리고 대종교(大宗教)의 국교적(國教的) 신앙을 공통이념으로 하였다.

그는 1918년 귀국하여 이듬해 3·1운동에 참가, 8개월을 복역하였다. 복역 후에는 교육 및 언론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하였으나, 일본의 식민사학적인 역사관으로 인해 더 이상 일본에서 공부할 수 없음을 깨닫고 1년이 채 못 돼 다시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1939년 타계할 때까지 그는 국사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역사에서 '조선심(朝鮮心)'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심'은 조선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조선사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을 '조선심'의 대표자, 조선사상계의 대위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사학이라는 대전제에서 그는 신체호, 박은식 등에 의해 성립된 민족주의사학을 발전시켜 1940년대 신민족주의사학을 성립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여러 편들의 글들은 사후 『호암사회집』, 『호암전집』, 『소년역사독본』 등 5권으로 출간되었다.

방정환(方定煥) 1899(광무 3)~1931

이동문학가로 호는 소파(小波)이다. 묘가 망우리묘지(묘지번호 203703) 구리지역에 있다.

서울에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7세 때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취직했으나, 이곳이 토지조사사업을 담당하여 조선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곧 사직하고 천도교청년회, 개벽사(開闢社), 천도교소년회 등 천도교와 관련을 맺었다. 이후 청년문학단체인 '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어린이운동에 열성을 보였다.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냈던 경험으로 그의 어린

이운동에 대한 열성과 집념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자신의 집에서 등사판으로 『독립신문』을 발행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서울에서 '천도교소년회'를 만들었다. 한편 방정환은 전국 순회강연을 하였는데, 강연내용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그는 아동을 지칭하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 1923년에는 월간 『어린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아동잡지를 창간했고, 이어 동경에서 어린이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했다.

선구적 언론인이요, 교육자요, 문학가였던 그는 1931년 33세의 나이로 짧고도 긴 일생을 마쳤다. 1957년 그를 기리기 위해 '소파상(小波賞)'이 제정되었으며, 1978년 금관문화훈장, 1980년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1983년 어린이날 망우리 묘소에 「소파 방정환 선생의 비(碑)」가 건립되었으며, 1987년에는 독립기념관에 그가 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새긴 어록비가 건립되었다.

심점봉(沈點奉) 1893(고종 30)~?

독립운동가이다. 구리면 아천리 출신으로 직업은 농업이었다.

1919년 3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의하여 전국에서 3·1만세시위가 전개되자, 3월 28일 오후 5시 같은 마을에 사는 이강덕과 함께 아천리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 아천리·토평리·교문리 일대에서 시위를 하였다. 다음 날인 29일에도 아차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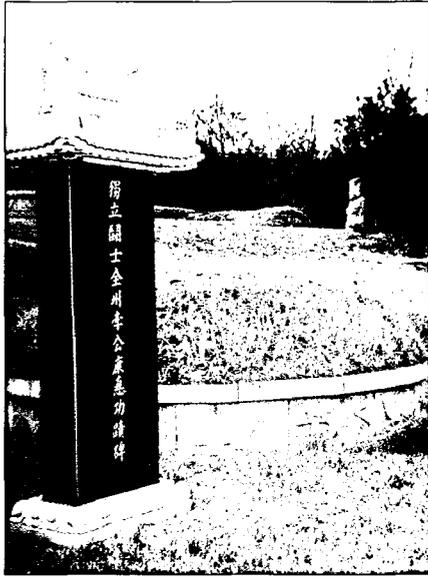
이로 인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오세창(吳世昌) 1864(고종 1)~1953

서예가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이다. 호가 위창(葦滄)이며, 조선 말 개화사상가이자 서화가·수집가인 오경석의 장남이다. 묘가 망우리묘지(묘지번호 203733) 구리지역에 있다.

그는 성장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거두인 부친 오경석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을사조약 이듬해인 1906년 귀국하여 천도교를 배경으로 한 『만세보』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하여 친일 매국단체인 일진회(日進會)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3·1운동 때에는 천도교대표로 손병희의 집에 모여 이미 준비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다. 이 일로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징역을 치렀다. 출옥 후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연계를 맺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서울신문사 명예사장을 비롯,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고문을 맡아 정당·단체의 올바른 육성에 노력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구에서 피난중 사망하여 사회장



이강덕 묘

으로 장례하였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이 수여되었다.

이강덕(李康德) 1892(고종 29)~?

독립운동가이다. 구리면 아천리 출신으로 묘가 아천동 동사골에 있다. 3·1운동 당시 직업은 면서기였다.

1919년 3월 전국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의하여 3·1만세시위가 전개되자, 3월 28일 오후 5시 같은 마을에 사는 심점봉과 함께 아천리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아천리·도평리·교

문리 일대에서 시위를 한 후, 다음날인 29일에도 아차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경찰에 피체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조봉암(曹奉岩) 1899(광무 3)~1959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다. 호는 죽산(竹山)이며, 묘가 망우리묘지(묘지번호 204727) 구리지역에 있다.

조봉암은 1899년 9월 25일 경기도 강화군 빈농집안에서 태어났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이에 적극 참가하여 1년간 수감되었다. 그의 형무소생활은 항일운동의 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석방 후 1921년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이 무렵 그는 문학작품과 사회과학 방면의 책을 두루 섭렵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접하고 사회운동의 길에 들어선다. 그러나 1922년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이후 조봉암은 신홍청년동맹·화요회 등에서 활동하는 한편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25년 서울에서 창당된 조선공산당에 참여하였으며 공산당이 와해된 후 국내·외에서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조직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1932년 상해에서 다시 체포되어 7년 동안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출옥한 후 1945년 1월 헌병사령부에 예비검속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다.

그는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사업과 사회개혁을 위하여 주로 인천에서 적극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당 운영을 비판한 그의 편지가 미군 방첩대에 의

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그는 공산당에서 제명되었고, 이후 좌익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인천에서 당선되었고, 8월에는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농림부 장관 재임 동안 조봉암은 농민에게 유리한 농지개혁법안을 작성하였으며, 한편으로 농민이익단체의 조직도 시도하였으나 1949년 2월 사퇴하였다. 이후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당선되어 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나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농림부 장관 사임 후 조봉암은 정치운동을 더욱 본격화하였다.

1955년 그는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진보적인 대중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한편 1956년 진보당추진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제3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예상 외로 200여 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이승만을 대체할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는 당시로서는 금기라고 할 수 있던 평화통일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후 1956년 11월 진보당추진위원회는 창당대회를 열고 그를 위원장으로 한 진보당을 공식출범시켰다.

1958년 1월 치안국은 조봉암 외 진보당 간부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진보당의 당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어 재판에서 조봉암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간부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고 정부 역시 재판에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조봉암은 사형이 언도되었고,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검찰의 재수사와 대법원의 재판결로 1960년 10월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지석영(池錫永) 1855(철종 6)~1935

한말의 의사이자 국어학자이다. 호는 송촌(松村)·태원, 자는 공윤(公胤)이다. 묘가 망우리묘지(묘지번호 203733) 구리지역에 있다.

지석영은 1855년 5월 15일 서울 원동에서 태어났다. 지석영은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였던 한의사 박영선 문하에서 한학과 의학을 배웠다. 이때 그는 봉건제도의 폐해를 통감하여 개회사상을 갖게 되었고, 스승의 영향을 받아 의학을 평생토록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지석영은 다산 정약용의 『마과회통(麻科會通)』과 『종두귀감』을 읽고 처음으로 서양의학에 접하였다.

지석영은 천연두의 창궐에 대한 한의학의 무력을 통감하고 서양의학의 종두법을 도입, 이를 막을 필요를 절감하였다. 1880년 지석영은 개회사상을 받아들인 집안의 아이들에게 우두의 접종을 실시하였다. 한편 같은 해 제2차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가서 우두법을 소개받았으며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를 익혀 귀국하자 서울에 종두장(種痘場)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우두접종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그는 정부의 개화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의 후원자와 동지들이 몰락하자 수세에 몰려

관직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885년 최초의 서양의 학서인 『우두신설(牛痘新設)』을 저술하였다. 지식영은 개화파의 몰락 후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감을 보고 개혁을 위한 11개조의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수구파가 그를 급진개화파의 잔여세력이라고 탄핵하여,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6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그는 『중맥설』과 『신학신설』이라는 두 종의 과학서를 저술하였다. 1892년에 유배가 풀려 서울에 우두보영당이라는 우두접종소를 설치하고 우두접종을 실시, 천연두의 예방과 퇴치에 노력하였다. 한편 그는 갑오경장에 참여하여 「중두규칙」을 제정 공포하는 데 공헌하였다.

1899년 정부에서 의학교를 설립하자 교장에 취임하여 의학도를 육성하는 데 힘쓰는 한편, 흑사병 등 전염병예방운동을 벌였다. 이 시기에 지식영은 국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국문연구와 국문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자의 자의와 해석음을 국문으로 표시하는 방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1906년에는 한글로 나타낸 ‘옥편’의 효시인 『사전석요(字典釋要)』를 저술, 1909년에 이를 간행하였다.

1910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모든 직위를 사임하고 남은 생을 독서로 일관하였다. 1935년 2월 1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한용운(韓龍雲) 1879(고종 16)~1944

승려·시인·독립운동가로 본명은 정옥(貞玉), 법명이 용운(龍雲)이다. 만해(萬海·卍海)는 법호이다. 묘가 망우리묘지(묘지 번호 204411) 구리지역에 있다.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1896년 이후 의병에 참가하였으나, 1897년 의병의 실패로 몸을 피해 고향을 떠나 설악산의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였다. 1905년 1월에 백담사에서 김연곡사(金蓮谷師)에게 득도하였으며, 전영제사(全泳濟師)에 의하여 수계(受戒)하였다. 1911년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해 8월 만주로 망명하여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에게 민족독립사상을 북돋아 주고, 여러 독립지사들과 만나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1919년 41세 되던 해에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3·1운동에 참가했다. 그는 독립선언서 중 불만스러운 점을 수정·가필하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 공약삼장(公約三章)을 첨가하였다. 그는 체포시 변호사와 사식(私食)을 취하지 않고 보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투쟁원칙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해 7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독립의 서』를 기초로 하여 제출하였다. 이 글은 독립에 대해 너무나 당당하고 논리정연한 주장을 담아 검사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8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였다. 1920년 복역중 일제가 3·1운동을 회개하는 참회서를 써내면 석방한다고 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2년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조선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24년 8월 백담사에서 그의 대표적인 시집인 『님의 침묵』을 완성하였다. 이 시집은 근대한국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이다.

1927년 1월 비타협을 원칙으로 한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를 발기하고, 5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겸 경성지회장에 뽑혔다. 같은 해 조선불교청년회의 체제를 개편하여 조선불교총동맹으로 개칭하고 일제의 불교 탄압에 맞서 불교대중화에 노력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의거가 발발하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중대회를 열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제가 당시 조선 유명승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또한 1940년 일제가 실시한 창씨개명에도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1943년에는 조선인 학병의 출정을 반대하는 등 일제 말기까지 단호하게 투쟁하였다.

만해 한용운은 1944년 해방을 불과 한 해 앞두고 67세로 열반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으며, 1967년 파고다공원에 「용운당 대선사비」가 건립되었다. 1973년 『한용운 전집』 전6권이 간행되었다.

부 록

홍준 홍사범 | 이리산

연 표

색 인

연 표

1985

- 8. 19. 내무부, 1986년 1월 1일자로 인구 5만 명 이상인 구리읍 등 4곳 시 승격 확정.
- 11. 1. 구리시개청준비위원회(회장 전홍선) 총회 개최.
- 12. 10. 5,000여 명이 모여 시 승격 앞두고 '애향결의대회'를 갖고, 시가행진과 마당놀이 등을 벌임.

1986

- 1. 1. 구리읍에서 구리시로 승격.
 - 1. 초대시장 장의진 취임.
 - 4. 경기도는 구리시 예산 156억 9,700만 원 확정 발표
 - 6. 시청 개청식과 현판식을 갖고 시의 업무 개시.
 - 16. 구리시 약사회(회장 김병구) 창립.
- 2. 20. 구리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윤복상) 창립총회 개최.
 - 24.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구리시지회(회장 김응춘) 창립총회 개최.
- 3. 24. 구리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유라) 시민회관에서 창립총회 개최.
 - 26. 재향군인회 구리시연합분회 창립총회 개최, 김영근이 회장에 취임.
 - 31. 구리시 전 지역 토지거래신고제 실시.
- 4. 8. 구리시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
 - 12. 갈매동 주민 1,000여 명 산제사를 지냄.
 - 18. 구리시 새마을부녀회, 47쌍의 합동결혼식을 마련
 - 22. 언제교 기공식 거행.
 - 29. 신민당 경기6지구당(구리·남양주·양평), 위원장에 조병봉 선출.
- 5. 9. 교문동 평화방앗간에 화재, 7개 점포 소실.
 - 13. 인창동 굴다리~베들고개 사이 790m 구간에 하수구 및 보도블록 설치공사 착공.
 - 27. 구리시 노인학교(교장 유장열) 개교식 거행.
- 6. 19. 건설부, 판교~구리 간 24km의 고속도로를 7월 착공기로 결정.
- 9. 12. 구리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민속무용 '오고무'로 참가.
 - 19~20. 동구문화제 거행.
 - 25. 구리시 실업인회(회장 김순경) 창립총회 개최.

- 30. 제1기 구리시 부녀대학 시청회의실에서 개강식 거행.
- 10. 10. 제1회 구리시민의 날 행사, 인창국민학교 운동장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 12. 24. 제2대 구리시장에 전영국 취임.

1987

- 1. 14. 239만 7,000m²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확정.
- 21. 교문·수택 지역에 택지 35만m² 조성기로 확정.
- 3. 4. 구리고등학교 개교, 신입생 입학식과 축구팀 창단식 거행.
- 13. 구리시 여성단체협의회 창립(회장 손희자).
- 3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갈매·동구·인창·교문·수택·수평동별로 농로 개설, 하수도 포장, 안길 포장, 양수장시설 착공.
- 4. 8. 구리시 노인회, 부인회, 학원연합회, 자율방범대 발대식 거행.
- 11. 교문동 안병길의 모포장에서 시장, 통장, 영농회장, 독농가 등 7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못자리 연시대회를 가짐.
- 14. 노인 자원질서봉사대 발족.
- 20. 교문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 25. 삼육고등학교 강당에서 23쌍의 새마을 합동결혼식 거행.
- 5. 2. 구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수택동민체육대회 열림.
- 3. 구리시민 성화봉송로 걷기대회 개최.
- 3. 초·중·고교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백일장이 열림.
- 4.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해 온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
- 15~2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반상회 개최.
- 6. 15. 부양국민학교 학생대표, 심장병돕기 성금 102만 4,000원을 전영국 시장에게 전달.
- 20. 수택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 7. 1. 시청직장예비군 발대식.
- 4. 왕숙천 하천변에서 수해예방시범훈련 실시.
- 24. 수평동 남양예식장에서 수해예방 기동수방대 발대식 거행.
- 8. 12. 수해민 691가구를 대상으로 취로사업 착수.
- 18. 진성레미콘, 동양레미콘, 용역회사 철폐를 요구하는 종업원 농성으로 조업 중단.
- 9. 1. 구리시~의정부 간 43번 국도 7km 구간 주변 29곳에 11월까지 먹

- 골배 판매소 설치.
- 10. 관내 전 지역에 신규 부동산중개업 허가 중지.
 - 22. 교문동사무소 신축공사 착공.
 - 25. 구리시 실업인회는 정기총회 겸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
 - 10. 15. 인창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구리시민의 날 기념행사 거행.
 - 29. 구리시장, 전국 기능경기대회 석공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신동순 등 6명의 선수를 집견 격려.
 - 31. 왕숙천변에 대규모 분뇨종말처리장을 1988년중 착공기로 함.
 - 11. 12. 주택은행 구리지점 개점.
 - 25. 구리소방서 대형소방차 3대, 순찰·구급·지휘차량 각 1대씩, 인력 46명을 갖추고 업무 개시.
 - 27. 수방기동대 발대식 거행.
 - 12. 21. 교문사거리~위커힐 간 도로확장공사 완공.
 - 30. 구리소방서, 구리시장에서 소방훈련 실시.

1988

- 1. 13. 구리시 올해 총예산 235억 7,300만 원 확정.
- 16. 구리시 부녀후원회, 경희대 경영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인창동 류병렬 군에게 60만 원 전달.
- 29. 구리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윤석균 회장 유임.
- 30. 수평동 522번지 일대 폐천 16만 5,000m²를 대단위 시민유원지로 개발키 위해 건설부에 사업승인 요청.
- 2. 9. 구리시,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기로 확정(상수도 사용요금의 56.8%, 지하수 사용업체는 사용비율에 따라 하수도세 부과).
- 3. 3. 교문지구에 34만 1,000여m²의 택지를 조성기로 함.
- 7. 수택동 75-3번지 3,960m²의 부지에 하루 80kℓ의 처리시설을 갖춘 가압폭기식 분뇨종말처리장 공사를 착공, 1989년 6월 완공기로 함.
- 8. 농업협동조합 남양주군지부, 인창동에 대규모 농수산물 공판장을 설립기로 함.
- 8. 구리소방서는 동일자동차학원, 금성교통, 한국상업은행 선수합숙소, 유유화학, 상명목공소, 서울의원 등 6개 업소를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업소로 적발.
- 9. 교문동 소재 2만 4,000m²의 공동묘지 폐쇄.
- 9. 인창동에 불우청소년, 영세노인, 가로청소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리시 적십자 부녀봉사단 등 10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 문을 열.

10. 겨울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고지대에 급수차 운행.
11.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공장신축이 규제됐던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고양 등 4개 시·군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 허용.
11. 교문빌딩 2층에 구리시 보건소 개소
16. 우편고유번호제 실시 예정.
22. 1986년 시 승격 이후 1987년 말까지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불법사태 191건 적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
25. 증권관리위원회, 건설증권 구리지점 신설 승인
4. 8. 인창동과 남양주군 퇴계원 지역 오후 5시부터 팔당원수 공급.
9. 구리시·남양주군,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불법선거용 부착물, 플래카드 등을 제거.
12. 상습수해지역인 인창동 225-1번지에 배수펌프장시설 공사 착공.
16. 각 기관·사회단체장들의 모임인 동구회 창립총회.
5. 10. 인창동 527-9번지에서 남양주 경찰서 인창지서 개서식.
13. 교문동 103번지 교문동취수장에 비상발전기 1대 설치.
16. 상수도공급대책을 시에 건의하며 주부 60여 명 3시간 동안 농성.
17. 계속되는 가뭄으로 왕숙천이 말라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25. 주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릉에서 주부의 날 기념행사.
6. 2. 구리시의 유일한 한강 수문인 교문동 제방수문(높이 2.7m, 폭 5m)이 인근 진성레미콘의 골재분말과 모래자갈로 완전히 막힘.
7. 제3대 구리시장 한세권 취임.
12. 토평동 진성레미콘 골재채취현장에서 한국전쟁 때의 박격포탄 1개와 M1소총 1정을 발견
7. 6. 여성단체 회원 100여 명, 1988올림픽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짐.
13. 농산물수입반대 결의대회.
8. 20. 한세권 시장, 제16회 체육부장관기 쟁탈 핸드볼대회에서 준우승한 구리여자중학교 선수단에게 격려금 지급.
24. 제3회 시민의 날 한마당 큰잔치.
9. 1. 자연보호 기동순찰대 10명과 자연보호 담당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기동순찰대 발대식.
28. 김대중 평민당 대표, 당소속 국회의원, 권운상 지구당위원장 및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민당 구리시 지구당사 이전 및 현판식.
30. 구리 하수종말처리공사 완공, 시험가동 들어감.

10. 10~14. 구리시 보건소, 영세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 실시.
 12. 구리시 실업인회 창립 2주년 기념식.
 17. 남양주 세무서, 교문동 157-2번지 새 청사에서 업무 시작.
 26.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78건 적발, 강제 원상복구키로 함.
11. 1. 1개월간 주민등록정비.
 - 1~15. 아차산 입산통제 등 산불비상대책 마련
 2.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협의회 구성.
 7.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정류장 표지판 정비.
 12. 인창동 576-7번지 대지 200평 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75평 규모의 인창동사무소 신청사 완공, 준공식 거행.
 17.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발족식.
 - 24~28. 영세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25. 상록회 창립 5주년 기념식.
12. 11. 지방행정동우회 창립총회.
 29. 수택동 69-4번지에 분뇨종말처리장 신축공사 착공.

1989

1. 6. 남양주 경찰서 석교지서 청사 준공 및 개서식.
 23. 갈매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설채소 재배기술교육 실시.
 30. 한세권 시장, 1989기계영농단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양지마을을 선정.
2. 1. 구리시 지방세 목표액 74억 4,267만 원 책정.
 1. 원진레이온 직장폐쇄 철회촉구 및 임금인상 쟁취대회.
 16. 구리시 부녀회 정기총회.
 16. 동구로터리클럽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척사대회.
 21. 위민봉사위원 총회 개최.
 - 22~23. 생활보호대상자 무료검진 실시.
3. 2. 강도를 잡은 환경미화원 유호춘에게 용감한 시민상 표창.
 6. 교문동 주민들 땅 헐값에 매입, 3배 비싸게 분양했다고 하여 농성.
 10. 산불예방 위한 대책본부 설치.
 14. 관내 업소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단속 실시.
 21.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교문지구 대상 위장당첨 여부 조사 착수.
 28. 전민련 경기북부 민족민주운동결성 대의원대회 개최.
 28. 수평동 마을회관에서 영농기술교육 실시.
4. 1. 방역기동반 발대식.

4. 구리소방서, 방화대책협의회 개최.
17. 구리시청 도시과 직원 박만수, 공무원 위조혐의로 입건
18. 주부대학 제4기 수료식.
20. 영세상인 100여 명이 구판장설치 반대 농성.
26.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장에 이상동 선출.
28. 구리시 청년회의소(회장 민경조), 동은예식장에서 12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거행.
5. 8. 6월 10일까지 43번 국도에 보도블록 설치공사 시행.
- 8~13. 임야 5필지를 대상으로 솔잎 흑파리병을 대비하여 소나무군생지역의 방제를 실시.
10. 구리시청 도시과 소속 청원경찰 임승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11. 수택동 산1번지에 거주하는 김선분, 제17회 어버이날 기념식 효행 부문 대통령상 표창.
11. 의료보험조합 개청식 및 이무성 대표이사 취임식.
20. 수평동 부녀회(회장 주윤순), 소년소녀가장 18명과 모자세대 12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
- 22~27. 구리소방서는 관내 국민학교를 순시하여 화재예방교육을 실시.
24.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윤덕진을 북메우기 무형문화재로 지정.
27. 수해상습지역의 수해대비사업으로 장자못 유입수로 준설.
6. 3.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숙천 일대 정비.
3. 주요 간선로 가로등 일제 보수공사.
8. 폐수배출업소 9곳 적발, 폐쇄조치.
1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953건을 적발하여 458건 원상복귀조치.
22. 녹지불법전용 2곳 강제복구.
26. 노점상 대책위원회 개최.
30.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협의회(회장 김종국) 창립총회.
7. 3. 인창철도 굴다리 폭 20m, 높이 4.5m로 확장기로 함.
5. 대한무공수훈자회 구리시지회(지회장 차경희) 창립총회.
- 14~15.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철거.
22. 환지지구 내 주민 초청 토지구획정리사업 설명회.
23. 수택·교문·인창동 등 5,000여 명의 주민들 환지 징수금 터무니없이 책정했다며 반발.
29. 재야인사들 전교조 해직교사돕기 대책회의.
31. 제2차 노점상 대책위원회 개최.
8. 7. 환지조정 경과보고회.

9. 6번 국도 돌다리에서 구리여고 입구 구간 신흥로 개설 기공식 거행.
11. 아천동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완공.
12. 광고물 정비추진위원회 구성.
16. 환지 정수금 낮춰달라고 주민 300여 명 시청 접거 농성.
19. 교문동 저소득 밀집지역 환경개선 도로포장 완공.
23. 구리단위농협 회의실에서 제1회 주부대학 개강식 개최.
24. 교문2지구 택지개발비 282억 원과 구리국민주택건설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 722억 확정.
26. 시청광장에서 자연보호순찰대 장비 전달식 열림.
27. 전국체전 상공다짐 도민달리기대회 개최.
9. 1. 하천오염원 단속. 22개 공장 폐쇄와 함께 고발 조업정지 6곳, 시설 개선 명령 5곳.
4. 절도범을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박태준에게 용감한 시민 표창 및 부상 전달.
4. 노점 풍물거리 개장식.
5.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청림공원' 강제 철거.
5. 민정당 구리시지구당 정기대회를 갖고 위원장에 전용원 현 위원장을 선출.
6. 주민 300여 명 시청 앞에서 구획정리 땅값 인하를 요구하며 농성.
6. '보상금 비리'와 관련하여 구리시 공무원 최의동, 이병묵, 차수동, 임현진 등이 포함된 26명 적발.
22. 원진레이온에서 소방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소방훈련 실시.
22. 동구릉에서 시민백일장 개최.
10. 3. 시민 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4. 교문동 주거밀집 취약지 화재진압 비상훈련.
6. 공해업소 7곳 폐쇄.
20. 수평동사무소 신청사 준공식.
22. 구리단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동식), '1989새농민대회' 개최.
25. 구리시 실업인회(회장 김순경) 창립 3주년 기념행사.
28. 재향군인회 구리시분회 제1회 구리시장배 쟁탈 안보사격대회 개최.
11. 6~20. 지정벽보판 35개소 추가 설치.
- 14~30. 폐자원 수집운동 전개, 금액 1억 8,800만 원 설정.
16. 교문국민학교 개교식.
23. 구리소방서 준공식 거행, 교문동 산76-2번지 2,000여 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723평 규모.

- 27. 경기도 199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구리시 100억 9,193만 5,000 원을 포함하여 총 7,255억 2,100만 원 확정.
- 28. 국도 6호선 보도블록 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 착수.
- 12. 1. 국제 규모의 구리잔디축구장 완공, (주)럭키금성이 지난 1987년 9월 아천동 100번지 일대 9필지 9만 6,091㎡에 축구장 4면을 완공, 그 중 1면에 대한 사용권을 구리시에 이양.
- 16. 청소년선도대책반 발대식.
- 20.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식.
- 21. 도시계획 내의 농지불법전용,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
- 22. 공해배출업소 30여 개소 적발하여 고발조치 또는 폐쇄명령.
- 23. 제2회 구리시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 27. 건설부, 구리~퇴계원 간 5km 고속도로건설사업 확정.

1990

- 1. 3. 구리시 올해 예산 371억 9,900만 원 확정.
- 9. 수택동 355번지 대지 729평, 시가 4억 원을 포함한 200억대의 귀속 국유토지를 편취한 토지사기단 4개 파 5명 구속.
- 18. 구리시,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42만 5,058㎡에 대한 519억 5,665만 9,9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29. 경기도,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세부계획 확정.
- 2. 2~3.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정기총회.
- 6. 경기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29개 시·군에 지역경제과를 신설키로 확정.
- 7~8. 640명을 대상으로 1990년도 겨울철 새마을 농민교육 실시.
- 8. 구리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청산금 1평당 평균 70만 원 씩으로 최종 확정.
- 17~28. 구리시에서 창단한 극단 ‘무대가 부부마당극 ‘장날’을 공연.
- 24.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법대 발대식.
- 3. 12. 토평제방도로 포장공사 착공.
- 13. 남양주 경찰서 녹색어머니회(회장 주윤순) 발대식.
- 13.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계획 추진결의대회.
- 16. 퇴폐유흥업소 70곳 적발.
- 20. 재향군인회 구리시연합분회 창립 4주년 기념식.
- 22. 구리시, 자연녹지를 불법 훼손한 웨라톤 워커힐 대표 등을 고발.
- 28. 새마을 주부대학 졸업식.

- 28. 구리시 위민장학회, 모범학생 18명에게 장학증서 전달.
- 4. 4. 민주자유당 구리시지구당은 구리단위농협에서 개편대회를 갖고 전용원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10. 구리시, 제22회 난파음악제에서 합창 어머니부문 최우수상 수상.
- 11.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
- 17.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 5. 7. 민간기동순찰대 결단식.
- 9.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위원회 발대식.
- 27.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새마을 활성화 경보대회 및 씨름왕 선발대회.
- 6. 16. 제9회 KBS기 핸드볼대회에서 인창국교 여자핸드볼팀 우승.
- 22. 11월 착공 예정으로 배수관 및 급수관 6,700여m 교체 실시.
- 7. 1.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
-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용도 변경 6건 적발.
- 19.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리시지회, 제3대 이상운 신임지회장의 취임식 거행.
- 19. 동구동 간촌부락 도로포장 준공식.
- 8. 7. 구리시는 폐수와 먼지를 무단 배출한 석재공장 14곳을 고발.
- 7. 갈매동 신망에 재활원 부설 공장에 화재, 가건물 4동 420평 전소
- 11. 신망에 재활원생 25명이 불에 탄 재활원 이전 등 대책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
- 18.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20개 시·군에 지적과 신설승인 요청.
- 22. 시멘트판매장 유통실태 점검.
- 24. 1990년 농산물 개방대책사업 추진 심사결과, 구리시 3위 차지.
- 28. 교문2지구 총 14만 4,800평에 택지개발공사 착공기로 함.
- 9. 1. 11월까지 먹골배 노변직관장 운영.
- 6. 인창동 신2-123번지에서 동구동사무소 착공식 거행.
- 12. 집중호우로 1,602세대 6,745명 이재민 발생, 농경지 전 175ha와 답 40ha 침수.
- 15. 안양시 의사회와 시흥시 보건소, 구리시 수해지구 순회 진료
- 18. 건축물 감리배정 관련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구리분소(소장 박영목) 강제 폐쇄.
- 24. 무등록공장 규제기준 확정.
- 10. 10. 제5회 시민의 날 기념식.
- 31.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건물·체육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대폭 완화.

- 11. 8. 시청회의실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 및 국민봉사대 발대식.
- 12. 3. 토평제방 연결도로의 포장공사 및 석축쌓기사업 착공.

1991

- 1. 14. 제4대 구리시장에 홍성원 취임.
- 29. 결프전 장기화에 대비하여 석유판매소 일제 단속.
- 30. 구리소방서 굴절사다리차 긴급 구입, 인명구조활동 만전 기해.
- 2. 10. 각급 사회단체장 44명으로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3. 11. 주택건설허가 대폭 완화.
- 11. 경기도청 민원실에 교문동에 거주하는 윤덕진(무형문화재 제6호)이 제작한 신문고 설치.
- 21. 구리시 청년회의소, 11쌍의 합동결혼식 주선
- 4. 13. 구리 시정자문위원회 해단식.
- 5. 14. 하천퇴살리기운동 전개.
- 17.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결
- 27. 한양대부속 구리병원 건설 기공식.
- 31. 인명구조대 발대식.
- 6. 3. 월남참전청룡중상자(회장 김영록)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며 농성.
- 6. 인창동 도시공원에 높이 15m, 폭 3.1m 규모의 현충탑 완공.
- 17. 선거운동원 사칭, 복사 위조수표 이용 사기사건 발생.
- 22. 제1회 소인극 경연대회.
- 7.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리에 건립키로, 부지선정 작업 착수.
- 5. 동구동사무소 청사 기공식.
- 8. 6. 세계잼버리 성공다짐 시민달리기대회 개최.
- 9. 럭키금성 잔디축구장 개장.
- 19. 토평동 철거주민 아파트 입주 계약금 납부연기를 요구하며 농성.
- 26. 아차산 우미내계곡과 백교계곡 일대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
- 30. 교문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남정숙) 알뜰시장 개장.
- 9. 1. 구리 간선도로변 50곳에 먹골배 직판장 설치.
- 24~30. 축산폐수시설 일제 점검.
- 27. 팔당관리소 잔디구장에서 구리·미금·남양주 지역 제1회 청경체육대회 개최.
- 10. 1. 165-1번 버스 사전 예고 없이 운행 중단.
- 8. 47번 국도 확·포장공사 착공.
- 8~17. 토지불법 행위 일제 정밀조사.

- 9. 사이클 802km에서 한국신기록 세운 양태환 선수에게 인정서 전달.
- 10. 럭키금성 잔디구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
- 14. 인창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 14. 구리문화원 초대원장에 김종국 취임.
- 16.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점 사옥 준공식.
- 22. 춘천시립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회 어머니 합창단 전국경연대회에서 구리시 어머니 합창단이 최우수상 수상.
- 25. 구리문화원 개원식.
- 26. 구리 상수보호구역 해제.
- 11. 2. 구리시 노인·아동복지회관 준공.
- 8. 교문·인창지구 등 28만km²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 13. 아치울 소공원에서 새마을 지도자탑 제막식.
- 29. 성남시 삼평동에서 미금시 도농등을 잇는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23.5km 왕복 4차선 개통.
- 12. 10. 갈매동 분뇨처리장 착공.
- 19.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 운영.
- 23. 326억 원을 투자하여 구리~미금 강북도로 4차선 8km 개통.
- 23. 구리시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1,128억 원 확정 의결
- 24. 환경처, 구리·미금·하남·포천 지역을 포함한 청정지역 대폭 확대 발표
- 26. 아치울·우미내 지역 수도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공사 착공.
- 30. 제5대 구리시장에 류재천 취임.
- 30. 교문동 736-1번지에 교문동 우체국 개국.

1992

- 1. 16. 대성암에 불이나 건물 전소
- 2. 7. 교문동 개발제한구역 내 7,000여 평의 논이 대지로 불법 형질변경, 공장으로 임대.
- 10. 법정·행정동이 달라 주민들 큰 불편 호소
- 11. 구리시,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 6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기로 함.
- 20. 구리시 어머니 합창단(단장 김명순), 제3회 정기연주회 가짐.
- 25. 6월 25일까지 정신대원 및 그 피해상황 신고센터 운영.
- 27. 한국전력 문화예술관에서 구리시민극단 '노을에 학은 사라지다'를

3월 7일까지 공연

- 27. 교문택지개발 제2지구 2,048가구 분양공고 이후 아파트 투기꾼들 구리시로 대거 위장전입.
- 27. 민주당 구리지구당 창당대회 개최, 조정무를 위원장으로 선출.
- 27. 왕숙천변 고수부지 공사현장을 운행하고 있는 트럭들 폭주에 대해 주민 1,000여 명 대책 호소
- 3. 1. 방위청,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예방 위해 아차산 일체 입산 통제.
- 7. 구리시, 인창동시민공원 내 현충탑 주변에 시민헌수운동 전개.
- 10. 정주일 국민당 공천으로 구리시 제14대 의원 후보에 등록.
- 14. 제14대 국회의원 후보자 전용원·조정무·정주일 등의 첫 합동연설회가 인창국교 운동장에서 열림.
- 18. 국민당 구리시지구당 창당대회 개최, 위원장에 정주일 선임.
- 18.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구리지점 준공식.
- 19. 구리시 제14대 총선 유권자수 총 8만 1,382명(남자 4만 875명, 여자 4만 507명) 확정, 13대 총선 때보다 2만 1,006명이 늘어남.
- 23. 인창국교에서 제14대 총선 합동연설회 개최, 1만 7,000명의 유권자가 모여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
- 25. 제14대 국회의원에 국민당의 정주일 후보 당선 확정.
- 4. 1. 구리시 거주자, 구리시로 호적 옮기기운동 추진.
- 10. 제24회 난파음악제에서 구리시 어머니 합창단 우수상 수상.
- 11. 민자당 구리시지구당, 정기대회를 열고 전용원 위원장을 신임위원장으로 재선출.
- 11. 구리시 노인봉사회 발대식.
- 15. 구리시의회 개원 1주년
- 22. 상습침수지역인 수택동 신우연립~구리여고 사이 총연장 600m의 하수도 개량공사가 구간 내 지주들의 보상요구로 중단.
- 6. 10. 교문동 638-1번지 일대에 화훼 총판장 개장.
- 7. 1. 구리시, 통합공과금제 시행.
- 18. 구리 출신 도의원 3명, 각급 기관 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 합동의정보고회를 가짐.
- 25. 교문동 동현임대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임대료 인상과 관련 시청사 앞 인도에서 1시간여 농성 후 해산.
- 28. 구리시의회, 교문동 산94-2번지 일원 9,467평에 연건평 4,500여 평의 청사를 마련키로 한 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 8. 21. 시청회의실에서 제11회 가족동요대회 개최.
- 25. 수원~구리~가평 간 직행버스 노선 신설.
- 27. 남양주 축산협동조합이 구리지소로 이전.
- 9. 1. 먹골배 직판장 국도변 50곳에 가설.
- 10. 10. 럭키금성 잔디구장에서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거행.
- 12. 구리문화예술제가 인창국민학교 체육관에서 개막식.
- 11. 7. 교문2지구 15만여 평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공사감 독 소홀, 고압선 가설, 투기꾼 사기전매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 8. (주)진성레미콘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임호풍), 구리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
 - 11.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리시지회 회장에 손태일 취임.
 - 17. 교문2지구 럭키아파트 주민 100여 명, 텔레비전 시청료 통합공과금 고지서 분리를 요구하며 수평동사무소 앞에서 3시간여 동안 농성.
 - 21. 수택동 271번지 일대 특고압선 철탑 주변에 사는 주민 8명이 집단으로 백반증 증세를 보임.
 - 25. 구리시의회(의장 지홍우)는 12월 24일까지 제18회 정기회를 개최.
- 12. 11.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 종점에서 구리 인터체인지까지 폭 23.4m 길이 2.37km에 750억 원을 들여 왕복 4차선 건설 완료.
- 14. 서울시와 수도권 도시를 잇는 심야좌석버스(밤12~2시) 운행, 버스 요금은 1,000원이며 구간은 청량리~미금 간으로 7대 배정.

1993

- 1. 27. 제6대 구리시장에 이수영 취임.
- 30. 지역주민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경기를 각 동별로 개최.
- 2. 22.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구리지부 경기도에서 10번째로 창립, 초대 지부장에 배동욱 선출. 미협(지부장 송윤희), 문협(지부장 한상언), 음협(지부장 송영일) 등 3개 지부로 구성.
- 23. 구리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
- 24. 구리시 어머니 합창단, 구리농협 강당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 개최.
- 3. 2. 커피값 800원에서 1,000원으로, 목욕료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이발료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구리 지역 서비스요금 기습인상.
- 13. 갈매·교문동에 거주하는 주민 5,000여 명,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
- 25. 전 국회의장 김재순 소유 토평동 48-2번지 일대 면적을 2만 5,100여 평으로, 3,200여 평을 누락신고.

- 26. 경기 동북부 민주시민운동 실천협의회 등 구리 지역 4개 시민·노동운동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불합리한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 4. 28.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창립 4주년 기념식을 함.
- 29. 지명위원회 개최.
- 5. 14. 한국기능미화협회 구리시지회(회장 최경락) 회원들,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성금 기탁.
- 6. 21. 시민회관에 여성인력 소개센터 개소식.
- 30.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 구리, 미금 지역에 팔당댐의 물이 공급됨.
- 7. 21~22. 민속놀이인 그네뛰기와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 23. 경기도는 구리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의결, 이에 따라 인창동 117번지 일대 18만 1,135㎡에 오는 1995년까지 건축면적 7만 2,661㎡(건물 12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게 됨.
- 8. 1. 구리 지역에 택시요금 시간거리 병산제를 실시.
- 6. 국민당의 정주일 의원 탈당 선언.
- 9. 14. 구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회장 이·취임식 거행.
- 10. 5~7. 한전 문화전시관에서 문화역사사진 및 전통복 전시.
- 8. 인창국교 실내체육관에서 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 8. 향토시장 개설, 한마당 민속놀이, 먹골배 품평회.
- 9. 럭키금성 잔디구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 21. 구리시, 내양국민학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 21. 청년회의소,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거행.
- 11. 4. 상록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
- 5.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 3개 시·군 주민들, 시내버스 구간요금 개선 요구.
- 12. 구리시 신청사 기공식 개최.
- 14. 구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3인 농구대회가 관내 청소년 41개팀 180여 명이 참가하여 열림.
- 12. 4. 경기 동북부에 '아토피' 라는 어린이 피부질환 확산.
- 10. 남양주 축협, 교문동에 교문출장소 개소식.
- 11.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공사 준공, 구리시로 공급되는 상수의 통수식을 교문가압장에서 가짐.
- 24. 구리시의회, 제27회 정기회 1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342억 9,000만 원의 1994년도 시 예산안을 의결.

29. 건설부, 토평지구 15만 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1994

1. 3. 제7대 구리시장에 박영순 취임.
19. 수평동 일대 강북도로변 주민 500여 명 방음벽 설치 호소
25. 민주당, 관내 '동구회' 를 위장 정치단체라며 해체를 요구.
2. 5.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구리~퇴계원 간 2.7km 개통.
23. 구리시 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3. 7. 구리농협조합장 이·취임식 개최. 신임조합장에 정성배 취임.
23. 경기도 시·군 통합 대상 지역을 5개 지역으로 최종 확정. 남양주군을 분할하여 구리시와 미금시에 통합하는 방안 마련
23. 구리소방서, 구리의용소방대 갈매동 지역 발대식.
4. 2. 구리시의회, 제3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미금시 도농·지석·가운·수석동 등 4개 동과 남양주군의 진접읍 등 4개 읍·면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14. 법무부 갱생보호회 서울지부 구리·미금·남양주협의회 제6차 임시총회 개최.
25. 교문국민학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27. 청년회의소, 동은예식장에서 '사랑의 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 거행.
5. 3. 시·군 통합안 중 구리시로 편입하는 진접읍 등 3개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반대, 개표 결과 구리시는 88.5%의 찬성의사를 보였으나 남양주군 주민들은 69.7%의 반대의사를 보여 통합 무산
8. 구리시 체육회 주관으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자전거타기 및 걷기운동 범시민대회 개최.
9. 교문동 747-2번지에 1,000명 수용 규모의 구리시립도서관 개관.
10. 동구동 주민 100여 명, 가스충전소 설치반대 농성.
11. 동구동과 인창동 주민 100여 명, 시청에서 고압가스 저장 및 판매 시설 설치와 레미콘공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농성.
17. '구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이라는 교육발전 심포지움이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림.
19. 구리문화원은 성년의 날을 맞아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중·고교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관례인 성년식을 거행.
19.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장에 안병철 취임.
20. 한국기능미화협회 구리시지회 회원 17명, 관내 소년소녀가장 2세대에게 성금 전달.

- 21. 교문사거리 우회도로 개통, 연장 563m 폭 15m의 2차선
- 24. 동구동 주민들 약 200여 명 가스충전소 건설반대 농성, 박영순 시장 감금.
- 26. 가스충전소 반대 농성 경찰투입 3시간 만에 강제 해산. 동구동 주민 57명 연행.
- 6. 6. 구리시, 10월 말까지 아차산을 중심으로 백교, 아치울, 우미내계곡 등 55개소를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
- 10. 구리시, 1,470여 만 원을 들여 시청 내에 소각로를 설치.
- 20. 구리시민극단, 수택동 376-1번지에 극단 전용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거행.
- 24. 전교조 구리·미금·남양주지회, 전교조 창립 5돌 잔치.
- 25. 동구릉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생대회 및 사진콘테스트, 백일장 개최.
- 28. 인창동 117번지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착공.
- 7. 13. 아천동 우미내 마을 주민 50여 명, 한국석유개발공사 지하 유류고가 들어선 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
- 17. 제1회 시장기 생활체조 에어로빅 경연대회 개최.
- 19. 편찬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지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24. 구리문화원 아차산 종합학술조사단, 아차산에서 고구려 유적지를 발견, 토기 다량 발굴.
- 8. 4. 세계가정의 해 기념, 제3회 구리시 가족합창대회가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
- 9. 국방부가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구리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12.4km²로 변경.
- 9. 구리소방서, 토평소방출장소 기공식을 가짐.
- 11. 무소속의 정주일 의원 민자당에 입당.
- 18. 박영순 시장, 유엔사회개발에 관한 국제 시장 세미나에 참석 '생산적 고용확대 문제와 관련 1960년대 이후 우리의 경제발전 사회경험'을 발표
- 19. 구리시립도서관 공연장에서 백중맞이 제1회 민요경창대회 개최.
- 22~27. 제4회 도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극단 아홉마을의 '뉘라서 저 하늘을'이 도지사상 수상.
- 24. 구리시, 상수도를 공급키 위해 미급수 지역인 갈매국민학교 주변과 사노동 안말·언제말·양지말 일대에 대한 상수도공사를 착공.
- 26. 구리시, 수택동 537번지(제4호 어린이 공원)에 시비 1억 5,000만

- 원의 예산을 들여 구리시 경로식당을 준공.
9. 2. 구리시 어머니 노래교실,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강.
 8. 대한상이군경회 신창특별지회 신창중상이용사촌, 교문동에 소재한 하나아파트에 입주식.
 8.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점 강당에서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라는 주제로 제1회 기독교청년회 구리포럼 개최.
 9.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구리시가 '정월대보름놀이'로 노력상 수상.
 15. 노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5. 제2회 구리시민의 장 수상자로 시민봉사장에 박정구, 교육장 인상욱, 문화예술장 김종국, 체육장 이영주, 애항장 장종식, 효열장 이효숙, 산업장 이한홍 결정.
 10. 1. 4차선 강북도로와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토평 인터체인지 진·출입 유턴도로 개통.
 5. '21세기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5. 카자흐공화국의 잠불시장이 구리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공식 방문단을 이끌고 구리시장을 예방.
 6. 토평동·수택동 일원을 비롯한 18개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7.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먹골배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10. 럭키금성 잔디구장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민속놀이 공연.
 10. 한강의 지천인 장자못, 왕숙천 등에서 낚·크롬 기준치 초과 검출.
 11. 럭키금성 운동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열림.
 11. 구리시립도서관 공연장에서 가을음악제 개최.
 - 11~20. 구리문화원 전시실에서 문화유적사진 및 전통복 전시회 개최.
 12. 구리시, 시청상황실에서 카자흐공화국의 잠불시와 자매결연 조인식.
 13. 구리시립도서관 공연장에서 국악한마당 큰잔치.
 - 16~17. 동구릉에서 동구문화제 개막.
 - 17~19. 시립도서관 공연장에서 극단 아홉마을의 '뉘라서 저 하늘을' 공연.
 19. (가칭)재단법인 구리시민 장학회 설립.
 20. (주)우정상호신용금고, 교문동 217-34번지에 새 사옥 준공.
 21. 구리시와 미국 스포켄시의 기독교청년회 자매결연 조인식.
 29. 구리여고의 카누선수들이 제75회 전국체전 카약카누(K-4) 여고부 500m 경기에서 우승.
 11. 8. 한국마사회 구리지점 강당에서 그린스카우트 구리지부 창단.

- 15. 구리시민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 17. 구리순복음교회는 구리시 소속 환경미화원 57명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96명을 초청 위안행사를 거행.
- 17. 인창동 주관으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활용품 15t과 공병 3,600개가 수집됨.
- 18. 대한주택공사는 인창지구 근로복지아파트 918가구를 분양 시작.
- 21. 교문동 백교작목반은 백교마을 앞 43번 국도변에 대지 1,500평, 판매장 800여 평 규모의 농수산물 직판장을 마련하여 임시 개장.
- 24. 대한주택공사, 인창지구의 상업용지 7,128평을 럭키개발에 매각.
- 12. 9. 구리시,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다수 주민들이 주소를 잘못 알고 있어 행정동 명칭이 기재된 표찰을 2,600개 제작하여 배포.
- 13. 구리 기독교청년회 대회의실에서 '21세기 희망의 삶터, 구리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진행.
- 14. 청소년 어울마당 풍물교실이 구리시립도서관에서 품청소년 놀이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구리여중 농악반 6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
- 20. 구리시, 주민자원경찰대를 운영,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
- 21. 교문2지구 연결도로(꽃길예식장 입구~한성아파트) 개통, 길이 250m 너비 15m임.
- 22. 구리소방서, 수택동 494-14번지에서 토핑파출소 신축 이전식 거행, 규모는 대지 165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50평.
- 23. 인창택지개발지구 2단계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872가구 분양.
- 25. 구리시, 1995년도 새해 예산 1,361억 4,800만 원 확정.
- 27. 구리시 지방세 세무비리 특감 결과,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비리가 130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남.
- 27. 민자당, 당무회의를 열고 구리시지구당을 사고지구당으로 의결한 뒤 정주일 의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

1995

- 1. 14. 민자당 구리시지구당 정기대회 개최, 정주일을 위원장으로 선출.
- 16. 구리시, 2005년 인구대비 장기 상수도공급계획안 마련
- 17. 교문동 220번지에 준공된 교문경로당 입주식 거행.
- 18.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995년 폐수 및 오염물질 30% 줄이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
- 20. 갈매동 4·5통 부녀회와 할머니회는 경로당 신축기금으로 그 동안 폐품수집으로 모은 75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기탁.

24. 행정심판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청소년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게 해주고 업소대표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구리시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박한규를 공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26. 관내 의료기관 및 음식점 등 9개소에 호적신고서 비치.
2. 2. 교문동 인구과밀로 분동승인, 내무부는 인구 4만 이상만 제한승인.
3.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8년 말까지 구리시 토평지구(24만 8,000평, 8,000가구)에 택지 조성키로 함.
9. 구리시민, 서울시의 아차산 동서 관통 터널(면목동~도평동, 총연장 3.5km 터널 1.19km) 추진에 대하여 유적훼손, 환경파괴 이유를 들어 반발.
10. 구리시 노인회, 정기총회 개최.
12. 구리시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 대한 보행자 안내체계(거리안내표지판 78개소, 동별 안내소 9개소) 개선.
18. 구리시 환경사업소, 사업소 내의 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개방.
22. 관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관리책임자 안전교육도 병행.
24. 구리시 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24.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 제10회 정기총회 개최, 제4대 지부장에 유재수 후보가 당선.
25. 구리시립도서관 공연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25. 구리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평가보고회를 가짐. 하루 평균 쓰레기발생량 37% 감소.
27. 민자당, 구리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 개편방안을 확정.
3. 1~5. 극단 '아홉마울', 구리시립도서관 공연장에서 해방 50주년 기념공연으로 김소월 생애를 작품화한 '못잊어' 공연.
3. 교문동 일대 주택가에 설치된 특고압선 송진선로를 왕숙천변으로 이전하기로 확정.
7.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교문국교를 포함한 경기도 내 27개 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9.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으로 물가상황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품목·업소별 담당제를 실시.
10. 구리시,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잠재력 계발을 위해 제4회 여성취미교실을 운영.
13. '바로바로 처리센터' 운영의 확대 방안으로 '이동시청' 운영.
13. 교문동을 1·2동으로 분리, 교문1동이 6,844세대에 2만 39명, 교

문2동이 7,025세대에 2만 1,684명.

15. 인창동 주민 500여 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계 지하차도를 고가차도로 변경할 것을 요구.
18. 구리시에 건립중인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비롯,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가 등 분양사기 기승.
18. 30여 기관, 단체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왕숙천 맑게 가꾸기의 날’ 시범 행사 개최.
21.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군은 왕숙천 유역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왕숙천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
22. 구리시 경로식당, 관내 노인들 300여 명에 대해 무료진료 실시.
22.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순 시장의 방송출연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24. 수택동 537번지 경로식당 지하에 노인빨래방 설치 운영.
27. 교문2동사무소, 교문동 799-1번지에 연면적 114평 지상2층 규모의 청사에 입주식 거행.
27. 구리시의회, 의회활동 마무리. 지난 4년간 4차례의 정기총회, 40회의 임시회의 등 총 248일 동안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52건, 일반안 20건, 건의안 2건, 예산안 6건, 보고질문 5건 등 총 85건의 사안을 처리.
28. 세계화·지방화에 발맞춰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11월 22일까지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주민대학 개설.
29. 박영순 시장의 명예퇴임식 거행.
4. 1.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4월 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3. 구리시, 수택동 518번지 일대 1,500여㎡ 부지에 27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허가, 주민들 반발.
 10. 구리·남양주 지역 토큰판매소 태부족, 주민들 불편 호소
 11. 구리시, 매주 금요일을 ‘민원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함.
 12. 제8대 구리시장에 이석우 취임.
 14. 제33회 경기도협회장기 쟁탈 축구대회 초등부에서 구리시의 부양국민학교 우승.
 14. 구리시 보건소를 인창동 362-18번지로 이전 신축키로 함.
 19. 워커히 호텔 측 아차산성(사적 234호) 일대 임야 600평 불법 훼손.
 21. 국악협회 구리시지부장 염창순 작사, 김용만 작곡 ‘먹골배 아가씨’와 김용만 작사·작곡 ‘아차산 효도마을’이라는 음반제작.

5. 10. 농번기를 맞아 6월 말까지 '농촌일손돕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10. 자민련은 당무회의를 열고 구리시장 후보에 지홍우를 공천.
11. 구리문화원 임시총회 개최, 문춘기 부원장을 제2대 원장에 추대.
13. 구리시 민자당 기초단체장 공천자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확정 발표
- 16~20. 구리농협, 자체 직판장에서 각종 농특산물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우리농산물 큰잔치' 거행.
18.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1995년 6월 27일 시행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안내 및 선거법설명회'를 가짐.
18.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성년식과 충효선양교육을 실시.
21. 구리시 장애인협회(회장 유병욱), 제2회 구리시 장애인 위안행사 개최.
24.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가짐.
26. 민자당 구리시지구당의 시장·도의원 후보자 추천대회 개최, 이 대회에서 구리시장 후보에 박영순 전 시장을, 도의원 후보에 1선거구 이홍량, 2선거구에 윤인식, 3선거구 김문식을 각각 추천
29. 주민들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문2동사무소 입구~토평동 간 1.5km에 무임승차 마을버스를 운행. '경기 동북부 민주시민운동실천협의회'가 부흥교통 측에 요청하여 성사됨.
30. 1,000여 명의 주민, 25년 전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건설 선형변경을 요구하며 농성.
31. 동구릉의 수릉과 구리문화원 전시실에서 제5회 시민백일장을 개최.
6. 1. 민주당 구리시지구당, 구리시장 후보에 나제민, 도의원 후보로는 박효녕(교문동·수택동), 전순복(수평동)을 공천.
 1. 망우시계~왕숙천시계 3.2km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1. 농협중앙회 구리지점, 은행업무 외에 지도·판매·구매 등 경제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지부로 승격.
 2. 제12회 회장배 카약카누 2인승 500m 여고부에서 구리여고가 2분 04초 02로 우승.
 5. 토평동 주민들,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반대 표명.
 7. 환경보호연합과 한국수도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왕숙천의 수질이 현저히 악화, 발암물질인 페놀과 시안 등 중금속과 맹독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됨.
 8.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도급업체인 (주)동산공영 소속 장비대여 및 자재납품업자 50여 명이 농수산물 건설현장을 점거한 채 밀린 장비 대여료 및 자재 납품대금 13억여 원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9. 제17대 구리라이온즈클럽 회장에 신항 취임.
14. 구리 지역 공선협, 구리상호신용금고 강당에서 시장 후보들(민자당 박영순, 민주당 나제민, 자민련 지홍우, 무소속 이무성)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가짐.
17. 내양국민학교에서 경기도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갈매, 동구, 인창동) 합동연설회 개최.
18. 인창국민학교에서 구리시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
19. 수택동 중앙체육공원에서 자유민주연합의 김문원 경기도지사 후보와 지홍우 구리시장 후보 정당합동연설회 개최.
20. 구리시, 새 청사 공사비 마련을 위해 현 시청부지 2,341m²를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
20.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구리시 명부등재 선거인수 9만 3,997명과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지수 1,763명 확정.
22. 구리여고 체육관 개관.
24. 구리 기초단체장선거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교문국민학교에서 2,0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
24. 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는 민자당 박영순 구리시장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 발송.
25. 수택동에서 민주당 정당연설회 개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 장경우 도시사 후보, 나제민 구리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참석.
26. 인창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43번 국도변 농지 1만 7,000여 평을 오는 1998년 말까지 소규모 택지지구로 개발할 계획.
27. 도시사, 구리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등 4대 선거 실시.
28. 구리시장에 무소속 이무성이 투표수 5만 6,815표 중 34.3%인 1만 9,073표를 얻어 당선 확정. 도의원에는 1선거구에서는 최덕구, 2선거구에서 박효녕, 3선거구에서는 김문식 당선. 시의원은 갈매동 안영기, 동구동 최만수, 인창동 김정신, 교문1동 김종수, 교문2동 고준선·김용호, 수택동 이상운·손명렬, 수평동 양태홍 등이 당선.
7. 1.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9대 시장이며 민선 초대 이무성 구리시장 취임식 거행.
11. 제2대 구리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장에 이상운 의원, 부의장에 최만수 의원이 각각 피선.
13.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자당 소속 박영순 전 시장은 구리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
19. 구리여고 강당 개관식 거행.

- 25.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 7. 27. 재단법인 한양대부속 구리병원(병원장 이정희) 개원, 교문동에 연면적 1만 1,000여 평에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로 총 500개의 병상과 20개의 진료과를 신설 운영.
- 29. 갈매동 357번지에 연건평 70평의 벽돌조 슬라브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갈매제1경로당 준공.
- 8. 1. 구리시,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기로 함.
- 5.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평지구 81만 8,000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공사를 오는 1997년 7월 착공하기로 결정.
- 10. 국도 47호선 주변 토지주들은 보상평가시 보상가가 실제거래가에 못 미친다며 구리시의회에 청원서 제출.
- 12. 갈매제3경로당 준공.
- 12. 구리시, 구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4회 가족합창대회를 개최.
- 12. 구리시, 총무국에 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지적과를 신설.
- 16. 철도청은 1999년 완공예정으로 청량리~회기~망우~구리~도농~덕소역을 잇는 17.7km 구간 복선전철사업 계획안 발표.
- 19. 구리시, 1999년 완공예정으로 하루 처리규모 2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
- 20. 8·15해방 50주년 기념 건강달리기 개최.

색 인

ㄱ

가부장제	49	경기육과	26
가족계획	157	경릉	220
가족보건계	129	경영기획계	129
가족다루기	238	경영정책실	129
간촌	261	경자유전	91
갈매동	7·11·1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79
갈매동 도당굿	241	계면떡	243
감사계	128	고구려	57
감사권	115	고국원왕	55
감오개혁	67	고려	60
감오농민전쟁	67	고려혁명군	78
감오승총	69	고리국	3
강성태	121	고분	194
강승구	121·122	고언백	64·269
강자현	113	고유지명	255
개경사	64	고이만년	58
개로왕	5·57	고인돌	51
개발국	127	고인류	47
개발제한구역	131	고장북	233
개발포화	150	고적금유물규칙	185
개인서비스업	151	고주내	6
거란	61	고준선	113
건고	233	고태현	113
건국동맹	83	곡장	199
건국준비위원회	83	곡저층적평야	22
건설과	128	근줄박이	43
건원릉	200	공공보건의료	156
건축과	128	공보계	129
검배	265	공설공원모지	161
검암산	258	공업기능	102
검암산인사집	271	공영개발계	129
검은댕기해오라기	41	공원·녹지	107
건훤	60	공원녹지공간	104
경기동북부시민운동실천협의회	178	공장이전촉진지역	131·153
경기변성암복합체	26	공주 석장리	47
		과일	145
		과전법	68
		관내도	5

관룡탑	197	구지	6 · 256
광개토왕비문	57	구포집	270
광무개혁	68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6
광복군	81	국가지정문화재	186
광주산맥	18	국가총동원법	80
교문1동	14 · 131	국민징용령	80
교문1지구	107	국세	134
교문2동	14 · 13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185
교문2지구	107	국토건설종합계획	104
교문교회	169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05
교문동	12	국토이용관리법	104
교문리병원	157	군국기무처	67
교문천	23	군사고문단	88
교방고	233	군사시설보호구역	131
교육	161	굿거리	248
교육법	161	국청진설도	241
교통	106	권중설	71
교통과	128	귀속토지	91
구남회	170	귀제비	42
구릉산	258	구역법	64 · 215
구릉지	21	근교농업	101
구리	7	근로보국대	80
구리교문중계	173	근초고왕	55
구리문화예술제	174	글밭고등학교	166
구리문화원	173	금강문화사	172
구리병원	157	기계화촉진법	143
구리사회복지관	160	기념물	186
구리서예원	170	기독교	167
구리소리샘합창단	170	기획감사실	128
구리소방서	129	기획계	128
구리시립도서관	174	김경선	113
구리시민극단	170	김구	84
구리시민장학회	166	김구	87
구리시여성합창단	170	김규식(노은)	71 · 78 · 279
구리시 의료보험조합	158	김규식(우사)	84
구리시 의사회	158	김덕진	113
구리시장	148	김문식	113 · 114
구리시 체육회	172	김문환	113
구리시 한의사회	158	김성일	206
구리음악	173	김수민	71
구리중계	173	김영선	123 · 124
구리중앙교회	169	김영현	113
구리통일교회	169	김용기	83
9월 총파업	86	김용배	92 · 113

대성암	167
대성암 쌀바위	251
대우공사출판사	172
대일전선통일동맹	80
대전협정	89
대통령선거인단	118
대통령중심제	118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구리시지회	159
대한독립군	78
대한민국	86
대한약사회 경기지부 구리시분회	158
덕고개	262
덕암사	167
도고	234
도농·금곡중생활권	105
도당	242
도라지	172
도래미	262
도로	101
도산통	28
도시계획법	105
도시과	128
도시기본계획	105
도시성격	105
도시재정비계획	105
도조제	70
도춘	260
돌섬	265
동경	61
동관진유적	47
동구동	14·39·131·261
동구문화제	174
동구어린이집	161
동부순복음교회	169
동사골	264
동산세	70
동성문화	172
동양척식주식회사	75
동의권	115
동창	64·261
동창교회	169
동창리	6
동현종합상가	149

두레물골	260
달기원	262
때까치	43

ㄹ

럭키종합상가	149
레크리에이션	170
류재천	125

ㄴ

마상고	234
마한	3·54
만취문집	273
망우리고개	258
망우리면	7
망주석	199
먹골배	145
먹골배아가씨 선발대회	174
멜로스고전기타합주단	170
옛비둘기	43
옛새	44
면목동 유적	48
면에 관한 규정	74
면적(구리시)	17
명도전	54
명문	172
명빈김씨 묘	223
명성기획	172
명성왕후	211
명주 심곡리	47
명촌잡록	271
모리아	172
모범작목반	144
모스크바 삼상회의	84
모자보건사업	157
목릉	206
목태신	113
몽고	61

몽촌토성	55	박흥진	113
무단통치	73	반상화강암	27
무문토기	50	반탁투쟁	84
무인석	199	발취개헌	120
무형문화재	186	방송	172
묵동리	7	방정환	280
문인석	199	방축리	7
문일평	280	배수펌프장	33
문종	203	배양동	7
문화계	129	배후습지	22
문화공보실	129	백교	263
문화재	185	백교리	6
문화재보호법	186	백교저수지	24
문화재보호조례	186	백교천	23
문화재위원회	186	백두대간	18
문화재자료	186	백제	54
문화통치	79	백제군	55
미누신스크	51	백중맞이 민요경창대회	174
미림	172	벌말	265
미보상가	149	범경문	271
미사리	50	범경문 묘	227
미성	172	범굴사불량권	196
미소공동위원회	85	범굴사지	195
미암	264	범더미	260
미음면	7	범데미	260
민방위과	127	법고	234
민속자료	186	법무계	128
		법정동	11 · 130
		베드타운	178
		베들고개	262
		변한	54
		별비곡면	64
		별비면	7
		병자록	270
		보건소	129
		보건행정계	129
		보루성	58 · 192
		보른하르트	20
		보현사	167
		보호수(구리시)	188
		봉헌리	7
		봉황동	7
		부산정치파동	120
		부정풀이	244

ㄴ

박경순	113	박흥진	113
박균석	239	반상화강암	27
박명근	123	반탁투쟁	84
박새	43	발취개헌	120
박영순	126	방송	172
박영효	67	방정환	280
박용준	113	방축리	7
박인조	113	배수펌프장	33
박장서	113	배양동	7
박정희	119	배후습지	22
박춘	262	백교	263
박효녕	114	백교리	6
		백교저수지	24
		백교천	23
		백두대간	18
		백제	54
		백제군	55
		백중맞이 민요경창대회	174
		벌말	265
		범경문	271
		범경문 묘	227
		범굴사불량권	196
		범굴사지	195
		범더미	260
		범데미	260
		법고	234
		법무계	128
		법정동	11 · 130
		베드타운	178
		베들고개	262
		변한	54
		별비곡면	64
		별비면	7
		병자록	270
		보건소	129
		보건행정계	129
		보루성	58 · 192
		보른하르트	20
		보현사	167
		보호수(구리시)	188
		봉헌리	7
		봉황동	7
		부산정치파동	120
		부정풀이	244

부족연맹체	50	상업	147
북로군정서	78	상업기능	102
북메우기	238	상원검은모루동굴	47
북통씩우기	238	상이군경회	160
북통짜기	238	상주통	29
북한산군	5	상해임시정부	80
분노처리장	129 · 178	상해임시정부	84
분업	49	새호리기	44
불곡산	6	셋강살리기운동	180
불교	166	셋다리저수지	24
붉은머리오목눈이	43	생계보호대상자	158
비내리	243	생활보호대상자	158
비닐하우스단지	102	서경	61
비료	143	서남맞이	245
비변사	64	서로군정서	78
빗살무늬토기	50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29
		서울화강암	27
		서일	78
		석간집	276
		석난간	199
		석도리	7
		석마	199
		선거권	115
		선조	206
		섬말	260
		성광고회	169
		성림스포츠허브센터	172
		세무과	126
		세종실록지리지	63
		소리고르기	239
		소선거구제	124
		소음	177
		소인극 경연대회	170
		속오군	64
		속지주의	150
		손명렬	113
		송석원시사	271
		송순	271
		송순 묘	230
		쇠떡다구리	43
		쇠백로	41
		수누피	265
		수눌	265
入			
사노동	11 · 260		
사노리	6		
사립학교규칙	73		
4·3사태	87		
사설학원	166		
사성	223		
4·19혁명	118		
사촌통	28		
사회복지과	127		
사회복지정책	156		
사회운동	178		
삭고	234		
산미증식개혁	79		
산성비	175		
산신당	242		
삼각통	28		
삼괴당집	273		
3·1운동	77		
삼총석탑	196		
삼한시귀감	276		
삼화주	242		
상리	7		
상수원보호구역	131		

양주도호부	6	요녕식 청동기	51
양주목	6	용고	234
양주부	6	우리마을	172
양지말	260	우미내	263
양태홍	113	우미천	23
양향둔	70	우미천리	6
어치	44	우신책군	5
언제말	261	응기굴포리	47
언촌	261	원릉	215
엘지축구장	172	위치(구리시)	17
여성생활체육강좌	171	유가	245
여운형	83·86	유신체제	119
여운홍	121	유아교육진흥법	162
여지도서	64	유아원	161
역둔토	69	유양리	6
역둔토 정리사업	69	유엔한국위원회	86
연교차(구리시)	30	유치원	161
연기우	71	유형문화재	186
연천전곡리	47	6·10민주항쟁	119
염창순민속악단	170	윤덕진	239
영고	234	윤보선	119
영도	234	윤인식	113
영조	215	윤태봉	113
영천집	272	윤희준무용단	170
예맥문화권	51	을미사판	69
예방의약계	129	응달말	260
예산계	128	의결권	115
오목눈이	43	의병운동	71
오색딱다구리	43	의사계	128
오세창	281	의열단	80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7	의원윤리강령	116
5·10총선거	120	의인왕후	207
오억령	273	의정부 병무지청	129
오익	273	의정부 보건지청	160
5·16쿠데타	113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129
5·18내란	119	의회사무과	128
오정위	274	이강덕	77·282
온달산성	55	이강익	113
온달샘석탑	197	이강호	113
왕건	60	이경규	84
왕산내	258	이교선	121
왕숙천	23·258	이덕창	84
왕숙천지킴이 범시민감시단	180	이동식	113
왜가리	42	이명덕	92

전영국	125	좌신책군	5
전용원	124	주거기능	102
전입인구	100	주거지	101
전제개혁	200	주거환경개선사업	108
전출인구	100	주요산업국유화	86
전홍린	113	줄복	235
절고	235	중국식 청동기	51
정각사	167	중대백로	42
정기원	275	중리	7
정기회	117	중백로	42
정락필	121	중선거구제	122
정수천	113	지가보상	94
정순왕후	216	지가증권	94
정신대	80	지구온난화	175
정여립	206	지방세	134
정윤복	113	지방자치법	112
정자각	199	지방자치제도	112
정전협정	90	지석영	283
정주일	125	지양주사	6
정중석	199	지역경제과	127
정치	112	지역이기주의	114
제비	42	지적과	128
제조업	152	지정문화재(구리시)	188
제주빌레못동굴	47	지주·소작관계	91
조리술	243	지흥우	113
조민수	200	직곡리	7
조병봉	113 · 123 · 124	직진법	68
조봉암	91 · 282	진고	233
조사권	115	진관면	7 · 64
조선	63	진동	177
조선교육령	73	진박새	43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84	진보당	283
조선면제	74	진주유통상가	149
조선민족전선연맹	80	진한	54
조선민족혁명당	80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85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80		
조선의용대	80		
조선총독부지방관제	73		
조세금납화	69		
조운홍	276		
조준	200		
조포	243		
좌고	235		

ㄸ

참새	44
창동	261
창말	261
채소	145
채유후	276

채유후 묘	230
책계왕	4
천주교	167
천주교 구리교회	167
청·일전쟁	67
청년운동	180
청동기	50
청동기유적(구리지역)	51
청산리전투	78
청소과	127
청송학교	166
청원수리권	116
체육계	129
총무과	126
총무국	126
최규하	119
최덕구	113
최린	84
최만수	113
최영	200
최춘말	261
최태식	113
최흥수	113
최흥식	113
축산업	154
축산폐수	155
충훈돈	70
취락구조개선사업	108
치안유지법	80
7·29선거	121

ㅋ

큰밀화부리	42
큰빛	172

ㄷ

타조제	70
탕평책	215

태조	200
택지개발예정지구	107
토기	48
토막리	6
토양오염	177
토지개혁	86
토지구획정리사업	107
토지이용	106
토지조사령	74
토지조사사업	74
토평동	13·264
토평조기축구회	171
통일주체국민회의	118
퇴계원·진접중생활권	105
퇴계원리	7
특별회계	133
특용작물	146

표

판위	199
패하	4
평구역토	70
평내중생활권	105
평양성	4
평촌리	6
평화통일전략	87
폐기물적환장	178
풍납토성	55
풍양	172
풍양신문	172

ㅎ

하남위례성	55
하리	7
하북위례성	55
하상훈	121
하수종말처리사업소	129
하수처리장	129

학교교육	163	홍범도	78
학사	172	홍실문	199
한교	263	홍상	277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80	홍상 묘	226
한국국민당	80	홍상 신도비	227
한국독립당	80	홍성원	125
한국문인협회 구리지부	169	홍응	277
한국석유개발공사		홍응 묘	226
제2비축관리사무소	129	홍응 신도비	22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	158	홍익인간	161
한남정맥	20	화인기획	172
한다리	263	환경	174
한북정맥	19	환경보호과	127
한세권	125	환경사업소	129 · 178
한아울보컬그룹	170	환경영향평가	35
한양대부속 구리병원	157	한국분류법	216
한양부	6	황윤길	206
한용운	284	황조롱이	42
한인애국단	80	회계과	127
한미원조	90	회사령	73
항양	5	효빈김씨 묘	231
해누리민주청년회	180	효정왕후	222
해등촌면	64	효현왕후	222
해인출판사	172	후삼국시대	60
행정	112	훈련도감	64
행정동	11	취릉	209
행정동	130	홍선대원군	218
향시	148	흰뺨검둥오리	42
향호	61		
허위	71		
현종	220		
헤이그 밀사사건	68		
현덕왕후	204		
현릉	203		
현인근	113		
현종	211		
현천묵	78		
현천업	92		
혜릉	213		
호상편마암	27		
호석	199		
호암전집	280		
호주집	277		
혼유석	199		

편집후기

올해로 시 승격 10년을 맞이한 구리는 시 곳곳 어느 곳에서나 발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신흥도시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차산과 동구릉 등 역사의 현장과 그 숨결이 남아 있는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구리시지』의 편찬은 구리의 역사적 전통과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구리시지』는 과거와 현재의 구리를 충실히 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용도 다양하고 분량도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대한 양의 시지는 한정보로 발간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힘듭니다. 또한 전문학술적인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이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구리시지』 상·하권 축소 별책을 기획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산물이 본책 『구리의 역사와 문화』입니다. 『구리의 역사와 문화』는 우선 내용적으로 『구리시지』를 토대로 목차를 축약·재구성하였고, 평이한 어휘로 새롭게 재편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초 구상은 『구리시지』 상·하권을 단순히 축소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충실한 향토사 입문서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 평이하면서도 계몽적인 향토사 지침서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구리의 역사와 문화』는 비록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꾸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취지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얼마나 채워졌는가의 문제는 책을 읽는 이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요약한 수준에 머물거나 친절한 보충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이책을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리의 역사와 문화』는 『구리시지』 작업과 병행,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신 문화원의 김응주 이사를 비롯하여 시지 편찬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 동안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구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비를 시지편찬실에 문의해 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집진의 입장에서는 일반시민들과 배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책을 자주 접하면서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이책의 효용성은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통해서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리시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6년 4월

상임위원 이 달 호

정 희 경

이 승 역

집필진

이달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주 혁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협성대 강사

이승역 구리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정희경 구리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구리의 역사와 문화

발행일 · 1996년 4월 30일

발행처 · 구리시

편집디자인 · 큰기획 (02) 268-6832

전산사식 · 새김 (02) 277-9390

사진제판 · 삼흥문화 (02) 265-7871

인쇄제작 · 현대인쇄 (02) 737-5919

구리의 역사와 문화

